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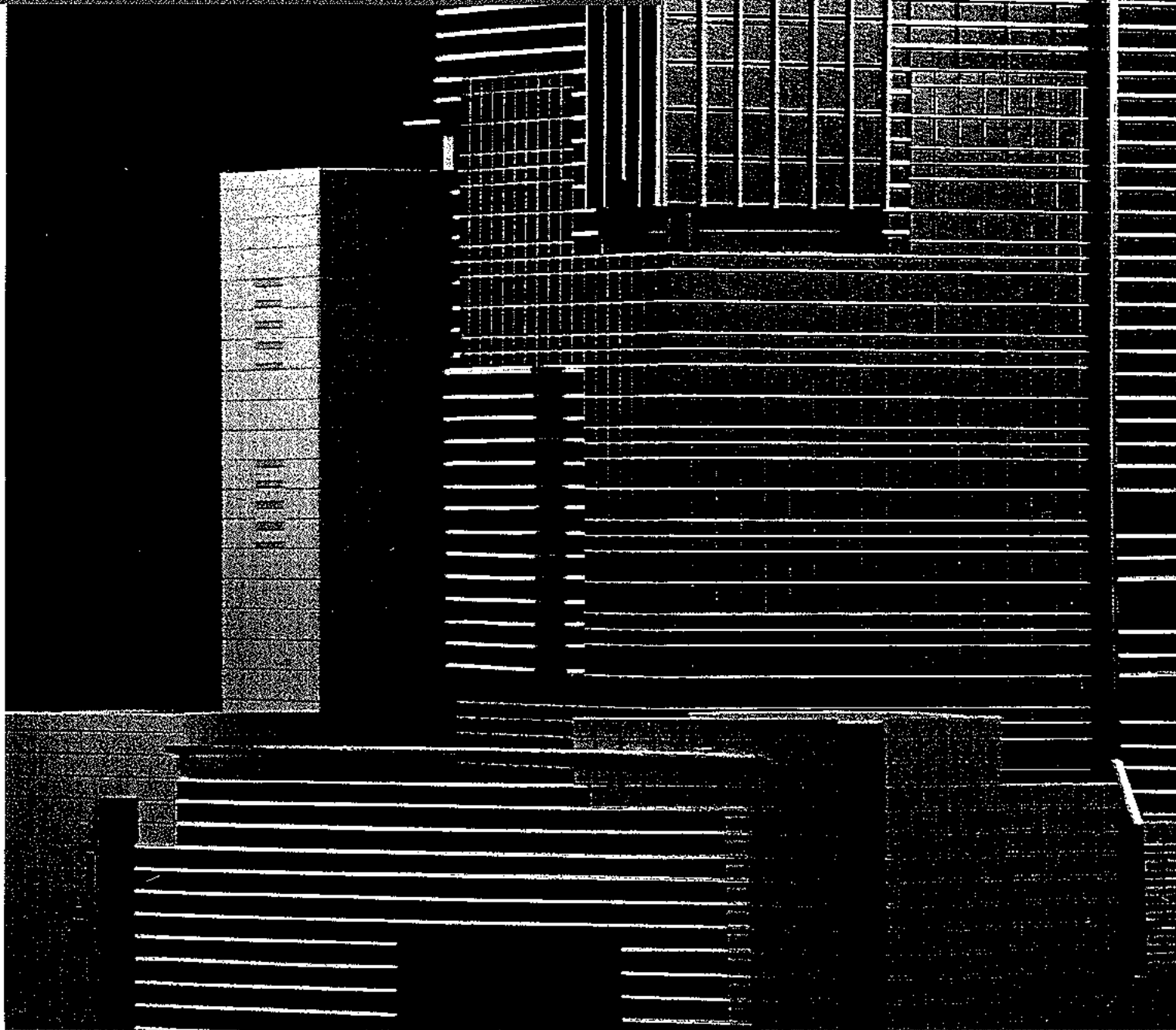
1998 04 vol. 348

칼럼 실용과 주체

작품리뷰 씨네플러스

테마기획 지역건축탐방지 - 부산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개관 - 김인호(1)



시민건축대학 강좌

1998년 강좌(제7기)

기간

1998년 4월 20일 ▶ 6월 8일(매주 월요일)

장소

대한건축사협회 강당

대상

일반시민 학생 주부(선착순 400명)

수강료

이름 : _____

일 자	강 좌	시 간	강 좌 내 용
4월 20일	개강		임교식
	1강좌	13:30-15:00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
4월 27일	2강좌	15:15-16:45	풍수지리(양택론)
	3강좌	13:30-15:00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
5월 4일	4강좌	15:15-16:45	건축행정
	5강좌	13:30-15:00	건축설계의 이해
5월 11일	6강좌	15:15-16:45	통나무 건축
	7강좌	13:30-16:45	한국의 전통건축(고궁답사)
5월 18일	8강좌	13:30-15:00	건축물의 안전관리
	9강좌	15:15-16:45	주택의 시공 및 재료
5월 25일	10강좌	13:30-15:00	주거론
	11강좌	15:15-16:45	스틸하우스
6월 1일	12강좌	13:30-15:00	재개발 및 재건축
	13강좌	15:15-16:45	건축구조의 이해
6월 8일	14강좌	13:30-15:00	건축허가에서 사용검사까지 총마감
		15:15	수료식

※ 강좌일시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연락처: 02-581-5715/8

주최 :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신기술 혁신으로 안전을 생각합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
필

실용신안등록 제076984호
PUMA상표등록 제281348호
일본국(출) 평성4년 3718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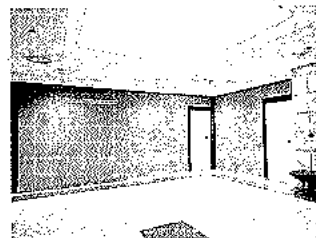
“푸마방화셔터는 별도 방화문이 필요 없습니다.”

?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래의 방화문, 방화셔터의 2중
구조를 하나의 방화셔터 시스템
으로 통합했습니다.

경제성 절대만족, 안전성, 편의성
충족만족 시키며 세계최초로
방화셔터를 “푸마”의 신기술로
완성시켰습니다.



푸마 방화 셔터만이 당신에게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푸마셔터 설치업체

- 미도파 상계점
-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 롯데쇼핑 본점 청량리점
- 대구 동아쇼핑
- 신세계 영동점
- 경방빌 프라자
- 부산 리베라 쇼핑
- 명동 SS패션매장
- 대한투자신탁사옥
- 제일은행 구본점
- 하이아트호텔
- 조선호텔
- 위커텔호텔
- 속초아남하이츠
- 세브란스빌딩
- 영도 구청사
- 이주대 부속병원
- 제주중앙병원
- 보령제약사옥
- 중앙대학교
- 이화여대
- 외 100여 업체 서공

세계전시회 출품

- '93 동경 GOLD LIVING SHOW
- '93 서울 국제건축건설전
- '94 경향 하우징페어

- 푸마 방화셔터 국내 총판
- 전문건설업·창호·철물면허보유
- 국내유일 설계·제작·설치업체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東樂産業株式会社

본 사 : 서울特別市 九老區 九老3동 154-7

TEL : 838-4545(代)

FAX : 838-0474

공 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공단 156-14 B/L

제조원 : **아 주 셔 터 공 사**

대한민국정부

관공는 공문서로서 표적용 지한다.

기	국	관	공
관	공	관	공



제13160호 1895. 11. 10. (금)

공문서작성

제13160호 1895. 11. 10. (금)

공문서작성

제13160호 1895. 11. 10. (금)

공문서작성

제13160호 1895. 11. 10. (금)

공문서작성

제13160호 1895. 11. 10. (금)

공문서작성

제13160호 1895. 11. 10. (금)

공문서작성

제13160호 1895. 11. 10. (금)

공문서작성

제13160호 1895. 11. 10. (금)

공문서작성

제13160호 1895. 11. 10. (금)

공문서작성

제13160호 1895. 11. 10. (금)

이제부터 정부시설공사 선정 프로그램인 EMS- 1234로

- 내역작성을하여 발주처에 디스켓으로 제출하셔야합니다.
- 수많은 발주처, 설계사무소, 시공회사들이 EMS- 1234와 R.C, K-FIN를 찾는 이유를 아십니까?

고려전산이 견적/적산 프로그램의 표준화와 전산내역 입찰시대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 아프터 서비스

- 분기별로 일위대가와 지재코드 단가 관리를 해드립니다.
- 지속적인 Up-Grade
- 철저한 교육(매주 정기 교육 실시)
- 지속적인 사후관리

● 적용분야

- 설계사무소, 감리사무소, 적산용역사무소, 관공서, 시공회사, 교육용

적산용역 업무문의
☎ (02)278-9095

본 사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59-5 현우빌딩 4층
TEL : (02) 529-6071~4
FAX : (02) 529-6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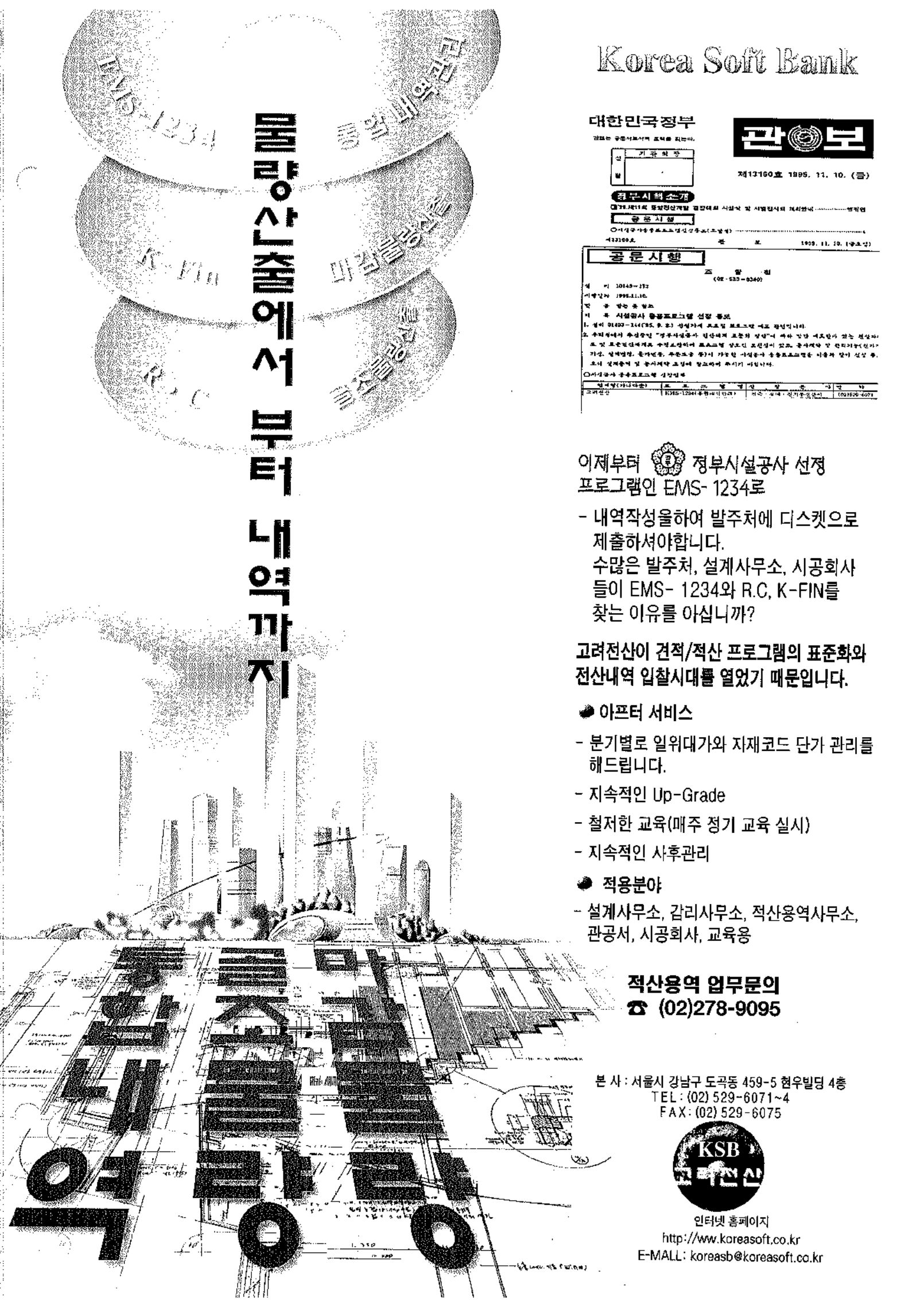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soft.co.kr>

E-MAIL: koreasb@koreasoft.co.kr

물량산출에서부터
내역까지



창문으로 새어나가는 달러 해강 수퍼사시가 막아드립니다



에너지 절약형 독일식 시스템 창호 해강 수퍼사시는 다년간의 연구와 노력 끝에 국내최초로 100% 국산화를 실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시스템 창호를 최고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 여러분께 한발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다격실 구조와 밀폐성 높은 EPDM 가스켓, 복층유리를 사용하는 해강 수퍼사시는 단열, 방음효과가 탁월하며 윙열기 개폐방식의 도입으로 공기의 자연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과학적인 환기방식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연구개발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설 것을 약속 드립니다.

해강 수퍼사시 구입 및 문의처

■서울 사무소 및 전시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2 남경빌딩 2층 TEL: (02)548-4041(대) · FAX: (02)543-3647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면 지산리 236번지 TEL: (0417)557-9687 · FAX: (0417)557-9689

■부산: (051)501-9006

■강남: (02)3442-0657

■강북: (02)264-5506

■대구: (053)551-1770

■송파: (02)3401-8262

■인천: (032)431-6732

■의정부: (0351)877-3808

■안성: (0333)656-7504

■천안: (0417)575-8196

■대전: (042)485-2071

■강동: (02)474-1661

■라인: (02)552-3530

■마산: (0551)51-0011

■제주: (064)48-4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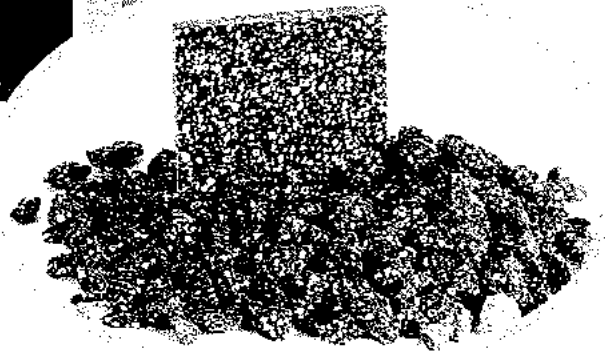
■성북: (02)914-3666

황토방



磁玉山 황토방

맥반석을 첨가합니다.
피부를 곱게합니다.
건강에 좋습니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17년 전통 자옥산 맥반석



자석에 붙은 자옥석

磁玉山 건강 온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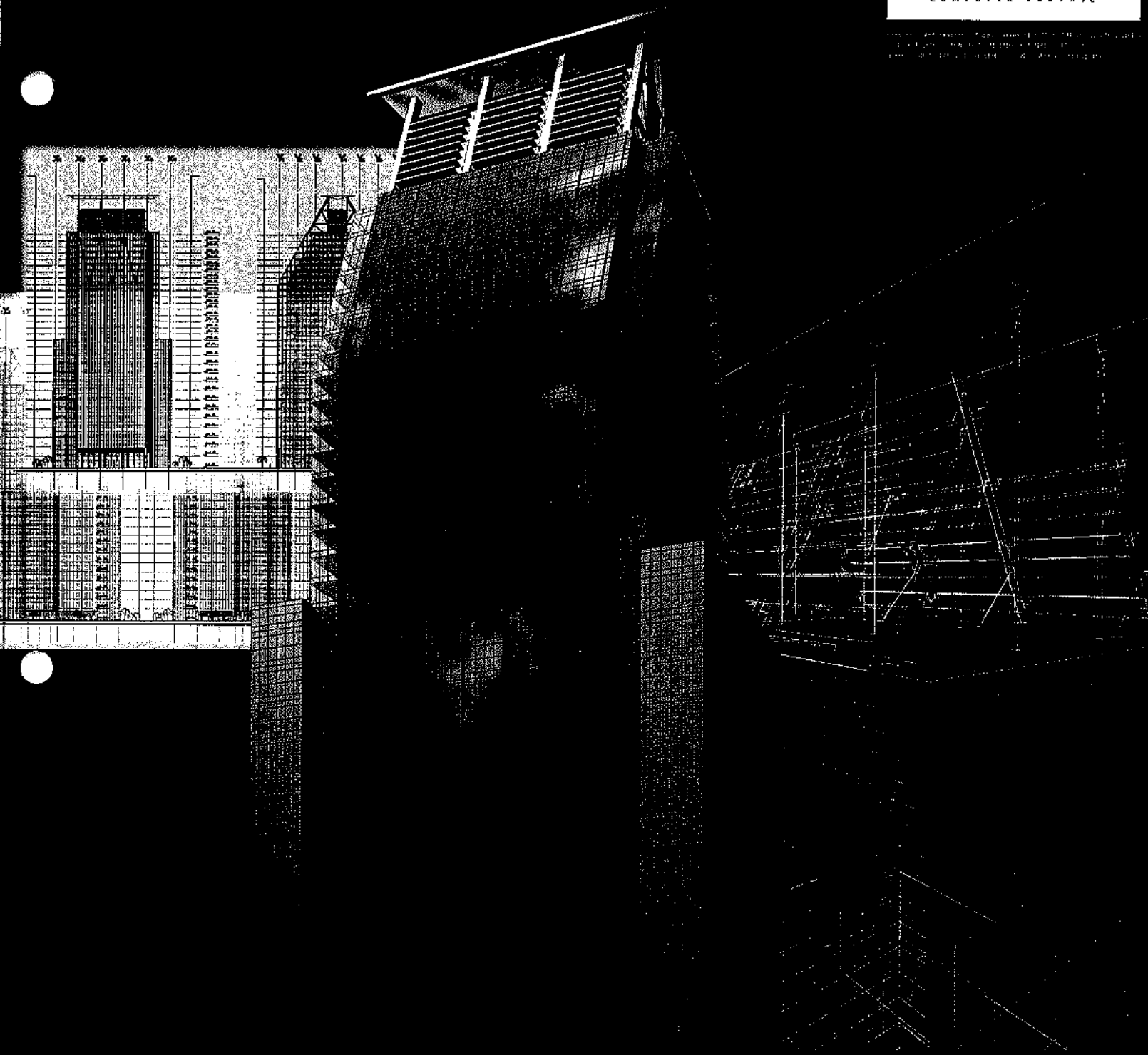
자석에 붙습니다.
수맥을 차단합니다.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수면시간이 단축됩니다.
건강에 최고입니다.



자옥산 세라믹스

경북 예천군 호명면 원곡리 산 3-1 TEL : (0584) 52-8830, FAX : (0584) 52-8832, H. P : 011-533-8830

- 
- PASNET**
COMPUTER GRAPHIC



(주) 건원건축 직주출 (공병주상복합빌딩)

Presentation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시 되는 지금,
저희 PASNET을 더 많은 기층 개발로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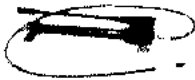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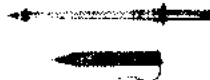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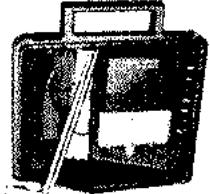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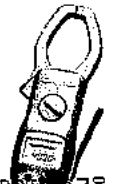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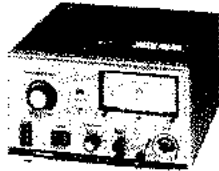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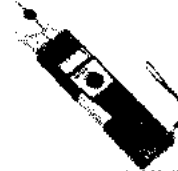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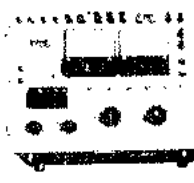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센터 3502호
TEL : 02-563-6021(대) 02-551-8383
FAX : 02-556-0021

세계를 무대로 대표할 만한 3D Computer Graphics Company를
목표로 오늘도 저희는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계측기 및 전설공구

MULTI 누설전류계로 절연저항 비교측정, 누전사고예방, 10,000V 절연저항계 KYORITSU

전기감리 · 소방감리 장비 판매중

 누설전류계 M-1000 φ 40 m/m 0.01mA ~ 1.000A 누전사고예방	 유압식 단자 압착기 9H-150(14" ~ 150")	 전선압착기(유압식) EP 430(Y-35)	 유압식 철판공기 SH-10(2" 3" 4")	 특고압 COS조작봉 3단4M 5단6M	 접지저항계 디지털 41050 ~ 2000 Ω
 누설전류계 M-1000 φ 80 m/m 0.01mA ~ 1.000A 누전사고예방	 유압 압착기 12호 A (14" ~ 325")	 유압 수동 펌프 HP 700A	 특고저압검전기		 접지저항계 41020-1,000 Ω
 COS MOS 가스 측정기 LNG LPG x P 702SA	 DIGITAL 소음계(1350) 35-130db	 비접촉식 온도계 ST-2P-18-400°C ST-6L-20-500°C	 비접촉식 온도계 PM 30L-18-870°C R31L RL 3U-30° ~ 1200°C		 메터 2007 600A 750V 2002 1000A 750V
 절연저항계 3213A 500V 1,000M 1,000V 2,000	 DIGITAL 크론 메터 234301 650V 1,000A	 접지저항계 3235	 다기능계측기 MET500		 절연저항계 3165 500V 1,000M 3166 1,000V ~ 2,000M
 005 Aims 레온 가스 측정기 R134a R22 R12	 절연장갑	 50,000V 내전압시험기	 후크온식 접지저항계		 절연저항계(3123) 10,000V
 DC Hydrot tester 60kV 5mA	 절연유산가 측정기(HD 101)	 절연유 시험기(HDSS)	 계전기 시험기(8510)	 접지공구	 온도기록계 SR 1,000 UR 1,000 UR 1,800

취급회사제품



KYORITSU KIKUSUI 내전압 시험기
MULTI 누설전류계 MUSASH O.T 테스트
IZUMI 압착기 HIOKI 계측기

국산

메가 흑크메타 아쓰테스타 소방장비 차압계

YOKOGAWA 기록계

내전압 시험기 제작전문

현대전기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99-1

TEL : (02) 279-0427, 278-3944

FAX : (02) 273-87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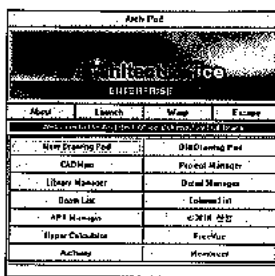
한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NEW

CIMCAD '98

국내 최초, 최적의 윈도우용 건축설계 자동화 프로그램

국내 건축시장의 **新** 기술을 선도합니다



국내 건축설계 시장에서 가장 먼저 윈도우즈 버전을 발표
언제나 한발 앞선 기술력과 창의력으로

국내 건축 설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씨.아이.엠(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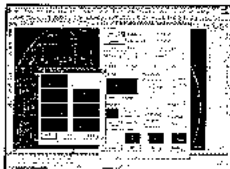
이번에도 업계 최초로 AutoCAD R.14를 위한 차세대 개발언어인
ObjectARX를 사용, 더욱 새롭고 향상된 기능의 CIMCAD '98을
선보입니다.

CIMCAD'98의 향상된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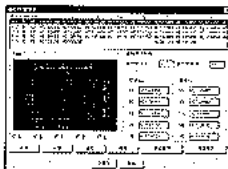
- AutoCAD R13, R14지원 (Windows95, Windows NT 지원).
- ObjectARX로 개발된 빠른 명령어.
- 편리한 설치 및 사용하기 쉬운 도면 초기화 설정 기능.
- 사용자 정의의 도면요소 설정 및 관리기능.
- 쉽고 체계적인 Menu구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면작업 가능.
- 사용자 정의의 단축키 편집기능으로 다양한 명령어 활용.
- 기초일람표 및 슬라브 일람표 등의 손쉬운 구조 도면 작성.
- 1500여 개의 Library, Detail 제공 및 관리 기능.
- 자동단면 생성 기능.
- 도면관리 기능 내장으로 다양하고 빠른 파일검색.
- Architect Office와의 데이터 베이스연계로 확장된 기능 사용 가능.

공동주택 설계를 위한
“MC(안목치수)
설계기준” 지원

강력한 설계 기능
(Wall, Door, Window, Stair, ...)



구조 도면 작성
(보, 기둥, 슬라브, 기초, 일람표)



자동 실내재료 마감표



Detail Manager/Library Manager



GM 한국씨.아이.엠(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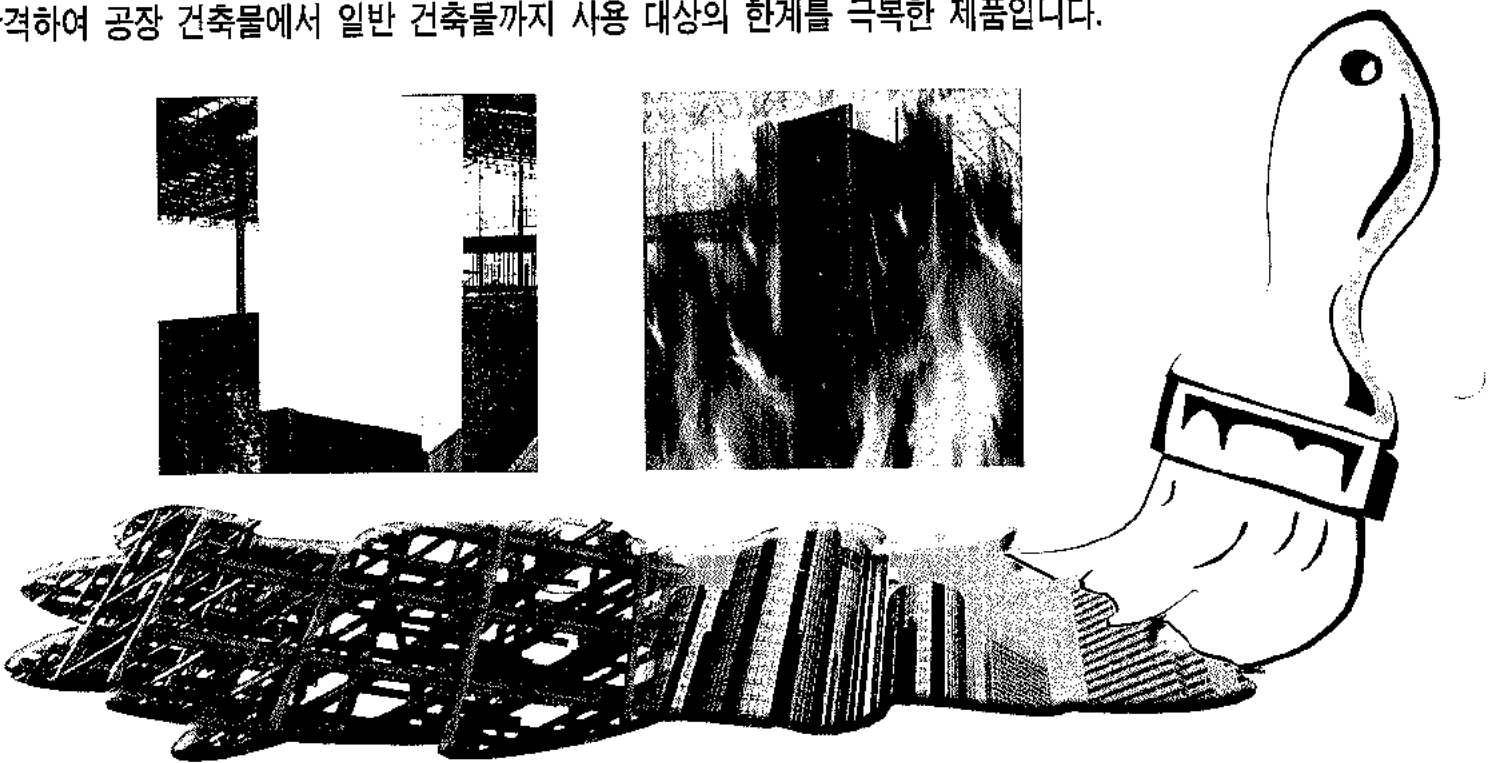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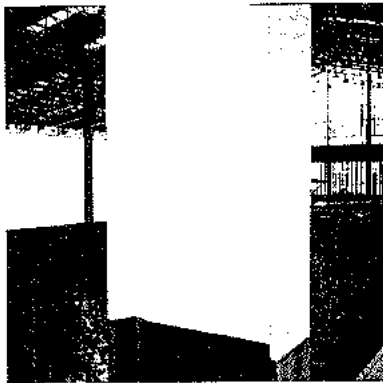
본 사 : 강남구 논현동 192-22 근동빌딩 3층
TEL. 515-3167(대표) FAX 515-3169
고객지원부 : TEL 512-2682~3

침단 철골내화 페인트

FIRE CONTROL 국립건설시험소 고시 제 1996-33호

공장 건축물에서 일반 건축물까지 ...

취급, 보관, 시공, 화재등 어떠한 단계에서도 냄새, 분진, 가스등의 유해 위험요소가 전혀 없는 청정내화재 FIRE CONTROL은 페인트 타입으로는 국내 최초로 일반 건축물용 시험에 합격하여 공장 건축물에서 일반 건축물까지 사용 대상의 한계를 극복한 제품입니다.



용도

철골 구조의 건축물 / 철골 구조의 공장 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창고 물류센터 / 근린 생활시설 / 발전소 선박, 플랜트, 산업시설

특성

- 자체 독성이 전혀 없는 무해 재료이다.
- 화재시 유독한 연기를 방출하는 기존의 제품과 달리 발포성형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완전 불연재이다.
- 시공시 페인트 타입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안전상 문제점이 전혀없다.
- 시공후 깨끗하고 미려한 외관을 유지하며 자체강도, 부착강도가 강하여 변형, 변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성능

	대 상	내화시간	사용부위	도막두께
내 화 구 조 지 정	일반건축물 공장(2층이상) 창고, 물류센터 등	1시간	철골 (기둥,보)	하도:0.05mm 중도:2.95mm 상도:3.20mm
	공장(1층,중2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1시간	철골 (기둥,보)	하도:0.05mm 중도:1.95mm 상도:2.2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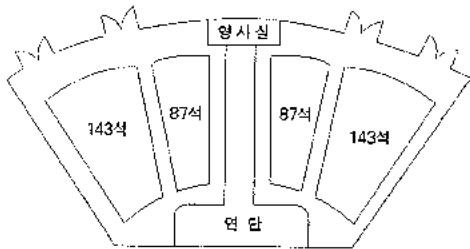
FIRE CONTROL은

건축법 제2조 제7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화성능을 갖춘것"으로써 내화구조 의무화 건축물의 준공검사시 필수적인 내화성능도료입니다.

H 하이템주식회사
HITEM CO., LTD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92-4
남성 B/D 4F
TEL:(02)535-7230(대) · FAX:(02)535-6503
공장: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목리 861
TEL:(0335)33-6074~5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대관안내



대강당(460석)

대강당

- 기업 및 단체의 정기총회/세미나/강연회/교육·연수 등 대규모 회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면적 : 143평(계단식)
- 수용인원 : 460(좌석수)
- 부대시설 : 녹음/음악/영상실/무대/무대영상막/흑판/OHP/VPM/SP

회의실 임대료 및 기자재 사용료 기준

1. 회의실 임대료

(단위 : 원, VAT별도)

구분	좌석수	임 대 료	
		기본요금(3시간)	초과시간(시간당)
대강당	460석	330,000	66,000

- 사용시간 : 하절기(3월~10월)/09:00~18:00, 동절기(11월~2월)/09:00~17:00

* 회원 및 관련단체와 장기사용(년10회 이상)의 경우 상기금액의 30% 할인.

2. 기자재 사용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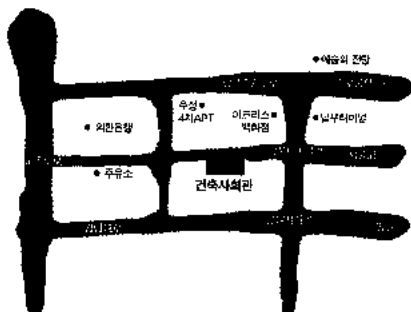
(단위 : 원, VAT별도)

장 비 명	사 용 료(1일 1회 기준)
비디오	30,000
OHP(오버헤드 프로젝트)	20,000
VPM(비디오 프로젝션모니터)	100,000(비디오 포함)
S/P(슬라이드 프로젝트)	20,000

3.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시 예약금으로 임대료의 10% 이상을 납부
- 현수막 규격
 - 대강당 : (가로) 900cm X (세로) 90cm

약도



대관 문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건축사회관 대한건축사협회 총무부
상담·예약실(전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동쪽방향 150m 좌측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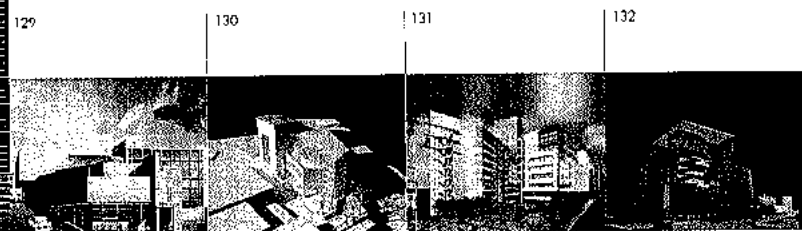
TEX : 581-5711~4

FAX : 586-8823 / 585-4958

차례 1998 04 348호



씨네플러스(김낙중작)



발행인: 김영수
 편집기획: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방철린(위원장), 송효성(부위원장)
 동정근, 심영섭, 양남철
 편집·취재: 정호상, 조한국, 윤태일, 진현경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10월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5-4958, 586-8823
 U. D. C: 69/72(054-2): 0612(519)
 인쇄인: 이봉수/정문사 (02)266-4555

Publisher: Kim Young-Soo
 Editor: Editorial Committee
 Editorial Member: Bang Chul-Lin, Seung Hchiah-Sang, Dong Jung-Geun,
 Shim Young-Sub, Yang Nam-Chul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5-4958, 586-8823
 U. D. C: 69/72(054-2): 0612(519)
 Printer: Lee Bong-Sook(Cheong Moon Printing Co.)

칼럼	실용과 주체	김성우	16
작품리뷰 / 씨네플러스		김낙중	18
	대담: 도시속의 표정있는 건물	박항섭	30
	비평: 극장갈지 않은 극장	이재훈	38
작품노트	장성 K화백의 집	강남구	43
회원작품	관음재	서용근	46
	곤지암주택	김석환	50
	일산 마두 949	송광설	54
	레고 코리아 이천사옥 및 공장	김광성 + 쏘렌	57
	진천 배티성당	조구현	60
	택견전수관과 우묵당	최성규	64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 ⑫ - 김인호(1)	박정우	68
테마기획 / 지역건축탐방 ④ : 부산			
	부산의 풍토, 부산문화, 부산사람	이왕주	74
	부산을 바라보는 한 시선	강 혁	79
	부산건축의 어제와 오늘	우동주	85
	부산건축을 위한 네가지 제언	이중건	88
	좌담: 부산성, 어디서 찾을 것인가		92
특별기고	일본의 건축계를 알자	김기철 · 이관영	100
기고	공동체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	천상현	106
건축마당	협회소식		115
	건축계소식		122
	현상설계		127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134
	신입회원		136

Column

Pragmatism and Identity	Kim Sung-Woo	16
-------------------------	--------------	----

Review / Cineplus

Kim Nak-Jung	18
--------------	----

Interview Idiosyncratic, Distinctive Building

Within the City

Park Hang-Sup	30
---------------	----

Critique The Theater, Not Looked Like a Theater

Lee Jae-Hoon	38
--------------	----

Design Note

Artist K's Residence	Kang Nam-Gu	43
----------------------	-------------	----

Works

Kwan Eum Jae	Seo Yong-Keun	46
Konjam Residence	Kim Suk-Hwan	50
Ilsan Madu 949	Song Kwang-Sup	54
Lego Korea Co. Ichon Office	Kim Kwang-Sung & Soren	57
Jincheon Baety Presbyterian Church	Cho Goo-Hyun	60
Taekyon Gymnasium & Urok-Dang	Choi Sung-Kyu	64

Serial

Korean Architect, Kim In-Ho(1)	Park Jung-Woo	68
--------------------------------	---------------	----

Theme Study /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4]: Pusan

The Tradition, Culture and People in the City of Pusan	Lee Wang-Ju	74
An Opinion on Pusan	Kang Hyuck	79
The Past and Present of the Architecture of Pusan		
-Its Regionalism Continuity	Woo Dong-Ju	85
Four Propositions on Pusan	Lee Jong-Keon	88
Conversation: Where Can We Find The Character of Pusan?		92

Feature

To Know the Architectural World of Japan	Kim Ki-Chul & Lee Kwan-Young	100
Urbanism vs. New Urbanism	Chun Sang-Hyun	106

Architects' Plaza

KIRA News	115
Archi-net	122
Competition	127
Statistics	134
New Members	136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당일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02)71-3071 · 강동구건축사회/(02)694-6940 · 강북구건축사회/(02)3425-3425 · 강서구건축사회/(02)4-7158 · 관악구건축사회/(02)894-0046 · 광진구건축사회/(02)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02)852-2215 · 노원구건축사회/(02)333-8076 · 동대문구건축사회/(02)3-6213 · 동작구건축사회/(02)15-3026 · 마포구건축사회/(02)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02)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02)552-8466 · 성북구건축사회/(02)2-5117 · 송파구건축사회/(02)33-3158 · 양천구건축사회/(02)553-2892 · 영등포구건축사회/(02)2-2143 · 용산구건축사회/(02)717-8607 · 은평구건축사회/(02)389-1486 · 종로구건축사회/(02)735-0905 · 중구건축사회/(02)31-0746 · 중랑구건축사회/(02)437-7356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5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74-8836 · 66-5551 · 7930
- 경기도건축사회/(031)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44)83-8902 · 광명지역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46)63-7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8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42)73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41-798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269-4121 · 안산지역건축사회/(0345)83-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43)49-2999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95)876-0458 · 천지역건축사회/(0336)635-0545 · 포항지역건축사회/(033)857-6149 · 오산지역건축사회/(0339)375-6649 · 용인지역건축사회/(0335)36-0140
- 강원도건축사회/(0361)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61)635-7371 · 삼척지역건축사회/(0394)31-81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92)33-5081 · 영월지역건축사회/(0373)374-28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43-723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1)223-3084~6
- 옥천지역건축사회/(0475)32-5752 · 지천지역건축사회/(0443)43-6253 · 충주지역건축사회/(0441)347-3082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 공주지역건축사회/(0416)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92)34-3367 · 부여지역건축사회/(0463)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45)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7)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541)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52)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54)452-3810 · 남원지역건축사회/(0671)33-2000 · 익산지역건축사회/(0653)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8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31)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3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32)33-2000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71 · 경주지역건축사회/(053)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6)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7)32-6886 · 문경지역건축사회/(0551)53-6677 · 상주지역건축사회/(0562)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71)57-7464 · 영주지역건축사회/(0572)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636)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5)974-73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62)44-63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1)46-4530~1
- 거창지역건축사회/(0558)635-3432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2)35-5992 · 밀양지역건축사회/(0527)355-1323 · 산청지역건축사회/(0553)33-9779 · 양산지역건축사회/(0523)84-3050 · 울산지역건축사회/(0522)74-8636 · 진주지역건축사회/(0551)745-0403 · 창원지역건축사회/(0557)345-7420
- 제주도건축사회/(064)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62-2233

실용과 주체

Pragmatism and Identity

김성우 / 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Kim Sung-Woo

어느 설계사무소 소장의 이야기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으려고 하는 건물은 현재 현상설계로 나온 몇 개의 건물 뿐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무실을 단기가 쉽나요? 달을 수 없으니 현상에 떨어질까라 생각하면서도 또 해보는 겁니다. 또 빵이 나오겠지만 안할 수가 없어요. 금년에 우리나라 설계사무소는 아마 80%정도는 문닫을 겁니다. 설계사무소하다가 문닫으면 연금이 있나요, 보험이 있나요. 그냥 거지되는 겁니다. 나 뿐인가요, 우리 사무소 직원들과 그 가족을 생각하면 차마 해고를 못하겠어요. 아마 몇년 사이에 건축계 사람들의 상당수가 거지가 되고 나면 우리나라 건축은 틀림없이 공백이 생길 겁니다. 임진난 이후 사람들이 집지를 여유가 없으니까 목수, 기와공 등 기술자들이 일이 없어 전직하고 임진난 전까지 이어져 왔던 양식이나 기술이 전수되지 않아 임진난 전후 건축양식이 달라지듯이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건축계도 전문성의 단절이 생길 겁니다. 나라가 건축경기를 빨리 일으켜야 돼요. 건축경기가 살아야 다른 모든 것이 삽니다. 그런데 왜 토목공사는 일으키면서 건축경기는 죽게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가다간 밥 못 먹는 사람들이 또 한 번 광주사태 같은 것 일으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나이 오십줄 넘어서 이제 건축 좀 알만하고 좀 제대로 할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이렇게 되니 앞으로의 내 인생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합니다. 사무실 문 안달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보면 결국 그나마 있던 자산 다 탕진할테고 나는 정말로 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게 눈에 보여도 그래도 어떻게 좀 해보고 싶어서 현상설계공모만 나오면 또 한 번 덤벼보게 됩니다. 나같은 사람이 어디 하나 둘이겠어요. 어느 현상설계 발주 낸 관공서는 지침서를 100개 만들어 놓았는데 200명이 몰려와서 할 수 없이 주소만 쓰게 하고 우편으로 보내줬다고 하고 그냥 돌려보냈대요. 제발 좀 여기 저기 얘기해서 건축경기 좀 살려놓으라고 하세요. 이 정부가 아직 될 몰라서 토목공사 가지고는 경기부양이 안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원시사회나 열대밀림지역 같으면 나가서 과일 따 먹고 시냇물 먹고라도 살겠지만 여기야 전기세, 수도세, 자동차 유지비, 애들 학비하며 나가는 것은 예전과 똑같이 나가는데 들어오는 수입만 딱 끊어지는 겁니다. 거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빚쟁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빚을 얻으려 한들 누가 돈 빌려주나요. 그냥 굶게 되는 겁니다. 요새는 술을 먹어도 스트레스가 안풀려요..."

이러한 얘기가 어디 한사람의 설계사무소 소장만의 이야기이겠는가? 설계사무소 사람들 전부 다의 이야기이다. 이러한 얘기가 어디 건축설계사무소 사람들만의 이야기이겠는가? 건설계 전부의 이야기일 것이다. 아니 한국 산업계 전체의 이야기이고 사실인즉 한국인 전체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이야기이다. 지금 현재는 먹고 살 것이 있어도 몇 달앞의 상황이 불투명한 사람들 모두의 이야기이고 또 앞으로 몇년 또는 평생 먹고 살 것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도 자기만 먹고살고 온나라가 굶주리는 것이 배부른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지금 우리는 그 끝모르는 수렁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이나 어느 정치가가 1년 또는 2년만 건디면 된다고 하는 말을 액면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또 믿은들 내가 거지가 된 다음에 경기가 호전된들 나보고 무엇을 어찌란 말인가. 지금 우리는 이픔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을 뿐이다. 얼마나 언제까지나 더 아프게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우리의 과제는 '먹고살기' 이고 '살아남기' 이다. 건축의 양식과 가치와 이념과 어찌구 저찌구보다는

‘먹고살기’이고 ‘살아남기’이다.

IMF는 위기인가 기회인가? 물론 두가지 모두이다. 위기인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해당되어 버린 얘기이다. 그러나 도약의 기회가 될지 안될지는 아직 모른다. 기회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국가부도는 이미 난 상태이되 완전히 부도나면 채권자가 빌려준 돈 못받을까봐 적당히 목숨을 유지시켜 주는 정도의 상황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IMF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면 우리는 배고프고 마음 아플 때 한쪽 구석으로 칼을 갈아야 한다. 처절한 어려움과 고통으로 남의 눈에 비쳐질 때 그들의 동정을 구하지 말고 나만의 칼을 갈고 있으면서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 IMF는 한국이 못나서 당한 것이다. 동시에 IMF는 아시아 경제전 내지 한국에 대한 경제세력과 세계경제적 갈등관계 속에서 당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고래싸움에서 터져버린 새우등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어떤 칼을 어떻게 갈아야 할지 모른다면 우리는 이렇게 당하고만 끝날지 모르고 영원히 당하기만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아픈 고통을 겪으며 그 원인과 처방까지도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픈 것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고 희망마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두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실용정신이다. 우리는 아직도 실리보다 명분을 중요시 한다. 아직도 철저한 장사꾼이 되기보다 양반적인 장사를 하고 있다. 남의 돈을 빌려서라도 체면과 겉치레와 엄치와 명분을 확보해야만 하는 양반이다. 아무도 인정안해주는 명분병과 양반병을 아직도 갖고 있다. 고급만년필, 시계, 화장품 등 모든 체면과 명분유지비로 가산을 탕진했다. 미국은 물론 일본, 중국 모두 우리보다 훨씬 더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를 한다. 한국기업가는 명분만 주면 예외없이 실리를 양보한다는 것이 일본기업가의 말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몇 백년 앞서서 에도시대부터 상업유통의 기반과 실리적 장사꾼의 입지를 강화시켜왔고 미국은 민족적 배경에서부터 앵글로색슨적 실용주의적 사고에 젖어있는 사람들이다. 반대로 우리들은 조선조 500년의 선비적 명분주의가 지금까지 배어있는 사고를 하고 있다. 이번의 IMF를 통해 실리주의와 실용정신을 못 배우면 한국은 IMF를 기회로 만들지 못한다.

또 한가지 배울 것은 주체정신이다. 이것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혼동될 이름이 아니다. 한국인은 주체적이고 개인적 자기인식의 정도가 약하다. 학생은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칠판만 바라보고 이해하고, 외우고, 시험보고, 졸업하는 것이 교육의 전부인 것으로 당연히 받아들이기에 타성화되어버려 교육으로 자기만의 견해구축이 진정한 교육의 목표인 것을 모른다. 그렇게 자라난 한국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면 견해싸움에서 진다. 정상회담에서의 한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 비해 주체적 견해가 약하고 국제적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 각료들은 미국 각료들보다 주관적 견해가 약한 것을 신문들 보아서도 알지 않는가? 한국 유학생은 미국학생에 비해 자기만의 견해가 취약하고 토론에 약하다. 한국학생이 일본학생보다 생각이 다양하지 못하고 획일적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일하는 한국인 교수의 말이다. 지금도 한국대학의 교실에서는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지 않는다. 교수가 토론을 유발시키지 않아서이기 보다는 학생이 입을 다물어서이다. 주체적 자기인식의 필요성과 스스로의 생각에 자신을 갖게끔 하는 주체정신을 배우지 못하면 IMF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얘기가 매우 추상적이고 거창한 것이어서 당장 배고픈 실직자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까 싶은 것은 당연한 느낌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않은 않다. 나를 배고프게 한 원인을 찾되 그 뿌리를 캐낼 때까지 철저히 못하면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다. 그 원인을 가까운데서만 찾으면 그것이 해소되는 것도 쉬울지 모른다. 그러나 치유는 되지 않는다. 나를 배고르게 한 원인의 극복은 나 자신을 고치는 것 이외에는 없다. 나 자신을 고치는 것은 그 뿌리에서부터 생긴 문제를 고쳐야만 가능하지 가지 잘라내기나 접붙이기로는 되지 않는다. 실용주의와 주체적 감각은 바로 우리 정신의 뿌리에 생겨 있었던 무서운 병이었다. 건축계라고 예외가 아니다. 건축설계도 시공도 실제적 구성은 취약하고 명분 챙기기에 급했던 것이 사실이다. 설계하는 사람은 스타건축가만 꿈꾸고 실무적 처리능력은 약하고 시공하는 사람은 상세부의 철저 시공은 버려두고 결과적인 넘어가기와 명분적 돈계산으로 일을 매들해온 것도 그 병의 결과이다. 외국설계와 시공에 비해 자기상품 개발의욕과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한다. 주체외식이 약하면 언제까지나 남의 상품 따라 만들기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의 건축설계가 우리 상품 개발에 뒤늦고 남의 상품의 방식대로 나도 따라하기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위기는 극복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된다. 위기의 극복은 위기의 원인을 차유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위기의 원인은 반드시 나와 우리 속에 있는 정신적 뿌리에 생긴 병에서 연유된다. 실용주의와 주체외식이 취약하면 IMF의 근본적인 치유가 안된다. IMF의 아픈 대가를 치르고도 실용주의와 주체외식을 배우지 못한다면 결국 위기는 위기로만 끝난다. 앞서 언급한 설계사무소 소장의 뼈아픈 얘기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다. 아픔의 치유는 한탄과 푸념으로만 되지 않는다. 자기 변화를 위한 방향생각과 실행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김낙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중원건축
Designed by Kim Nak-Jung

건축개요

위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03-2
주요용도	관람집회, 교육연구,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1,460.4㎡
건축면적	853.61㎡
연면적	9,032.11㎡
건폐율	58.45%
용적률	400%
규모	지하3층, 지상12층
구조	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
내부 마감	기준층 - 바닥 : 비닐타일 벽 - 수성페인트, 천장 - 암면 흡음텍스, 극장 - 바닥 : 비닐타일, 벽·천장 : 헤라크리스 흡음패널
외부 마감	24mm컬러복층유리, 알루미늄 복합패널, 노출콘크리트
설계담당	이수일, 서운주, 박정규, 김기상, 최희순
설계기간	1995. 5~12
공사기간	1996. 1~1997. 12
인테리어	현대종합목재
구조	동양구조
기계설비	현우설비
전기	석우전기
시공	(주)현대산업개발
감리	중원건축
건축주	(주)금강기획



Image Painting

이 Project의 대지는 서울 동호대교의 남단 통과 교통량이 많은 동호대로에 접해 있으며 이곳은 많은 상업 위락시설이 밀집해 있는 강남의 Down Town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소비적 분위기의 지역이다. 기본계획은 설계경기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건축주의 요구사항은 영화관을 위주한 젊은 층을 위한 복합적 문화시설, 이 지역의 Landmark가 될 만한 공학적 분위기의 건물, 주위의 많은 행인을 흡수하여 상업적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장치, 영화관 고객동선의 효율적 계획... 등이었다.

주어진 대지의 여건과 주변의 여러 요소들을 살펴보면, 주변의 기존 가로조직을 대지 내로 연장하여 보행자 동선을 흡수하고 그 과정에서 머물 수 있는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여, 잠재적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도시건축의 최소한의 공공성과 상업적 요구를 화해시키는 것을 계획의 출발점으로 삼게 되었다.

건물의 Mass를 고층부와 저층부로 명확히 구분하여 고층부는 동호대로의 관문 격인 위치를 의식하여 도시 스케일의 상징적 역할을 하게 하였다. 또한 명확히 구분된 고층과 저층의 Mass는 크게 영화관과 기타의 시설들로 구분되는 건물의 구성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며, 몇 가지의 서로 다른 알루미늄 커튼월의 조직과 함께 분절된 표피는 건물의 복합적 기능을 암시하고 있다. 금속 외장재, 알루미늄 커튼월 조직의 강조 등으로, 요구받은 공학적 분위기의 외관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나 공사비와 우리 건축산업의 한계 등으로 내부의 전체적 기계 장치는 그 한계를 넘지 못하여 표리부동한 건축이 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도로 레벨에서 피로티를 이용하여 주위 도로와의 긴밀한 연결을 하고, 전면의 공지를 배치하여 보행자의 흐름을 유도하는 동시에 머물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되도록 하였으며 또 작은 규모의 Folly를 설치하여 이곳에 모이는 보행자에게 Human Scale과 이 작은 공간에 Narrative를 제공하도록 의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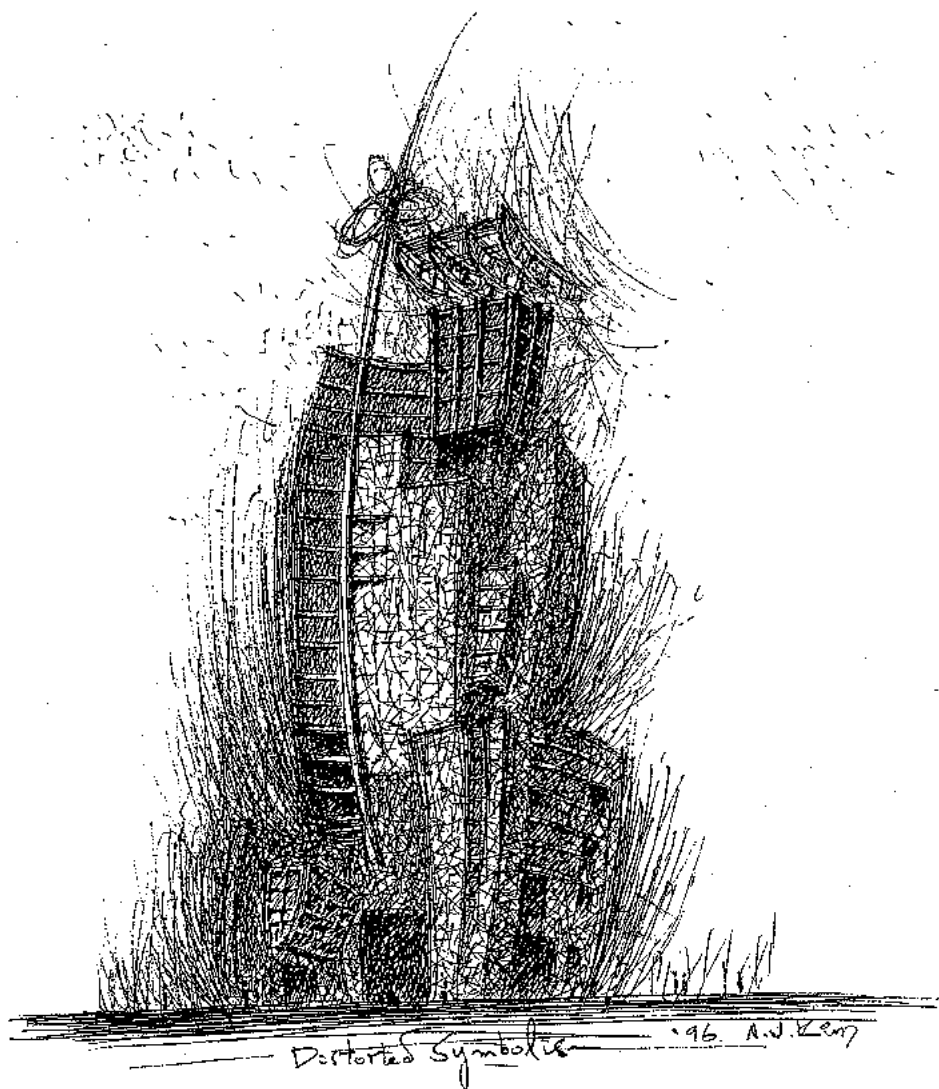
테헤란로변의 많은 고층건물들을 보면서 항상 삭막함과 소외감을 느낀다. 그들 대부분은 거대한 규모로 딱 버티고 서서, 숨막히는 표피로 자신들을 은폐하고, 도로변의 행인들을 향하여 주출입구라는 큰 입을 딱 벌린 채 삼켜려하고 있다. 그들은 외부 도시 공간과의 대화를 단절한 채 대항하고 있는 듯 느껴진다.

이 Project에서는 Ground Level에서 도시의 가로조직을 연장하여 주된 출입구가 없이 도로에서 직접 건물의 각 기능으로 선택적으로 진입하도록 9개의 분화된 출입구를 설치함으로써 전면의 공지 및 피로티와 함께 City in the City의 이야기를 해보려 하였다. 저층부의 투명한 처리, 고층부의 기능상 긴요하지 않은 발코니들과 상부의 분절된 Mass와 지붕을 암시하는 Frame, 전면의 Folly 등은 도시공간과의 대화의지를 나타내는 제스처로서 시도되었으며 한편으로는 별채나 망루, 정자 같은 이 땅에 살면서 흔히 보아왔던 것들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의 흔적이다.



씨네플러스극장
개관

씨네플러스극장
개관
1316-0000



The site of this project, facing the Dongho Boulevard where Han River's Dongho Bridge ends, is the downtown of Kangnam, the southern part of Seoul, heavily crowded with commercial buildings and entertainment facilities. The request of the client, as noted in the requirements of the architecture design competition which initiated this project, was a cultural complex for young people with a movie theater as primary function. Emphasizing the technological aspects, it should become a landmark building of this region, attracting people by its architectural features for a commercial success, with efficient circulations and other functional ends.

With the survey on the given conditions of the site and various circumstantial neighboring elements, a principle of extending the existing urban fabric into the building was set. By providing a pedestrian path through the ground floor with piloti structure and a piazza in front of the building, the project's commercial interests could be sought side-by-side with a concern for public welfare. Forming an organic link between the site and the street naturally absorbs the pedestrians, stimulating their potential consumption, while a space as a meeting place along the passage serves public intere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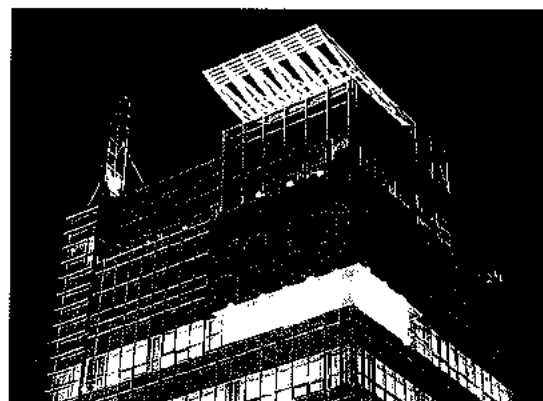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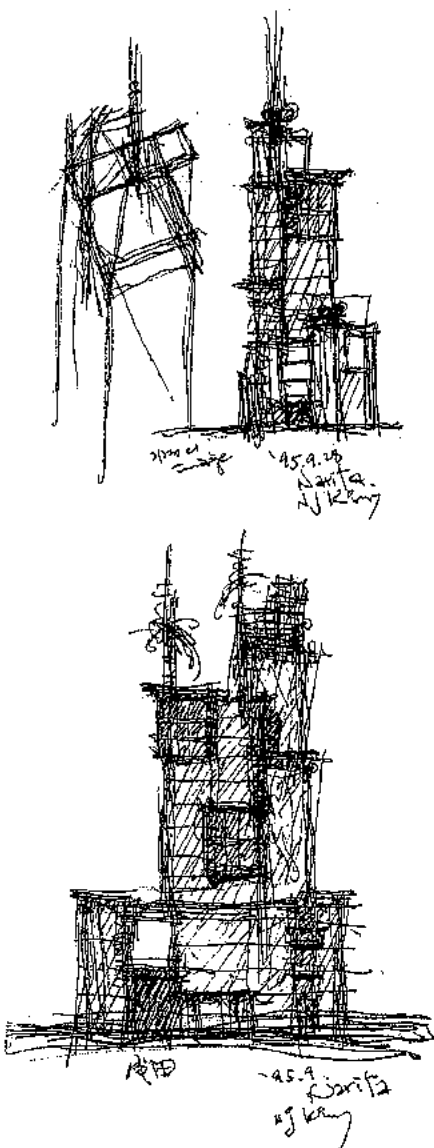
The whole volume of the building was divided into the upper and lower parts. As a response to the attribute of the location as a gate to the Dongho bridge, the upper volume was designed to play a symbolic role in an urban scale. The division also enables the people to recognize the diverse program of the building, consisting of theaters and other facilities. The articulation of the building's skin, together with the pattern of curtain walls composed of several different kinds of aluminum, represents the complexity of the building's content. Although the aim was to present a technological appearance by using metallic materials and emphasizing their fabri-

cations, the overall system of the interior couldn't avoid the constraints of limited construction budgets and industrial skills. This resulted in a regretful disharmony between the exterior and the interior.

The building was designed to have a close connection to the neighboring street through the pilotis on the ground level. An open space in front of the building simultaneously guides the movement of pedestrians and serves as a meeting place. A small scale folly defines the human scale of this modest space, and renders a narrative to the users.

Each time I look at the high-rises on the sides of the Teheran Street, I experience the feelings of desolation and alienation. Standing in their tremendous stance, most of them cover themselves up with suffocating masks or envelopes, and swallow the street's pedestrians with their large mouths, i.e. the overly-sized main entrances. They seem to be confronting the city by refusing to communicate with the existing urban space.

In this project I attempted to tell the story of city within a city: applying the horizontal structure of the city to the ground level, not one but nine entrances were provided. Differentiated entrances and/or exits, along with the piloti and piazza, enables one to enter, according to his/her purpose, each section of the building directly from the street. The transparency of the building's lower part, the not all-too-functional balconies and segmented volume of its upper part, the frame that suggests a roof, and the folly in front of the building were attempted as a gesture to communicate with the city space. They are also the traces of my personal sentiment, such as the memory of our traditional houses, lookouts or arbors, those that I have closely observed living here in this land.



남서축 고층부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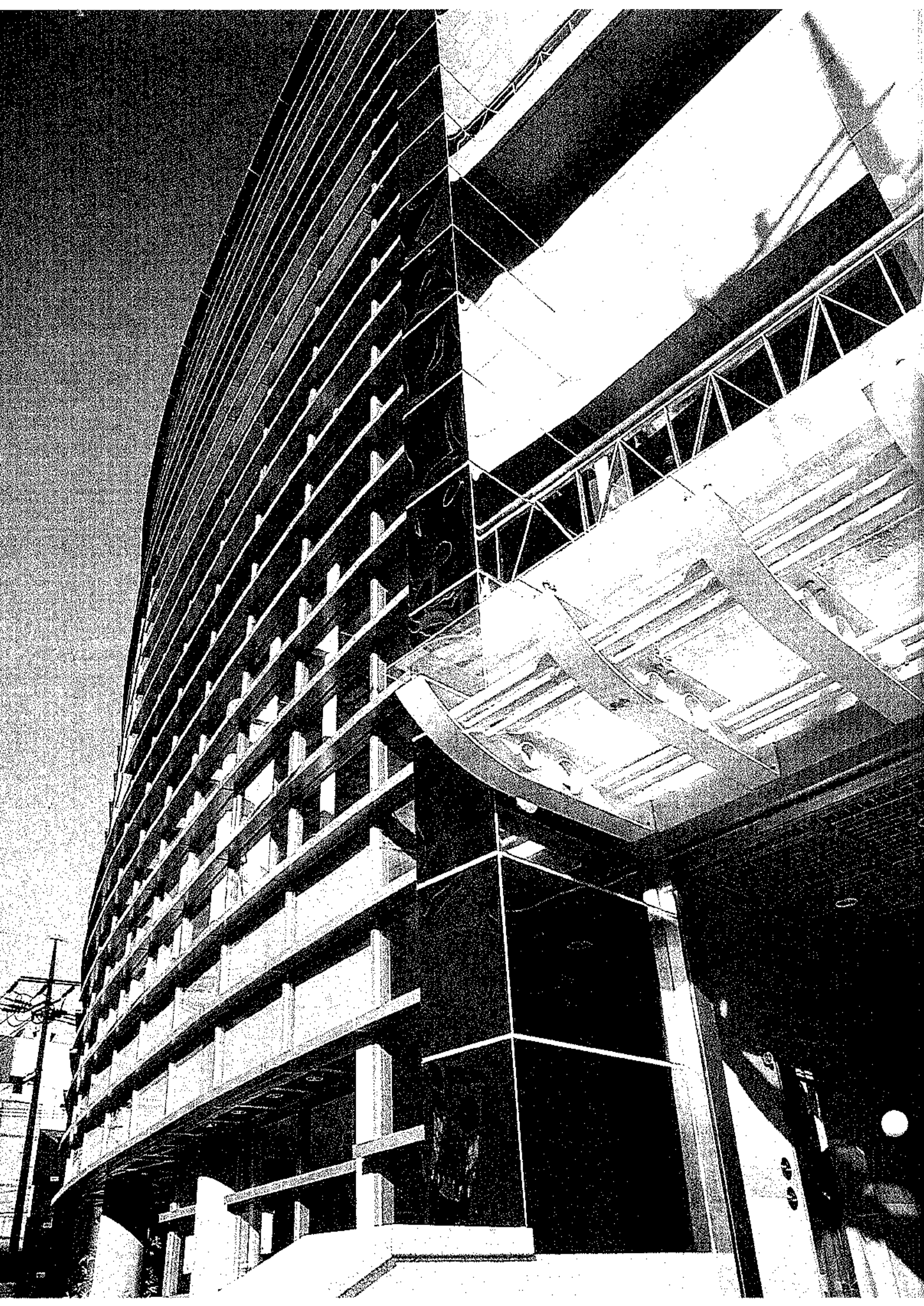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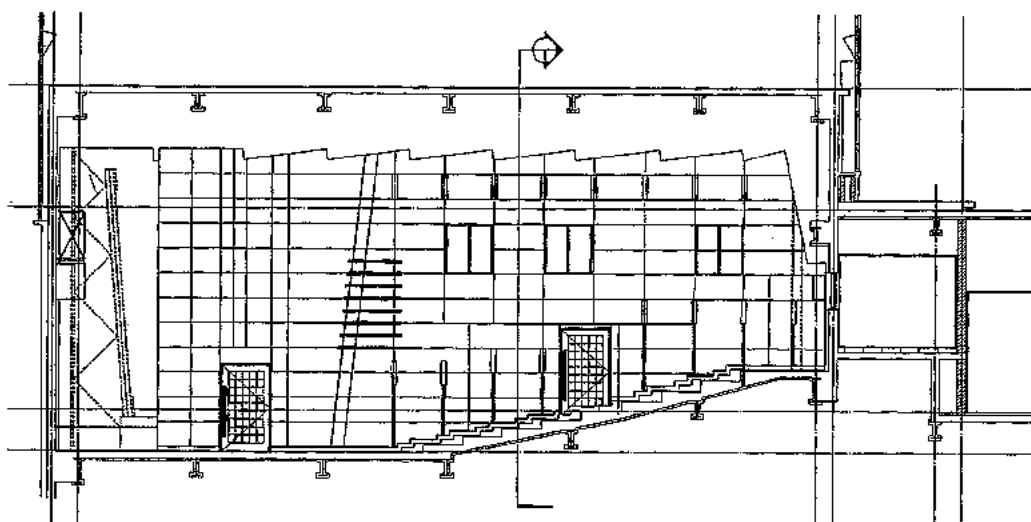
서측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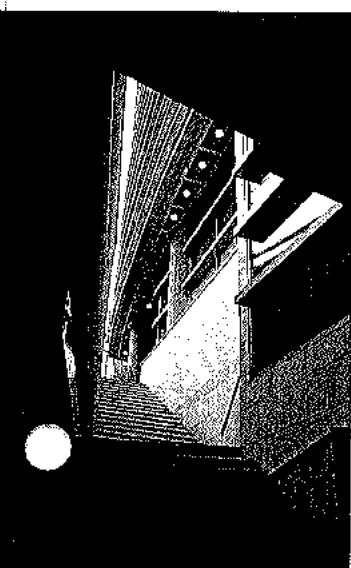
대표소원에서 올라다 본 모습

Location Shinsa-dong 603-2, Kangnam-gu, Seoul
 Function Movie Theaters, Education and Research Facilities, Restaurant and Bakery
 Site Area 1,460.40m²
 Building Area 853.61m²
 Total Floor Area 9,032.11m²
 Building Coverage Ratio 58.45%
 Gross Floor Ratio 400%
 Total Floors 12 Floors, 3 Basement Floors
 Structure Steel Structure with Reinforced Concrete
 Interior Finishings Office Floors/Floors-Vinyl Tile, Walls-Water Painting, Ceiling-Rock Fiber
 Sound Absorbing Tex Theaters/Floors-Vinyl Tile, Walls and Ceilings-Hercules Sound Absorbing Panels
 Exterior Finishings 24mm Colored Double Glass, Aluminum Panel, Exposed Concrete
 Project Architects Lee Sooil, Suh Yoonju, Park Junggyu, Kim Kisang, Choi Heesoon
 Design Period May 1995 - Dec 1996
 Construction Period Jan 1996 - Dec 1997
 Interior Hyundai Woods Co.
 Structural Engineering Dongyang Structures
 Mechanical Installations Hyunwoo Installations
 Electrical Installations Sukwoo Electrics
 Construction Hyundai Industrial Co.
 Construction Management Jungwon Architects
 Client Kumk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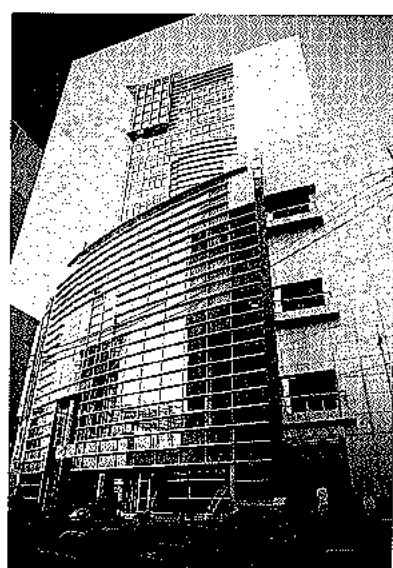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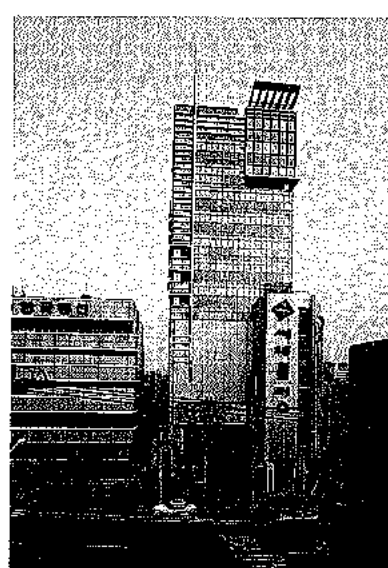
4층 상영관 전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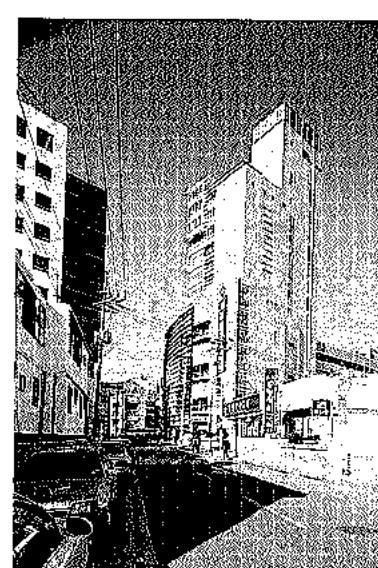
선문가든에서 올려다 본 모습



남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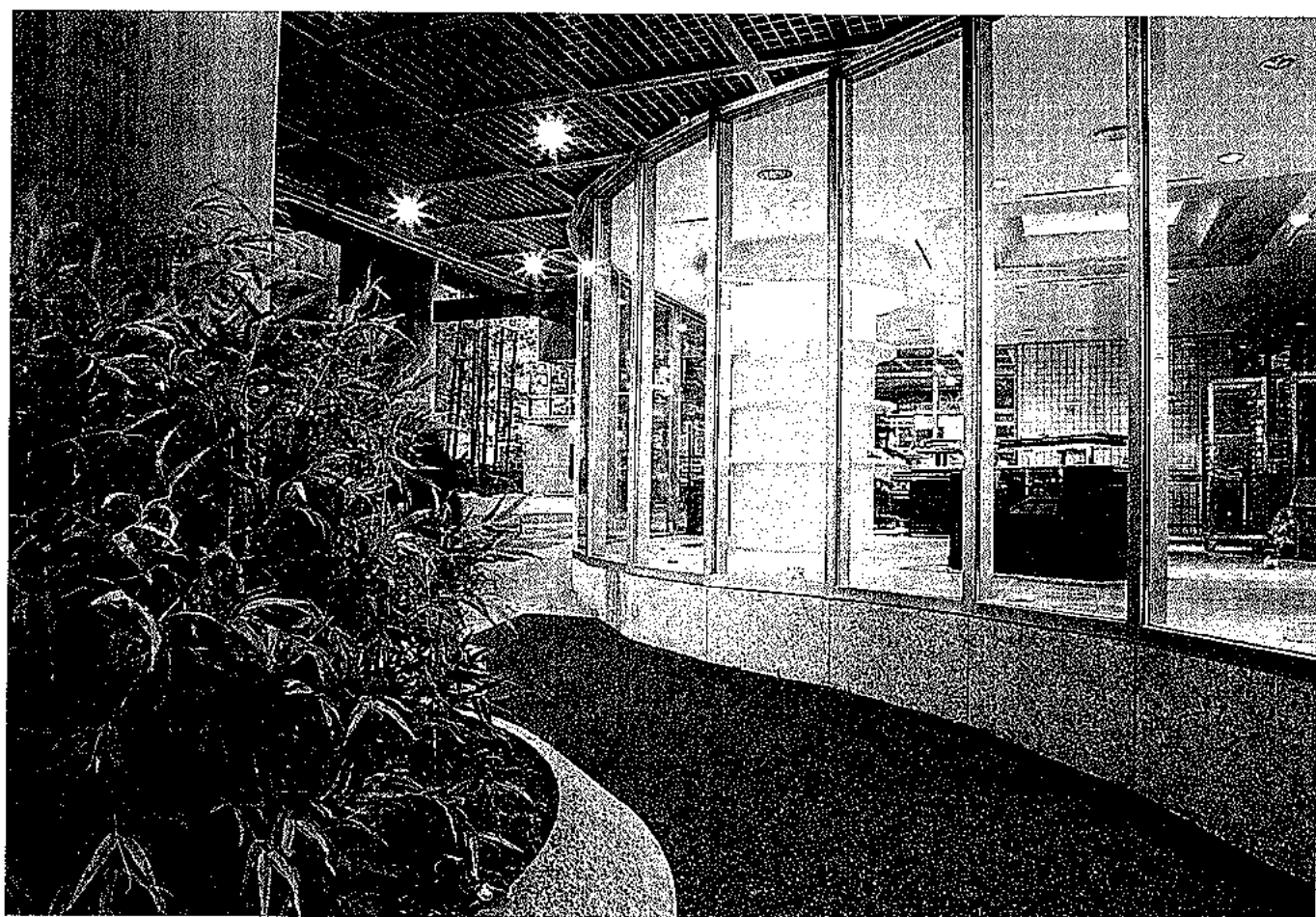


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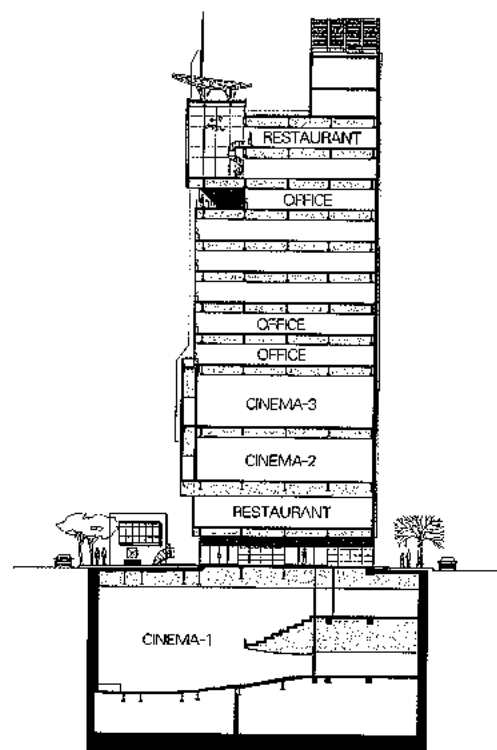
남동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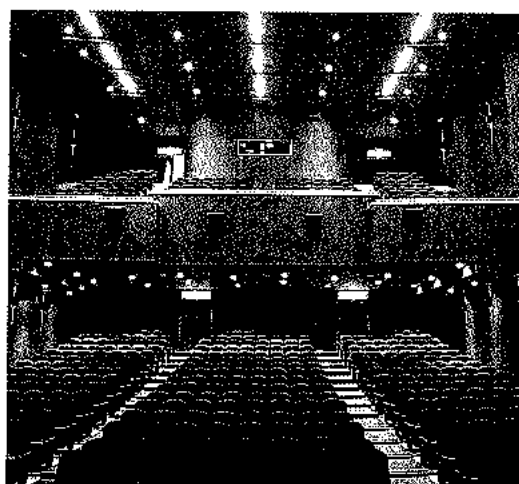


극장 입구쪽에서 본 카페테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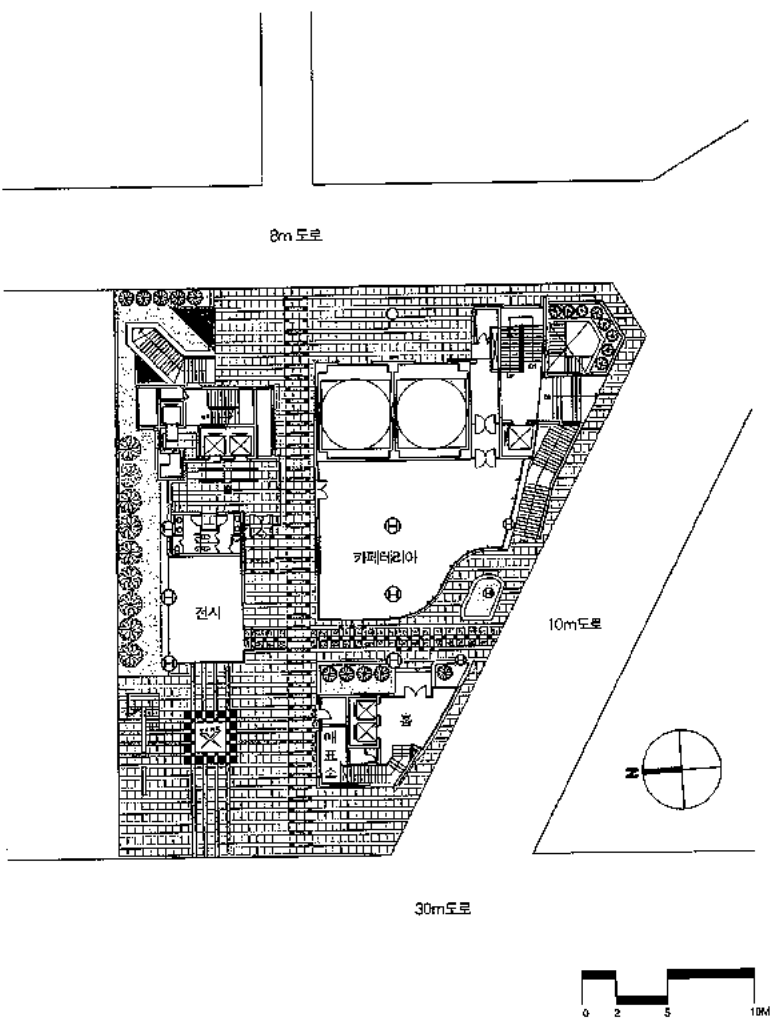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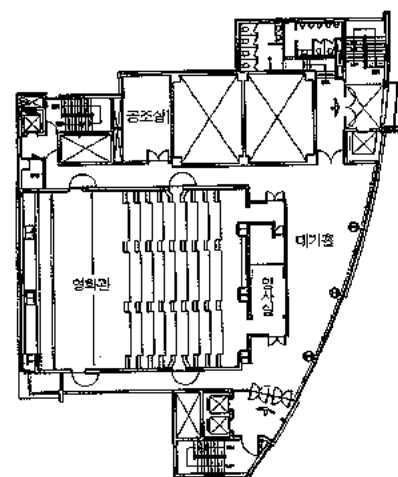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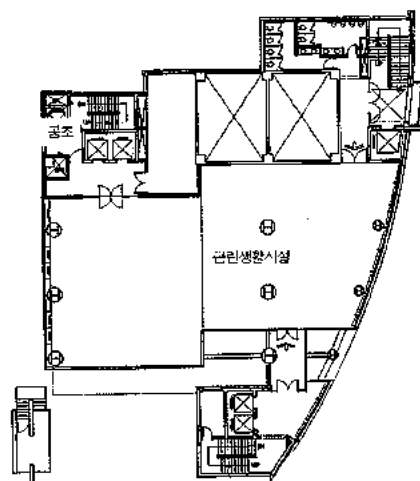
영화관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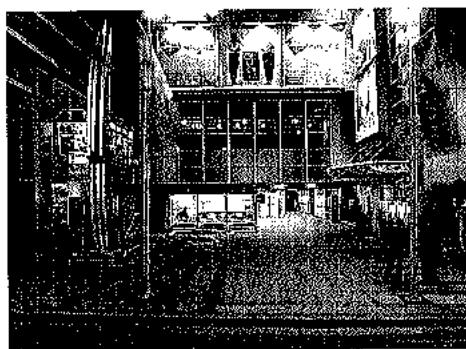
배치 및 1층 평면도



4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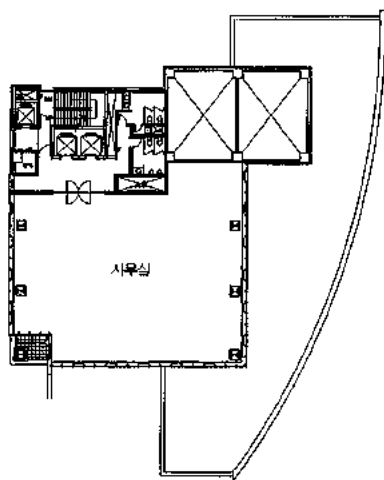
공지에서 본 저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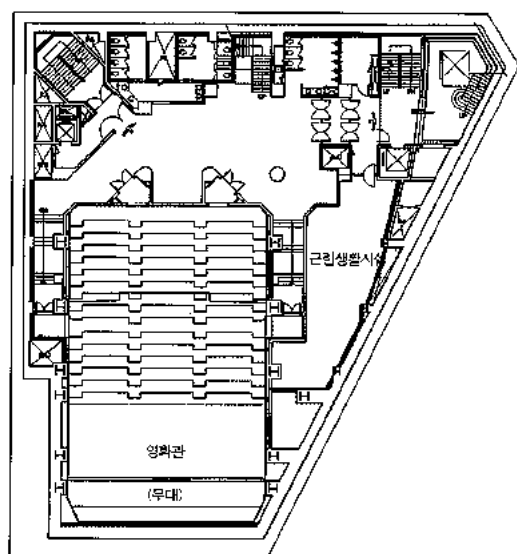
남측도로에서 본 극장입구와 카페테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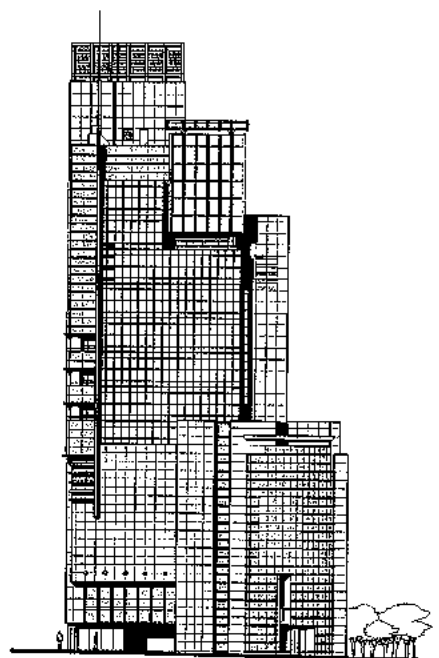
극장입구에서 남측도로를 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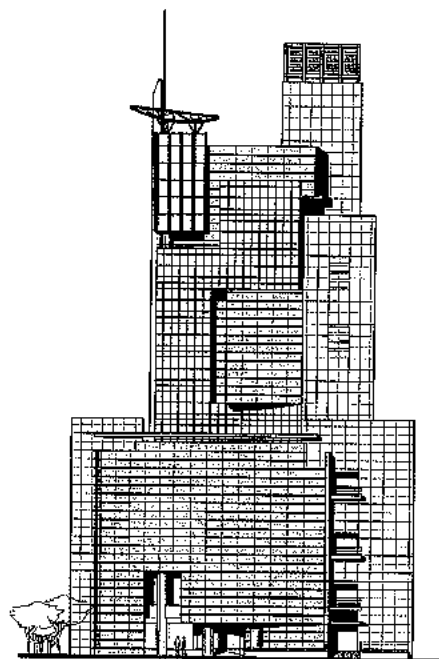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지하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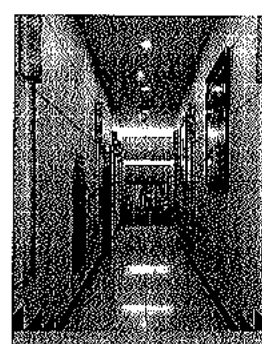
서측면도



남측면도



4층영화관 대기홀



복도

도시속의 표정있는 건물

Idiosyncratic, Distinctive Buildings Within the City

대담자 / 박항섭(경원대학교수)

설계자 / 김낙중(중원건축)

by Kim Nak-Jung & Park Hang-Sup

일 시 / 98. 3. 13(금) 11:00~

장 소 / 중원건축 소장실



대담광경(왼쪽: 이재훈, 가운데: 김낙중, 오른쪽: 박항섭)

박항섭_____압구정이라는 곳은 이질문화가 접목되어 있는 곳으로 혼잡한 문화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며 또한 난무하는 표피문화의 시점으로서의 씨네플러스의 대자가 갖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압구정문화, 혼성모방의 총체적인 시점으로서의 장소성 이런 것들이 씨네플러스가 갖고 있는 어떤 장소에 대한 이야기거리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소장님께서 씨네플러스라는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설계하고 감리를 하셨는데, 현재 이 작품은 건축적인 볼거리와 화제가 많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갖는 도시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낙중_____이 프로젝트는 당초 지명설계경기로 진행된 것으로 지명받은 몇 명의 건축가가 작품을 응모한 것입니다. 주어진 대지가 평소에도 익숙했던 지역이었지만, 직접 가보고 주변을 살피는 동안 이 지역이 현대 도시사회가 갖고 있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화가 표출되는 지역이고 건축물 또한 다양한 표정을 가지고 상업적으로 세워져 있으며, 여러 가지가 혼재된 곳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호대로가 끝나는 부분이고 강북에서 진입하는 관문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더욱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 앞이 통과교통을 위주로 하는 동호대로가 접하고 있어서 상당히 속도감을 주는 머물지 않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조용하다거나 안정된 쾌적함과는 거리가 먼 이곳을 어떻게 하면 속도를 줄여서 사람들이 머물 수 있고 이 복잡한 컨텍스트 안에서 이 건물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상징성이란 형태도 있지만 이런 도시에서는 물리적으로 높이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호대로라는 거대한 도시구조물과 거기에 소재한 건축물이 서야 되는데 여기서 관문을 암시하는 랜드마크로서 건축물을 생각하자면 상당한 물리적인 높이도 필요하겠고 이러한 속도있는 흐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접지면에서 어떤 매력적인 공간을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축과 도로, 모든 인

프라와 모든 도시인들의 삶이 도시의 모든 구성요소라면 이것이 하나의 조직으로서 서로 연계돼야 하지 않느냐는데 관점을 두어서 계획하였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지금 말씀하신 도시의 안에 들어서는 건축이 갖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윤리, 결국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그런 건축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건축가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의무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박항섭_____이 작품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기능들이 복합하는 과정에 있어 배치상의 문제라든가 건축적인 배려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 나갔는지 궁금합니다.

김낙중_____상당히 많은 용도를 요구했고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는가 하는 것이 출발점에 있어서 큰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대지안에 조그마한 가로 - 좁 과장하자면 - 작은 도시의 조직을 하나 다시 대지 안으로 연장하여 외부에서 직접 각 기능으로 동선이 선택적으로 진입이 되는 그런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매스를 저층부와 고층부로 구분해 저층부는 극장을 감당하게 했고 고층부는 오피스 및 기타 복합적인 그런 기능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대별했습니다.

진입부는 모두 9개의 출입구가 있는데 대지내의 가로라든지 도시의 가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되는, 그래서 외부에서 동선을 분산시켜서 끌어들이도록 했습니다. 기존 건물들은 주출입구라는 것을 하나 가지고 그 안에서 거대한 로비를 통해서 일단 실내로 진입해서 각 동선이 흩어지는 것이지만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로비를 옥외화했고 옥외에 있는 공지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추가했습니다.

박항섭_____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건축 속에 작은 도시를 조직해 놓은 그런 건축적인 메시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김소장님께서 프랫대에서 학습한 프로젝트를 보면 건물과 건물의 사이공간에 들어지는 휴게시설인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연상되는 듯한 프로그램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프랫대에서 한 작업하고 무슨 연관이 좀 있습니까?

김낙중 _____ 네. 실은 그곳에서 작업을 한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도시의 틈을 이용한 수작공간입니다. 어떠한 상업적인 것이 배제된 공공성을 띤 휴식공간이었고, 또 하나는 도시에 있는 상업시설,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교시설과 그에 대립되는 시설들이 서로 침투해 합해져서 조직처럼 얹혀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물 안에서 복합적인 기능들을 조직하고 화해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 또한 대지와 건축물의 여백, 건축의 구성방법에서 공공문화적인 부분과 상업적인 부분을 기능적으로 묶은 것에서는 일맥 방법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항섭 _____ 그런데 한국적인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여백을 나타낸다는가 어떤 문화적인 것을 나타낼 때, 과연 상업적인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건축주를 어떤 식으로 설득을 시키는가가 의문시됩니다. 그 점을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 해 나가면서 설득을 시켰습니까?

김낙중 _____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경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안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하면 다른 것과는 차별화되는 안을 내느냐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보통 상업건물이 건축주한테 어필을 하려면 1층에 임대료가 높은 부분을 많이 확보해 주어야 하는데 저희는 건축주가 좋아하는 그런 임대면적이 상당히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곳은 행인들이 머물기 쉽지 않은 고가도로가 끝나는 부분이고 환경이 산만한 곳이라 행인들을 끌어들이는 건물에 머물게 해야만 이 상업적으로 성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공지나 공공통행로 등을 과감하게 할애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것에 대해서 관대하게 받아들여졌고, 안목이 있는 좋은 건축주를 만난 행복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항섭 _____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막으면 막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낙중 _____ 그 전에 보행로가 관통된 세 방향 중에서 한 방향을 막아고 해서 중간에 막는 방향으로 그렇

게 추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막지는 부분이 다행히 임대면적이 아니었고 고층부에 들어가는 로비를 좀 넓게 하자는 쪽이었는데 저도 그것까지 설득하기 힘들고 해서 포기하려 했는데 그 시점(아직 막지 않고 유리로 막으려는 상태)에 이쪽 현장에 현대의 회장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골재가 드러난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길이 뚫린다고. 그런데 막을 부분을 보고 '아! 그러면 이쪽도 뚫지 그래요.' 해서 다시 원안으로 돌아온 행운도 있었습니다.

박항섭 _____ 제가 작년에 맨해튼에 가보니까 시트콕센터의 저층 그러니까 선크부분이 막혀 있던데...

김낙중 _____ 저는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요.

박항섭 _____ 결국에는 막은 것으로 기억이 돼요. 씨네플러스도 김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켜지기를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조직상 우리나라와 같이 동절기가 긴 곳에서 그런 적극적인 가로가 활용이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저널에 등장하든 간에 김소장님의 드로잉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드로잉 자체가 거대한 공통갈기도 하고 또한 의인화시킨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왜곡되게 표현된 드로잉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김낙중 _____ 글썽. 그것을 특별히 말하기는 부끄러운 부분인데. 좀 엉뚱한 대답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현 상황들이 얘기되고 또 모던과 포스트모던의 논의도 마친가지겠지만, 어떠한 틀과 그에 대해 반하는 반을 이런 것에 어떠한 대립관계 형태가 있다고 하면 결국은 틀이 맞느냐 반들이 맞느냐 하는 것은 논의를 넘어서는 것이고 어느 쪽을 믿느냐 하는 것인데, 저는 "어떤 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쪽을 믿는 편입니다. 또 믿고 싶고. 건축에 있어서도 변하지 않고 고유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축이 명증하게 규명될 수 있다는 말하고는 다르지만 규명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건축이란 존재가 경외심과 함께 찬미하는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막연한 기대같은 것이 있는데, 이러한 개인적인 감상을 찬란한 빛속에서 꿈틀대는 모습으로 스케치해 본 것입니다.

박항섭 _____ 한가지 의문시되는 것은 김소장님이 도시의 조직 말씀도 하셨지만 압구정의 좋은 문화건 나

쁜 문화권 간에 그것이 갖는 주변 건물에 대한 이야기거리들도 있는데 실제로 드로잉상에 나타나는 것은 본인의 존재만 나타내기 위한 드로잉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컨텍스트와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김낙중 _____ 그것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표현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갈등은 누구한테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도시적인 해석 그런 것들하고 때로 상충되는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지않고 냉철하게 이성으로 풀어가다가 건축가로서 자기도 모르게 표현의지가 나오게 되고 그러는데 저는 이 건물을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층부라든지 접지면은 물리적인 근경으로서 보행자의 몫이고 원경은 도시의 풍경으로서의 몫이 아니겠느냐고. 그래서 원경에 대해서는 표현의지를 가지고 제스처를 써도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자위를 하며 자유롭게 생각했습니다.

박항섭 _____ 용도 복합 과정에 있어서 시각적인 구성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마치 보면은 일면의 구성방식이 다양한 커튼월의 형상으로 구성되어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케이피에프(KPF)식의 구성방식인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낙중 _____ 그것은 지적하신 바대로 제가 공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표현의 방법이라든지 실질적인 자재나 시스템의 사용같은 것은 자기가 의도했던 안했던 간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작은 부분의 변화이지만 상당히 깨끗한 유리면 위에서는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은 KPF 작품들을 예전부터 보면서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재훈 _____ 원래 정해진 용도는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김낙중 _____ 정확한 프로그램이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 용도는 영화관하고 우리가 보통 보는 아동들이 다니는 오락실이 아닌 일본식의 모든 연령계층을 통틀어서 쓸 수 있는 전자오락실, 그리고 영화산업이나 영상산업에 종사하는 광고회사라든지 또 그런 전문업체들의 소규모 사무실들, 레스토랑,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유흥시설 등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를 위한 몇 개층의 전용 사무실 정도였습니다.

이재훈 _____ 그런 용도들을 형태화시키면

서 어떻게 수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셨는지요.

김낙중 _____ 그런 용도가 총별로 정확히 주어지면 그 성격을 형태로서 표출을 하고 또 외부 표피에 대한 디자인도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노이지한 건물, 다양한 몰라주 같은 건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프로그램이 개발적이었고, 또 앞으로 상당히 변화의 가능성이 많은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순히 저층부, 고층부 두가지로 매스를 대별했습니다. 그래서 전용 오피스라든지 영상 산업에 관계된 것은 고층 부분에 수용하고 극장 및 기타 유흥시설은 저층부로 수용했습니다. 설계진행, 설계확정, 공사 과정에서 다소 바뀌었지만 그 바뀌는 것을 다 디자인에서 바꾸면서 수용하기는 건축주나 공사하는 측, 예산문제에서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학적인 이미지를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실제로 첨단공학적인 이미지라는 것도 원지도 상당히 어려운 문젠데 (하이테크 건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실제 하이테크 건물은 우리가 하기에는 저 개인적 능력이나 우리나라 건축산업으로 볼 때 힘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외국식의 하이테크 건물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국산 건설자재나 시스템에 대한 산업이 선진국보다는 아직 열등한 위치에 있어서, 그래서 하이테크를 흉내낸 그런 뉘 슬릭택이라고 하나요, 실제로 기술시스템은 아주 컨벤셔널한 것으로 돼서 아쉽습니다.

이재훈 _____ 용도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쭙보면 저층부, 고층부 구별하시고 고층부에서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형태적인 면이 디자인됐다고 부분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층부의 극장으로 어떻게 보면 극장은 보통 프로그램하고 다른 시설인데 극장이라는 대형 공간을 저층부에서 어떻게 표현하겠다는 의지 같은 것이 있으셨습니까?

김낙중 _____ 저층부에서 객석 부분은 고층부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저층부가 인식되는 매스는 측면 도로변에 접해 있는 극장 홀 부분으로 그곳은 아주 투명하게 처리를 해서 보행자하고 홀안에 머무는 사람들과 시각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하였고 또 보행로에서 극장홀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액티비티가 투명하게 감지가 되게 하여 시각적 인지로서 극장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의도했습니다.

박항섭 _____ 외부에 구성된 외벽은 어떤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지요?

김낙중 _____ 재료의 종류는 상당히 최소화했습니다.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단순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 그리고 재료가 콘크리트, 유리, 철 이런 것이라 그것의 물성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전체적인 디자인을 했고 또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유리도 전혀 착색이 되지 않은 양면이 투명한 유리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요즘 투명유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에너지 차원과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제로 완전 투명이 아니고 한쪽 면에 약간의 컬러가 들어간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건물보다 훨씬 투명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보통 보하고 전장 속의 공간이 인지가 안되도록 불투명하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저는 건축을 구축하는 시스템 자체도 다 보여주는 것이 시스템상으로 더 투명할 것 같아 판을 투명유리뒤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붙였습니다. 뒤의 판이 자세히 보면 다 보이지요.

박항섭 _____ 재료마다 그 재료가 갖고 있는 물성하고 존재를 적극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인가요?

김낙중 _____ 네. 특히 알루미늄 부분에서는 저희가 자연발생 알루미늄을 맨 처음 추천을 해서 설계를 시도했는데 그것이 국산자재 생산이 힘들고 코스트도 상당한 차이가 나서 결국은 자연발생 알루미늄 색을 흉내낸 불소수지 코팅을 해서 패널로 썼습니다. 물론 그런 면은 약간 표리부동하지 만 그런 컬러를 쓴 것은 그렇게 보아기를 원한다는 의지 정도로 이해됐으면 합니다.

박항섭 _____ 그림, 현재 쓰인 것은 전부 국산,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된 재료를 쓰신 건가요.

김낙중 _____ 네. 노출콘크리트, 알루미늄, 유리 이 세 가지가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외장재의 전부입니다.

박항섭 _____ 그렇다면 그 문제점들이 접합 부분에서 벌어질 것인데 제가 보기에 김소장님이 의도했던 재료와 재료의 접합부분들의 디테일상의 처리들이 국내 재료로서는 미흡한 부분들이 존재했을 것 같은데요.

김낙중 _____ 네. 맞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곡면으로 된 저층부의 커튼월이나 바들도 실제로는 많은 직선의 접합으로서 이루어져 있고 그 바를 붙이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재래식이 아니라 원시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폭강하는 시스템(엔지니어링이 정밀하지 않아서 바시스템의 틈이 폭킹으로 메워진)의 디테일로 상당히 낙후된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건식(가스켓시스템)으로 바도 유선형으로 경사를 줘서 처리했는데 다이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렵다고 전부

박스형의 바로 대체가 됐고, 여러 가지로 현실하고 절충을 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항섭 _____ 영화관이 지하로 구성되다보면 구조와 설비적으로 상당히 난해한 점들이 존재했을 것 같은데, 구조나 설비적으로 씨네폴러스에서 특이하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부분이 있습니까?

김낙중 _____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있다면 극장을 넣기에 건축면적이 부족해 닥트면적을 최소화시키려고 상향식, 하향식을 섞어 복합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는 나머지 특별한 시설은 없었습니다.

박항섭 _____ 영화관의 프로그램상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영화관하고의 차이 즉 객석하고 영화가 펼쳐지는 장소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김낙중 _____ 영화관 안의 시스템은 최근에 지어진 극장이기 때문에 영사실이나 이런 데서는 일반 극장보다 면적이 꽤 넓은 편이고 영사하는 기기들도 자동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쪽에서 요구했고 양해가 된 사항이라 외자 앞뒤나 좌우 간격이 넓고 의자도 목받침까지 있어 안락한 편입니다. 동선이 외부에서 영화관으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일단 3~4층으로 올라가 거기서 브리지를 타고 영화관 홀로 들어가는, 완전히 입출구가 분리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항섭 _____ 그렇다면 극장에 들어갈 때와 상영시간이 끝나고 나올 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배려하셨습니까?

김낙중 _____ 올라가는 쪽은 엘리베이터를 주로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비교적 폭이 좁은 계단과 소형 엘리베이터가 2대, 나가는 쪽은 엘리베이터 1대와 넓은 폭의 계단을 준비해 계단이 주출구로 이용되도록 의도했습니다.

박항섭 _____ 씨네폴러스의 전체적인 사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아까 소장님이 로비의 벌어지는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감지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중요한 것이 어떤 2차원으로 펼쳐지는 전통적인 간판의 문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곳을 영화관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들인데 어떻게 배려됐는지요? 제가 보면 가로변의 가로등도 기존과는 다르게 디자인된 듯 한데 전체적 사인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낙중 저희가 현상설계 할 때부터 사
인이나 간판 위치는 정해놓고 디자인했습니다. 그 당시 동호대
로하고 안세병원 사거리쪽에서 걸어내려오면서 건물의 어느 부
분이 원경에서 잘 보이는지 고려해서 사인 위치를 정했습니다.
저층부쪽에 큰 간판이 하나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맨 처음 안을
낼 때는 그 위치가 동호대로와 측면 8m도로하고 만나는 부분
이었습니만 저층부는 길쪽으로 돌출되고 고층부는 길에서 많
이 후퇴되었는데 후에 위치가 전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속도있게 움직이는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볼
수가 없고 대지 안 공지에서 사람이 머물 때 잘 보일 것입니다.
결국 광고판들이 보행자 위주로 된 것이죠. 저희가 맨 처음에 의
도했던 안세병원 사거리쪽에서 내려오면서 보이는 돌출돼 있는
저층부에 계획된 간판이 커튼월로 처리가 되어 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하지만 극장이라는 것이 대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인 이전에 어느 극장이 어디 있다 정도는 알고 도시 생활을 하
기에 큰 고민은 안 했습니다.

박항섭 그런데 맨해튼에 있는 브로드
웨이거리라든가 그런데는 현재도 사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의미로 전달되기를 건축가들은 바라지만 그것이 과연 시간
이 지났을 때 의미로 전달될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사인모
드로 전달될 것인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김낙중 어떻게 보면 맨해튼은 법규하
고도 관계가 되는데요. 마키(Marquee)라는 큰 캐노피가 나와
거기에 영화에 간단한 간판이라든지 영화제목들이 걸립니다. 그
것이 있으면 "아! 저기가 극장이구나" 그렇게 상징처럼 되어 있
고요. 그쪽은 대개 인도위를 덮고 마키가 크게 나올 수 있도록 또
그것이 허락이 되는 곳이지만 저희는 제대로 인도를 침범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미국식의 캐노피로 상징을 주려면 건물이 그만
큼 후퇴해야 되는데 많은 건축주가 그것은 원치 않습니다.

박항섭 밤에 대한 고려는 사인개념에
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셨습니까?

김낙중 조명계획을 할 때 제가 조명전
문업체하고 감리단계에서 협의했는데요, 제가 주문한 것은 밤
에도 이 건물이 인지도가 있고 랜드마크로 작용하려면 상부에
등대처럼 빛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
물에는 상부에 지붕을 암시하는 프레임같은 곳에 조명을 해 주
고 그리고 저층부에서 수직으로 솟아있는 높은 바가 있는데 물

론 이 바가 큰 기능이 있다기 보다는 피뢰침내지는 통신시설을
암시하는 것으로 그 바가 빛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했고
나머지는 기능에 따라서 처리했습니다.

박항섭 서두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요. 이 씨네플러스의 한국성을 나타내는 점목한 부분들이 일부
차용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며 그것의 의미와 차
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김낙중 글썽요, 한국성이라는 것이 영
원한 과제같은 것인데... 어떤 것이 한국성이고 또 그것이 어떻
게 현대건축에 표출이 되어야 하는가는 모든 건축가들의 영원
한 과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한테 어떤 갈망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아
무튼 이 건물에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워 저 개인
적인 감상일 뿐이라고 전제합니다. 저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전
면 공지앞에 있는 폴리카같은 것이 물론 물리적으로 스케일을 다
운시키고 휴먼 스케일을 부여하는 것이라라고 말 할 수도 있는
데 그것이 입구에 있는 행랑채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구조물을
암시하는 것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상부에 표현적인 의도로
디자인된 큰 사각상자나 철골프레임 같은... 그 밑에 있는 매스
를 테라스로 분절시키고 그 매스가 따로 떨어져 보이게 의도했
습니다. 그것이 풍광이 좋은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내가 호르고
거기에 절벽이 보이고 그 위에 정자가 있는 그런 그림같은... 그
런 개인적인 감상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했습니다.

박항섭 그런데 실제로 폴리카라고 말씀
하신 부분이 인형으로 가득차므로서 의도하셨던 의미가 반감된
것 같은데요. 즉 그 부분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완전히 상업
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김낙중 그 부분이 저도 상당히 불만입
니다. 공개 공지 부분의 디자인도 의도대로 따라주지 않았고 벤
취의 위치라든지 공중전화 박스의 크기 등이 스케일을 깨버리
고 있습니다. 물론 원래는 비워있는 공간으로 의도가 됐습니다.
휴게소처럼. 그런데 지금은 진열상품으로 꽂 차 있어서 전혀 다
른 모습이 됐습니다. 그냥 빈 공간의 만남의 장소가 됐으면 행인
들이 머물게 될 것이고, 그러면 상업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지 않
을까 했는데... 결과는 의도와는 달리 상당히 산만한 곳이 됐습
니다.

박항섭 폴리카로 올라오는 계단의 쪽이
지나치게 큰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규 때문에 그럴습니까, 좀

큰 것 같이 여겨지던데요.

김낙중 _____ 네. 법규에 보면 미니멈 폭이 있고 또 옥외 계단의 단의 높이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쓰는 계단 폭에서 미니멈으로 한다 해서 90cm 정도를 의도했습니다.

이재훈 _____ 처음에 현상설계할 때 층수에 대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김낙중 _____ 층수에 대한 조건은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층수를 현행 법규안에서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을かを 생각했습니다. 상징적이고 랜드마크적인 건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건물의 절대 높이를 확보하는데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이재훈 _____ 그 때 현상 제출한 다른 안들에 대해 소개를 좀 해 주시죠.

김낙중 _____ 다른 안들은 제가 예측했던 것과 거의 같았습니다. 거의 7층 정도의 높이로 그렇게 들어와서 건축면적을 다 차지하고 공지가 없는. 그리고 동선은 일단 사람들을 1층 로비로 끌어들어서 실내에서 여러 가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고 또 극장이고 거기서 해결하는 식의 해법을 이었습니다. 무언가 발상을 달리해 차별화된 안을 만들기 위해 그 당시에는 모험을 한 것인데 다행히 다른 안들과고는 상당히 차별화된 안이 됐습니다.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재훈 _____ 다른 안들과고는 다르게 12층이 되면서 기존층 바닥면적이 상대적으로 작게, 높이 올라가게 된 셈인데 그것이 공사의 경제성이라든지 바닥면적의 적절한 사이즈 측면에서 혹시 건축주가 가졌던 생각같은 것 없습니까?

김낙중 _____ 전체적인 건물구성 시스템이 거론된 적은 없고요. 단지 외장재라든지 일부 어떻게 보면 건축가 표현의지라든지 아니면 당장 피부에 와 닿지 않은 행위를 끌어들이기 위한 공지나 플리, 이런 구조물들에 대한 할애, 피로 파에 대한 할애 등은 거론이 됐었는데 그렇게 해야지 건물 전체의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높이기 위해서 건축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소규모 사무실을 수용하는데 최대 건축면적까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슬림하게 고층부를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재훈 _____ 재료는 알루미늄, 노출콘크리트, 유리 이 세 가지만 주로 사용해서 건물을 지으셨는데 알루미늄이라는 재료가 마감재로써 다루기가 좋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 요즘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알루미늄이라는 재료와 현대건축내지는 앞으로의 건축과 또 공학적 이미지의 그런 것과 알루미늄이라는 재료가 갖는 상관성 같은 것이 있는지 특별히 생각해 보셨는지요? 어떻게 보면 60년대 조흥은행 본관 건물도 알루미늄 새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복고적인 경향이라고 보기에는 요즘 현대건축이 너무 알루미늄 바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한게 있습니까?

김낙중 _____ 물론 유리나 철, 알루미늄을 포함해 금속성 재료가 현대건축 재료로는 악히 다 인지가 된 것 같습니다. 하이테크 건물이라는 공학적 이미지를 주는 건물이라는 것하고 금속과 유리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고, 현상일 수도 있지만... 산업사회 이래로 첨단과학이라든 기계이미지, 철로 된 것하고 막연히 연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비행기라든지 로켓과 같은 것도 다 금속으로 되어 있고, 잠재의식하고도 막연히 연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재훈 _____ 재료가 갖는 이미지 측면에서 하이테크하고 연관성을 찾아보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까 재료와 재료의 접합부분에서 그냥 실리곤 처리하셨다고 했는데 알루미늄이나 유리같은 것들을 접합하는 방식에 있어 기술적으로 한 단계 넘어가는 디테일개발 측면에서 혹시?

김낙중 _____ 그것이... 같이 노력이 되어 된다고 봐요. 우리 건축 자재산업과 건설산업이 같이 발달을 해야 하고, 물론 건축가도 노력을 하므로써 선진국처럼 진보된 디테일, 명실상부한 하이테크에 가까운 그런 것이 된다고 보는데... 그게 어떤 일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는 성취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봅니다.

이재훈 _____ 리처드 로저스가 채널 포라고 런던의 방송국 설계한 것을 보면 유리와 철 그런 재료들을 디테일로 해결하며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런던의 선박 만드는 기술 노무자들은 철을 다루는데 있어서 익숙하였고, 그런 시공적인 측면에서 몇 백년 쌓아온 노하우가 있기에 건축 현장에서도 철이 도면에 그려져 있지 않더라도 철을 디테일하게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노무자의 능력이 리처드 로저스를 있게 한 배경이 된 것으로 봅니다. 김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건축산업이 어느 정도 바탕을 이루었을 때 하이테크

이미지뿐만 아니라 하이테크 기술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건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낙중 _____ 저도 로저스의 방송국 건물을 살펴봤는데, 접합부 등이 기능을 넘어서 상당한 장식적 요소로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로저스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하이테크 건물의 디테일하고 한국성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려면 그러한 공학적인 이미지의 건물보다 다른 시스템의 건물이 개발되어야 되겠지요. 한국적 입장에서 그것을 흉내내면서 그런 디테일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이야기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재훈 _____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아까 반자 속을 보여줘서 골조를 느낄 수 있게 하겠다. 벽체의 구조체를 감지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혹시 인테리어를 직접 하십니까?

김낙중 _____ 인테리어는 극장홀부분만 기본계획을 할 때 제가 단순 협조자로서 지문하는 입장에서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디자인을 다 간섭할 수는 없었고요. 단지 너무 많은 디자인 요소를 사용하지 말아라, 건물 전체의 이미지하고 의도가 이런 거니까, 인테리어에서도 너무 많은 것을 하지 말고 쉽고 간단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이재훈 _____ 감리는 직접 하신 겁니까?

김낙중 _____ 네. 솔직히 공사중 많은 시간을 현장에서 보낸 이유는... 도면이 많지 않았어요. 건물의 물리적인 구성은 복잡한데 그 디테일을 미리 다 잡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 해서, 제가 직접 상주해 감리했습니다. 공사중 변화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그때그때 해결했습니다.

이재훈 _____ 특별히 감리 중에 겪으셨던 문제점이라든지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김낙중 _____ 현장소장이 상당히 의욕있게, 깔끔하게 시공하려 해 큰 문제는 없었어요. 다만 중간에 예산의 한계 때문에 재료 선택이나 디테일을 쉽게 가려는 경우에도 대부분 억셉트를 했습니다.

박항설 _____ 설계경기 당선작하고 현재 완

공이 된 상태하고 특별히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는지요? 비교적 많은 부분 건축가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의도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일면을 보면 건축가의 과욕으로 지어졌는데 왜 그렇게 지어졌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김낙중 _____ 과욕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별로 없고요. 볼만이라면 건축주한테가 아니고 저 스스로한테인데, 초기에는 하이라이즈 부분 같은 것이 비교적 단순하게 디자인이 됐어요. 디자인 전개과정에서 표피를 분절시키고 여러 가지 형태 변화를 줬는데 하이라이즈 부분이 하다보니 표피의 장난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이쪽에서 돌출되고 또 들어가고, 말하자면 분절된 부분이 내부공간의 성격이나 형태를 표출해주는 것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충분치 못했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 감안이 되어서 외부에 분절된 형태가 내부 공간에서도 읽혀질 수 있었으면 더 완성도가 높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상부에 있는 지붕을 암시한 프레임 밑에 있는 분절된 매스는 두 개층이 보이드가 된 그런 공간으로 제시를 했는데 나중에 막아서 쓰겠다고 그래서 외부에서 보여지는 제스처하고는 달리 두 개층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특히 아쉽습니다.

박항설 _____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라파엘 비놀리가 설계해 작년에 완공된 도쿄포럼을 보니까 기본계획안에서 의미적으로 전달되는 것하고는 다르게 공학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일본의 구조기술자라고 할까 그런 엔지니어를 하고 접목이 되면서 지나치게 기교적이 된 것 같습니다. 건물이 좀 무뎠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재기발랄하게 건물 위에 펼쳐져 상당한 당혹감이 느껴지는데 김소장님이 하신 씨네플러스는 한국적인 무던한 건물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김낙중 _____ 그렇게 생각해 주면 상당히 고마운데 제 스스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의도된 무던함이면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부분적으로 의도된 무던함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이나 자재산업의 현실적 한계로 인해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도 안 되었어요. 라파엘 비놀리가 한 건물에 대해서는 저도 일본 건축가를 통해 들었는데 자기네 엔지니어링 실력에 대해서는 세계 제일인 것처럼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라파엘 비놀리가 일본 엔지니어링 실력과 만나지 않았으면 그런 건물이 돼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런 말도 들었어요.

박항설 _____ 김소장님은 씨네플러스가 도

시 속에서 어떠한 건축으로 존재하기를 바랍니다까?

김낙중_____이 건물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도시 안에 있는 건물로서 공공성, 어떤 윤리, 도시의 구성요소로서의 자기 기능, 그리고 보행자에 대한 배려, 또 도시의 여러 가지의 조직 패이브릭과 호응하는 그런 것이 저층부에서 이루어지고 고층부에서는 도시에서의 하나의 표정있는 건물 랜드마크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이 지역에서 밤낮으로 어떤 자기 표정을 갖고 있는 그런 건물로 남았으면 합니다.

박항설_____김소장님은 다양한 학력과 건축적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우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소엔 건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김낙중_____저는 솔직히 지금도 그런 면이 있지만 한동안 건축에 대해서 콤플렉스라는 게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에 건설회사 시공쪽에서 너무 장기간 일했다는 것, 그것이 그 당시에는 못 느꼈지만 건축을 하려고 뒤늦게 30대 후반에 뛰어들어 새로운 분야에서 건축을 시작할 때 너무 알아야 될 것이 많았고 또 건축이 단순하게 적당한 기능과 적당한 아름다움을 가진 건물이라는 단순한 해석에서 점점 이해가 깊어갈수록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이윤추구가 큰 가치인 기업의 정서에 젖어있다가 건축가 마인드를 이해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력이라고 하신 것은 그러한 콤플렉스 때문에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겠다는 종게 이야기하면 건축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갈증같은 것으로 봅니다. 지금도 가슴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같은 것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건축을 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신의 문제인데, 자기가 얼마나 건축을 귀하게 생각하고 - 마치 종교와 같이 - 그것을 향해 얼마나 경외심을 갖고, 건축의 어떤 고유한 부분이나 존재에 대해서 작게는 재료의 존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자기가 진실로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도식적 프로그램이나 방법론, 기술, 조형의 조작 등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편입니다.

이재훈_____씨네플러스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된 배경은...

김낙중_____아 그것은 건축주가 지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불란서의 유명한 방송국 중에 캐널플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시네는 시네마에서, 그리고 플러스는 아마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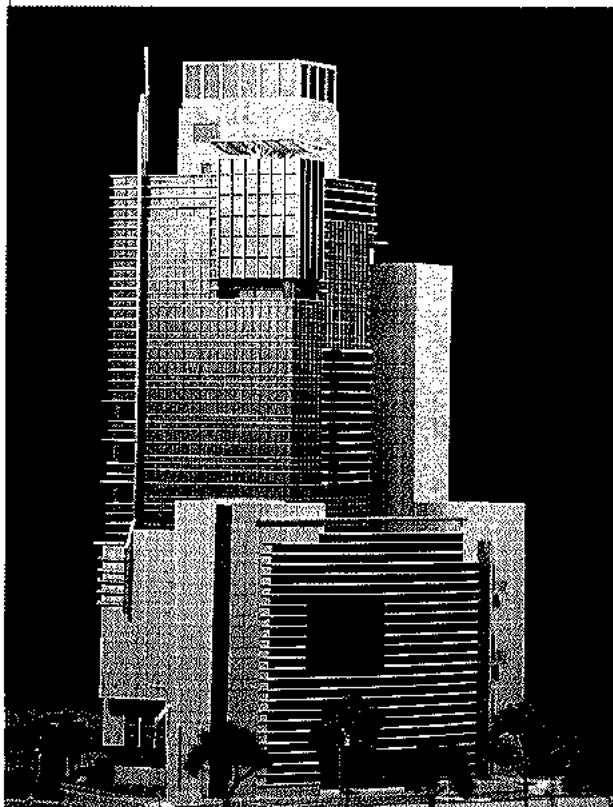
이재훈_____이름은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지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이름이 처음에 있고...

김낙중_____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중간에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좀 멍청한 이름을 제안했어요. 요즘 흔히 쓰이는 무슨 마을, 무슨 마당 이런 식으로, 영화마당이라든지 뭐 볼거리라든지. 조금은 멍청한, 그리고 편안한 이름을 원했는데 결국 지어지고 보니까 캐널플러스에서 유추해서 씨네플러스로 지어진 것 같습니다.

이재훈_____그런데 이름이 먼저 있었으면 아마 설계하실 때 시네마하고 플러스된 어떤 이미지 같은 것을 구상하실 수 있는 배경이 될 수도 있었고, 또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건축주의 입장에서 이건 극장이지만 플러스된 이미지들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씨네플러스라는 이름이 이 건물에 맞다고 생각하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부여됐는지도 모르겠네요?

김낙중_____그럴 수도 있겠지요.

박항설_____씨네플러스의 건축적인 성공과 상업적인 성공을 한 번 더 기대하면서 이 대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극장같지 않은 극장

The Theater, not looked like a Theater

이재훈/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by Lee Jae-Hoon



선릉기지에서 올려다 본 모습

높은 건물, 낮은 건물, 눈에 잘 보이는 건물, 잘 보이지 않는 건물, 발에 채이는 건물, 담이 낮은 건물, 건물같지 않은 건물, 디자인된 건물, 현상에 당선된 건물, 길 잃은 건물, 현재 분류에 포함된 건물, 포함되지 않은 건물, 책 속의 건물, 옷을 벗은 건물, 색깔있는 건물, 땅이 솟은 건물, 떠 있는 건물, 들어붙은 건물, 나뉘어진 건물, 처마달린 건물, 영화같은 건물, 튀겨진 건물, 멀리서 상자처럼 보이는 건물, 별빛에 어울리는 건물, 손 위의 건물, 속이 보이는 건물, 매스컴을 타는 건물, 숨겨진 건물, 향기나는 건물, 1층이 좋은 건물, 그리고 극장같지 않은 건물.

1980년대 Frampton은 현대건축을 신낭만주의 건축, 신헌리주의 건축, 대중주의 건축, 구조주의 건축, 지역주의 건축의 5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Charles Jencks는 현대건축을 포스트 모던 건축과 레이트 모던 건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오늘날까지도 보수적인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건축물을 분류한다는 것은 마치 동물의 종류를 구별하듯이 종의 근원과 특성을 이해해야만 가능한 부분일 것이다(건물의 구조, 재료, 기능, 형태, 윤리성 등은 오랜 시간을 거치며 건축을 구별하는 기본 잣대로 쓰여져 왔다). 중국의 백과사전을 보면 동물의 종을 제왕에 속하는 부류, 미이라화된 것, 순한 동물, 젓먹이 돼지 새끼, 양서류, 전설적인 동물, 길 잃은 개, 현재의 분류에 포함된 것, 격노한 동물, 셀 수 없는 종류, 아주 뛰어난 낙타털을 두른 것, 물주전자를 막 깨뜨린 것, 멀리에서 파리와 같이 보이는 것, 그 밖의 등등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한다(주1). 서양의 종의 분류와 비교하면 도무지 말이 안되는 분류이다. 중국인들이 동물을 그같이 분류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분류에 우리는 상당히 당혹해 할 것이다. 이런 분류가 있을 수 있는지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익숙한 기준을 깨뜨려 본다면, 우리가 구분짓는 유사성과 차이성을 표현하는 명칭을 재분류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구분으로서 제안될 수도 있을 것이다.

Aalto의 작품에 대한 논의를 보면 그의 작품을 유사그리드, 유추그리드로 정의하며 분류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Demetri Porphyrios는 Alvar Aalto 작품을 그리드의 변형이 아니라 질서의 변형으로 정의한다. 결과적으로는 유사할지 모르지만 분류의 시작점이 그리드가 아니라 건축형식의 질서에 대한 감성적 접근이라는 것이다. 분류는 대상의 정의를 다르게 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씨네플러스 건물에 대해 극장이라는 분류와 극장이 아니라는 분류의 뜻을 통해, 이 시대가 처한 건축적 논의의 한계를 짚어보며, 이 건물의 비평에 임하고자 한다.

극장같지 않은 극장

씨네플러스는 극장 더하기의 뜻으로 극장 이상의 것을 내세우고 있다. 건물 기능상 극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공간과 레스토랑 등이 함께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기능이 몇 가지 덧붙여진 것만으로 극장 이상이라는 뜻을 찾기에는 무언가 아쉬움이 남는다. 극장은 시장, 동물, 종족과 함께 인간의 4대 이상종의 하나이다(주2). 극장은 극을 보여주는 곳으로, 인간은 극을 보면서 극이 마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현실적 믿음을 극장의 이상이라 한다. 극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이상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속성이 비록 인간의 한계를 지적해주는 하지만, 극장이 인간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가를 말해준다고 하겠다. 극장은 인간에게 이상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신비스러운 장소가 되는 셈이다. 극을 상영하는 극장이 극의 가능성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극장가는 설레임과 가슴 찡함은 어떠한 형식이든 건축적 표현으로 남겨져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극장의 기본 형식인 대형공간과 대형매스는 오랜 시간 디테일의 엉성함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추억처럼 간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건축 표현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오늘날 그와 같은 의미는 인간 자의식

의 깨우침과 오락영화와 같은 비현실적 주제의 출현에 의해 많이 희석되고 있는 듯 싶다. 극장은 더 이상 이상화되지 않으며, 실용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물속에서 하나의 장치로 새로운 결음을 달고 있는 듯 싶다. 세네플러스는 우리가 생각하던 과거의 대형매스로 표출되는 그런 극장같은 느낌을 주지 않는다. 저층부와 고층부로 나누어 극장을 표현하고는 있지만, 복합기능을 통일성있게 표현하기 위하여 층으로 구축되는 형태를 만들고 있다. 창문사이로 보이는 기둥열과 수평의 알루미늄 바,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내부공간, 엘리베이터나 조그만 계단을 통해 오르내리는 출입구 등은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을 극장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복합기능의 건물이 되다 보니 극장의 모습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그 모습의 표현이 감추어져 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속에서 무너져가는 극장의 이상을 느끼게 된다. 극장은 이상의 지위를 상실하고 있으며, 인간의 여러 생활 패턴중 즐거움을 위한 하나의 장소로 바뀌고 있다. 대형공간은 기둥사이의 구조공간에 갇혀 버렸으며, 대형매스는 사무공간과 동일한 입면적 틀속에 갇혀졌다. 극장과 이상, 대형공간과 대형매스로 인식되던 극장은 이제 일상과 일반구조의 틀속으로 변위되어 가고 있는 듯 싶다. 이 극장에 남아있는 것은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극을 보러온 로비의 많은 사람들을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길 아닌 길

언제나 우리들의 습성에 길은 사라지고 만 듯하다. 많은 사람들이 세네플러스는 길찾기가 힘들다고 한다. 길 이 복잡하다고도 한다. 사람들은 그저 큰 계단이 있고 넓은 현관이 있고, 또 큰 로비가 있고 큰 출구가 있어 출입에 불안이 없으면 좋다고들 한다. 움직임의 루트로서 길에 대한 즐거움의 느낌은 사라져 버렸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일반인들에게 있어서의 길은 그저 A장소에서 B장소로 부담없이 접근하는 목적을 위한 통로일 뿐인 셈이다. 그런 것이 세네플러스에는 없다는 것이다. '좁은 길은 좁을수록 좋다'는 말이 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은 좁아야 느껴진다는 뜻이다. 건축가들은 길을 목적적 공간으로 통하는 통로이상으로 해석하기를 원하였다. 우리의 삶이 삭막할 때, 길이 목적 공간으로만 짜여지게 되며, 우리의 삶이 여유로와진다면 목적공간 사이를 연결하는 길자체가 건축적 목적체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길을 걸으며 전이를 느끼고, 길을 통하여 과정을 배우고, 길에 의하여 접속하게 되는 길의 의미가 목적 대상 공간 이상의 가치를 갖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인의 의식을 이끌어 삶에 대한 향취를 느끼도록 하는 것은 아마도 건축가의 이상일 것이다. 그 동안 느끼지 못했던 재미와 의미, 그리고 나아가 성취하게 될 삶의 여유를 건축이 갖게 해준다는 것은 건축의 즐거운 목표가 될 것이다.

세네플러스에서는 길찾기가 힘든지는 몰라도,

뭐가 길인지 오히려 혼돈스럽게 느껴질지 몰라도, 건축가가 추구하는 건축적 이상을 제안하려 노력한 모습이 보인다. 상업적 견지에서 가장 높은 임대료가 가능한 1층을 코아와 최소공간을 제외하곤 전부 길로 만들었다. 건물의 앞과 뒤가 연결되었고 대지 옆쪽으로도 길이 나 있다. 길들은 모두 9개의 출입구로 연결되며, 목적공간으로 이끌어준다.

넓은 길, 좁은 길, 위로 오르는 길, 내리는 길, 셋길, 뒷길, 길의 종류도 많다. 내부의 길은 브릿지를 통해 외부로 연결되기도 한다. 그만큼 건물을 감상할 수 있는 여지를 공급해준다. 길을 가며, 길을 느끼도록 도와준다. 기존의 건물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로비였다면, 이 건물에서는 오픈된 로비로서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길에서 만나고 길에서 떠돌고 길에서 구경하도록 되어 있다. 비록 길이는 짧으나 그 효과는 성공적이며, 건축가의 의도대로 많은 사람들이 건물안의 길로 유입되고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길은 우리에게 익숙한 길의 모습을 일깨우는데 일조할 것이다. 쉽고 간단한 길이 결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필수조건이라고 더 이상 인정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조금 돌아갈지라도, 맛을 주는 길이 우리를 더욱 즐겁게 하리라는 것을 알리는데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아쉬운 것은 이러한 길이 대지를 벗어나면서 단절되고 마는 것이다. 동, 서, 남쪽으로 뻗은 길들은 대지를 둘러싸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대지 안의 길을 섬처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길을 막는 길인 셈이다. 건물 설계 범위가 대지안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길이 너무 짧아 길로서의 의미가 축소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건물의 외부계단이나 지하계단의 연속성이 보다 강하였다면 짧은 길을 더욱 길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대지밖의 공공도로까지도 길 아닌 길로서 바꾸어 볼 수 있었을텐데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벽 아닌 벽

조적식 구법의 서양건축에 있어서 공간을 가로막는 벽은 건축가들이 무너뜨리고 싶은 제1의 목표이었다. 공간을 만들기 위해 벽을 쌓아야 했으며 큰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Site Model

더 두꺼운 벽이 필요했다. 공간의 유통을 위해 뚫어야 하는 개구부는 한계가 있었으며 내부공간은 한정적이었다. 벽으로부터의 해방은 근대건축에서 시작된다. 흐르는 공간, 오픈플랜으로 대표되는 공간구성은 구조벽으로부터의 자유를 드러내었다. 건물의 모서리가 자유로워졌고, 캔틸레버 구조에 의한 커튼월 개념이 보편화되었다. 평면구성에서 벽은 장애요인이 아닌 공간의 구성요소로 쓰여졌다. 목조 기구식 구법이 보편화되어 있던 한, 중, 일 3국에서의 벽은 이와 다르다. 기둥과 기둥 사이를 채우는 벽이었으며, 개구부를 뚫는 것이 아니라 개구부를 이용하여 벽을 만드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단단하게 채워진 흙벽도 볼 수 있지만 창호지 한 장으로 창살구조를 한 벽이 보이기도 한다. 벽이 종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 Fumihiko Maki의 트레이드마크이기도 한 구멍난 철판의 반투명 벽체의 아이디어가 창호지로부터 유래한다는 사실을 보면, 일반적으로 벽으로 인식하는 벽체의 개념은 벽없는 벽인 유리의 개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오늘날 유리는 서로를 보여주면서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두공간사이의 훌륭한 벽이 되고 있다. 보여주면서, 접근되지 않고, 그러면서 서로의 연관성을 끌어주는 유리벽은 너무 일상적이기는 하지만 씨네플러스에서의 적용은 적당해 보인다. 1층의 오픈된 길에 연결한 유리벽, 극장홀의 복적거리는 사람 모습을 건물밖에서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한 무색의 투명유리. 이들은 씨네플러스를 길로, 외부로 이어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씨네플러스에서 보여지는 벽은 또한 건물의 기능을 담은 벽의 역할을 넘어선다. 공간을 막고 기능을 담

는 벽은 그 모습으로서 외부에 내부를 알리기도 한다. 그러나 씨네플러스에서는 벽이 내부공간과는 상관없이 외관구성의 요소로서 쓰여진다. 고층부 매스에 표현된 분절된 매스-좌측상부의 부분 셋백된 테라스와 우측 상부의 캐노피 하부 매스 구성-와 매스를 이분하는 수직 알루미늄 바는 층층이 반복되는 모듈화된 내부공간과는 무관한 외관구성을 위한 벽의 활용을 보여준다. 이러한 벽의 역할이 어설픈 윤리성으로 통제되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된다. Ghery의 벽이 파도치고 있고, Eisenman의 벽이 쓰러지고 있는 것은 벽을 벽으로 보는 시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부정형의 이중적 언어는 이 시대의 모호한 우상에 기인한다. 맞는 것도 틀린 것도 확신할 수 없는 그저 좋음과 그에 따름이 있는 그러한 시대적 조류를 묘사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배워온 건축적 분류는 하나의 가치관에 경도되어 있다고 인식되기도 한다. 다양한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건축 유형의 분류가 가능하다고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양한 분류와 다양한 가치관이, 건축이 가진 오랜 건축적 규범을 해체하고, 순간적이며 부분적인 의미의 건축적 유형을 양산한다면 그것 또한 견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존의 분류와 새로운 분류의 틈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의식과 시대에 대한 징후를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주1) Architectural Monographs 6, Alvar Aalto 8쪽에서 재인용.

주2) 베이컨의 우상론.

High buildings, low buildings, buildings often seem, buildings often not seen, buildings with low fences, buildings quite unlike buildings, designed buildings, buildings that won architecture competitions, lost buildings, buildings included in this classification, buildings excluded from this classification, buildings in books, buildings with no clothing, buildings with color, buildings with raised floor, floating buildings, stuck buildings, articulated buildings, buildings with traditional roof, movie-like buildings, blown-up buildings, buildings that look like a box when viewed from afar, buildings becoming the stars of night, buildings above your palm, buildings with exposed interiors, buildings shown in mass media, hidden buildings, buildings with fragrance, buildings with nice ground floor, and finally, buildings that are unlike theaters.

Kenneth Frampton has categorized the architecture of the 80s into five trends: neo-romanticism, neo-rationalism, popular architecture, structuralist architecture, and regionalism. Charles Jencks defines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terms of post modern and late modern architecture, which is still valid among conservative scholars. To arrange architecture is just like the classifying animals: it should be based on the thorough comprehension on their origins and characteristics. (The criteria of classifying architecture has been determined through history: structure, material, function, form, morality to name a few.) The encyclopedia of China displays a unique ordering of animals: baby pigs, legendary animals, lost dogs, furious animals, uncountable animals, animals that just broke the water pot, animals that look like a fly when viewed from afar, etc. Comparing this classification with that of the west would only make this seem ridiculo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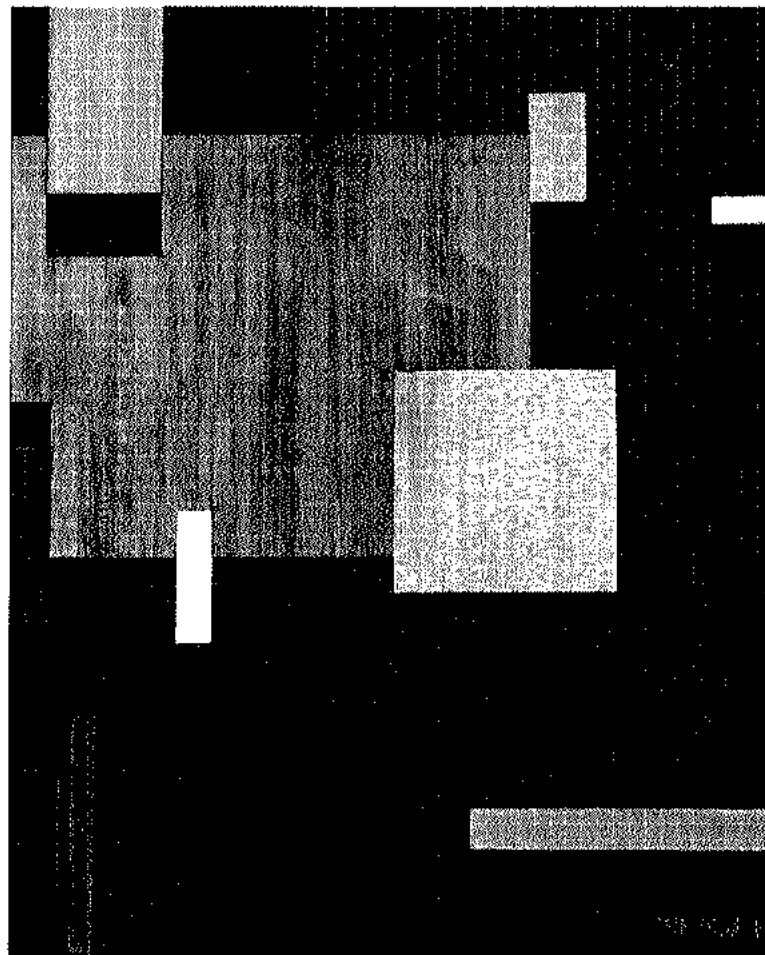
We do not completely understand why the Chinese had come up with such assortment, but the result is nevertheless puzzling. It may even seem irresponsible. But if we begin to discard our usual criteria, that which discriminates what is similar and dissimilar, it could suggest a new way of perceiving the world's objects. The usual

discussions on Alvar Aalto's architecture center on the grids of similarity and that of analogy. Demetri Porphyrios, however, interprets Aalto's works in terms of transformation of order rather than grid. The conclusion may seem analogous, but what Porphyrios asserts is that the point of departure in Aalto is in the emotional approach on the order of architectural forms. The modification on the criteria of classification could thus result in a redefinition of the subject.

The criticism on Cineplus begins with a reconsideration on the differentiation on what is a theater and what is not.

The Theater Unlike a Theater

Cineplus, as its name suggests, offers something more than the usual theaters. Apart from the cinema auditoriums, it holds office spaces and a restaurant, but this fact alone does not make it more than a theater. The theater, along with the market, the cave and the tribe, consists man's 4 follies. The theater shows plays, and in that play the audience find realistic reflections of themselves. The reliance on this make-believe world is what constitutes the folly of theater, but it also proves the importance of the theater to man. The fantasy of the theater could even become more meaningful when the potency of the show could be expressed on the envelope of the theater. The beat of the heart throb we still feel when going to the theater should be reified in some architectural way. The bigness of the spaces and the masses of the theater overwhelms the shortcomings of the details and occupies an undismissible place in our heart like a childhood memory. The growth of man's ego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unrealistic depiction in entertainment films have surely reduced such impact, and the theater is becoming much more banalized as a tool in the conventional frames of contemporary life. Cineplus does not embody the massive look that are usually stuck to theaters. Lower and higher parts are divided, but the overall articulations are made according to the stories, thus forming an integrated wholeness. The row of columns seen through the windows, the horizontal aluminum bars, the visible interior spaces, and various entrances made through elevators and small stairways present a rather untheatrical atmosphere to the passers-by. This could have resulted from the diversity of the functions it houses, but it nevertheless manifests the destruction of the theater as a symbol of folly. It is now becoming, among the various patterns of human life, a place of pleasure. The vast spaces are enclosed in structures of columns, and the grand masses are enveloped by the facade frames that also hold the office



평면구성 Painting

facilities. What is left is the scene, through the transparent windows in the foyers, of visitors waiting for the picture show to begin.

The Path Unlike a Path

It seems that the path has disappeared from our normal senses: people remark on the difficulties in finding the route to the auditoriums. They say the passages are too complex. They are used to big lobbies with big entrances. The pleasure and joy in the promenade through the paths have been lost: it now simply remains as an unavoidable process that you go through when moving from point A to point B. Traces to restore the beauty of the path is clearly present in Cineplus. There's a saying that 'a narrow path is all the better if its narrower.' The path for people should have a small scale. Architects are eager to make the path something more than functional. Walking through the path, people can feel the various changes of surrounding environment, learn from that process, and find meaning from the contact with the path itself. It can go on to inspire us to inhale the scent, joy and essence of life: in other words, it provides us with the spiritual comforts of living. This, architecture is capable of.

While the organization of paths in Cineplus is rather confusing, it shows the architect's intention to accomplish the architectural ideal. The first floor, obviously the most profitable space in a commercial building, has

been carved out, with the exception of the core and a few necessary spaces, leaving the void that creates the path. The front and back of the building comes to connection. The paths also lead to 9 entrances of functional spaces.

The paths vary in features: broad paths, narrow paths, slanted paths leading upwards, slanted paths leading downwards, etc. The interior paths even get exposed to the outdoors via a bridge. They enable the visitors to think and feel along the paths. People can gather on the paths rather than the usual foyers. Though not abundant in their length, the paths in Cineplus fulfill the architect's wishes: people are seen meeting, talking, and looking around on these paths. They may not be the shortest way to get somewhere, but they present us a beautiful experience of architecture. It is a pity, however, that these paths do not expand outside the building. Once we step out of Cineplus, the paths stop then and there. Lengthening the paths to the other areas of the site, or connecting the exterior staircases and basement paths would have provided a more enduring experience of the pa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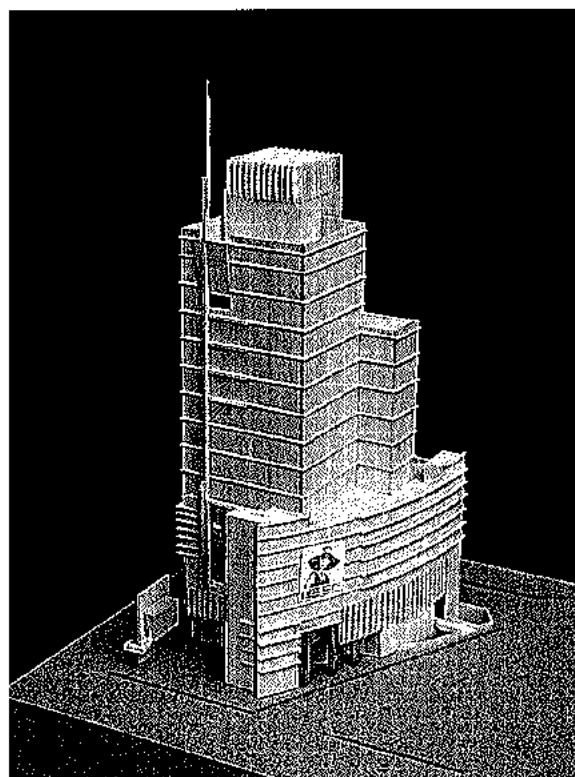
The Wall Unlike a Wall

In the brick structures of the west, the wall, to the architects, was the primary object of elimination. The bigger the space got, the thicker became the structural walls. Openings could only be limited, and the interior spaces were bound to a certain size. Modern architecture starts with the freedom from these walls: the so-called open plan meant the thorough breakaway from the constraints of the walls. The walls were no longer obstacles but an active tool for the architect's expressions.

The walls, however, of ancient Korea, China and Japan, where the post and lintel structure prevailed as the major method of construction, was different. The walls were filled in between the columns, and the openings in them were not carved out but made with the walls themselves. We see the hardness of clay walls as well as the lightness of the sheet which is attached to the window frame. The walls can be as minimal as a sheet of paper, and this is where Fumihiko Maki got the ideas for his famous opaque walls made of punched metals. Our preconception of the wall as a concrete material being can be modified as a glass that separates two spaces while visually connecting them. The directness of the vision and the indirect quality of the glass is almost vapid nowadays, but its use in Cineplus is refreshing. The glass wall along the paths on the ground floor, and that which shoe the waiting guests to the outside effectively connects the paths of Cineplus to its surrounding areas.

The wall here also exceeds the usual functions of a wall. The wall as separator of space and container of functions suggest the interior to the outside by its pure form. But the walls of Cineplus become independent of the indoor spaces and become an element of designing the envelope. The articulation of the upper volume, and the vertical aluminum bars that divide the whole into two volumes is free from the modularized indoor compositions. This should not be subject to a superficial discussion on morality. The waving walls of Frank Gehry and the deconstructed walls of Peter Eisenman insinuate a different perception on one of architecture's most favored element.

The negative duplicity of the language originates from the obscure idols of this era: there is no telling what is right or wrong; there are only questions of what is likable and what is not. The classification of architecture that we have inherited can be reconsidered as a biased idea. It can be revised by new concepts and thoughts. The multiplicity of this newness, however, should not become an excuse for the discarding of meaningful canons of architecture and the ephemeral valuations accompanying the resulting chaos. Between the old and new categorizations, we should make use of this opportunity to seek new ideas with the approach of a new era.



초기 모형도

장성 K화백의 집

Artist K's Residence

강남구 / 강남건축사사무소
by Kang Nam-Gu

이 프로젝트는 나의 관심사인 전통건축에 대한 현대적 해석의 한 결과물이다. 전통은 관리하고 보기 위한 과거 보존의 유물이 아닌, 미래에 걸맞게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무한한 사유의 보고가 되어야 한다. 본 프로젝트에서도 이를 반영코자 했으며, 특히 전남 나주군 디도면에 위치한 홍기흥 가족이 담고 있는 건축적 내용을 「장성 K화백의 집」에서 해석, 표현코자 했다.

1. 건축의 본질

건축의 본질은 공간이라 생각된다.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바닥, 벽, 천장, 기둥, 개구부 등과 같은 공간의 물리적 요소들, 그리고 그것들의 관계를 형성시키는 영역성, 위계성, 방향성 등과 같은 공간의 구성원리들, 이와같은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와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구분없이 건축의 주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시간이 흘러도, 장소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은 건축의 본질은 건축에서의 영원한 에너지라 생각된다. 이것은 다가오는 다양색의 현대건축에 대응하여 국건히 건축행위를 해나가는 바탕이 될 것이다. 건축의 변치 않은 본질을 찾아 나의 건축어휘를 삼고 싶다. 형태담닉의 함정을 경계하고 공간을 구성하는 벽의 내적 원리만을 잘 이해하여도 그것은 훌륭한 건축어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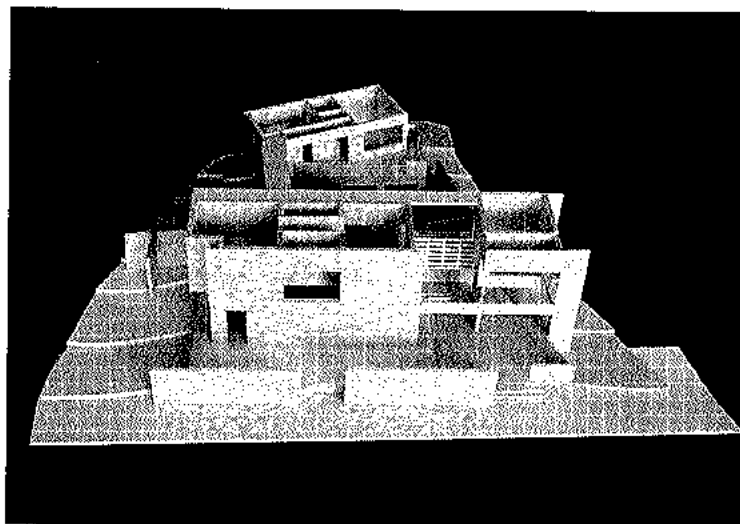
2. 건축체험

건축은 인간의 이성과 감성의 결합체이다. 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건축이론과 오관을 통한 다양한 건축적 경험이 동시에 요구된다. 건축에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으며, 도면이나 모델, 사진으로 이해하기 부족한 장면과 상황은 얼마나 많은가? 건축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머리와 함께 발로 뛰어 마음으로 느껴야 할 것이다. 언어로만 정리하기엔 어딘가 부족하고 허전한 느낌이 든다. 최근에 오관을 통한

공간의 체험적 시나리오들이 작성되는 것도 이와 같은 것과 상통하리라 생각된다. 기능과 효율성 위주에서 벗어나 비록 돌아가더라도, 좁은 통로를 가더라도 목적공간으로 가면서 다양한 공간이나 뜻밖의 공간을 체험하는 것 역시 즐거운 공간여행이 될 것이다.

3. 전통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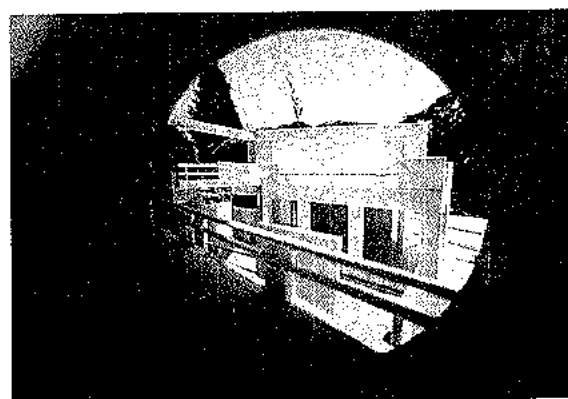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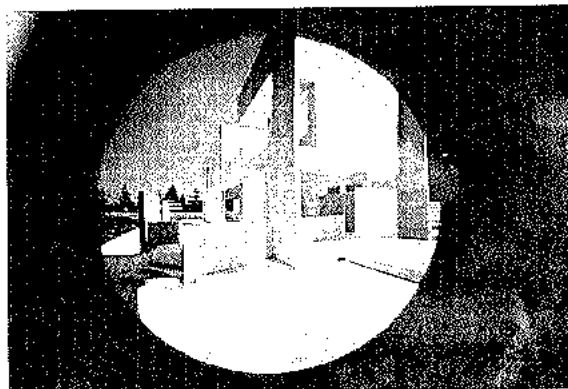
전통건축에 대한 이해는 개별 건축물에서, 외부공간으로 그리고 채의 집합에 이르기면서 넓고 깊어지고 있다. 아울러 당시의 삶과 의식, 환경을 반영한 인문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있으면서 전통건축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다. 진정한 전통의 표현은 전통건축의 건축 요소가 아닌, 옛 사람들의 정신적 삶을 건축 공간으로 또는 집합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부단히 전통을 표현하는 건축가 역시 건축물에서 시작하여, 외부공간인 길과 마당에서, 그리고 집합의 이론인 채의 개념에서 자신의 건축을 재현하고 있으나,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된다. 아마도 현대 건축가에게 부여된 역할 중 하나는 전통건축에 담긴 당시의 삶과 시대정신을 해석하여 이를 현대건축에 반영하는 것일 게다. 우



리건축문화의 맥을 잇고 우리 전통건축에 대한 값진 느낌을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 역시 이 시대 건축가에게 부여된 하나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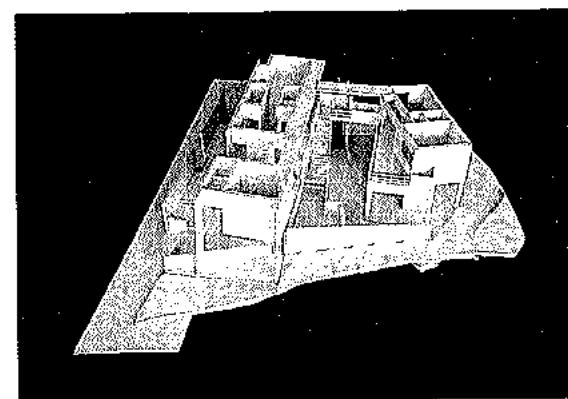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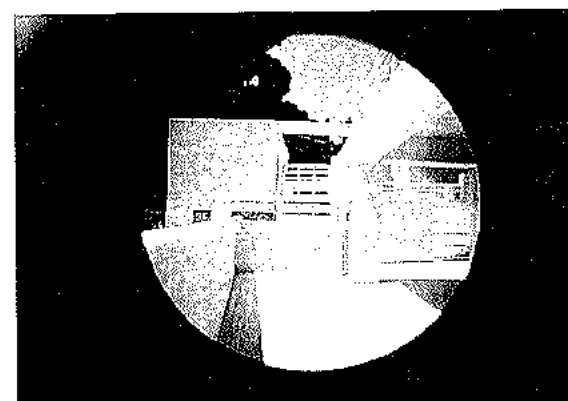
4. 지역건축

건축은 공간과 시간의 해석이라 생각한다. 공간은 지역 및 장소를 고려하여 대지와 삶자체의 표현이며, 시간이란 현재에 충실하면서 과거와 미래와의 연계를 유도한 역사의 표현이다. 지역적 건축이 세계적 건축이며, 지역적 건축가 역시 세계적 건축가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자신의 명쾌한 건축어휘나 이론없이 선진외국의 우수건축물에서 낚은 건축요소들을 적당히 꼬리주하는 건축가가 얼마나 많은가? 또한 유명 외국건축가의 최근 작품을 여과없이 받아드려 최고의 세련미가 건축인 양 착각하는 예비건축가들도 있다. 나 역시 그렇지는 않다고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어느지역보다도 옛 사람들의 멋과 맛이 있고 숨결이 느껴지는 남도의 전통문화를 항상 체험하면서 남도지역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며 사랑하고 있는 마음 하나가 나의 건축활동의 뿌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큰 믿음이 있다. 지역에 대한 굳은 믿음이 건축을 통해서 표현될 날을 기다려 본다. 남도인의 삶, 감성, 의식, 시대정신 등 인문 사회적 환경과 지형, 기후, 풍토 등 자연환경 그리고 남도의 맛과 멋, 여유 등의 정신문화를 건축화하고 싶다.



5. 전남 나주군 홍기응 가옥

홍기응 가옥은 전남 나주군 다도면에 위치해 있다. 홍기응 가옥은 일반적으로 유명 전통 상류가옥으로 알려진 3-4백년의 오랜 역사가 있는 명문 사대부나 고위관료 및 학자 등이 생활하는 특수계층의 가옥이 아닌 불과 100년전에 세워진 일반 부농의 가옥이다. 비록 당시 주인의 신분계급이 높지 않고 건축역사가 짧다할지라도 본 가옥에서는 한국 전통가옥에서 보여지는 모든 건축 요소와 원리가 존재한다. 본 가옥은 일반 전통 상류주택에서처럼 행랑채, 사랑채, 안채 및 사당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은 담장 및 문의 높이와 위치에 따라 연계성을 유지한 채 각 영역의 독자성을 갖고 있다. 전체적으로 막힘과 트임의 연속, 밝음과 어둠의 연속, 외부우스선식의 연속된 동선, 사선에 의한 공간의 역동성, 긴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꺾인 동선, 이에 따라 구분된 채와 마당의 영역 등 공간의 규범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작은 대지 속에서 다양한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이처럼 좋은 건축물을 접했을 때 느껴지는 체험적 감흥을 지역성과 역사성의 측면에서 표현하고 싶은 것이 나의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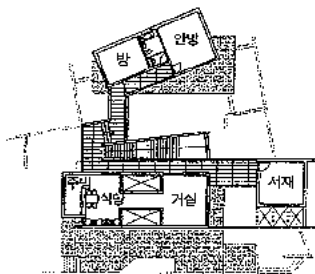
6. 전남 장성 K화백의 집

홍기응 가옥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을, 그리고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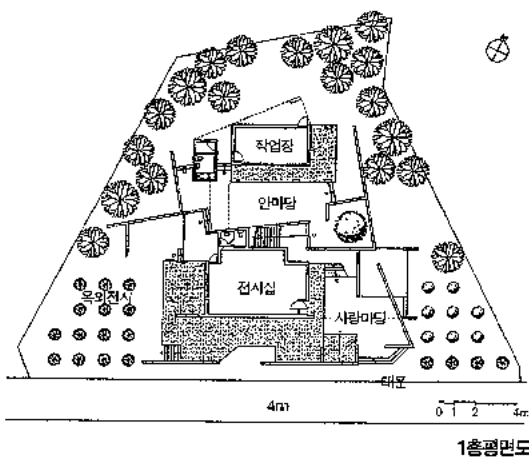
을 현대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전통건축 안에서 물질적이 아닌 비물질적인 것, 그곳에서 마음과 정신이 편안하고 여유로운,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말로는 설명될 수 없고, 보이지는 않으나 분명 존재하는 것, 그것을 찾고 싶다. 건축에 대한 전문가, 비전문가 구분없이 한국인이란 모든 다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것, 설명되지 못하지만 즉시 체험되는 것, 머리로 생각하기 보다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싶다. 시간과 삶을 재해석하여 흥기용 가족에서 받은 그 느낌을 건축의 문질, 건축체험, 전통과 지역성을 고려하면서 조금이라도 장성 K 화백의 집을 통하여 전달하고 싶다. 편안한 느낌, 그것을 쌓고 있는 현상들, 살아서 숨쉬고 인간이 중심되는 활력 넘치는 살아있는 건축을 재현하고 싶다.

이상과 같은 나의 생각과 체험을 바탕으로 「장성 K 화백의 집」을 건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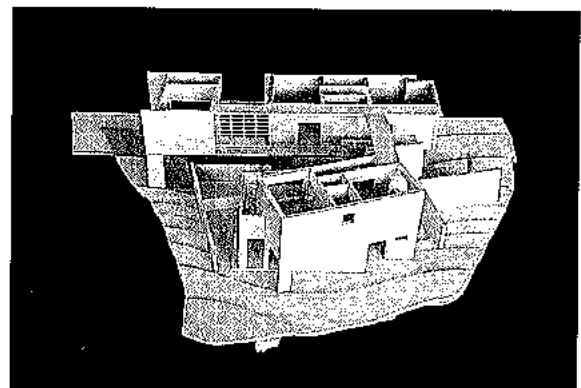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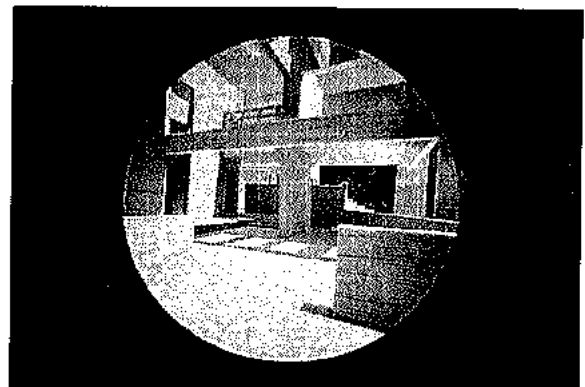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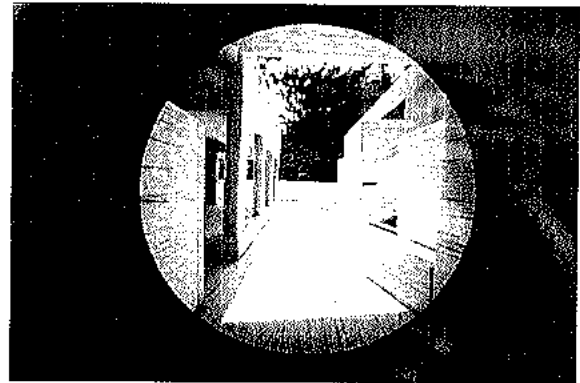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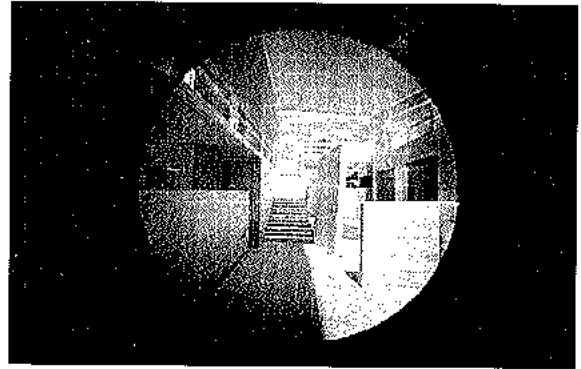
대지위치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84-2		
대지면적	765.2㎡	건축면적	285.67㎡
연면적	273.44㎡	층수	지상2층
용도	주택(화가의 집)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외부미감	노출콘크리트, 블록, 목재		



2층평면도



1층평면도



관음재

Kwan Eum Jae

서용근 / 워드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Seo Yong-keun

주택은 건축의 척도이며 출발점이다. 이 작은 요소들이 모여 도시를 이룬다. 허나 일산지역은 그 급속한 양적 성장으로 인해 땅의 특성이나 도시적 맥락이 무시된 것이 많다. 미국과 캐나다의 목조주택이 비판없이 그대로 수용되는가 하면 유럽의 성처럼 보이기식의 집들도 많다. 이러한 집들은 한순간 우리들을 사로 잡을지도 모르지만 잠시의 유행에 불과하다. 시간이란 흐름속에서 지속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 또한 앞서 얘기한 것처럼 - 주택은 건축의 척도 - 우리의 현실이다. 이 국적 문물에 대한 거리감도 많이 좁혀졌고 어느정도는 익숙해져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최상의 길이 아님은 분명하다. 우리는 서양문물과의 접촉보다 훨씬 길게 지켜온 우리들의 습성들이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이것은 유행과는 다르며 긴 시간동안을 지나면서도 가치를 지켜온 것들이다. 물론 서양의 것들이 무가치하던 것이 아니지만 그것들의 성장배경과 우리의 환경과 문화가 다르므로 제 빛을 발하기는 힘든게 사실이니깐.

이 관음재는 이러한 전통의 문제와 인간이라는 보편적 주제에서 많은 고민속에 제작되었다. 우리네에 맞는 Human Scale, Life Cycle, 열린 공간이면서도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는 집 그리고 우리의 전통주택의 특성들을 이 시대에 맞게 살려 보려고 노력했다. 오랜시간동안에도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급적 차장이나 외형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절제된 디자인을 보여주려 했고, 사랑채와 같은 채의 개념이나 보이기식으로

그치는게 아닌 적극적인 마당으로 거주자의 생활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고 싶었다.

배치에 있어서는 3면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서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방위에 따른 마당의 위치 그리고 이러한 마당의 적극적인 이용에 대해 주로 고민하였고, 결국 두 개의 매스로 분리하여 그 중앙에 내부적 마당을 두으로써 적극적인 이용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런 매스의 분리는 남의집 벽이나 담장으로의 시선이 자신의 집으로 흐를 수 있는 또 하나의 흥미도 제공해 준다. 평면적으로는 적당한 오픈공간으로 여유롭게 시선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긴 동선에 따른 이동간의 시각적 요소들로 공간의 변화와 시간적 추이 또한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수직적으로도 풍성한 공간의 변화를 담아보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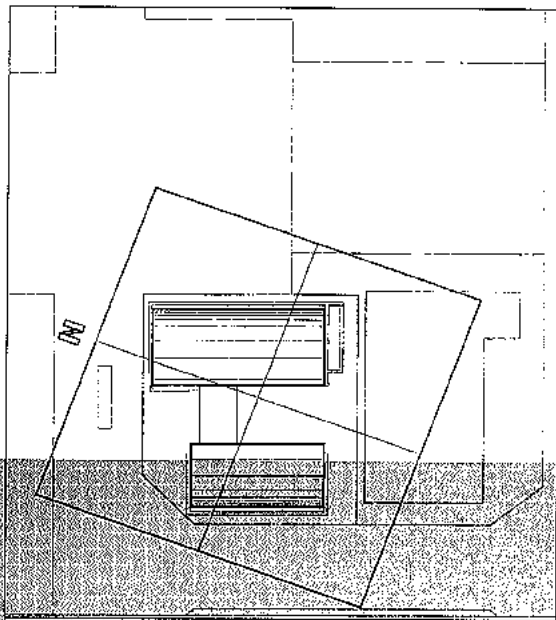
좋은 집은 당연히 건축주와 설계자가 동시에 공감하는 집일 것이다. 건축주도 설계자 만큼이나 도시를 위한 생각이 필요하다. 단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해서 무분별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물론 건축가도 반대적 입장에서 건축주의 이러한 생각을 고려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 그러나 좋은 주택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집속에 있는 구성원 생활이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구성원이 애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집이란 매체를 이용해야 한다.

건축은 행동을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나은 생활로 유도하려고 한다. 건축은 이렇게 말을 걸어온다. 이러한 대화들이 건축에 생명력을 심어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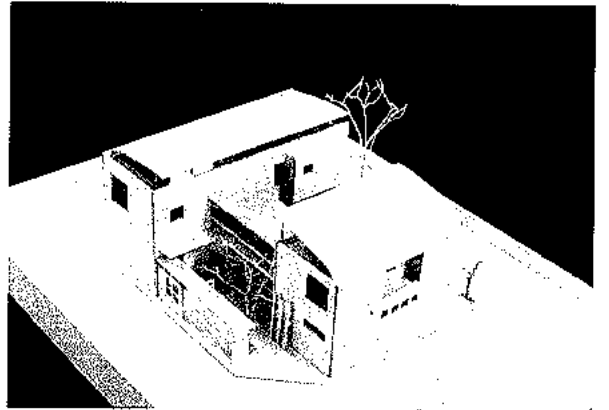
건축개요

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981
지역지구	전용주거
주요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231.28㎡
건축면적	112.83㎡
연면적	197.81㎡
조경면적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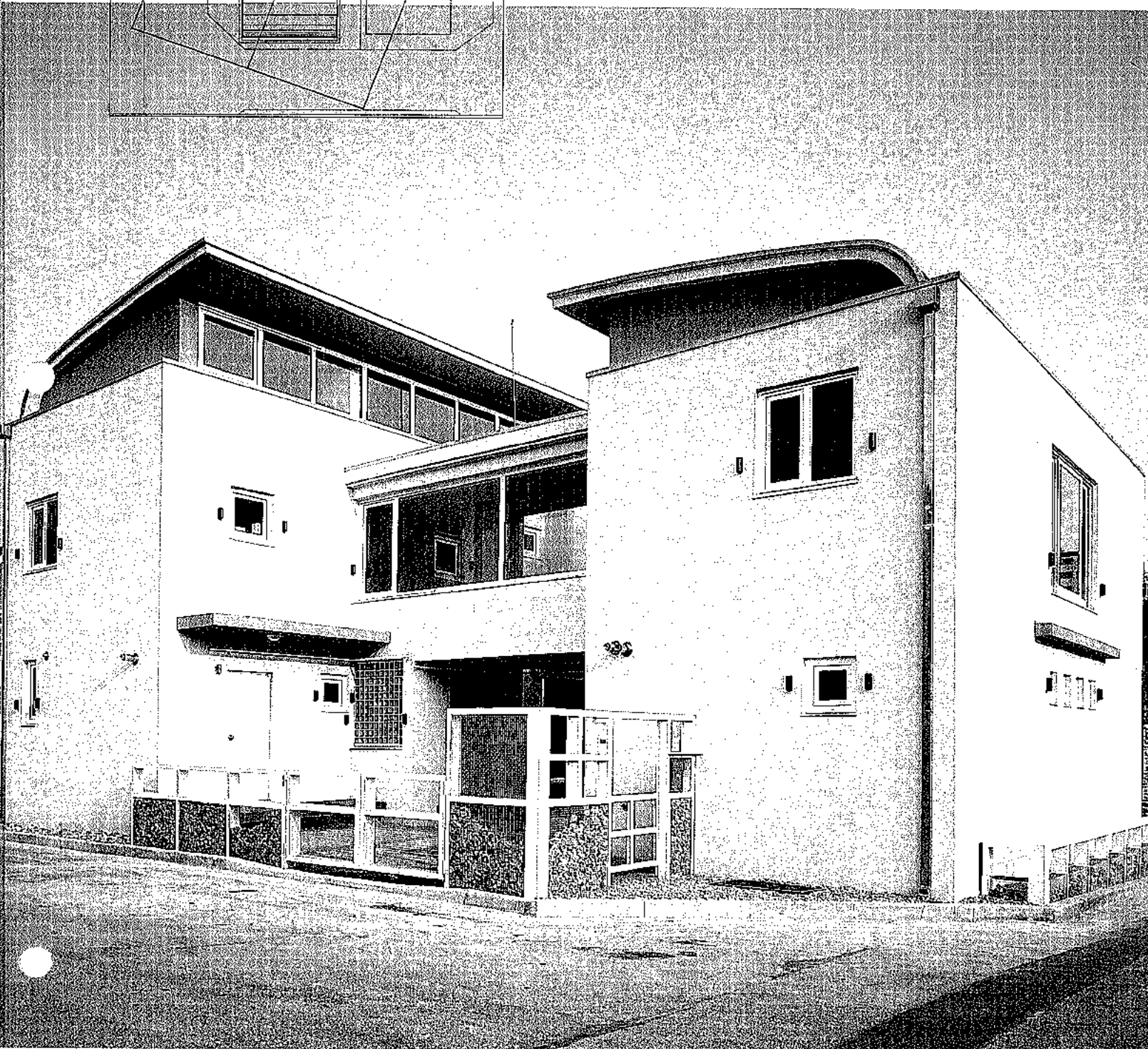
건폐율	48.79%
용적률	85.52%
규모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벽 - 아이소코트, 지붕 - 아스팔트 원굴
내부마감	바닥 - 온돌마루, 벽, 천정 - 벽지
설계담당	류창현, 임주섭, 문호수, 조성준, 이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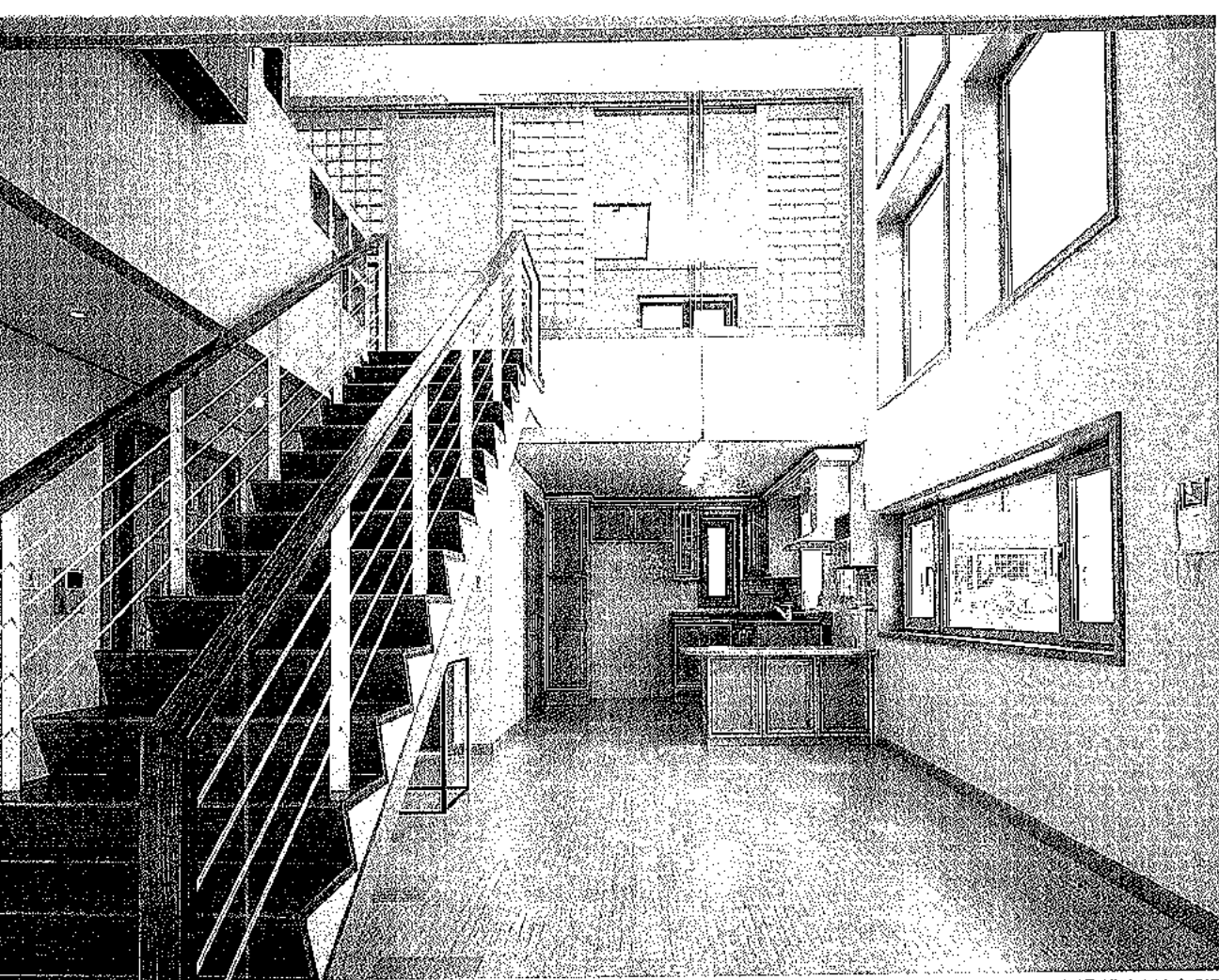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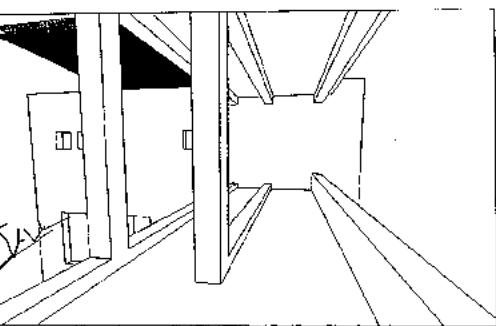
초기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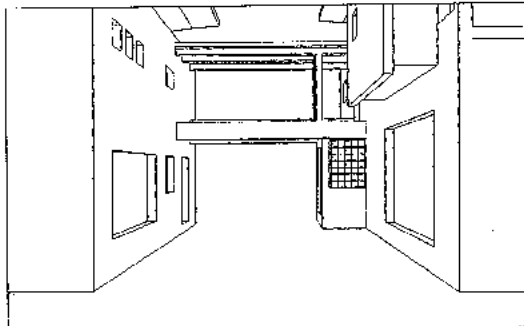
서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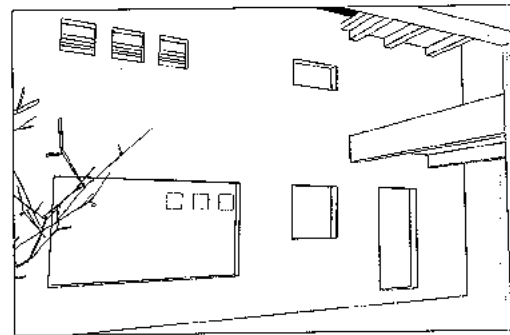
2층 방의 창을 열면 정자나 원두막의 형식으로 거실을 내려다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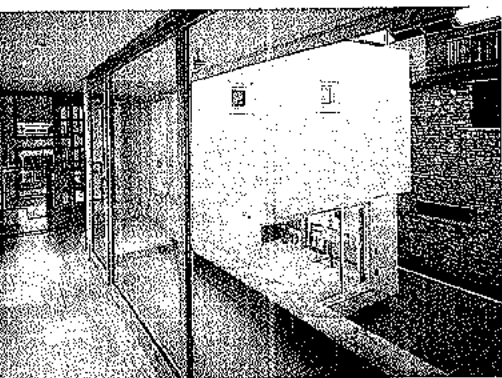
주동 브릿지에서 사랑채를 바라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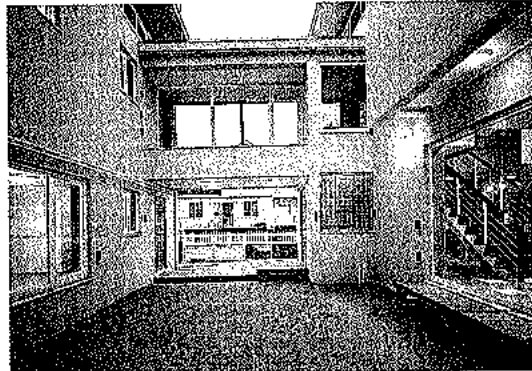
마당에서 외부를 바라봄



거실에서 마당을 바라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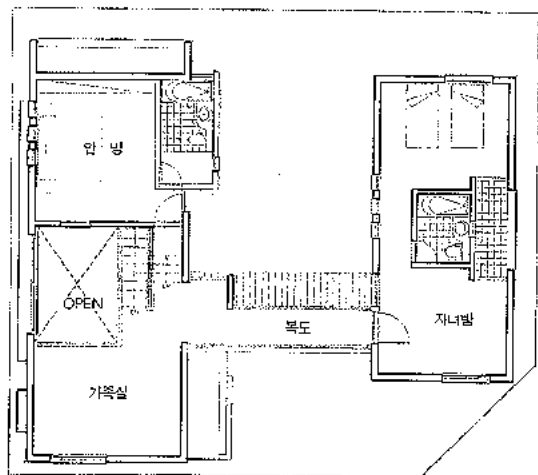
2층 복도를 통해 본 열린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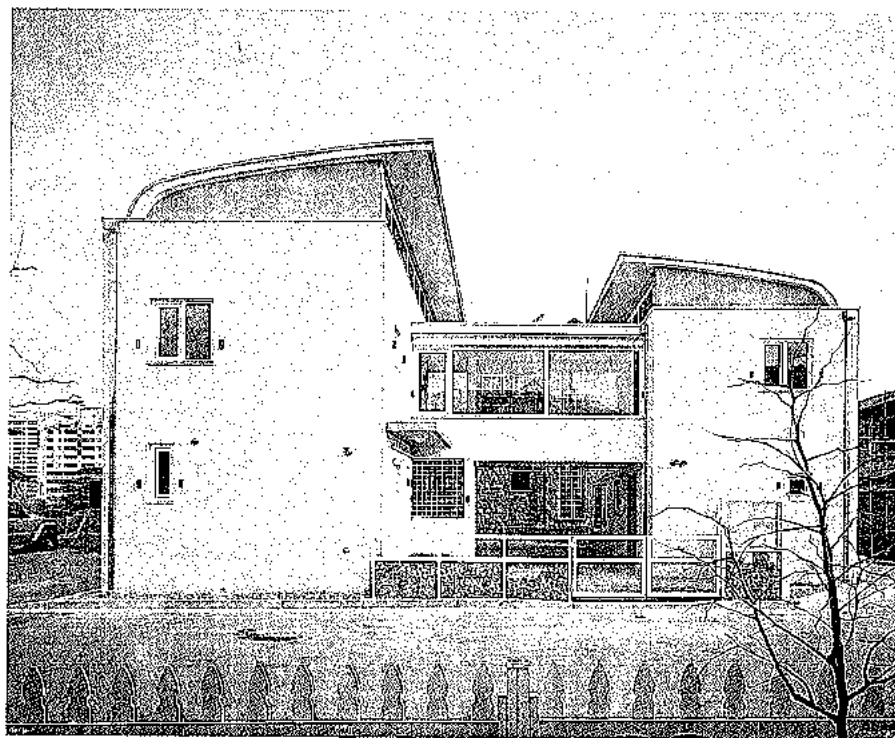
안마당에서 본 주출입구 및 작은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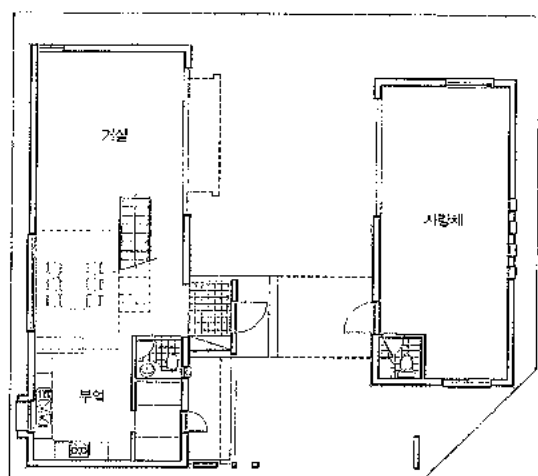
거실 큰창을 두어 마당을 내다보게 한다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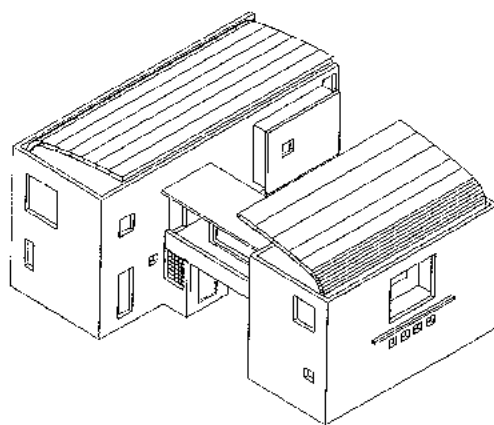


복층 전경



0 1 3 6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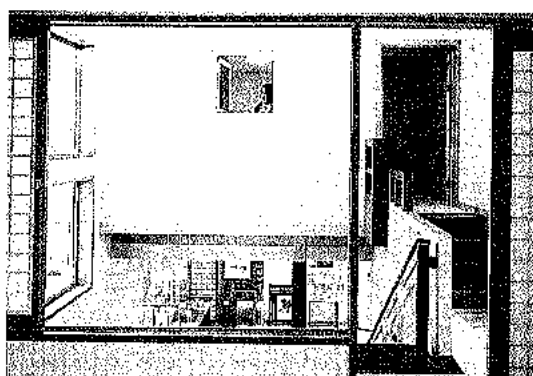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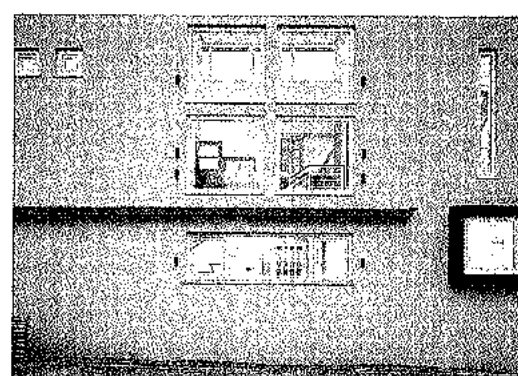
엑소노메트릭



2층 방에서 본 거실과 복도



2층 안방 창을 통해 본 거실과 계단



동쪽 입면. 다채로운 크기의 창이 입면의 변화를 준다

곤지암 주택

Konjiam Residence

김석환 / 터·울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Suk-Hwan

도회지를 벗어나 전원엔 주택을 짓는 것이 법규의 제약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점이 많다. 여기서는 건폐율은 25%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건폐율을 작게하여 넓은 마당을 두고 싶은 사람들도 뜻대로 할 수 없다. 또 전체 연면적은 240평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서 건폐율과 연면적을 맞추다 보면 단층에 가깝게 1층의 면적을 크게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고 만다. 이러한 이유로 처음 계획 당시 열심히 설계한 작품이 실현되지 못하고, 두 번째 설계에서는 규모가 작아진 대신 옥상정원과 뜰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계획 하였다.

건물로 접근하여 긴 차양길을 지나 현관 입구로 다가서면 안으로 뜰이 나타난다. 뜰은 건물과 후면의 차폐벽에 의해 위요되어 조용하고 아늑한 느낌을 준다. 벽과 바닥에 사용된 재질감에 의해 물성의 느낌이 느껴진다. 뜰은 대체로 위요된 공간이지만 틈새로 시선은 막힘없이 비쳐 흘러가고 보의 폴레임이 아스라이 걸쳐있는 하늘로 트인 시야라는 이야기를 멀리 끌고 나간다.

사람들은 현관으로의 진입과 뜰을 지나는 동안 긴장과 이완의 공간적 체험을 하게된다. 뜰의 뒷벽은 이층높이까지 세워져 뜰과 옥상정원의 성격을 부여하는 매체가 된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내부 공간의 중심인 거실이 있고 그 좌우로 안방과 식당이 연결되어 있다. 거실과 식당사이의 짧은 통로 부분에는 화장실과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시작되는 퍼블릭한 성격의 공간이 끼어있다. 식당은 거실과 주방의 동선상의 중간에 위치하는데 거실과 주방바닥은 목재 후로링을 깔고 식당 바닥에는 질박한 질감의 타일을 깔아 연속된 공간에서 정서가 다른 공간감의 변화를 느낄수 있게 하였다. 거실의 뒷편 뜰에는 벽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수조를 넘쳐 흐르며 뜰 중앙에 있는 한그루의 나무와 함께 동성한 자연의 느낌을 머금고, 그 느낌이 거실 내부에 들어지도록 했다. 거실과 뜰 사이에 설치한 넓은 창은 거실과 뜰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 창을 중간 창살은 음악의 선율이 흐르듯이 디자인하여 교류하는 시선이 편

안하고 즐거울 수 있게 했다. 거실의 전면에는 캐노피의 수평선의 선을 따라 시야가 낮게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그 바닥에는 뒷뜰과 같이 질박한 제주석을 깔아서 거실에 좀 더 많은 자연적 물성의 느낌이 전해지도록 의도했다.

이층은 서재를 꾸렸고, 그 방 앞으로 일층 계단과 연결된 복도를 나와 옥상정원으로 나갈 수 있게 했다. 옥상정원으로 나가 서면 전면으로는 넓은 시야가 트이고 후면으로는 투박한 질감의 벽으로 막힌 가운데 그 후면의 경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조그만 개구부를 두었다. 물탱크실과 화장실의 벽면이 옥상정원에서 전개되는 시각상 요철의 변화를 일으키고 시선의 트임과 막힘의 조화를 이룬다. 이층 외부에 노출된 기둥과 보의 프레임은 직육면체인 건물매스의 단순한 윤곽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옥상정원은 바로 그 매스에서 도려 내어진 빈 부분이다. 옥상정원은 지반보다 올라가 있는 전망의 언덕이 될 수 있으며 내부공간에서 쉽게 연결되어 자연과 동화될 수 있는 산책의 마당이 될 수 있다. 그 마당에는 콩자갈이 심어진 테라조판을 깔아서 자연스런 외부공간의 느낌이 커지도록 하였다.

노출된 프레임은 벽면의 매스와 선의 대비로서 조형감을 갖게 하며, 옥상정원의 영역을 확실히 의식할 수 있게 한다. 마치 한국 전통의 정자 건축에서 난간에 의한 공간의 경계를 인식하는 것과 같이 이 프레임은 설정된 영역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하며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안정된 공간적 심리를 갖게 할 것이다. 또한 사람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담기는 폭이 달라지는 경관의 틀도 된다.

좌측에 있는 단층 건물은 별채이다. 그 건물은 당초 규정된 30%이상의 건폐율을 맞추기 위함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러한 별채는 화가나 문인의 작업실이나 주인의 사랑채로 쓰기에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부속화장실을 갖춘, 특 트인 단일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외부마감은 외장용 내수합판에 오일 스테인을 칠하여 나무결의 재질감을 살리고 본체의 조형과 대비와 균형을 갖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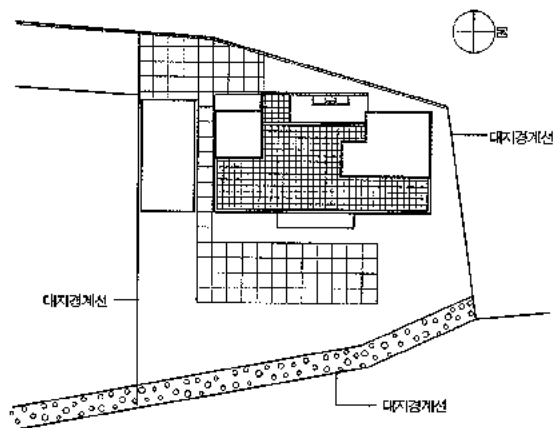
건축개요

위치	경기도 광주군 신촌면 열미리 93
대지면적	369.00㎡
건축면적	119.76㎡
연면적	122.63㎡
건폐율	3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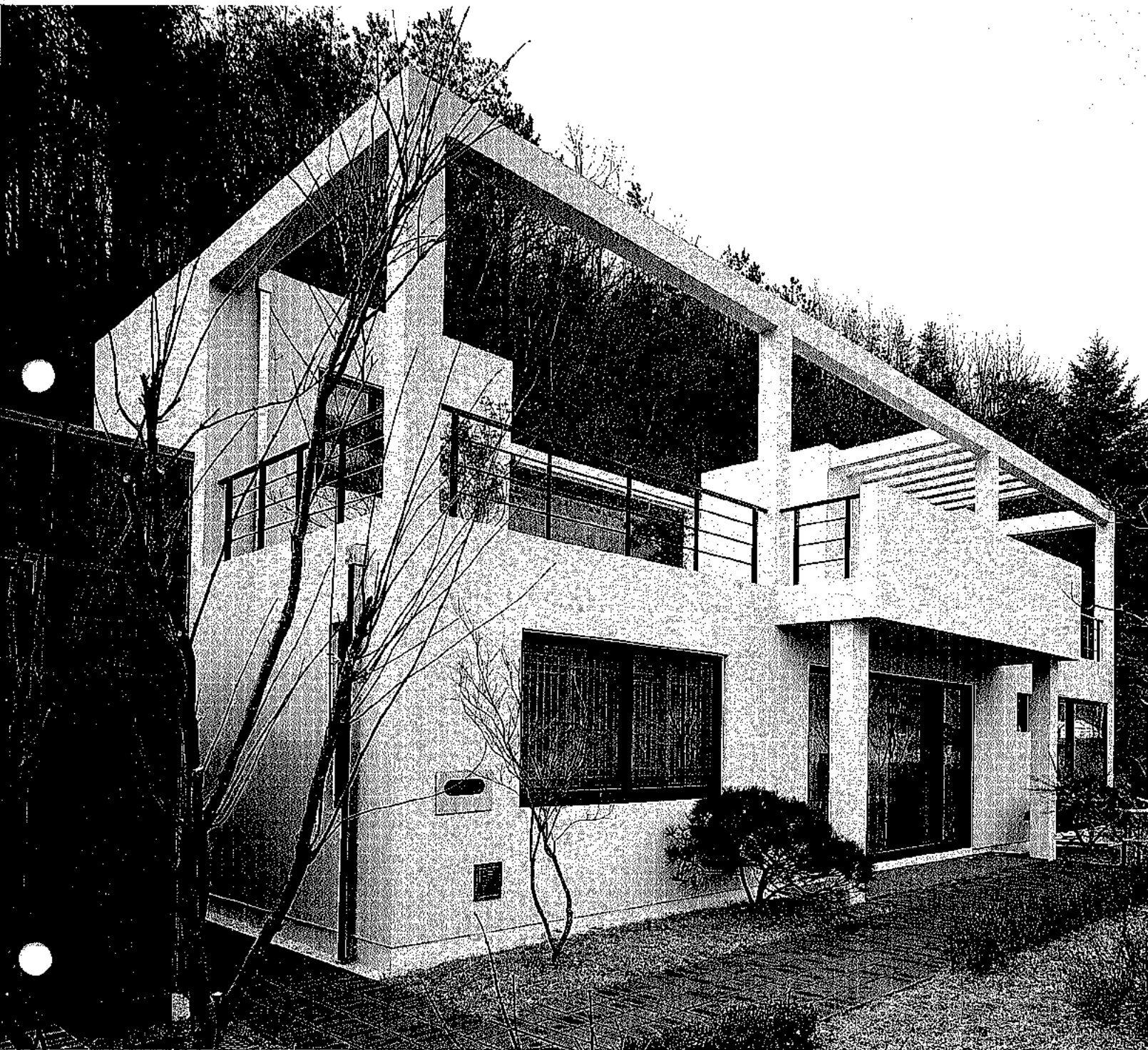
용적률	33.23%
규모	지상2층
구조	R.C조
외부마감	드라이브트 시스템
내부마감	석고보드 위 벽지, 락카 페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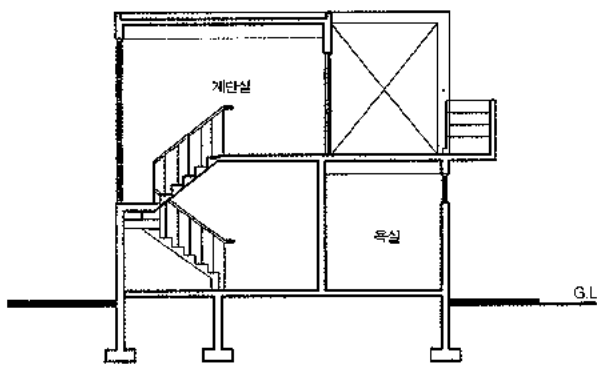
동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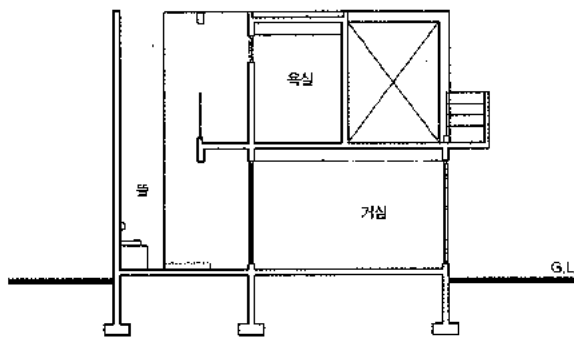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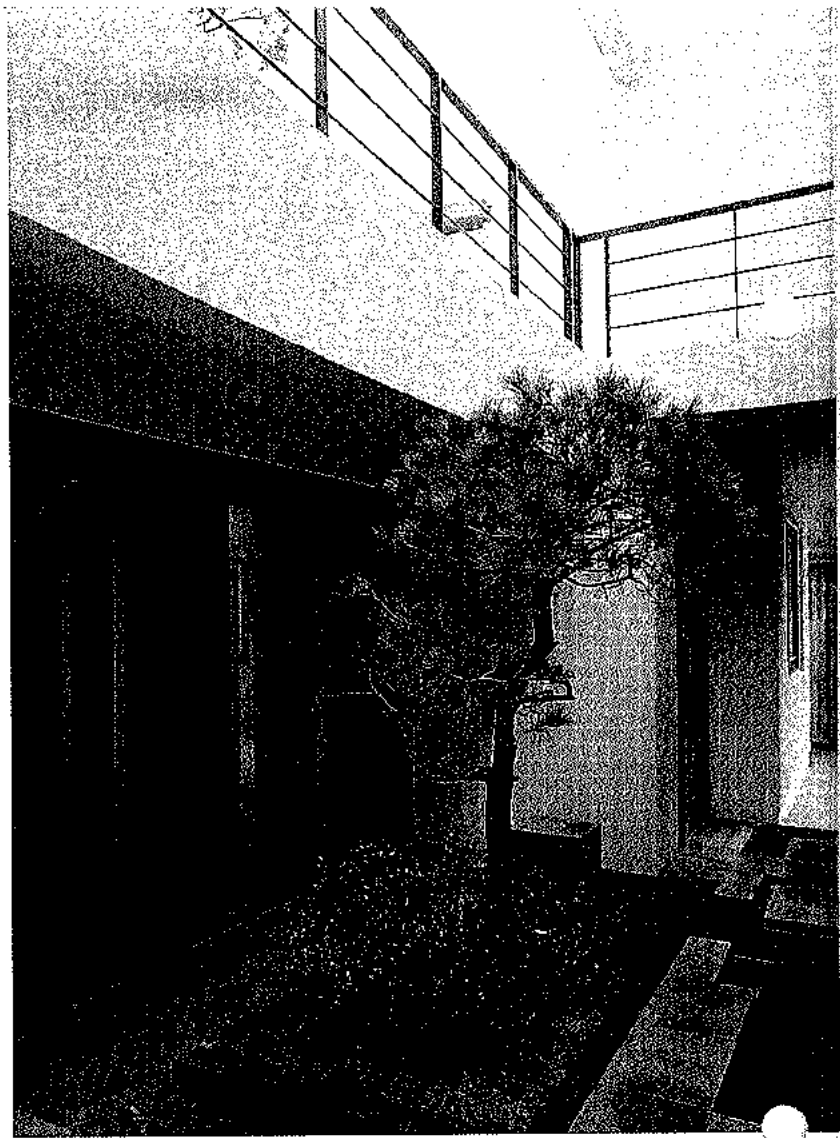
남동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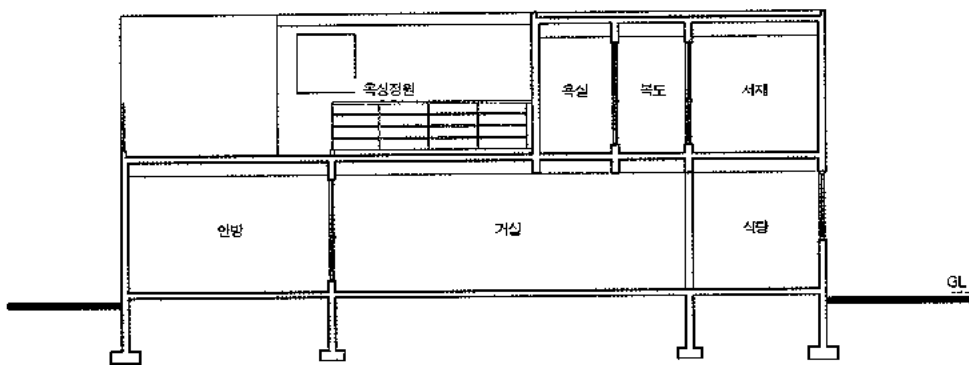
주계단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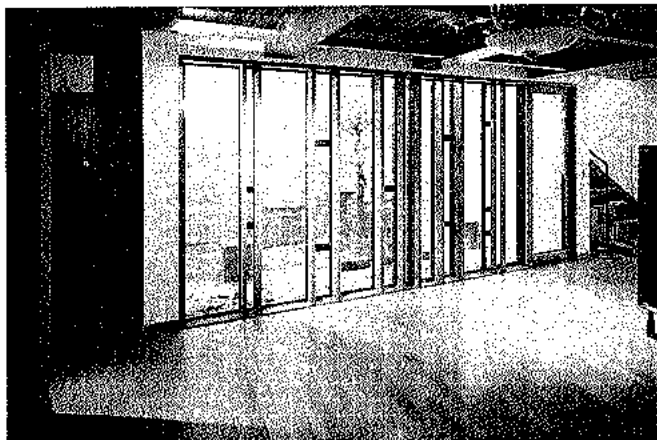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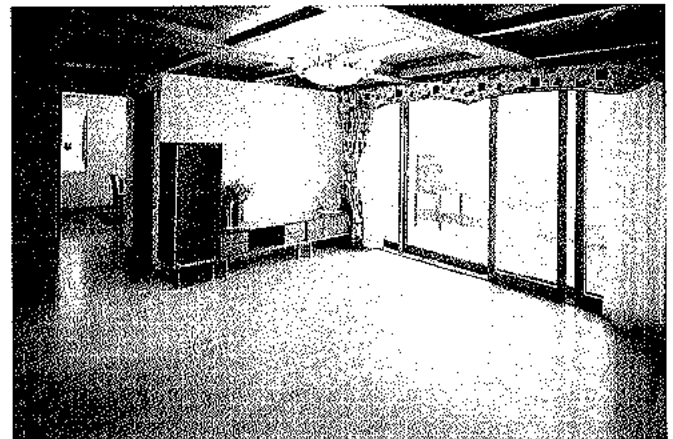
건물과 후면 차폐벽에 의해 위요된 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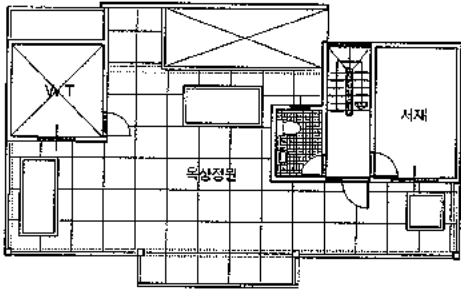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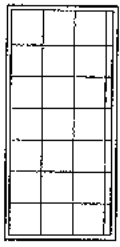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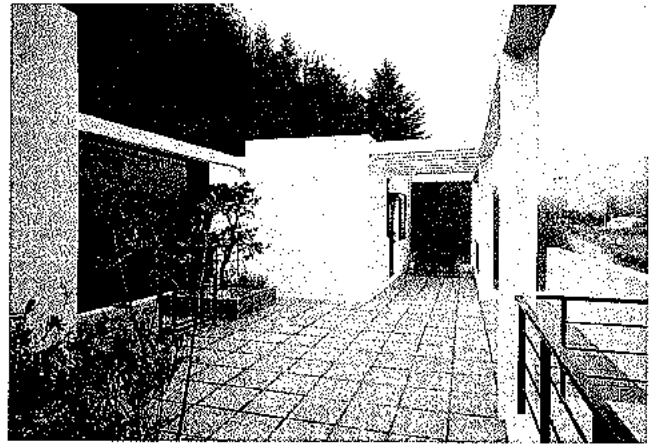
거실에서 뜰을 본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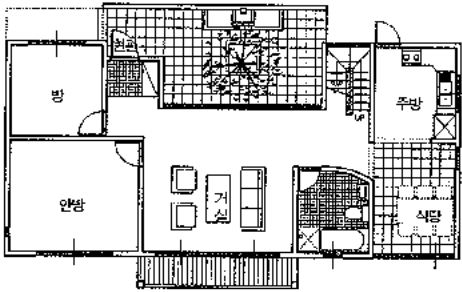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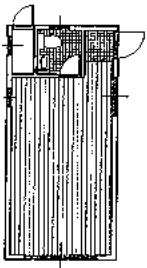
주출입구 쪽에서 본 거실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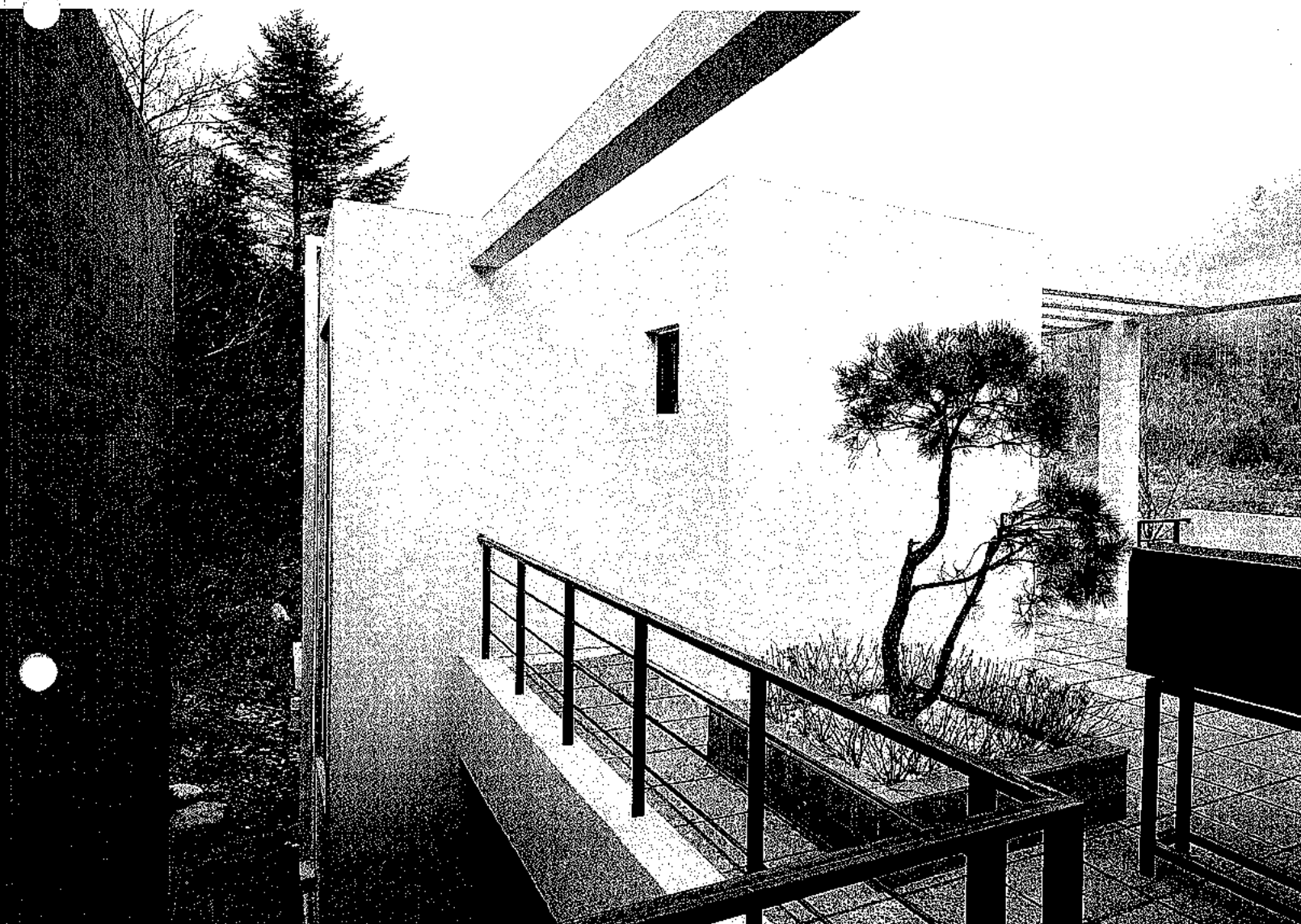


옥상정원



0 1 3m

1층 평면도



일산 마두 949

Ilsan Madu 949

송광섭 / 환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Song Kwang-Sup

단기간에 황량한 일산 벌판에 채워지는 집들은 나름대로의 규제와 건축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건물들의 전시장 같은 서글픔을 배제하기 어렵다. 분명 주변에서 우리네가 발견해야 할 의도된 통제, 어우러지는 군락의 의미를 망각한 마을은 언젠가 서울의 집들의 운명같이 일시적으로 지어지고 또 부서져야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전철을 또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일산의 두 번째 프로젝트 - 그 장소에서 블록 단위의 커다란 울타리안에 모여있는 작은 구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서행되는 순환도로와 보행자도로, 작은 공원이 새롭게 경계가 된다. 빈번하게 통행되는 차로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는 건물의 외피가 그 외부 조건에 대해 대항하고 방어하는 의미를 가지며, 대지경계 가까이 다가선 건물의 외벽은 새로운 경계와 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때문에 채의 분할로 이루어진 평면 구조는 일반적으로 열려진 외부공간이 아니라 내부에서 감춰지고 반개된 정적인 뒀을 갖게된다. 또한 그 뒀들은 각각 성격을 달리하며 각기의 내부공간과의 연계로 철썩 친근감있게 다가서게 된다. 각실에서 부분적으로 보여지는 작은 외부공간은 나름대로의 계절과 시간을 느낄 수 있는 특징을 갖게된다.

그 분할로 이룬 사이공간들은 반 투과된 연결통로와 데크, 피막으로 구획된 수공간으로 채워진다. 그 반짝이는 물표면은 반투과된 현관을 통과해야만 보여지며 건너편의 마당과 조우하게 된다. 그 곳에서 서편에서 반사되는 물과 햇빛, 또 밤하늘의 별과 달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 공사비 사정으로 무산됐지만 - 또 시간대에 따라 변하는 물표면은 거실과 안방과의 분리된 공간을 새롭게 연결하고 분절된 일체감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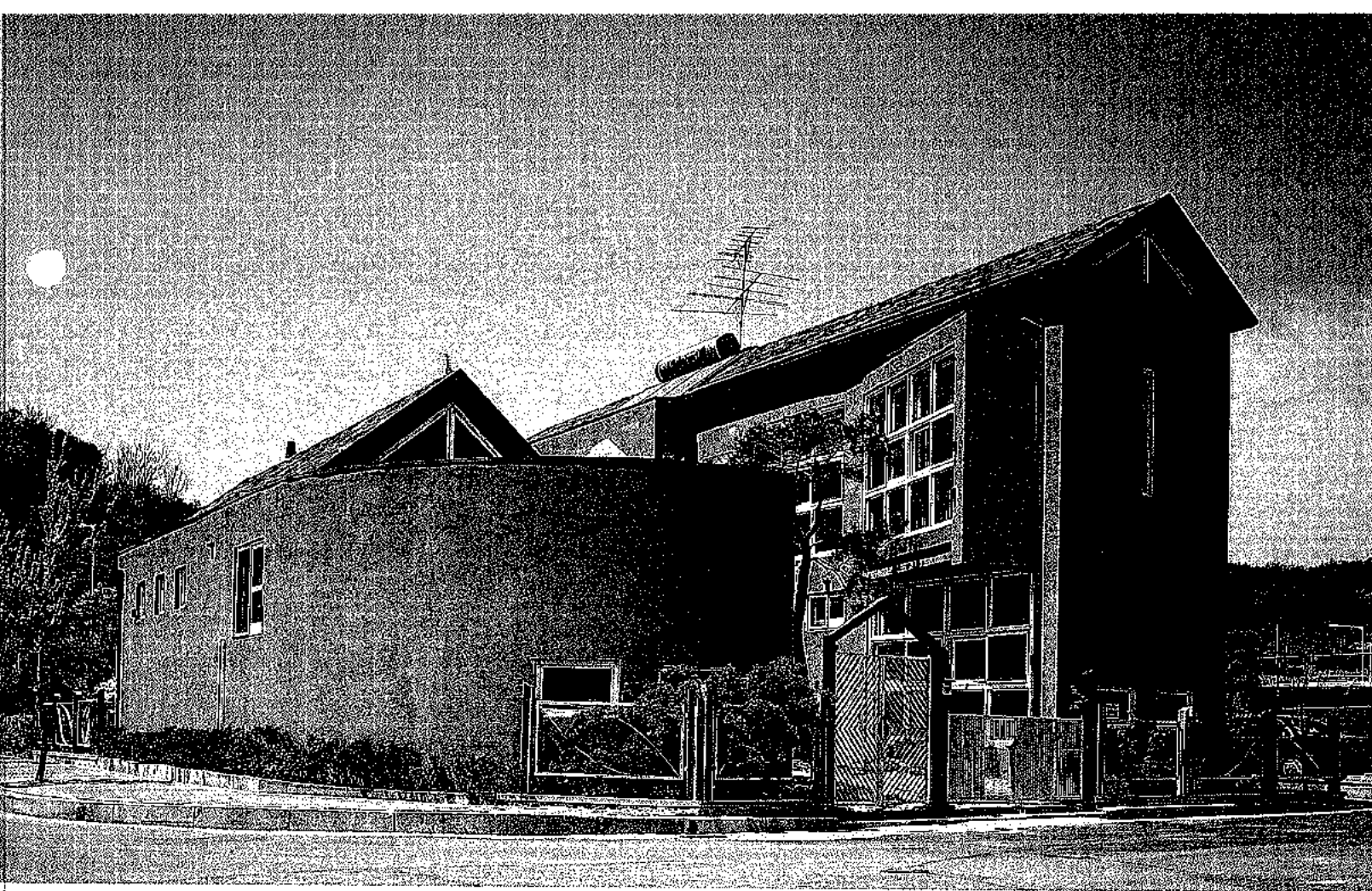
2층의 열려진 방들은 정발산과 근린공원을 의식한 낮게 깔린 박공지붕 너머로 바라다 볼 수 있을 것이다. 타원형의 둥근 비행점사같은 캐노피와 함께... 눈아래 깔린 흔들리는 나무가지는 때론 그곳이 원두막같은 녹색의 일렁거림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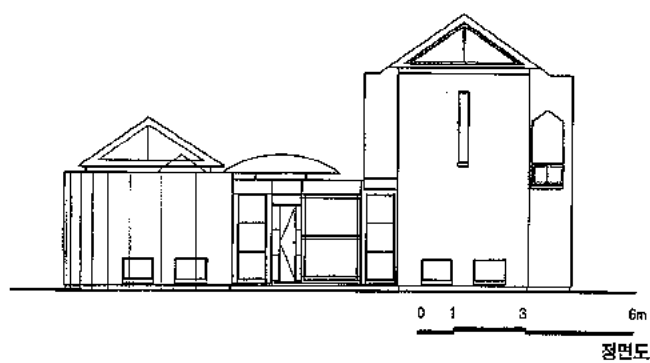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949번지(22블럭 25-1)
지역지구	도시설계지역, 일산지구
대지면적	273.8㎡
건축면적	135.65㎡
연면적	195.50㎡
건폐율	49.54%
용적률	71.40%
전면도로폭	12m
구조	조적조
마감	벽 - 외단열시스템, 지붕 - 아스팔트형글
준공	1996. 9
설비	보우설비
전기	서창엔지니어링
설계담당	박진현
사진	박영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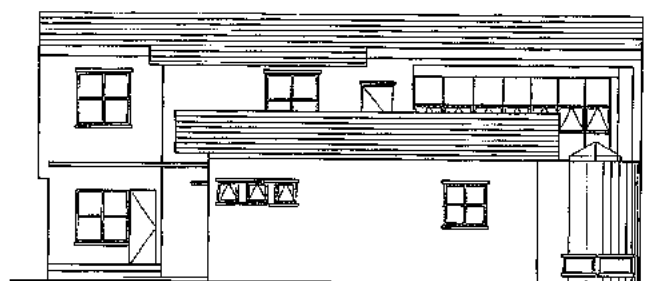
뒤뜰



남동측 전경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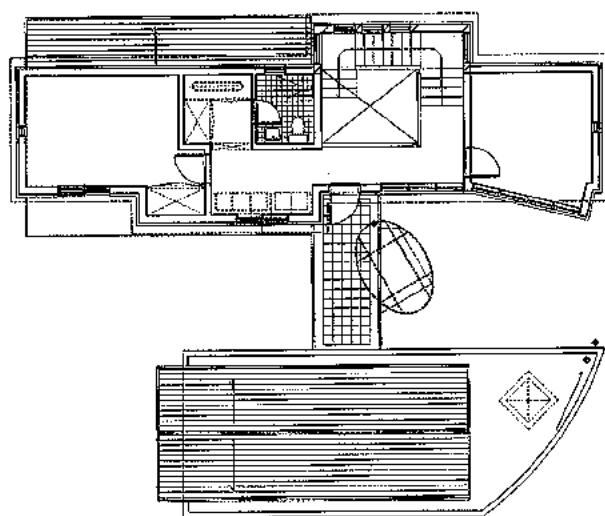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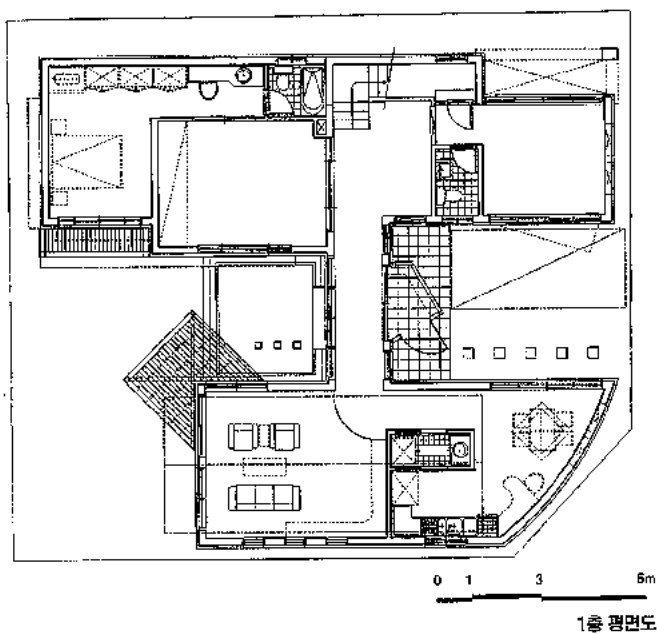
우측면도



거실과 2층 연결 통로



계단실



주출입구 전경



레고 코리아 이천사옥 및 공장

Lego Korea Co. Ichon Office

김광성 / 김광성 건축사사무소+쏘렌

Designed by Kim Kwang-Sung & Soren

배치계획

주변의 자연환경과 대지의 레벨차 등 자연적인 조건들을 건물배치 및 평면 계획에 그대로 이용 건물이나 대지에 단차를 주어 주어진 문제점 등을 자연스럽게 흡수하였고, 건물이 주변 스카이라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환경과 어색함이 없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사무, 공장, 물류 등 기능별로 공간을 분리, 한동으로 계획하여 기능별 독립과 짧은 동선처리로 공간을 독립시켜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쾌적한 근무 환경으로 생산성 증대 및 업무의 능률 향상을 이루도록 계획하였다.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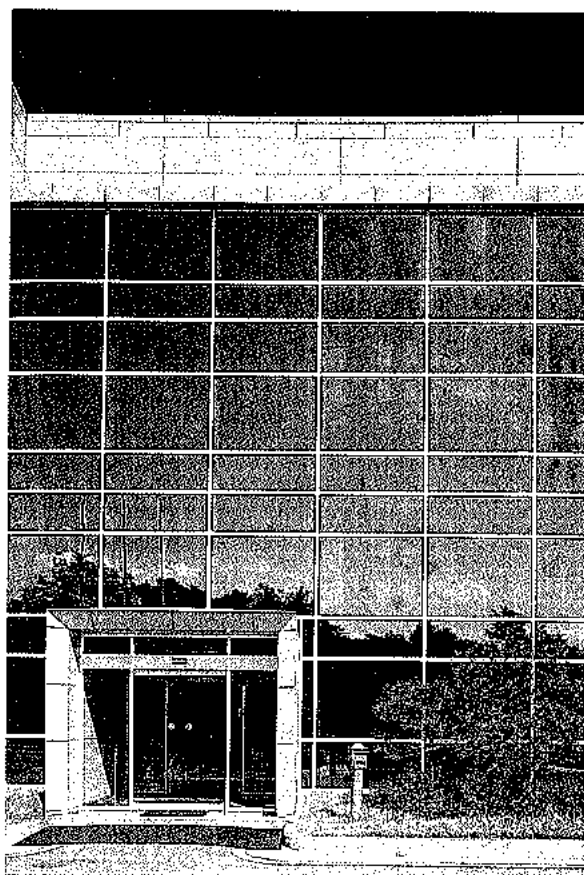
현관로비의 Open 및 커튼월 처리로 공간을 밝게 처리하여 방문자들이나 이용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였으며, 각실의 창호를 크게하여 자연광을 실내에 최대한 유입시켜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근무환경을 조성, 업무 능률향상과 에너지 절약적인 건물이 되도록 계획 하였다. 식당은 일조 및 조망이 가장 좋은 1층 남쪽에 계획하여 종업원 식사시 즐거움이 더하도록 하였다. 3층에 어린이들의 견학 통로를 계획하여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경관이 되도록 하였다. 복도공간을 폭 4.5m로 넓게하여 천창을 설치, 자연광을 실내에 유입시켜 전시공간으로 계획,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를 담아놓아 이용자들이 공간의 흐름에 따른 많은 이야기들을 보고 느껴면서 즐길 수 있도록 계획 하였다. 실내미감은 사무실 출입구는 진한 청색, 화장실 출입구는 노란색 등 레고 고유 컬러를 선택, 실의 기능별로 컬러를 달리했으며, 동일 기능실은 같은색을 선택, 조화와 통일성을 갖도록 하여 건물 이용자들이 쉽게 인지, 편리성을 높였다.

형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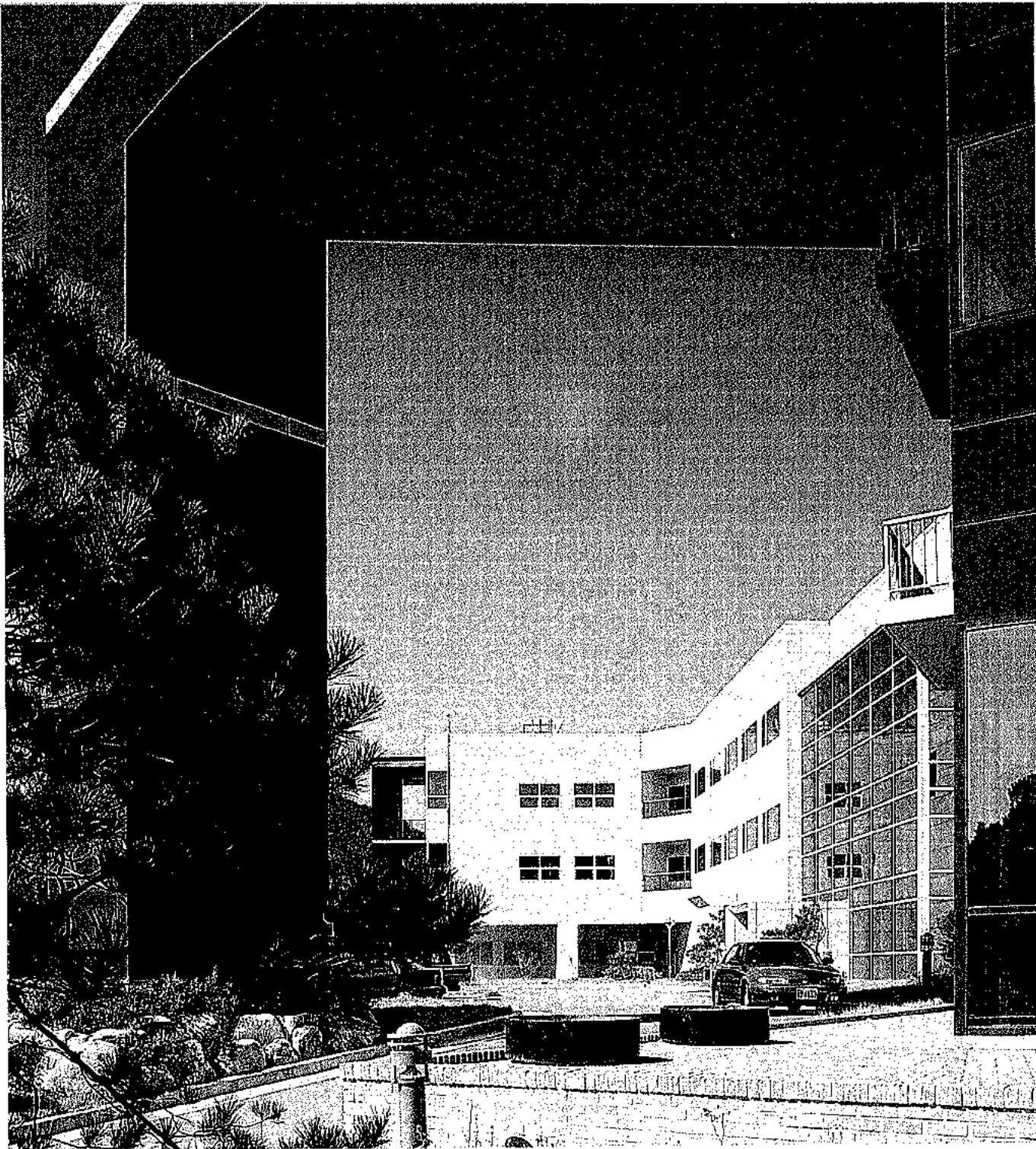
사무동의 평면의 자유곡선이 아닌 완전한 원호 도입으로 인한 매스의 무미건조, 지루함과 기타부분이 자칫 줄 수 있는 건물의 투박함, 위압감, 무거움과 마감재의 금속성 컬러의 진한 청색으로 인한 차가움 등을 적절한 매스의 보이드 커튼월의 첨가 적절한 비례의 창호 설치에 의한 건물의 투명성 부여로 이러한 문제점을 상쇄시켰으며, 레고 고유의 노란 진한청색, 회색, 백색 등 적절한 컬러선택과 직선과 곡선을 함께 사용 풍요로우면서 세련된 이미지를 지니면서 내부기능과 외부 형태가 부합되는 형태가 되도록 하였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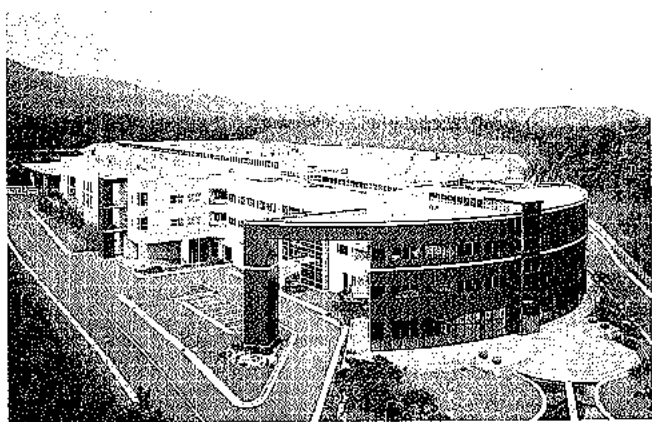
위치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818-9
대지면적	28,066.00㎡
용도지역	준농림지역
건축면적	11,709.43㎡
연면적	19,614.38㎡
건폐율	41.72%
용적률	69.88%
규모	지상3층
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 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알루미늄 복합패널, 지붕: 평슬라브워 시트방수, 인슈패널워 시트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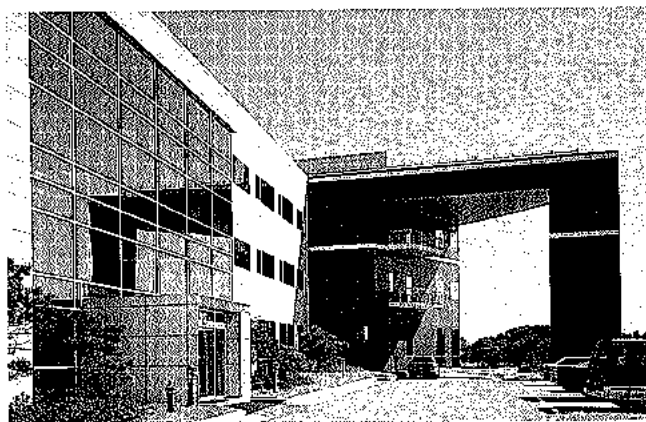
주출입구 및 커튼월 상세



피로티를 통해 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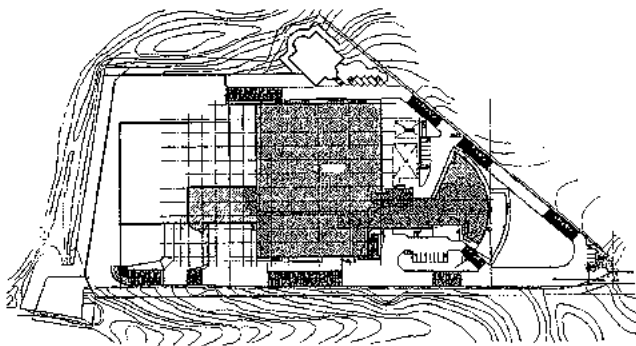
남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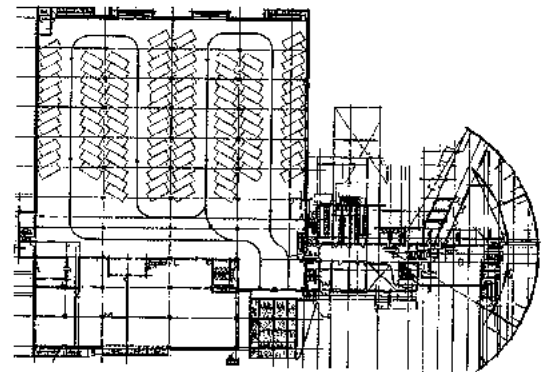
북서측에서 본 주출입구와 피로티 전경



로비 상부(레고블럭으로 만든 그래픽)



배치도



1층 평면도



공장동 내부



3층 복도



2층 전시장

진천배티성당

Jinchon Baety Presbyterian Church

조구현 / 신세대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 Goo-H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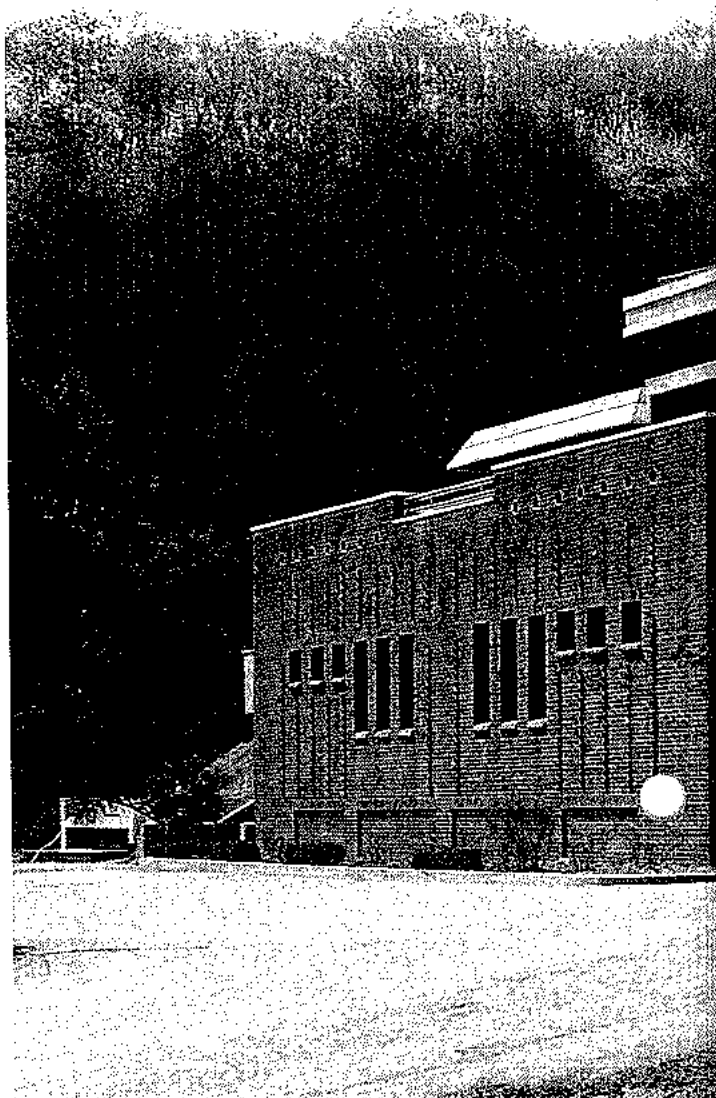
진천 배티는 조선조말 천주교 박해당시 순교한 무명 순교자 묘소 42기가 산재하여 있을 뿐 아니라 한국에서 두번째 사제인 최약업(토마스)신부의 사목의 근거지가 되었던 곳으로 그의 탄생 175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곳에 배티성지 기념성당을 세우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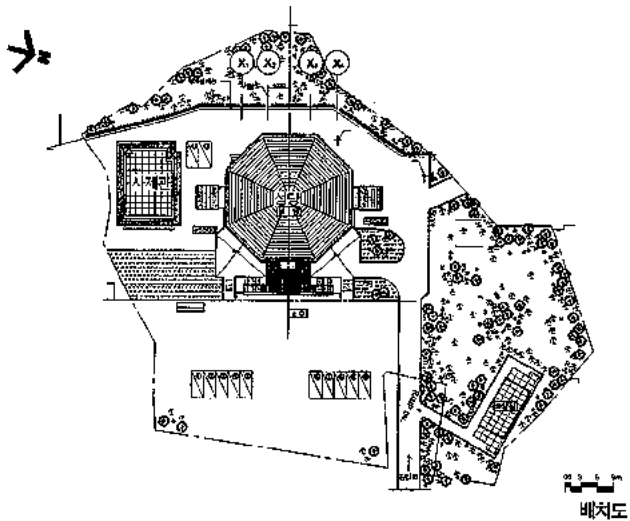
이 사적지는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에 있으며 이곳은 진천에서 안성으로가는 중간 험준한 산자락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아스팔트 길에서 보자면 17m정도 치켜 올라가 보아야 하는 곳이다.

또한 3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도하여 건물의 방향성이나 정면성에 있어서 규정짓기가 힘든 상황을 고려, 평면의 형태는 8각형을 이뤄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정면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서 8각형에 안정감을 주기 위하여 종탑과 고가수조를 위한 탑을 양측에 배치한 형태이다. 성당에서 상당히 올라간 부분에 능선이 있으므로 이 Sky Line과의 조화를 위하여 지붕의 형태는 수평선을 피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지형의 경사면을 이용하여 계단을 거치지 않고도 1층과 2층을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정면의 계단을 위한 벽면은 정면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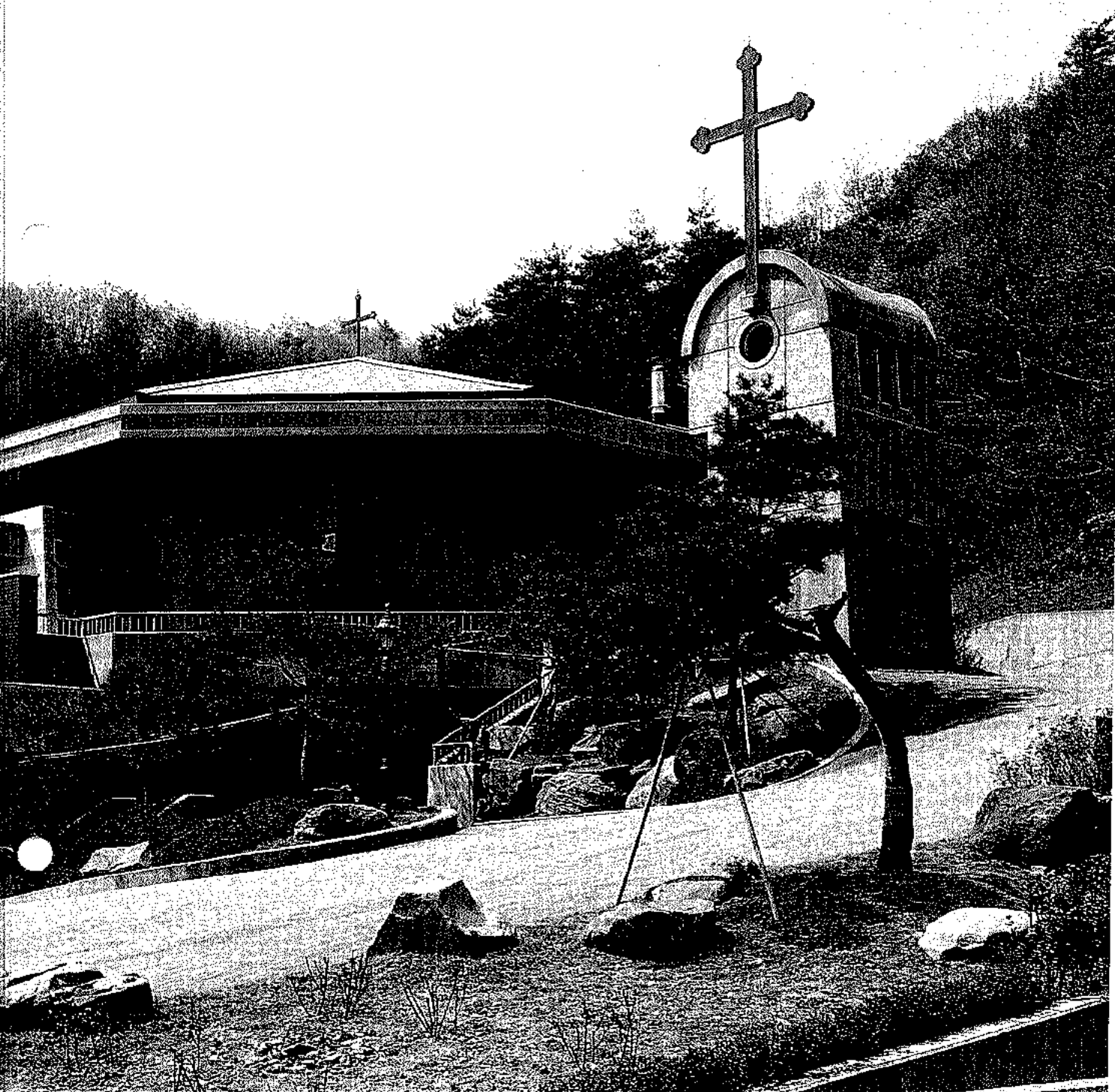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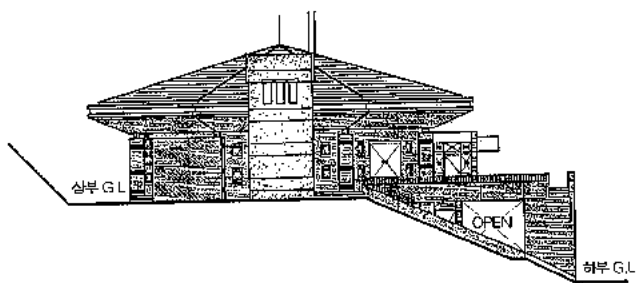
대지위치	충북 진천군 백곡면 양배리 471번지 외 8필지
대지면적	5,043㎡
건축면적	791.14㎡
연면적	1,225.1㎡
건폐율	15.69%
용적률	24.29%
규모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13.5m
주요용도	종교시설
외부마감	토석벽돌(기둥) + 신토석벽돌
내부마감	바닥 - 노브롱베리#88 + 카펫갈기 벽 - 신토석벽돌 천정 - 미송후로링 + TEX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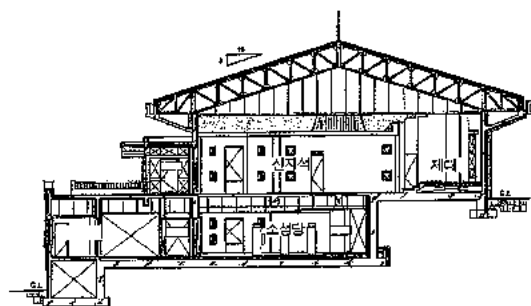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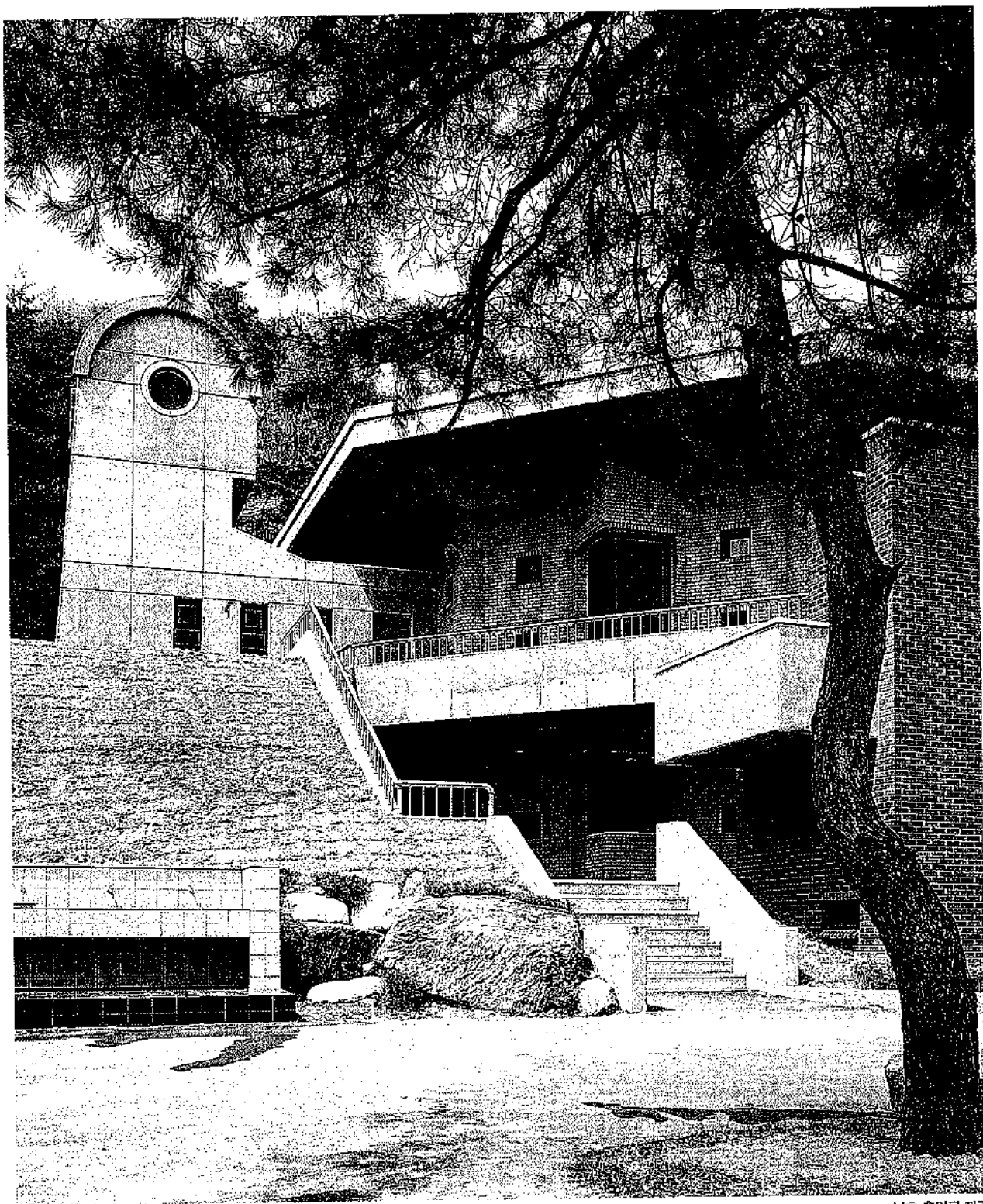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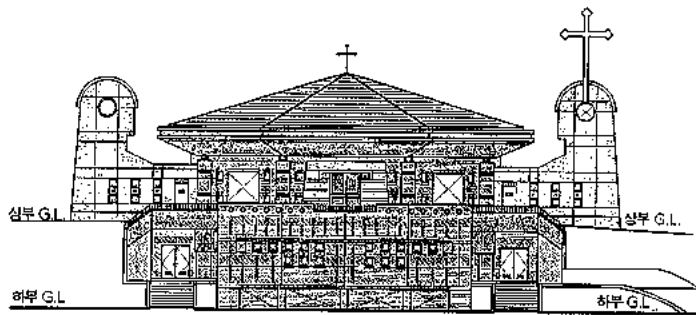
남측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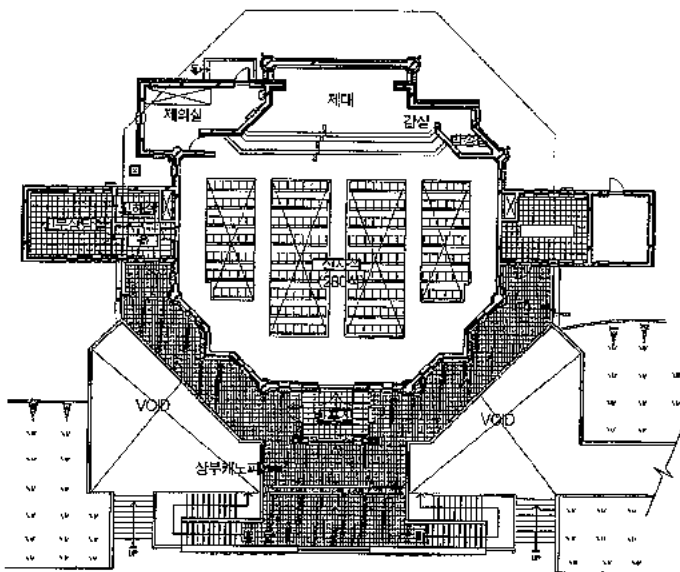
남측 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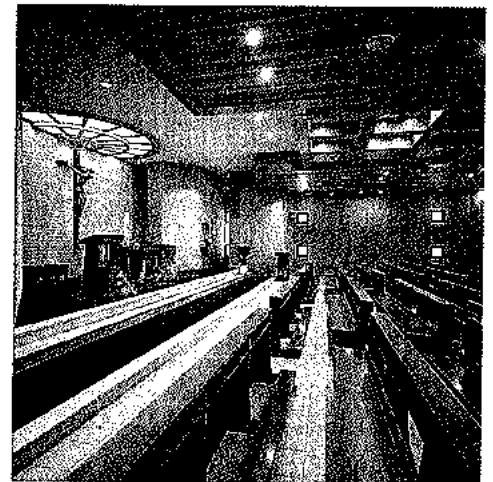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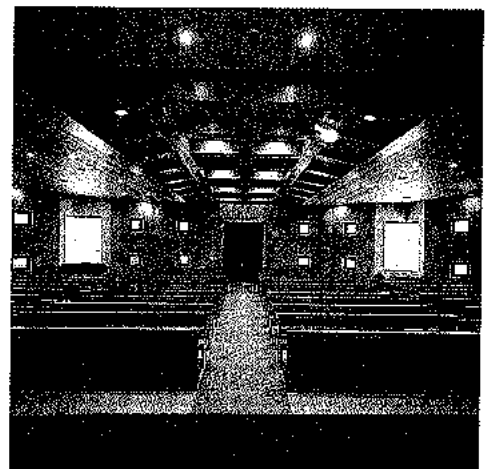
북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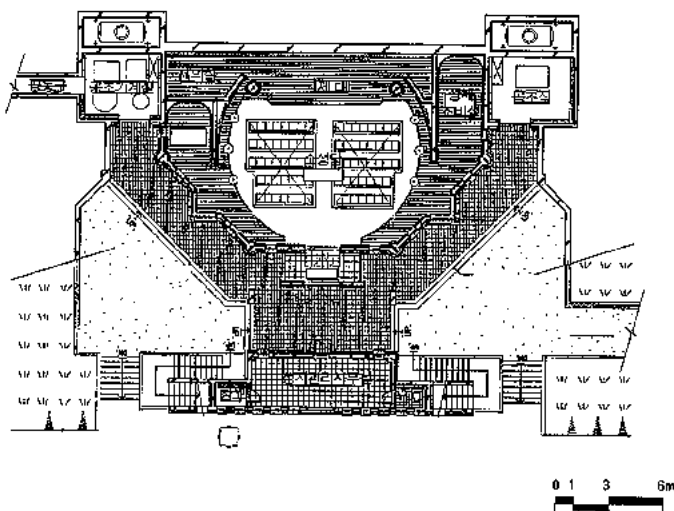
2층 평면도



2층 대성당 제대



제대에서 본 2층 대성당



1층 평면도



1층 소성당

택견전수관과 우록당

Taek-Kyun Gymnasium & Urok-Dang

최성규 / 건축사사무소 화성건축

Designed by Choi Sung-Kyu

서울에서 성남, 곤지암, 이천으로 이어지는 3번 국도를 따라 약2시간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장호원을 지나 남한강 상류에 자리잡은 순박한 전원교육 도시 충주에 도착하게 된다.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찬란한 중원문화를 꽃피워온 충주시는 국보6호인 중앙탑을 비롯하여 중원 고구려비 등 50여점에 이르는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인근에는 국립공원 월악산, 충주호, 탄금대, 수안보 온천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을뿐아니라 악성 우록, 서성 김생, 대문장가 임강수, 명장 임경업, 신립장군 등을 배출한 충절과 애향의 고장이기도 하다.

1994년 충주시가 시민의 휴식공원으로 사랑받고있는 호암공원을 보다 알찬 충주시민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청소년 수련원과 더불어 택견전수관과 우록당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 공모를 하였고 확정된 설계에 따라 택견전수관과 우록당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 공모를 하였고 확정된 설계에 따라 택견전수관과 우록당을 먼저 착공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 두건물이 완공을 보게 되었다.

우리고유의 전통호국 무술이며 중요 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된 택견을 정리하고 체계화하여 더욱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택견전수관」과 악성 우록을 추모하고 가야금 연주를 통해 충주지역의 국악을 전승 보급하기위한 「우록당」이 완공되므로써 소중한 자랑스런 이지역 문화유산을 더욱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두건물은 시내에서도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을 뿐 아니라 넓은 연못(호암지)과 함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충주 시민의 휴식공원인 호암공원의 양지바른 언덕에 자리잡고 있다. 건물의 양식도 이러한 전통문화 보존정신에 순응하여 우리의 고유한 전통 한옥양식으로 설계되었는데 호연지기를 기르며 무예를 닦는 택견전수관은 우진각 지붕과 맞배지붕으로 우람한 외관을 갖도록 설계하였고 가야금 연주를 통해 국악을 전승 보급하는 우록당은 2층 팔작지붕으로 설계하여 아름답고 우아한 외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택견전수관은 실내 수련장은 물론 야외 수련장과 관중용 스탠드도 일부 마련하여 야외 택견대회를 치를 수도 있도록 하였으며 우록당은 주 공연장으로 사용될 가야금 연주를 위한 호암지 연못이 한눈에 들어오는 2층에 배치하여 한껏 풍류를 즐기며 가야금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건물은 모두 1.2m높이의 자연석 기와 담장과 삼문, 사주문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독립공간으로 안뜰을 조성하였고 각 건물 사이에는 부드러운 곡선 인공연못을 만들어 그 운치를 한층 더하게 하였다.

특히 이 두건물은 현재 후면에서 연차사업으로 공사중인 청소년수련원과 더불어 호암공원의 아름다운 경관과 잘조화되는 문화시설로 이지역 주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을 것으로 믿으며 기와 예쁜 마음껏 발휘하여 봄에는 택견대회, 가을에는 우록문화제로 역사적인 중원 문화를 꽃피우고 이지역 문화유산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는 전당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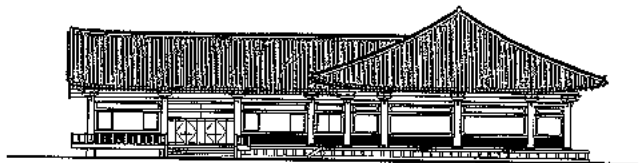
건축개요

택견전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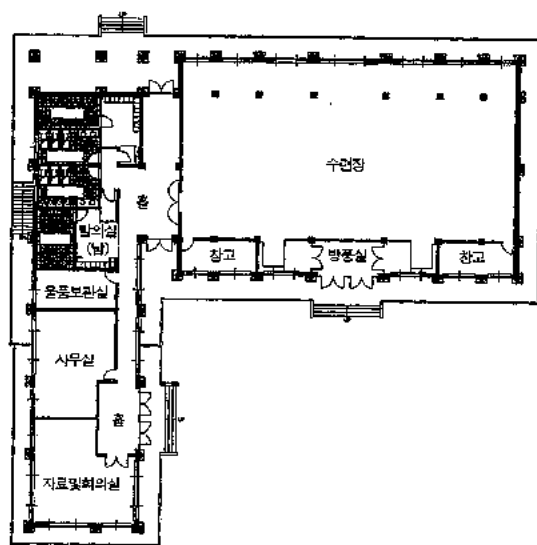
대지위치	충북 충주시 호암동 562번지 일원 호암공원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공원지역
대지면적	6,840㎡
건축면적	1,112.8㎡
연면적	962.1㎡
건폐율	16.27%
용적률	13.34%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층수	지하1층, 지상1층
지붕형태	우진각+박공지붕
최고높이	12.49m
주용도	운동시설(택견전수관)

우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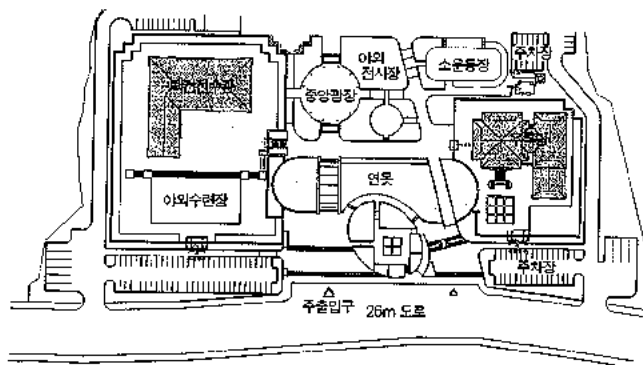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공원지역
대지면적	3,021.46㎡
건축면적	1,082.65㎡
연면적	1,422.09㎡
건폐율	35.83%
용적률	39.65%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층수	지하1층, 지상2층
지붕형태	팔작지붕
최고높이	14.7m
주용도	관람집회시설(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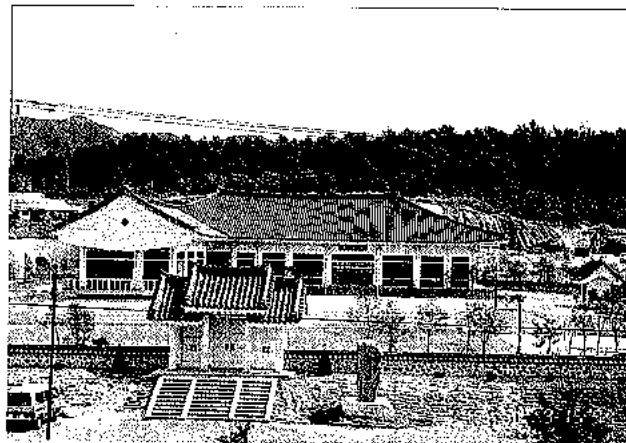
우측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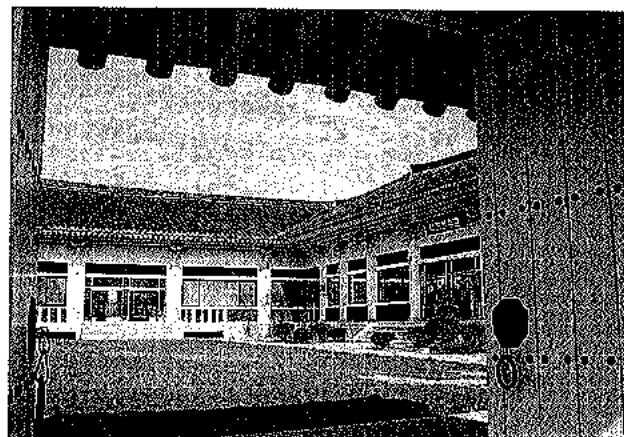
배치도



택견전수관 전경



택견전수관 사주문과 낮은 담장



사주문을 통해 본 택견전수관 안ظ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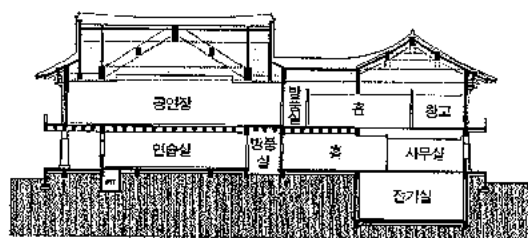
우곡당 1층 연습실 앞 기둥과 천정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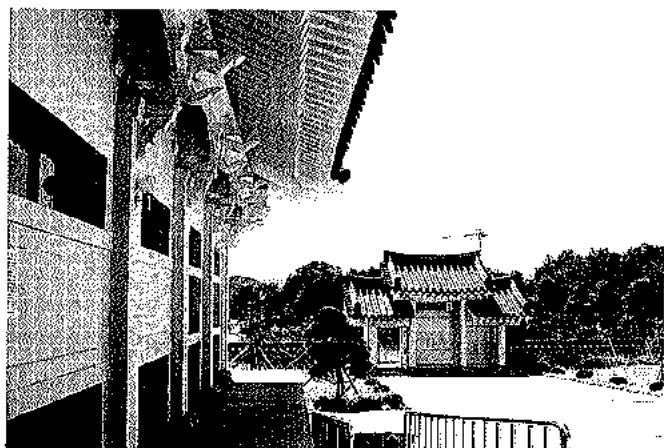
우곡당 회랑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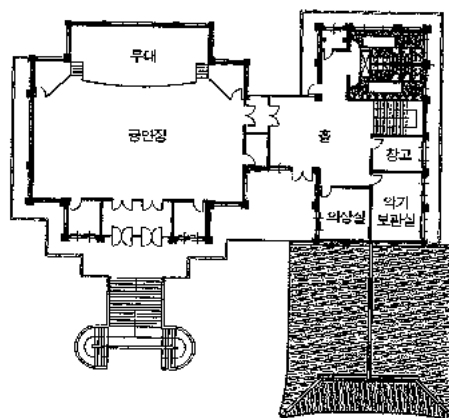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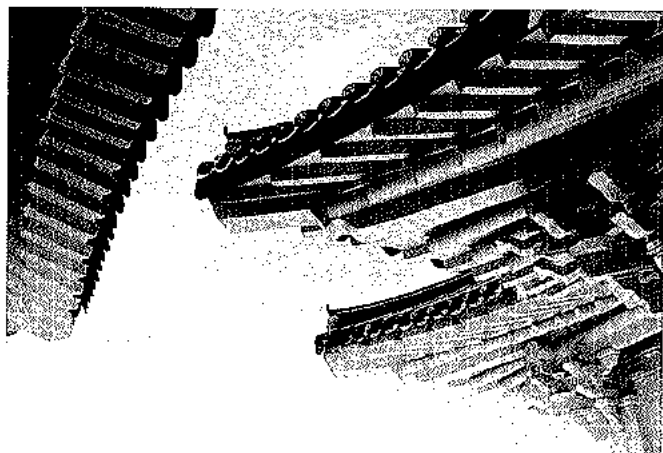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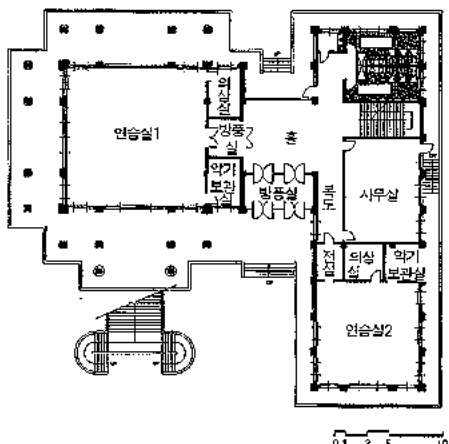
연습실에서 삼문과 호암지를 바라본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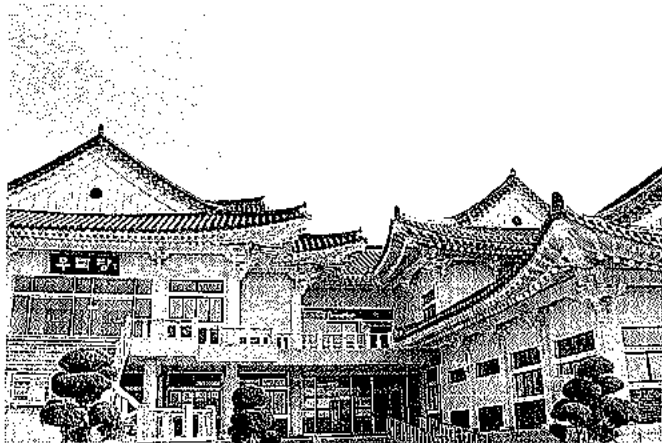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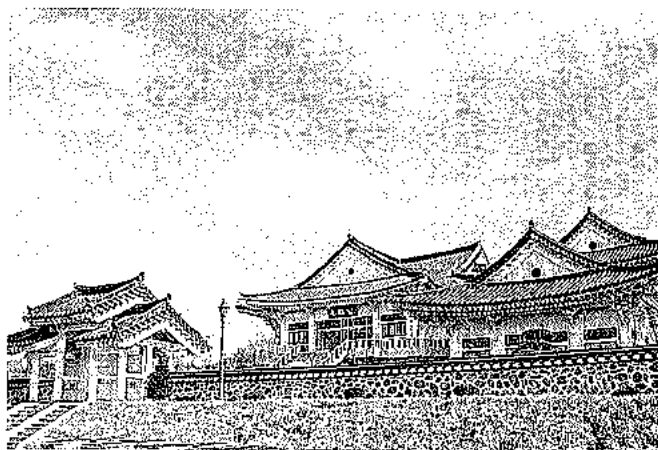
처마 상세



1층 평면도



남서측 전경



남측 전경

한국의 건축가 [12] - 김인호(1)

Korean Architect, Kim In-Ho

김인호, 그 짧은 삶에 대한 기록

박정우 / 계명전문대학 건축과 교수
by Park Jung-Woo

새로운 세계로의 끝없는 도전을 꿈꾸던 건축가 김인호, 그의 삶의 족적을 따라가다 보면, 먼저 그의 인간됨에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본지는 그를 끄적이라도 존경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대구건축을 이끌고 있는 김인호사단의 활동상을 소개함으로써, 대구건축의 성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김인호 교수 기념사업회가 제정한 후당건축상이 지니는 의미를 짚어 보고, 마지막으로 김인호가 남긴 주요건축작품들을 전통과 현대의 접목, 형태의 상징성 부여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연 제 목 차 ◇

(계재월)

1. 이희태 (9503~9505)
2. 김정수 (9506~9508)
3. 김수근 (9509~9512)
4. 정인국 (9601~9605)
5. 박길룡 (9607~9608)
6. 박동진 (9609)
7. 강 윤 (9610~9612)
8. 이천승 (9701~9702)
9. 김종업 (9703~9707)
10. 배기형 (9710~9801)
11. 김순하 (9802~9803)
12. 김인호 (9804~9806)

1. 김인호, 그 짧은 삶에 대한 기록
2. 김인호사단의 계보 및 활동
3. 김인호의 작품세계



먼 발치에서 두어번, 그리고 어느 전시장에서 그와 나는 한 번의 악수가 만남의 전부였던 필자가 대구건축계의 거목으로 알려진 김인호선생에 대해 어떠한 형식으로든 언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된 일이긴 하나, 다른 한편으로 선생의 그 많은 애제자분들께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 없다. 혹 고인께 누(紉)가 될까 늘 조심스러워하던, 그들의 선생을 향한 존경과 끊임없는 애정앞에 세상 고

개가 숙여진다. 또한 취재에 흔쾌히 시간을 내어 준 미망인 이석주(李錫珠)여사와 큰 딸 김수양(金樹陽) 교수의 증언에서 선생의 넓고 큰 인간적 체취를 느낄 수 있었다.

이제부터 여기에 담겨지는 기록들은 모두가 이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작업이었음을 서두에 밝혀 감사인사에 대하고자 한다.

김인호(金仁鎬)의 생애

1991년 7월 27일 오후 3시 30분,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동 현대 제2 공원묘지에서는 뜨거운 태양아래 김인호의 유가족을 둘러싼 수십 명의 제자들이 묘비 제막식을 거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1988년 7월 28일 서거한 선생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이듬해 1989년부터 준비하여온 소위 <후당 김인호 교수 기념사업회>의 멤버들로서 수년동안 묘비제작과 더불어 김인호의 기념작품집 발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온 그의 애제자들이다. 또 한편 대구 파크관광호텔에서는 제막식이 끝나는 대로 내려올 그들과 합류하여 김인호 건축작품집 헌정식을 치루기 위하여, 또 다른 일단의 제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날은 김인호의 서거 3년이 되는 하루 전날로써, 그들은 3년 탈상하는 친자식들처럼, 온종일 그를 그리워하는 추모의 날이었던 셈이다. 영남대학교 명예교수인 한학자 서경보가 지어 쓴 묘비의 첫단락은 이렇게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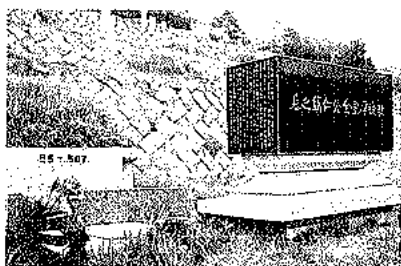
"公의諱는仁鎬요,字는德卿이요,號는厚堂이니金海金氏이다.始祖諱首露는麗洛國太王이요,中祖諱庾信은新羅太角干으로興武王에追尊되었으며,派祖諱不比는李朝吏曹判書니公의二十一代祖다.祖의諱는章煥이요,考

의 諱는 圭淳이니 모두 隱德이 있었고, 母夫人은 長水 黃仁善女史니 德淵公의 女로 婦德이 있다.”

김인호는 1932년 4월 21일, 경북 금릉군 개령면 서부동 324번지에서 모부인의 백일기로 귀하게 태어났다. 그는 나중에 대구시 중구 남산동 688-9로 본적을 옮겼고, 대구시 남구 대명5동 181번지 자택에서 고혈압으로 향년 56세에 세상을 떠났다. 김인호는 어릴 적부터 풍모가 단아하였고 성품은 어질고 총명하였다. 그림그리기와 책읽기, 축구를 유난히 좋아하여 6년제 김천농림중학교 졸업과 재학시절에는 선수로 활동할 만큼 신체도 건강하였다. 김인호의 부친은 한학을 했다고, 당시 면사무소에서 면장일을 했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선생이 16세 되던 해, 부친은 40세의 젊은 나이에 급성맹장으로 세상을 떠났다. 조부를 모시고 편모 슬하에서 위로 누님 한 분, 여동생 하나가 있었으니 김인호는 독자로 지냈다. 당시의 살림은 넉넉지는 않았으나, 짐작컨대 모부인의 수고가 컸던 듯하다.

김인호의 혼인은 그의 나이 29세 때로, 동료 김현산 교수(영남대학교 98년 2월 정년퇴임)의 결혼식에서 만난 신부의 후배, 이석주(당시 22세)와 맺어졌다. 이미 그는 청구대학의 조교수에 재직 중이었다. 슬하에 수양, 수희, 은정, 양희 네 딸을 두었다. 큰 딸 수양(현 37세)은 현재 가야대학교 실내디자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불행히도 둘째 수희는 선친의 외로움을 안타까워 했던지 그가 가고 그 몇 년 후, 교통사고로 그의 곁으로 떠나 버렸다. 셋째와 막내는 모두 출가하였다.

김인호는 자식들과 많은 시간을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곧잘 그가 설계한 건축현장에 수양과 수희를 데리고 다녔다. 수양이 화화전공을 원하던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내디자인을 전공하게 된 것은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다닌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솔직하고 있다. 김인호는 세상물정에 너무 어두워 평생을 많은 사람에게 속거나 쉽게 생각하고 일을 벌였다가 재산을 잃곤 하였다. 그럴 때에도 그는 자신보다 그 사람이 더 필요해서 가져간 것이니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곤 하여 설계실 살림을 맡아 하는 제자들은 한편으로 그의 스승이 측근의 사람들도 챙기지 못하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그의 비범한 심성에 자신의 응징한 마음을 오히려 책망할 때가 많았다.



김인호의 모소와 묘비



김인호 건축작품집 헌정식 행사장



미망인 이석주여사와의 대담(1998. 2. 26)

한다. 김인호는 불교 및 풍수지리에 심취하였고, 선문답을 하는 듯한 뛰어난 그의 화술은 항시 주변에 많은 이들이 찾아들게 했다. 일찍이 전통예술 전반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많은 골동품을 수집하였으나, 원래부터 무욕한 그는 나눠 가지기를 좋아하여 좋은 물건들은 남의 손에 넘겨주고, 깨어지고 못쓰게 된 것들만 남겨두었다 한다.

그는 불법(佛法)을 생활화하였고 언제나 지치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면 태백시 대현에 있다는 현불사(現佛寺)를 찾아가 대법사 설송(雪松)스님과 담소를 나누며 며칠씩 묵고 내려 오기도 했다고 한다. 미망인 이석주여사는 아직도 그의 얘기를 꺼낼 때면 물레 눈물을 흘치곤 한다. 김인호는 잠들기 전 언제나 〈묘법 연화경〉을 읽으며 사색을 즐겼다고하고, 그의 불심을 더욱 깊게 해 주었던 그녀는 그의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이 그녀 자신과 바뀌었던 것 같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건축의 길 선택하다

김천농림을 졸업한 뒤, 김인호의 가족들은 대구로 이사했다. 김인호는 당시에 대학진학을 준비하면서 의과대학과 건축과, 두 가지 원서를 써 놓고 진로에 적잖은 망설임이 있었다고 한다. 김인호가 건축으로 마음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5촌 외숙, 황의근(黃義根)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의근은 서울대를 1947년에 졸업하였고, 서울대 건축과 교수로 1948년 9월 1일부터 1950년 7월 31일까지 재직하였으며 전공은 서양건축사였다. 황의근은 두가지 이름을 가졌는데, 서울대학교 동창회명부에는 황인영(黃仁永)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가 6.25때 월북함으로써, 김인호의 입학년도인 1952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모부인 황인선 여사를 통하여 김천농림때부터 진로결정에 영향을 받았다 한다. 황의근의 유가족이 전하는 말을 빌면, 그는 월북이후 북에서 많은 건축활동을 하였고 지금은 작고하였다 한다.

1952년 4월, 청구대학(현 영남대학교) 건축과 야간부가 서울대, 한양대에 이어 지방에서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김인호는 4년 동안 주경야독하며 어렵사리 1956년, 1회 졸업생 14명중의 한사람이 되었다. 당시 졸업생 작품전시회가 처음으로 열렸는데, 특상을 받은 그의 작품명은 〈국제학생회관〉으로 백남길, 이영섭과의 공동작이었다.

스승 정경운(鄭慶雲)과의 만남

정경운은 1924년 평양출생으로, 대련(大連)공업 전문학교 건축과를 거쳐 평양공과대학 건축공학과를 1948년 9월에 입학, 1950년 8월에 졸업하였고, 1949년부터 1950년 6월까지 전남포공업전문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를 지낸 분으로, 청년기는 만주에 있었다 하고, 6.25때 공군시설장교로서 공군본부(당시 대구에 소재)에 복무하던 중 청구대학 건축과의 강사생활을 경험하게 되므로써 대구와 인연을 맺게 된 소위, 조자룡 등과 함께 대구 1세대로 일컬어지고 있는 전설적 인물이다. 청구대학 건축과 설립 당시는 서울대의 윤장섭 교수와 이용구 교수도 청구대학에 잠시 시간강사를 하던 시절이었다.

정경운은 그후 54년부터 전임강사로 임용되면서 청구대학의 건설은 물론 구(舊) 대구대학 본관(현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경북도청, 구 대구은행본점,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 마스터플랜, 영남대 중앙도서관, 대구 총흔탑 등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다. 당시 그의 작품은 대개가 보물 외관에 노출시킨 것이 특징인데, 그는 이것을 한국건축의 전통적 외관을 변용한 것이라고 하며, 그의 건축을 코리아니즘건축이라 명명했다고 한다. 이는 김인호가 그의 문하에서 함께 설계할 당시(1955-1965)의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정경운은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였고 그들로부터 절대적인 존경을 받아 왔으나 그의 운명에는 한 대학에만 머물 수 없는 운명파도 같은 무언가가 있었던 듯하다. 그는 1966년 청구대를 퇴직하고, 곧 대구대에 머무르다 1968년 두 대학이 통합하여 만들어진 영남대학교에서 1976년까지 재직하였고, 그후 정경운은 대구를 떠나 1978년에 동국대로 옮겨가 그 곳에서 1987년 정년퇴임하였다. 김인호의 건축수련에 있어서 정경운은 중요한 인물이다. 단순히 학문적인 전수만이 아닌 실무적인 건축전반에서 눈을 뜨게 한 장본인인 것이다. 정경운은 설계만이 아니라 구조나 시공에도 박식하였다 하고, 그의 제자 김인호, 김현산과 함께 작업한 작품으로는 청구대학 문화동 건물(1955)을 위시하여 청구대학 효목동 본관건물(1956), 경북대학교 법정대학(1958), 경북도청사(1965) 등이 있다. 김인호는 졸업과 동시에 동기생 김현산과 함께 청구대학 건축공학과 연구조교가 되어 김현산은 구조를, 김인호는 건축사를 전공하면서 스승 정경운의 실

계업을 받기로 도왔다. 그들 삼두마차의 행진은 상당한 기간동안(1966년 정경운의 청구대학 퇴직과 1967년 청구대학 신축 본관 붕괴사고를 전후한 때까지) 이어졌고, 김현산과 김인호의 협력 관계는 그후로도 다소간 지속된다.

교수 김인호

1956년부터 청구대학 문화동 캠퍼스(구 국세청)에서 3년간의 연구조교를 거친 뒤, 1959년 김인호는 김현산과 함께 청구대학 건축공학과 전임강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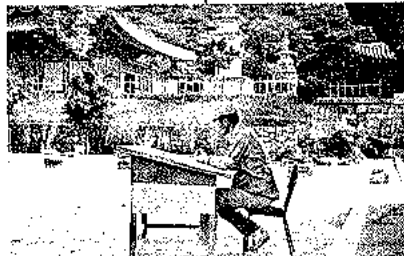
김인호는 조교시절서부터 내내 전통건축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그렇다고 이 분야의 스승이 따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순전히 문헌을 통한 독학이 전부였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로 김인호는 1969년 불국사 복원위원회 설계소위원회 위원으로 김동현, 신영훈, 임영방, 민철홍 등과 함께 활동한 것을 위시하여, 고건축을 철근콘크리트구조화하였다는 경주 화랑의 집(1971), 경주 미추왕릉 정화사업, 영주 부석사 복원설계, 천태종 구인사 진주법당, 부산 대한불교 천태종 삼광사, 영남제일관문, 동화사 동화문 등 많은 작품들을 남겼다.

1960년 전임강사 김인호는 청구대학 논문집 제3집에서 <해인사 조영계획에 관한 고찰>을 발표하면서 전통건축에 대한 그의 탁월한 식견을 보여주고 있다. 이듬해 조교수가 된 그는, 동 논문집 제4집(1961)에서 <동학사 조영계획에 관한 고찰>을, 제6집(1963)에서는 <황룡사지에 대한 고찰>을, 그리고 부교수이던 1965년에는 제8집에서 <부석사 조영계획에 대한 고찰>을 발표함으로써, 그의 한국 사찰건축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김인호가 1967년 청구대학 본관 붕괴사고로 인해 교수직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보다 더 깊이 있고 폭넓은 연구성과가 있었을 것은 자명한 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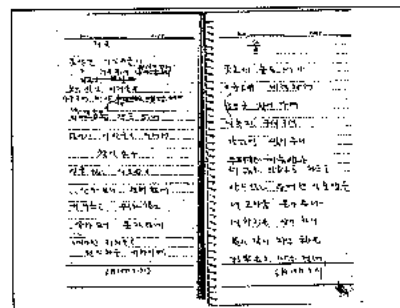
김인호는 1965년 제1회 건축사시험 집단거부사건에 동료교수 김현산과 함께 청구대학교 출신대표로 참여하였고, 정규 교육과정을 거친 건축인을 위한 건축사법이 되지 못하고 건축행정서사에게 특혜를 부여한 등등의 모순점과 부조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불행하게도 김인호는 1967년 6월 15일 오후 2시경, 그 자신이 설계한 청구대학 본관 신축건물이 6층 시공중 도파되는 사고를 맞게 된다. 1966년



김인호와 그의 두 딸 수앙, 수희(1971)



경주 불국사 복원 현장. 사진의 인물은 김인호의 제자, 서정남으로 그는 김인호의 문하에서 거의 모든 전통건축의 설계를 도맡아 담당했다.



김인호 친필노트에 적힌 시조의 일부

10월에 착공된 문제의 이 건물은 청구대학 캠퍼스의 마지막 시설 확충사업이었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청구대학은 이듬해, 구 대구 대학과 합병하여 영남대학교로 새로이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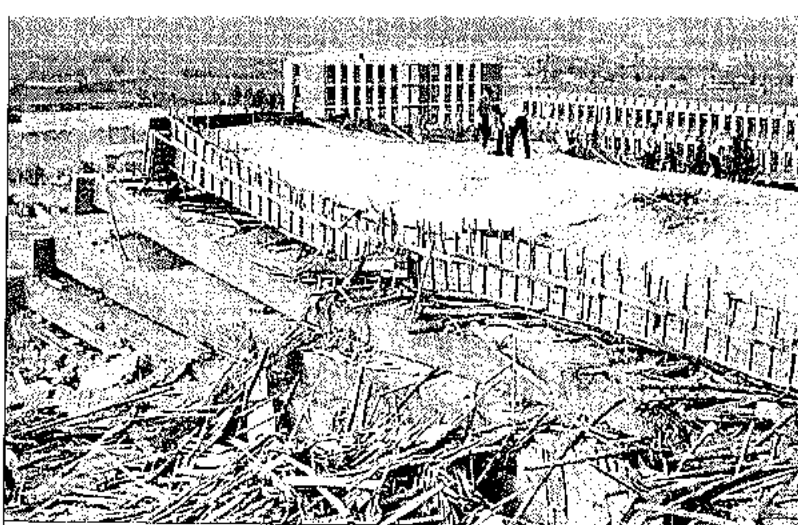
이 사건은 한국 현대건축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대참사였다. 김인호가 설계했지만 1965년 건축사시험거부사건 이후 그는 소신을 지켜 무면허로 있었으므로, 그 당시는 동방건축설계사무소의 최성덕 명의로 모든 허가서류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으로 김인호는 35세의 젊은 나이로 학교를 떠나야 했고, 최성덕은 건설부로부터 면허취소를 당하였다.

Y자형 평면중앙에 코어를 둔 연건평 1,850평, 철근콘크리트구조 6층(당초의 3층이 착공후 학교당국의 요구로 설계변경됨)의 신축 본관 건물의 사고원인은 불합리한 구조계획, 구조계산, 시공상의 하자가 복합되어 일어난 것으로 지적되었다. 당시는 김인호가 건축학과장인 동시에 설계자였으므로 감리 책임을 면할 길이 없었다. 사고당일 김인호는 교무회의 중에 사고를 목격하였고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강의실에서, 운동장에서, 도서관에서 엄청난 굉음과 먼지바람이 일어나고 공사장 인부들이 날아 떨어지는 현장을 지켜보았다 한다. 당시는 동대구역을 건설하면서 터뜨리는 암반발파작업으로 인해 인근일대에 적지 않은 진동과 소음이 있었으므로, 도괴사고의 보이지 않는 작은 영향이라도 미쳤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당시의 최해청학장은 "본설계가 3층이나, 6층이나고 질문하는 취재기자들에게 비교적 무관한 설계자를 위하여 삼가해 달라고 간청했다"(야정 기념사업회, 청구유언, 71쪽, 1987)고 한다. 사실상 대학측의 감독관으로 김인호의 대학동기이며, 조교생활까지 함께 한 이영섭이 있었으므로, 그는 현장문제에 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김인호의 평소, 맺고 끊는 냉정함이 없고 소소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어쨌든 그날 이후 전통건축의 복원과 현대건축에의 접목을 위해 학문적 경륜을 쌓아가던 학자, 김인호 교수의 운명은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바뀌어 버리게 된다.

건축가 김인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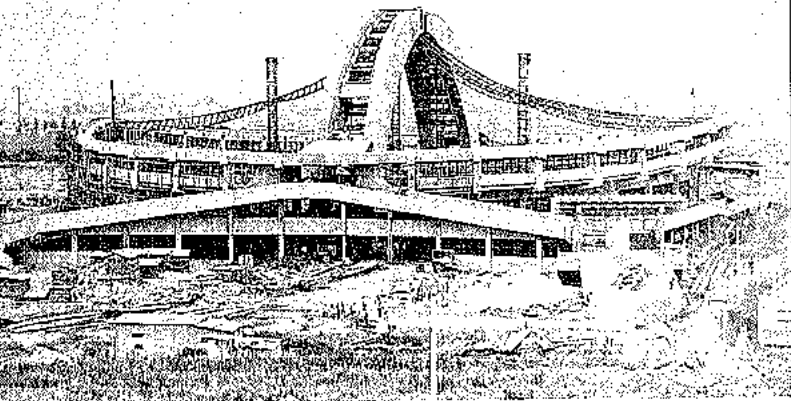
김인호의 온화하고 과묵하며, 더러는 여성스럽게 수줍어하는 그의 성품은 그의 탐구적이고 창의적인 기질과 더불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더욱 학자다운 사람으로 인식케 하였다. 또한 김인호의 뛰어난 화술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고, 그의 박식함과 불교철학에 바탕을 둔 그의 언행이 범상하지 않아 모두들 그를 따르고 존경하였다.

김인호는 연구실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항상 무슨 책이든 손에 들고 있었다 하고, 그의 제자들에게 건축외적인 다양한 분야의 서적들을 가까이하여 폭넓은 식견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다. 또 건축가는 상대의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넓은 아량과 자신의 지식과 정보에 의한 자신의 주장과 철학을 끝까지 관



주저앉아버린 청구대학 본관 신축 사고현장. 그 뒷편으로 5층의 도서관(1965)과 우측의 3층건물 공학관(1960)일부가 보인다.

철시킬 수 있는 고집스러움을 서로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수많은 말을 모두 기억할 수 있다면, 훌륭한 어록 한 권 정도 만들 수 있을 만큼 그는 교육자적인 자세, 학자적인 생활태도가 몸에 자연스러이 배어 있는 분이였다. 그는 1966년부터 대구시 북성로 동해반점옆에 15평 남짓한 목조건물 2층을 얻어 최성덕과 함께 동방건축설계연구소를 개소하고, 제자 권태식(현 합동건축)과 이현동(작고), 김화자(현 세명건축), 이성(현 성건축), 김무권(현 현대건축) 등과 함께 일했다. 경북체육관 현상설계도 당선(1966)되고 해서, 이제 막 외유적인 출발을 하고 있던 시점에 1967년의 청구대학 본관 신축공사 도괴사고는 그에게 청천벽력파도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그는 당시, 세세히 따질 수 없는 억울함을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일체 입박에 내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변명치 않으려는 장부의 자존심과 대가다운 비범함을 읽을 수 있다. 단지 그는 크게 될 사람은 큰 아픔도 체험해 봐야 한다고 했을 뿐이다. 수개월 여 동안 빠져린 아픔의 시기를 보낸 김인호는 그를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과 함께 건축설계를 계속하기 위하여 그 자신이 거부해왔던 건축사면허시험을 치루어야 했다. 그는 한번의 실패 끝에 1969년 1월 9일, 면허번호 984로 면허를 취득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여러 대학에서 그를 교수로 모시려는 초빙제의가 있었으나, 그는 끝끝내 마다하였다 한다. 이것은 1970년대 들어 교수의 겸직불허라는 정부방침이 이미 시행되고 있던 때의 일로 짐작되는데, 그로써는 이제 와서 학교로 다시 돌아가 교육과 연구생활에 안주한다는 것이 마음에 차지 않을 만큼, 작품에 대한 열정이나 애착같은 것이 강하게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실로 건축가 김인호를 세상에 알리게 되는 첫 작품은 1966년 현상설계의 당선작인, 경북실내체육관이다. 이 작품으로 그는 1971년 10월 18일 제1회 건축대전 문화분야 건축대상을 수상했다(건축사 71년 11월호 게재). 실로 북성로 <동방건축>시대는 최대의 기쁨과 최악의 아픔이 함께 했던 시기이다. 김인호는 1969년, 사무실을 대구은행 구 본점 동쪽 건너편 모퉁이에 있는, 일명 사일동 누비다방 건물 4층에 내고, 새로이 <대아건축설계연구소>라 이름지었다. 이어서 로얄호텔 뒤 전동 15-1, 대동별관(호텔)8층 시절(1971-1973)을 거쳐, 중구 공평동 11-3(25시다방 2층)으로 이전함으로써 김인호 건축의 후



경북 실내체육관 공사현장. 1968년 초여름쯤으로 보인다

반기 역사(1974~1988)가 시작된다. 김인호의 사후에도 <대아>에 남아 있던 제자들은 지금도 그의 건축정신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예총 대구지회장 김인호

감투가 그다지 어울리지 않았던 김인호에게도 오랜 경륜을 통하여 적잖은 역할이 주어졌다. 학창시절 축구를 했고 많은 체육관을 설계했던 때문인지 그는 경북체육회 농구 협회장도 다년간 지냈으며, 대구직할시, 경상북도 문화재위원, 경주시 미관지구 심의위원, 한국건축가협회 대구, 경북 지부장을 5대와 9대, 두 번 역임하기도 했다. 김인호는 1985년 한국예총 대구지회장에 피선되어 건축계 뿐 아니라, 대구문화예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동안 예총산하 10개 단체중에서 경북지부장이나 대구직할시 지회장이 배출된 단체는 문인협회와 미술협회, 그리고 사진협회뿐이었다. 김인호가 지회장이 되면서 그 동안 건축을 예술의 분야에서 도외시하던 일부의 경향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그는 달구벌 축제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특유의 수완으로 당시 절대부족의 예산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각 단체간의 다툼을 평정하였다. 그의 예총활동으로 말미암아 예술계 전반에는 건축단체의 협력적이고 정의로운 이미지가 제고되었다. 이후 김인호의 뒤를 이어 1991년 제 4대 지회장으로, 건축단체에서 추대한 계명대학교 교수 이종우가 당선되므로서, 예총 대구지회의 재도약에 이바지하게 된다.

김인호의 이상(理想)과 이상(異狀)

김인호의 꿈은 자신만의 건축세계를 누구의 간섭도 없이 마음껏 펼쳐보는 것이었다.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는 작은 프로젝트의 설계비를 차근차근 모으고 있기에는 그의 마음이 급했다. 그는 사업적인 수완이나 현실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가운데 일찍부터 사업에 눈을 돌렸다. 그리고 그런 야망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많은 돈과 시간을 날려 버렸다. 김인호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이 이해하기 힘든 무욕과 과욕의 양면성을 이야기한다. 그는 배포가 크다. 그리고 야망도 크다. 그런데 시작은 크나 끝은 늘 보이지 않는다. 그의 자

존심 그독한 설계의 용의주도함이 사업에 제대로 반영되지는 못하였다. 김인호의 진취적이고 낭만적인 성품은 그의 행적 곳곳에 배어 있다. 1968년 대형프로젝트의 수주를 위해 주식회사 대아기술공단을 설립한 것은 당시 정부의 경제개발과 국토개발시책을 읽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1966년에 먼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를 세워 서울의 도시계획 설계영역을 도맡았던 김수근에 자극받은 것인지도 모른다. 이후 그는 대구시 공무원 출신인 김종규에게 대표의 자리를 별 조건없이 물려주고 만다. 그는 이후로도 운천사업, 맥반석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이 생기는데로 투자하였다. 또 중금속이온이며, 광물학 등 관련문헌들을 구해다 보는데 열중하기도 했다. 당시 그의 심경은 그리 희망적이거나 순조롭지 못했던 것 같다. 그의 낙서장으로 보이는 노트에는 1983년 여름에 집중적으로 쓴 13편의 시조가 적혀 있다. 씌어진 시각도 거의 새벽1시에 서 3시 사이이고, 대개는 취기가 있는 가운데 선사를 쓰듯 자연을 소재로 하였으나, 글 속에는 다소 자조적이고 한스러움이 비치고, 또 현실을 초월하려는 의지로 해석되는 부분들이 자주 등장한다. 그 하나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인생〉 돌았구나 돌았도다/ 몇바퀴나 돌았는
고/ 육도윤회 돌고 돌아/ 오만 고통 다 받았소/ 이제사 철이 들
어/ 전면목을 갖추우니/ 오늘도 극락이요/ 내일도 극락이네/
불쌍한 이 중생아/ 내 뒤를 따라오소

그의 말년에는 거대한 한려관광개발계획을 세우고 거제도에 토지매입까지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운명하였고, 현지 대리인의 사기로 인해 아직도 소유권문제가 미결상태에 있다고 한다.

이와 유사한 일들은 김인호에게서 끊이지 않았던 모양으로 그런 까닭에 건축활동에만 전념해 주기를 바라던 오랜 제자들은 하나둘 스승을 떠났고, 그는 그 때마다 헤어지는 서운함보다 독립하는 그들에게 다소나마 챙겨주지 못하는 안스러움이 컸으리라 짐작된다. 사무실에서는 향시 향을 피우고 묵상에 잠기거나 독서에 빠져들었고, 설계책상에서는 절대 앉아 그리지 않았고 다리의 피로를 생각해서 발을 바꾸어가며 외다리로 작도하던 그의 독특한 습관이나 성현의 가르침과도 같은 말 등은 아직도 그의 많은 제자들 가슴에 살아 있다.

한국건축가협회에서 발간한 <한국의 현대건축 1876~1990> 167쪽에는 다음과 같이 짧막하게 김인호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다. "대아건축설계연구소를 통해 주로 대구, 경북지역의 건축진흥과 역사건축의 근대적 공법개발 등의 업적을 남기고 타계하였다." (계속)

부산의 풍토, 부산문화, 부산사람

The Tradition, Culture and People in the City of Pusan

이왕주 / 부산대 서범대학 윤리과 교수
by Lee Wang-Ju

부산에서의 인문학의 운영

먼저 개인적인 체험으로 이 글을 시작하는 것을 용서해주기 바란다. 나는 인문학자다. 전공이 무엇이나 물을 때도 나는 인문학이라고 답한다. 인문학? 대개는 고개를 가우뚱 거린다.

대학에서 인문학이라는 이름의 전공학파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러 호기심 많은 사람은 인문학 중에서 어떤 분야냐고 묻는다면 한때 서양현대철학을 공부했다고 답해준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런 전공영역을 고집하지 않고 있다. 물론 한때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전공영역에서 책 읽고 글쓰고 가르쳤다. 그러다가 불혹의 나이에 이를 무렵쯤에 우리가 서양철학을 이토록 열심히 한다는 것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심각하게 자문하게 되었다. 가령 내 학위 논문테마인 독일 현대철학자 하이데거의 사상을 열심히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하는 작업들이 극동의 한반도 남쪽 끝 한 지방도시에서 살고 있는 내가 한 생애를 걸어서 할만한 일인지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지니게 되었다는 말이다.

한 번 뿐인 인생에서 모든 시간을 바쳐 하는 일이라면 모름지기 내 자신이나 내 이웃, 더 거창하게 말하자면 내 땅 내 조국을 위해 뭔가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하

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른바 학문에서의 탈식민성 문제에 골몰하게 되면서 나는 전공 타이틀을 인문학으로 바꾸었다. 여기서 인문학이란 대강 말하자면 한 사람이 공부길에서 얻는 모든 것들을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때와 터에 연관시켜서 새롭게 의미화 논리화시키는 정신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이것은 삶에서 걸도는 모든 앎을 자신이 디디고 선 땅의 번지 위에 자리매김하는 데서 출발하게 된다.

나는 이 인문학을 운동의 차원으로 확장시키고 싶어서 의기투합하는 학자들을 주위에서 찾아보았다. 둘러보니 의외로 여기에 동조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곧 모임을 만들었다. 새로운 안문정신의 부활을 목표로 삼고 '해석과 비판을 위한 모임' (약칭 해비모)이라는 단체를 구성했던 것이다. 주로 3, 40대의 젊은 소장 학자들로 대학에 현직 교수로 있거나 시간을 맡는 강사들,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자기 분야에 제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들, 그리고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있는 학자 지망생들로 약 30명 남짓의 회원을 거느리게 되었다. 행사는 매월 셋째 토요일 오후 3시에 각 학문 분야에서 인문학과 탈식민성 문제에 비전을 가진 학자들의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것이었다. 참가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서 누구라도 와서 듣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소는 해운대의 추리문화관 4층을 양해받아서 이용하였다. 처음에는 잘 되었다. 많을 때에는 한 번에 50여명씩 몰려들어서 공간이 협소할 때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3년, 4년째로 접어들면서 점점 수가 줄어들더니 어떨 때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지만 발표자와 회장, 그리고 총무 셋만 앉아서 했던 적도 있다.

작년 10월에는 해비모와 아주 성격이 비슷하고 회원 일부가 중복되기도 한 부산의 인문학연구모임인 '인문학 연구회'와 통합해서 '한국 인문학 연구회'를 새롭게 출발시켰지만 이 역시 지금 잘 되지 않아서 한 번 발표할 때마다 10명 안팎의 회원들이 겨우 참석하여 명맥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혹자는 이것이 내실없는 내용 때문이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할지 모르지만 그동안 우리가 발표했던 논문들, 그리고 초청했



1900년대의 부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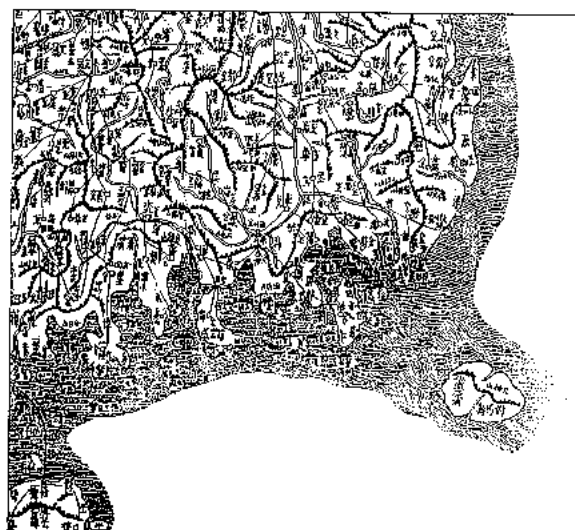
태종대에서 바라본 오늘날의 부산항

던 학자들은 단언컨대 서울, 그리고 지방의 어느 학술단체에 비해도 손색 없으리라고 자부한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심지어 외국에서까지 우리는 해비모의 성격에 부합하는 학자들은 전방위적으로 초청해서 발표회를 가졌다. 그동안에 우리가 초청하여 발표했던 학자들의 명단을 보면 우리의 모임이 결코 만만한 동네 학자들의 친목모임과 같은 성격의 것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문학의 모임이 요즈음 시대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아니냐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 같지는 않다. 가령 대구의 경우를 보면 거기에서는 계명대학교가 주도하여 수십년째 이어오는 목요 철학 세미나가 수백회의 횟수를 거듭하며 지금까지도 성황리에 이어지고 있다. 겨우 오륙십회에 지쳐버린 우리는 철학 세미나를 사백회 오백회를 이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약간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광주, 전주, 그리고 대전에서도 이런저런 순수 학술 모임들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들었다.

철학분야를 두고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일곱개 정도의 전국 규모의 철학회가 있다. 세 개가 서울에 있고 두 개가 대구에 있으며 광주와 대전에 각각 하나씩 있다. 물론 그런 학술단체의 본부가 있다는 것이 곧 그 학문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저변인구의 두께만큼 중언해주는 척도라 여겨진다.

어쨌든 이 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아 도시에 순수학문의 왕이라는 철학이 학술활동의 한 장르로 뿌리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 행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준다. 다른사례가 또 있다. 예총지부가 발간하는 저널은 지역 순수예술의 홍보창구라 할 수 있다. 이 나라의 대도시는 말할 것 없고 인구 십수만의 작은 중소도시에서도 지령 수십호가 될만큼 꾸준히 발간된다는 그 책자가 부산에서는 겨우 작년 봄에야 비로소 창간호를 만들어 찍어내기 시작했다. 이 나라의 대표적인 문예지인 '문학'과 '지성사'나 '창작과 비평사'를 통해 중단하거나 시집 소설집을 낸 시인 소설가가 이 부산 땅에 전무하다시피하는 것 또한 지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부산포를 둘러싼 영남권, 대마도도 한 권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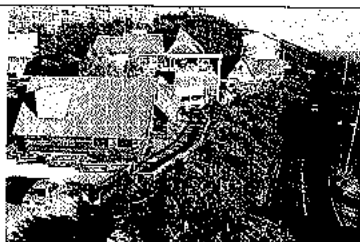
극히 기이한 일에 속한다.

아무튼 이런 사례들은 우리를 불가피하게 부산성의 본질이라는 근원문제 앞으로 이끌어간다. 과연 대도시 부산이 순수이론 분야나 인문학에서 취약함을 노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각자의 노력부족, 비정치적 성향, 그리고 정체성 결여, 상업주의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보다 더 근원적인 어떤 이유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결과들은 아닐까. 보다 근원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동래군과 부산포

김정호의 '청구도'에 보면 지금의 부산광역시 를 아우르는 면적은 온전히 동래부의 관할구역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래서 동래라는 지명이 큰 붓의 필체로 도드라진다. 물론 교통망도 동래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부산이라는 훨씬 작은 붓글씨가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지금의 남포동 어디쯤일 것으로 짐작되는 남쪽 해변끝의 자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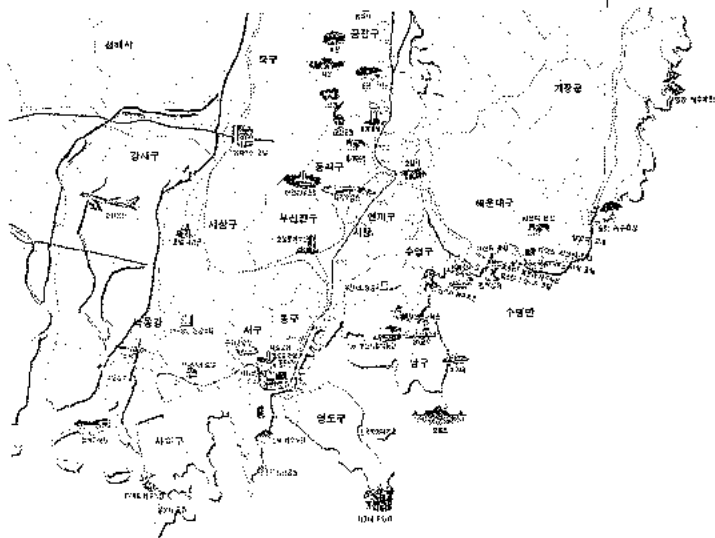
달맞이 고개



초량 외국인 상가



해운대 공원



만 어촌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것은 역사에 남은 아득한 추억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날도 지긋한 동래의 토박이 노인들은 부산포를 동래에 딸린 배당은 자리쯤으로 생각한다. 한세기 전까지만 해도 그것은 틀림없는 진실이었다. 부산 역사의 뿌리는 지금의 중심지인 부산포가 아니라 부산의 변두리 지역으로 밀려난 동래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현대사의 두 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산포가 거대 도시화를 강요받게 되면서 모든 형편은 달라지게 되었다. 그 두개의 사건이란 첫째는 1876년의 강화조약이고 둘째는 1950년의 6·25사변이다.

사적에 따르면 이 지역은 통일신라의 35대 경덕왕 재위 연간인 757년에 동래군으로 지정되었다. 물론 그보다 더 아득한 세월 전에 이 동래지역에는 독립된 수국이 혹은 정치집단이 존재했다. '삼국사기'에서는 그것을 거칠산국으로 '동국여지승람'에서는 그것을 장산국 혹은 내산국이라고 불렀는데 이 나라는 신라 4대왕이었던 탈해왕 연간에 당시로서는 주변 강대국이었던 신라에 의해 병탄되었다.

아췌든 그 이후 고려, 조선 시대를 통해 경상도 남단의 정치, 경제의 관할거점으로 중시되던 동래군은 임진왜

란 후에는 특히 군사 요충지로 주목받게 된다. 임란 때에 외병들이 파죽지세로 한양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동래성이 적의 공격을 받은 지 겨우 네시간만에 함락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곳의 군사 요충지로서의 지정학적 의의를 헤아려 알게 된 조정에서는 그 이후 동래부사에게만은 단독 군사 작전권을 주어서 과발로 전해지는 윤택없이 유사시 기민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연유로 조선조 말기에 이르면 동래군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 지위는 한결 격상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형편은 1876년의 강화조약으로 부산항이 개항될 때까지 변함없었다. 이것이 김정호의 청구도에 동래가 아주 굵은 붓글씨로 큰 도시로 강조하게 되고 부산이 아주 작은 글씨로 한 해변의 어촌으로 표시되었던 역사적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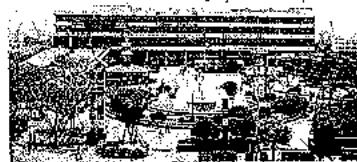
그러나 강화조약이 체결되면서 사정이 달라진다. 이 나라를 강제로 개항시키켜서 일본인들은 그들의 관문으로서 그리고 주 주거지로 부산포를 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 식민경영을 위해 비록 조국을 떠나있기는 했지만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나라에 가까운 곳에 주저앉고 싶은 음식심리의 반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초량에 지금도 고관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왜정 당시의 일본인 집단 주거지는 바로 관부 연락선 뱃머리가 내려다보이는 언덕배기였다.

어췌든 어선 몇 척이 한가롭게 떠있던 부산포는 졸지에 식민세력들이 드나드는 관문 부산국제항으로 갑작스러운 성정을 강요받게 된다. 하나의 거대도시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요즘 '한국형 신화' (Korean Legend)라고 외국학자들이 비아냥거리는 '신도시 신화'의 역사는 부산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던 셈이다.

이 과정에서 부산이 동래를 합병 흡수하게 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논리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하더



자갈치시장



부산역



부산시립박물관

라도 행정적으로는 부산에 통합되어 있었지만 동래는 여전히 긴장 속에서 부산과 갈등하는 대항세력으로 남아 있었다. 그 역학관계는 최소한 식민시대의 속도와 리듬에만 일임되어어도 상황이 현재와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 부산은 동래의 견제 속에서 비교적 천천히 시간의 수순을 밟으며 성장해 갔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의 두 번째 사건, 즉 6·25사변은 부산과 동래라는 갈등 구도자체를 와해시켜 버렸다. 전시 중의 임시수도가 틀어서고 모든 땅이 피난민들로 득실대기 시작하면 부산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거대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 모양새가 초라하고 껌죄죄했지만 이제 모든 차원에서 동래와의 경쟁 파트너는 아니었다. 명실공히 모든 중핵은 부산으로 옮겨지고 말았던 것이다.

어쨌든 부산이 동래를 흡수한다는 것은 정신사의 관점에서 보면 필통을 가방에 넣는 것이 아니라 가방을 필통 안에 넣는 오솔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인문학자인 나의 시각에서 볼 때 부산이 동래로 통합되지 않고 동래가 부산으로 통합되었던 이런 역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런 오솔이 아니라 어떤 상처다. 그것은 치유하기 어려운 두 개의 상처를 남겼는데 첫째는 우리 전통의 절맥이다. 동래적인 것의 몰락과 부산적인 것의 흥기는 확실히 그런 맥락을 품고 있다. 즉 그것은 어떤 권력에 의해 우리 땅에서 우리 바람을 맞으며 자연스럽게 이루어온 모습 살이의 터가 하루아침에 와해됨을 뜻하는 것이다. 수백년 전부터 조상대대로 발로 다져만든 촌락을 댐 건설 때문에 단숨에 수장시켜버리는 무지막지한 근대화 마인드도 따지고보면 이런 선례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통은 왠지 불편하고 낡고 무겁고 부담스럽고 불합리한 반면 새것, 외래의 것은 새롭고 편리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우며 합리적이라는 편견 또한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다.

둘째는 가치전도다. 반상의 계급개념이 부빈의 계층개념에 의해 급격하게 대체되어가는 부작용 중의 하나로서 근대화의 가장 역겨운 모습인 천민자본주의 혹은 졸부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부산포의 삶의 터들을 급격하게 채워갔던 이 최초의 신도시 시민들의 모럴은 전통적인 것과는 아

주 다른 것이었을 것이라고 믿어진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지적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동래적인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충분히 예상되는 도덕적 원리의 혼란속에서 일부는 분명히 '돈이면 최고다'라는 천민자본주의적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았겠는가 짐작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분명 지금 내가 관심을 가진 물음, '왜 순수인문학이 부산 땅에서는 그토록 무력하기만 한가'라는 물음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답의 일부를 이룰 것이다.

부산성의 본질로서의 대중주의

부산성의 본질은 대중주의에 있다. 물론 이것은 '부산'을 이루는 것은 동래군이 아니라 부산포¹⁾는 앞서의 역사적 일별에서 어렵지 않게 유추해낼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부산의 대중주의는 생각보다 훨씬 깊이를 가진 단단한 패러다임이며 그것을 제 폭과 깊이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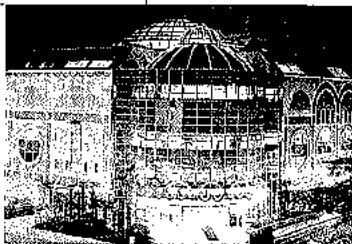
산과 바다의 도시인 부산은 어쨌든 이 땅에서 가장 탁월한 입지조건을 갖춘 도시 중의 하나다. 높이가 해발 오륙백미터가 넘는 산들이 도심울 종횡으로 가로지르고 서 있다. 도시에 산이 있는 게 아니라 산과 구릉을 비집고 도시가 들어서 있는 느낌을 준다. 바다는 북동쪽의 송정해수욕장에서 남서쪽의 다대포해수욕장에 이르는 긴 해안선으로 다채로운 굴곡을 이루며 물과 잇대어져 있다. 해운대, 태종대, 물운대 등은 그러한 만남이 만들어낸 위대한 작품이라 할만 하다. 산을 등에 업고 바다를 바라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이 도시가 경관에 관한한 신의 축복을 받은 곳이라는 데에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랑동난(夏凉冬暖)의 기후 또한 이 도시가 지

1) 물론 내가 여기서 사용하는 '신도시'라는 용어의 개념 '역대'는 전문가들의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전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도시가 역사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지 않고 정책적 이유에 의해 급조되었다는 의미의 것이다.



부산문화회관



동래 허성형 온천



광복동 먹지굴목

닌 천혜의 조건이다. 여기서 흔히 보게 되는 겨울의 반팔티나 여름의 긴팔 옷은 꼭 패션의 표현이 아니라 그저 더우면 벗고 추우면 입는 합리적 실용정신의 발로일 경우가 더 많다. 아무튼 겨울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따뜻함을 여름에는 노동하는 자들에게 서늘함을 선사해주는 이 도시는 이러한 기후의 특전만으로도 그 자체가 하나의 유혹일 수밖에 없다.

인문지리학자들은 이러한 조건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어디서나 눈 앞을 막아서는 산이 보인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뽕뽕이 흩어져서 솔로로만 뿔리는 비정칙적 기질이 특징을 이룬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산업화로 인해 생겨난 풍부한 노동시장과 천혜의 경관 때문에 일함과 즐거움이라는 단순한 매커니즘에 묶이는 남방주의적 삶의 태도가 시민들의 일반특성을 이룬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중주의의 뿌리가 되는 부산의 도시적 여건은 다음의 세가지로 열거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첫째는 개방성이다. 도심을 마구 형틀어 놓듯이 들어선 산들 때문에 분지가 없는 이 도시는 분지도시의 폐쇄성이 보이지 않는다. 분지도시가 폐쇄성을 보이는 것은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통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은 분지 대신 도처에 열려진 길들로 채워져 있다. 이것은 정신의 개방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믿어진다.

둘째, 민주성이다. 이것은 동래군이 부산포로 흡수되는 역사적 유산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모든 것은 평등하며 일체가 기호와 우연 속에 주어져있다는 믿음은 이 도시민들에게 선험적 의식의 일부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유흥성이다. 바다와 산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삶을 보다 발랄한 기운으로 즐기려는 태도를 가질 것이다.

하지만 이 도시의 본질을 이루는 이러한 대중주의는 천박한 대중성으로만 떠넘겨버릴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대중 공연 예술분야에 배출한 기라성같은 인재들과 최근 이 도시에서 개최되기 시작한 부산 국제영화제 등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될 수 있는 일이라고 나는 믿는다.

속 제

이제 이 도시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는 해마다 기울어지고 있는 실물경제이다.²⁾ 지면의 제한으로 충분히 논하지 못하지만 이것은 자기 반성을 거치지 못하고 진행되어온 이 도시의 본질인 대중주의의 한 파국점으로 보인다.

물론 처방은 학이부동의 긴장 속에서 재건되어야 할 부산포와 동래군의 길항 콘텍스트이다.

그것은 곧 대중주의와 인문정신의 화해를 뜻한다. 이제 이 도시에 걸맞는 인문학적 상상력들이 절뎛던 동래군의 정신사적 맥락 위에서 부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제도를 통한 인위적인 노력보다는 개인들 각자의 자각과 성찰을 통한 실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일은 먼저 이웃을 돌아보고 연대하고 함께 쌓아나가는 일상에서의 작은 일들을 실천하는 것이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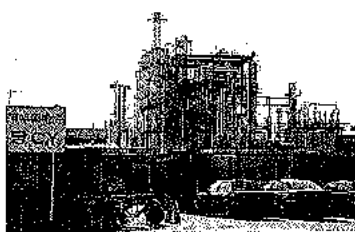
그래서 마땅히 이제 이 도시의 규모에 걸맞는 인문학적 상상력들을 키워가야 하는 것이다.

그때라야 이 부산에서도 가령 '한국 인문학 연구회'의 몸부림이 매아리 없는 고독한 외침으로 그치지 않게 되고 또 이 도시의 체형에 맞는 건물들이 세워지고 또 이 도시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을 순수이론 연구활동들이 학회차원에서 결실을 맺어갈 수 있을 것이다.

2)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경제는 1990년을 정점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가령 1985~1994년 중의 지역경제의 인플레이션 성장률은 6.8%로 우리나라의 6대 도시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전국 평균인 9.5%에도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1인당 지역 총생산도 80년대 초반까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지만 90년대 들어서서는 전국의 80%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부산지점, 부산지역 경제구조 분석, 1996, 8, 2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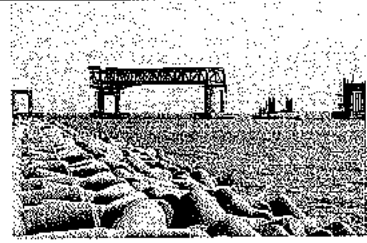
3) 이런 제안들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한국 인문학 연구회 회원이며 이 활동의 전위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김영민 교수의 다음 저술을 참조. 김영민, 진리 앞의 우리, 철학과 현실사, 1998.



해운대구의 공장



일제 건물이 남아있는 도심거리



광안대교 공사

부산을 바라보는 한 시선

An Opinion on Pusan

강 혁 / 경성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Kang Hyuk

"중심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주변은 어디에도 없다."

- 메를로 뽁티 -

글머리에

먼저 이 글을 쓰는 필자의 처지와 입장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필자는 부산 토박이가 아니다. 부산광역시의 주민증을 소지한 지 올해로 14년 된 '반' 부산사람이다. 그전 30년을 서울에서 태어나고 살았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성장기를 부산에서 보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영원히 타자일 수밖에 없는지 모른다. 여하튼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두 도시를 비교하면서 서로의 차이에서 양자를 이해하려는 묘한 버릇이 생겼다. 때로는 내부자의 시각에서, 때로는 타자의 시각에서 부산을 바라보면서 부산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지역의 건축문화에 대해 고민해 보곤 한다. 잘못하면 이런 관점은 피상적인 관찰에 머무르고 말거나 근거없는 비판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 자기 지역에 대한 애정의 결핍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다.

그렇지만 조금은 내부자와 다른 입장을 견지하면서 관찰할 때 생산적인 기여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필자는 믿는다. 아닌 말로 원래부터 서울사람이었던 이가 얼마나 되듯이 원래 부산사람이었던 이는 또 얼마나 되는가? 부산사람들이 고향

에 대한 애정도 강하고 지역의식도 강하다는 점에서 보자면 우리 근대사에서 '용광로 도시' 부산은 매우 강한 흡인력을 지닌 도시인 셈이다. 외지 사람들을 받아들여 자기화하는 포용력이 큰 도시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 정체성에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도 어느 정도 사실인 듯하다. 이는 공동체로서 내적인 일체감을 제공해 줄 공동문화의 결핍을 의미한다. 즉 생존의 공동체로서는 가능하지만 진정한 삶의 질서가 도시 공간과 공적 영역에 미발달되어 혼돈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건축에 그 책임의 일단을 돌리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다. 흔히 부산의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도시의 아름다움과 개성은 자연과 어우러진 인간의 질서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사는 사람들에게 의미와 양식을 부여한다. 부산에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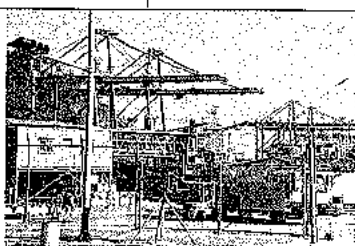
부산을 바라보는 눈

부산은 한국 제2의 도시이고 인구 400만이 사는 메트로폴리스이다. 물동량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국제무역항이고 영남의 중추도시이다. 새삼스럽게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을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까지 부산을 이야기할 때 막연히 언급되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낭만적인 수사와 달리 현실의 부산은 매우 크고 복잡하며 쉽사리 규정되거나 인식될 수 없는 대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 개의 열쇠어(Key Word)나 개념어로 부산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졌을 것이 아닐까? 우리는 부산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하고 고정된 이미지를 키우고 지켜온 것이나 아닐지.

만약 서울이라면 그러한 인식을 쉽사리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거대한 혼돈, 혹은 분열된 정체성, 그것이 서울의 현대모습에 대한 올바른 설명일 것이다. LA나 동경, 혹은 멕시코시티와 유사한 블랙홀 같은 거대 도시가 서울이다.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메갈로폴리스. 그렇다면 부산은 어떠한가?



남구 아파트지역



항관



국제시장에서 본 용두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서울을 거울삼아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를 판단하는 버릇이 생겼다. 서울의 기준에서 볼 때 인구 400만의 부산이 '변방'이고 '시골'이 된다. 부산 사람들은 그런 터무니없는 시각에 반발하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지방색이나 풍토적인 것에서 찾으려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부응해 왔다. 물론 그렇게 된 데는 부산이 하드웨어에서나 소프트웨어에서 메트로폴리스의 규모에 걸맞지 않는 전근대적인 상태와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부산 사람들의 자기 도시에 대한 인식의 지도가 부당할 정도로 편협하게 그려져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한 도시나 지역의 정체성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물론 그것은 역사적 생성물로서 공동의 시간적 체험과 공간적 삶의 궤적에서 생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삶의 체험이 지역적 물리적 흔적으로 각인되고 공동체의 기억으로 남을 때 정체성은 형성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현실로 존재하는 가시적 실체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뇌리에 존재하는 '상상의 공동체'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부산성'은 현실 공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사람들의 의식 속에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동질성을 어디에서 찾고자 하느냐 하는 기대나 원망과 관계가 있다. 문제는 그것이 타자(서울)의 사선에 의해, 혹은 타자를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다.

흔하디 부산을 뿌리없는 도시라고 말한다. 서울이나 대구, 혹은 광주와 비교해 보아 상대적으로 정체성이 희박한 도시라는 것이다. 도시의 역사가 짧고 유서깊은 장소가 드물며 주민의식이 빈약하고 주도세력이 생성되어 있지 못하다고들 한다. 그래서 도시의 문화가 빈곤하고 지역적 색깔이나 분위기가 없다는 것이다. 부인하기 어려운 이야기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부산은 압축적인 한국의 근대사가 낳은 기형아 같은 도시이다. 일제와 6·25와 산업화가 만들어낸 특이한 도시, 가난과 환락과 상업주의가 지배하는 도시라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부산 사람들의 입에서 스스럼없이 나온다. 그리고 제2의 도시는 지위는 때로는 근거없는 자부심으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열등감으로 표출되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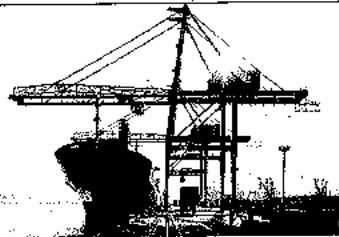
그러나 판단의 기준을 이동시켜 볼 필요가 있다. 조금만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한국에서 부산만큼 강렬한 개성을 지닌 대도시도 없다. 내륙의 모든 역사 도시들이 분지를 끼고 동심원을 그리고 있지만 부산 만은 해안을 끼고 선형으로 펼쳐져 있다. 바다와 섬, 산, 강을 끼고 다양한 자연 요소들이 어우러져 대도시 중 가장 변화가 풍부한 경관을 지닌다. 청명하고 온화한 해양성 기후조건도 빼놓을 수 없다. 도시 곳곳에는 특유의 지형적 특성을 간직한 천혜의 장소들이 자리잡고 있다. 산과 바다 사이로 좁고 긴 경사 지형에 도시가 일지하다 보니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공간구조를 갖게 되었다. 반도의 끝 자락인가 하면 태평양으로 열려 있는 관문 도시이기도 하다. 폐쇄성 보다는 개방성이 부산을 지배하는 성격이다. 외래적이고 이질적인 것이 쉽게 흡수되고 섞인다. 항만과 수산은 경제뿐 아니라 도시 분위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동감과 역동성은 주조적인 점서이다. 그래서 부산을 처음 찾는 외지인들은 아구동성으로 그 차이를 말한다. 부산의 풍경은 다르다고, 부산에 부는 바람은 다른 냄새가 난다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부산의 공간은 서울과 비교해 협소하고 단조로우지 모르지만 메트로폴리스로서 실제의 부산은 의외로 넓고 복잡하다. 기장으로부터 을숙도까지 동서로 달려서 두어 시간, 범어사에서 태종대까지 남북으로 한 시간 반이 걸리는 공간이 작고 좁을리 없다. 바다에 붙은 도시라는 이야기는 이미 옛날이 되었다. 내륙 깊숙이 들어간 도시가 된 지 오래다. 그 규모에 걸맞게 여러 특색있는 공간들을 품고 있다. 범어사와 동래 향교 및 읍성, 금정산성 같은 역사적 유구들, 동삼동 폐총 같은 신석기 유적, 낙동강 하구언의 을숙도 역사발과 철새 도래지, 가덕도 자생 동백 군락지 같은 환경적 명소들, 지금도 휴양시설로 건재한 동래 온천과 해운대 온천, 세계에서 하나 밖에 없는 유엔군 묘지, 러시아인들로 들끓는 초량 외국인 상가, 도심 곳곳에 흔적을 남기고 있는 일제 시대의 가로 풍경 등 결코 다른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다양함이다.

그리고 바다가 있다. 송정, 해운대, 광안리, 송



보수동



부산항만



광복동 거리

도, 다대포 같은 해변들, 이기대, 태종대, 물운대, 암남 같은 수려한 해안 공무원들, 송림이 우거진 달맞이길, 부산의 상징 오륙도, 자성대 및 산전대 부두, 해산물로 흥청대는 남항, 국제 여객선 터미널, 수영만 요트경기장, 해양대학교, 자갈치시장과 회센터들, 건어물시장과 공동어시장, 그리고 해양박물관을 위시해 앞으로 세워질 해양건축들, 이 모두가 바다와 면하면서 부산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풍경이자 장소들이다.

뿐만 아니다. 현재 부산은 변화 속에 있다. 도시의 내외부로 확장되는가 하면 얹혀서 복합화되고, 상하로 입체화되고 있다. 공공시설 및 문화공간들이 확충되어 가면서 현대 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지금 온 도시가 공사 중이다. 지하철과 터널들이 뚫리고 도시 고속도로들이 놓이고 바다를 가로지르는 광안대교가 건설 중이다. 공공청사로는 국내 최대인 부산시청사가 완공됐고, 국내에서 가장 큰 호텔이자 백화점인 롯데가 들어섰다.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스포츠 파크가 건설되고 있으며, 수영만에 컨벤션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부산미술관을 위시한 문화예술시설들도 계속 지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부산은 점차 새로운 모습을 형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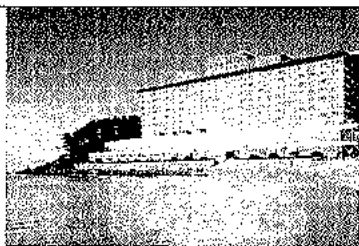
그러므로 부산은 한국의 여타 도시들과 비교해 보아도 상대적으로 강한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 할 수 있다. 어느 저명한 외국인 건축가가 서울은 겉으로는 현대화되고 화려하지만 서구 도시의 아류로 느껴지는 데 비해, 부산에는 경관이 독특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체취를 진하게 느낄 수 있어서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부산사람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고유한 분위기를 그느 읽었던 것이다.

모자이크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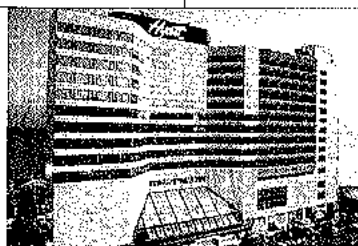
그런데 왜 부산을 개성있는 무성격한 도시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됐을까? 앞서 열거한 다양한 장소

들과 명소들은 일상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생활에 쫓기는 시민들이 만나는 것은 익명의 공간들이다. 그리고 거기서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무엇인가가 결핍되어 있다고 느낀다. 필자는 그것을 질서라고 생각한다. 부산에서는 오래된 도시에서 존재하는 유기적 질서도 발견할 수 없고, 계획도시에서의 기하학적인 질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부산에는 혼돈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서울이나 여타 도시에서 느껴지는 혼돈과는 다른 성질의 것이다. 서울의 혼돈이 복잡성과 속도, 그리고 스케일과 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상화된 공간들의 집적이 야기하는 것이라면, 부산의 그것은 이질적인 것들의 우발적인 집합과 혼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균형과 조화는 더 이상 현대도시에서 추구할 마력이 아닐지 모르나 그것도 정도 문제이다. 부산의 도시공간을 텍스트 삼아 그 안에서 이성적 질서나 합리적 체계를 읽어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기능과 구조와 배경을 달리하는 것들이 필연적 이유도 없이 그냥 섞여 있다. 시장과 학교와 공장과 집터와 자연이 무작위하게 펼쳐져 있는 것이다. 도심에 콘테이너가 야적되어 있고, 바닷가의 아파트 층이 공장과 연접해 있으며, 산 꼭대기나 번두리에 고층 빌딩이 솟아오른다. 있어야 될 곳과 있지 말아야 할 곳의 경계와 구분이 없다. 그것들이 공존하면서 자아내는 풍경은 아노미 그 자체이다. 한마디로 부산은 모자이크 도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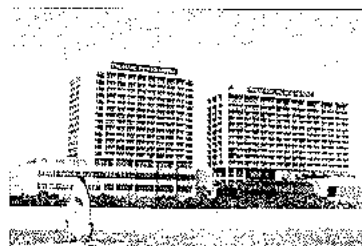
부산이 이질적인 것들의 모자이크 도시가 된 것은 도시 입지의 제약 조건 속에서 생존의 절실한 필요에 의해 도시가 급속히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도시의 형성과 성장이 한국 근대사의 계기들과 맞물려서 이루어졌고, 계획의 과잉과 계획의 부재가 얹혀서 오늘의 부산이 되었다. 물론 도시 구조와 기능이 전근대적인 수준에 머물며 미분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의 대형 개발들은 혼돈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투기적 개발과 상업적 이익추구가 도시환경을 착취하고 있고, 공공부문에서는 자치시대에 거대한 사업의 구상에만 정신을 팔려서 소중한 작은 것들이 방치되고 있다. 철거와 개발의 강제는 그나마 짧은 근대사의 흔적들을 모두 지워버렸다. 가시적인 물리적 질서의 부재는 부산을 생활공동체로 묶는 내



조선 호텔



하얏트 호텔



파라다이스 호텔

적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사람들의 일상적 삶에서 합리적인 질서의 감각을 약화시킨다. 문제는 공간의 질서가 시간의 경과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적절한 물리적 통여의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흔히들 부산의 분위기를 거칠고 투박하다고 말한다. 사람들의 성정이 그럴 뿐 아니라 도시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이다. 생존의 지상명령 때문이었는지, 투기적 개발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부산의 도시공간의 개발은 자연의 파괴를 담보로 진행되어 왔다. 까다로운 입지조건과 가용지 부족을 먼저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해결해 왔다. 방임과 무관심 속에서 개발을 위해 마구 파헤쳐진 산등성이들이 도처에서 추한 물골을 노출한 채 방치돼 있고, 해안의 둥그런 경계선은 매립으로 그 자연스러움을 상실했다. 무지막지하게 들어선 허부구조물들과 부드러운 기계 설비들, 콘테이너 야적장과 대형 창고들, 산꼭대기까지 빼곡히 들어선 집들과 능선 위의 대형 건물들, 이 모두가 부산의 도시 풍경을 구성하는 인자들이다. 정돈되지 않아 어수선하며 혼란스럽고 조야할 수밖에 없다. 부산의 특수한 여건을 무시하면서 오로지 잘 살기 위해(?) 도구적 편리와 경제적 이윤을 추구한 결과가 도시와 자연과의 공존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낙동대교를 건너 동서고가도로를 달리며 도심으로 들어올라치면 거의 폭력적이라고나 해야 할 도시경관이 펼쳐진다. 삶의 황폐화와 생활세계의 교란의 한 원인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잠겨 본다. 가로풍경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국의 도시나 대동소이하지만 부산의 가로는 유난히 혼돈스럽다. 도심 내 공공의 영역으로 할애된 광장이나 보도가 전무하다. 생각하며 걷거나 대화하며 걸을 만한 도심의 뒷길도 찾아 보기 어렵다. 있다면 유흥과 상업적인 기능에 봉사하는 도로들 뿐이다. 전국에서 부산만큼 먹고 노는 집이 많은 도시가 있을까? 건축물의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만큼 벽면을 가득 채운 간판들과 네온사인들, 그 현란한 색채와 패턴은 그야말로 '소리없는 아우성'이다. 부산은 간판도시이다. 장식적이고 표피적인 그 외관 내면에는 정신의 빈곤을 노출하고 있다.

거기다가 도로에는 파적의 콘테이너 트럭들이

질주한다. 도시가 항상 소란스럽고 들뜬 느낌일 수밖에 없다. 흔히 부산은 상업문화가 지배하는 도시라고 말한다. 부산의 상업문화는 일본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길거리 간판에 일본어를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다. 가라오케가 부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서면 북개천 거리의 야경을 보고 있노라면 일본의 오사카의 어느 거리에서 있는 듯 착각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 도시에 몸을 담고 사는 부산 사람들은 이러한 무질서를 무조건 폄하하지는 않는다. 부산의 근대사를 이해하고 있기에 이 모자이크 도시의 혼돈과 거칠음에 대해 어느 정도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다. 도처에 먹고 살기 위해 불가피했고 과거의 삶의 체취가 진하게 배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분적이고 한시적인 현재의 필요에 의해서 도시를 이용해 오고 만들어가던 관행을 이제는 멈춰야 함을 부산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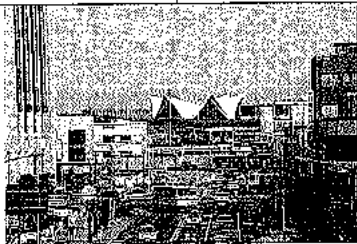
현대화의 문제

부산은 90년대 들어 또 한번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근대 도시의 체제를 갖추기 위한 인프라의 정비와 대형 개발사업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고 도시의 면모를 일신하고 있다. 주거 부족을 위해서 곳곳에 대형 주거단지들이 조성되었다. 교통 소통을 위한 고가도로, 터널, 지하철 같은 기반 시설들, 공공의 청사들과 시설들이 계속 건설되고 있다. 문화 공간들과 스포츠 이벤트를 위한 장치들, 소비생활의 혁신을 가져온 대형 유통센터나 백화점들, 해양 관계 위락단지 및 시설들도 이어지고 있다. IMF 때문에 가변적이지만 몇 개의 대형 개발사업도 묵하 준비 중이다. 도심과 부도심에는 대형 오피스와 고층 주상복합건물들이 서고 있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올림픽을 전후한 서울의 구조 변화와 유사한 상황이 부산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들 모두는 부산의 도시 공간의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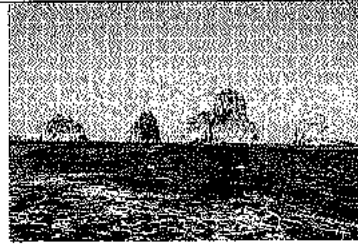
문제는 이들 건설이 고유의 개발 철학없이 구



서면 야경



시내 어디에서나 보이는 바다



오륙도

시대적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자연환경 파괴를 대가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고유한 장소에 대한 배려와 도시 맥락을 존중하는 일이 무시되고 있다. 개발의 스케일과 속도로 말미암아 그 폐해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 해운대 고유의 장소적 성격을 무시한 채 분당을 답습하여 10만 인구를 수용하는 신시가지 개발한 일은 동국제강을 이전하고 주변 수변을 매립하여 용적을 300%의 7천7백 세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속되고 있다. 워터프론트라는 미명 하에 도처의 수려한 해변을 저급한 위락시설과 유치한 구조물로 채우고 있다. 도심내 마지막 남은 땅인 이전적지들은 공원 대신 아파트 단지나 상업시설로 메꾸려하고 있다. 산꼭대기에 25층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시내에는 주변 맥락하고는 관계없이 35층 짜리 주상복합건물이 우뚝 솟고 있다. 서울의 남산 보다 더 소중한 황령산을 시민 여가시설로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빨갛게 파헤치고 온천위락 단지로 개발하려는 일은 과연 수도 서울이라면 가능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항상 구실처럼 따라오는 것이 재정난이고 민자유치이다. 제대로 개발할 여력이 없다면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것이 훨씬 잘하는 일일 것이다. 자치시대의 외욕적인 개발 사업은 그나마 남아 있는 부산적인 경관을 훼손할 염려가 크기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부산을 부산답게 가꾸는 일은 무엇보다도 상식적인 개발과 보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수려한 자연지형과 환경을 무조건 보존하여야 한다는 생각, 각 장소 마다의 여건과 특성을 존중한 개발 방식, 경관과 산을 훼손치 않는 건축설계 등은 부산의 특수한 조건에서 절대적인 개발의 명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개발의 지혜가 필요하다. 메트로폴리스 부산에 고층 건물을 짓지 않을 수 없고 상업이나 위락단지도 없어서는 안될 시설이다. 개발의 질서와 틀을 찾아주어야 할 것이다. 수변공간만 하여도 도심과 수영만은 고층고밀 개발하고 나머지는 그 스케일과 기능을 구분하여 위락 여가, 문화, 자연공원 등을 지정하고 특수 해양시설은 시 차원에서 따로 기획하여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방치해두면 무성격하고 조악한 상업공간이 온 수변을 채우게 될 것이다. 워터프론

트의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일부러 시급히 하여야 한다.

부산의 도시로서 지역적 특성이 자연 환경과 인공의 구조물 간의 조화로운 공존과 적정개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추상적인 일반 규제 보다 구체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면적인 개발, 점적인 개발, 선적인 개발의 방식과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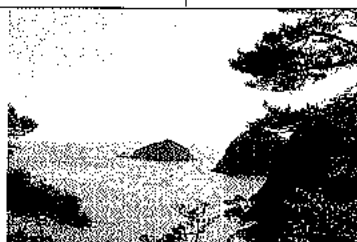
맺는 말

도시의 발전이 꼭 인간적인 삶의 신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검제의 성장과 편리성의 증대가 곧 삶의 질의 향상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근대사 속에서 갑작스러운 부산의 팽창은 자연환경과 도시 사이의 균형있는 발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인간과 공간 사이의 조화로운 상호작용도 불가능했다. 그 결과 오늘의 부산이 있게 되었다. 특수한 생성의 역사와 입지 조건을 가진 부산은 분명히 한국의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특유의 분위기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소망스런 지역적 정체성으로 결집되지는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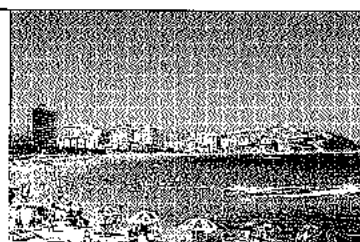
사람들은 부산을 일러 문화의 불모지라고 말한다.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무슨 의미에서 그러한 말이 회자될까? 사람이 먹고 사는 곳에 문화가 없을 수 없다. 부산적인 삶의 양식이 없음도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중앙과 비교해서 소위 고급 문화의 수준과 양이 열등하다는 뜻인가. 분명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대구 광주 등 경쟁 도시들과도 비교해서 시민들의 문화에의 관심도도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나 오히려 그 말은 부산사람들의 일상적 삶이 부산 문화의 바탕이 되고 고유한 자기 표현을 얻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더 마땅하다. 한 도시의 문화가 문화공간의 확충과 기념비적 조형물의 조성, 정책과 이벤트와 거리의 장식들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부산 사람의 삶의 현실에서 우러나오고 부산의 삶에 충실한 것으로서, 특유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담은 것으로서 문화가 더 중요할 것이다. 과연 부산의



태종대 등대



안남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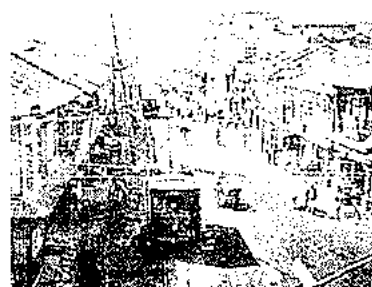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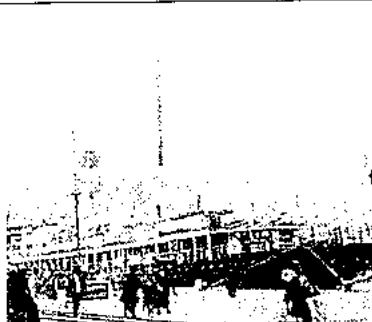


해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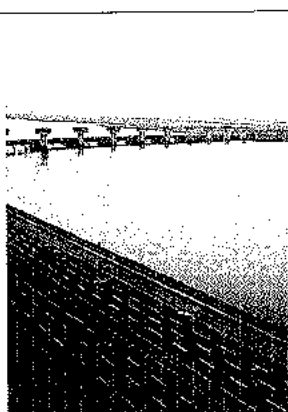
도시와 건축공간은 부산인의 삶을 제대로 반영하고, 부산 특유의 지리적 특성과 기후조건과 장소적 성격을 공간적 질서와 형태로 구현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얻수 이 여기고 그저 외래 건축문화나 중앙의 것을 들여다가 한탕주의식으로 재미를 보려고 했는가? 공간의 설계를 통해 부산인의 삶에 질서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는가, 아니면 표피적이고 장식적인 현란함으로 자본에 맹목적으로 봉사했는가? 배고프던 시절의 부산 건축들은 유치하나마 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한 건축을 만들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다. 오늘날은 기술과 돈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세련되었고 고급스럽지만 깊이와 편안함과 진정성을 담은 공간을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건축에서의 지역적 정체성은 억지로 지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산의 잠재력을 믿으면서 부산 사람의 삶의 문제를 의식하고 성실하게 노력할 때 점차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부산의 지형과 경사지를 활용한 집합주거 형식의 개발, 부산의 상업문화와 시장의 전통을 현대화하는 상업공간, 기후와 땅을 의식하는 색과 형태, 산과 바다의 경관을 함께 수용하는 도시설계, 부두시설의 재활용과 바다로 열린 문화공간, 부산적인 해양건축의 독창적 프로그래밍, 과거의 고유한 공간 스케일의 보존 등 사실 부산 건축인이 함께 연구하고 이슈로 제기해야 할 일은 찾아보면 너무나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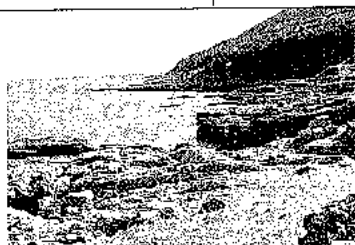
결국 부산의 지역적 정체성은 특정한 무엇, 혹은 하나로 존재할 수 없다. 국제적인 메트로폴리스를 지향하는 21세기에는 더욱 그렇다. 개성적인 부분(장소들)의 함으로서 전체, 이질적인 것들의 조화와 공존. 다른 어디에서도 없는 부산만의 특이한 공간과 장소, 다양한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물리적 질서와 자연(산과 바다와 강), 그리고 그 안에 면면이 흐르는 부산적인 삶의 양식, 이 모두가 부산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의 내용이다. 시간 속에서 그것은 변모할 수밖에 없다. 21세기의 부산은 더욱 명증하고 풍요로운 방식으로 그것을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부산 사람들의 심상 속에 부산의 공간과 문화의 지형이 더욱 또렷이 각인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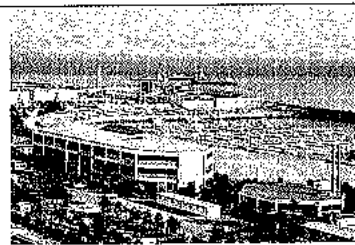
부산의 옛 가로풍경



낙동강 하구언



이기대



수원만 요트경기장

부산건축의 어제와 오늘 - 그 연속성으로서의 지역성

The Past and Present of the Architecture of Pusan
- Its Regionalism as Continuity

우동주 / 동의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Woo Dong-Ju

서: 지역성에 대한 시각

'부산건축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를 받아들이고 어떠한 전개가 가능할지 선뜻 떠올릴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부산건축에 대한 지역탐방 성격의 글들이 여러번 다른 잡지에서 다루어진 바 있어 부산건축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상황에 대한 소개수준의 내용을 반복한다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문화적 요소와의 불연속적인 단절을 팔연적으로 수반하는 서구적 근대화로 치달고 있는 부산지역의 건축을 과거와의 연속성의 복구선상에서 부산건축이 갖는 지역성의 의미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급속한 사회문화의 변화속에 역사문화 혹은 지역성에 집착해야할 당위성은 어디에 있을까?

또한 현대화된 부산의 모습 뒤의 지역성을 캐내는 작업이 어디서부터 가능할까?

최근 건축적 사고의 발전 중 하나는 전통적인 것과 혁신적인 것에 대한 개념의 상호협조에 의한 성장발전에 대한 믿음이다. 기존에 있었지만 무관한 개념으로 생각되던 것들과 현대적 상황 사이에 연관성을 맺음으로써 오히려 자유롭고 활기있는 상상력으로 인한 창의적 작업이 가능할 수 있음이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과학철학이 사회학적 패러다임의 주된 역할을 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전통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다. 기존의 것과의 연속성을 통해서 생성될 수 있는 것이 전혀 다른 것에서 불연속적으로 생성된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아무 것도 없는 것에서는 나올 것이 없는 것이다 (Nothing Comes from Nothing.) 가장 성공적인 현대 건축도 오늘날까지 연관을 잃지 않은 과거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얼마나 많은가!

파리의 급진적 경향의 건축물들은 파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지역성을 형성하고 있는 탄탄한 역사적 전통이 있기에 실험적 당위성을 갖는 것이고, 알도로시의 유추적 건축의 수준높은 추상성도 이탈리아 도시들이 갖는 풍요로운 역사성이 없다면 그 의미를 잃을 것이다.

과거와 현재와의 연속성으로서의 지역성을 추구하는 작업은 하나의 운동으로서 최근 모더니즘을 수출한 서구사회에서 더욱 어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 모더니즘은 부분이었지만 우리에게만은 전부였던 점을 두고 볼 때 지역성의 회복은 그만큼 우리에게만은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

세계적으로도 서구가 최고인 것만을 항상 생각 해왔던 정신적인 세뇌 이후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성공적인 서구화의 모델로 비쳐지고 있는 싱가포르에 대해서 오히려 서구인의 시선들은 그들이 문화적으로 기권 내지는 포기하고 있음에 매우 실망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흔히 제3세계에 있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문화적 생존을 위한 투쟁을 연상시키는데 정체성(Identity)의 발견, 혹은 확보란 표현을 호소하듯 사용한다. 이렇듯 건축적 연속성에 대한 필요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문화에 대한 가장 인상적인 건축적 이미지를 느끼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무의식적 개발의 모더니즘에서 잃어버린 문화, 장소, 기후, 그리고 건물들 사이의 완벽한 조화를 다시 연속시킬 수는 없을까? 이것을 다시 확보해야 하며, 일반적인 것이 지속적이며 적응력있는 건물형태의 모델이 될 때 지역주의자들의 역할범위도 넓어질 것이다



광안리해변



영도다리



금정산 범어사

부산건축의 배경: 역사성과 지역성, 그리고 몇가지 딜레마

부산은 삼한시대에 가락국과 신흥신라간의 접경지대였으며 고려말기에는 부산포라는 명칭이 나타난다. 부산은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개항한 항구이다. 따라서 부산의 근대개항은 그대로 한국의 근대개항을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으로 우리나라최초의 양식건물은 일본관리청이 1879년에 부산에 준공되었고 상품진열관, 부산세관, 부산우체국, 부산역사 등 많은 근대식양식건물이 완공되었다. 1905년 경부선철도가 운행되고, 1921년에는 초량, 좌천, 영주동 일원에 대한 가로정비사업의 시작과 함께 도시형성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1924년 경남도청이 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발전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해방을 전후하여 인구 30만이던 부산은 6.25를 지나면서 10년만에 100만을 넘는 대도시로 진입하게 된다. 도시개발이 정체인 상태에서 인구만의 증가는 도시체계의 혼란과 구조의 취약성을 한층 심화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지역적으로 부산은 우리나라의 동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관문이다 부산항의 전면에는 영도가 동남으로 놓여 있어 태풍의 흐름을 막아주고 간만의 차도 1.3 미터 내외여서 천연적인 항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일본의 대마도까지 불과 56킬로미터의 거리이고 시모노세기까지는 246킬로미터라는 가까운 거리 때문에 일찍부터 일본과는 숙명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부산의 자연환경은 특이하다. 바다를 길게 면하고 있으면서, 낙동강을 끼고 있으며 도심 가운데 높은 금정산이 있고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온천지대를 갖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배산임해하여 낙동강하구의 삼각주지역, 그리고 대한해협에 면접하고 있는 해안성의 섬(25개)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변의 자연적 여건이 숨막히는 거대도시의 치명적인 결함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전원도시지역을 형성케 해주는 값진 지리적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이 살기에 좋고 흥미로운 도시인가 하는 물음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우선 도심속에 설만한 공간은 고사하고 마음놓고 걸을 수 있는 보행로가 거의 없으며, 더구나 우리나라 어느 도시보다 가로수가 빈약하다. 그동안 한마디로 숨쉴만한 여유공간없이 차도와 콘크리트건축물로만 짝꿍 채워온 셈이다.

이러한 부산의 지역성 내지는 역사문화를 거론할 때 부딪히는 딜레마가 몇가지 있다.

첫째,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부산에는 개항 이전에 건축된 전통건축이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서울의 많은 서양식건물이 남아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부산에는 근대 서양건축이 계승되거나 도시맥락적 의미에서 논의가 있기도 전에 모조리 지워버리고 말았다. 말하자면 역사적인 사건들에 비추어 그 흔적들이 도대체 남아 있는 것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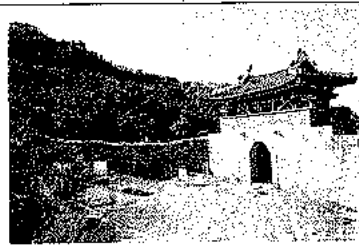
건축환경적으로 볼 때는 보존할만한 Context를 도대체 찾기가 어렵다. 역사적 흔적으로서의 건축물자체가 곧바로 지역적 아이덴티티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맥락의 출발점으로 삼을만한 장소가 원천적으로 드문 것이다.

둘째, 도시의 맥락과의 연계성은 고사하고 경사지와 도심 한 가운데 등 곳곳에 파상적으로 솟아있는 고층아파트의 숲을 바라보면 미래도시 부산의 모습은 암울할 정도로, 전도시에 걸쳐 작성된 기본지침을 구체화시켜 주면서 건축규제를 보조하는 이른바 건축과 도시를 일원화시켜 규제개발할 수 있는 중간단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닐지 모르나 부산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바람직한 도시환경개발을 유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지적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용도지역의 규제자체가 지역내부 특정지역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부산전체를 두고 볼 때는 바다는 도심과 자연스레 연계되어야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해변은 모두가 선착장이나 부두로서 시민들이 접근가능한 친수공간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해변공간은 부산의 도시구조상 핵심부분이지만



범어사 일주문



금정산 남문



자성대

해변시설의 신설, 확충, 정비에 관한 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부산시의 계획에 해변을 포함시켰을 경우 중앙정부의 거부로 무산된 사례도 있다.

넷째, 450만의 대도시로 성장한 부산은 아직껏 짜임새있는 질서와 도시상도 없고 도시구조적 취약성을 그대로 지닌 채 오늘에 이른 것이다. 더구나 해방후 수립된 1,2,3차 도시계획중 일부가 일제의 개발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나 이를 정당하게 평가할 창구가 없다는 것이다.

2차대전후 독립한 국가의 대부분은 그 성장과정이 식민주의로부터 발생하는 기존구조를 유지하거나 재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는 부산과 같은 지역건축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결: 부산건축의 세계화와 지역화(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를 위한 과제

현대기술의 발달이 이 도시속에서 인간에게 쾌적한 공간을 왜 조성하지 못하였을까? 반대로 역사적인 도시에서 지금까지 볼 수 있는 풍요로움에 감흥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문화적연속성이 가져다주는 총체적 안정감 때문이 아닐런지...

지금부터 꼭 10년전 부산에는 5개의 4년제 대학, 5개의 전문대학이 있었고 한 해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건축전공 학생은 약 5백명이었으나 지금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수적으로는 두 배로 늘어났고, 롯데호텔과 백화점이 서면의 옛 부산상고 자리에 들어서면서 부산의 상업적 중심가로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시청이 이전하면서 서면로터리에서 동래까지가 부산의 중심축이 되고 있으며 이 선형의 축은 계속해서 범어사, 양산, 울산으로 뻗어 있다. 부산의 역사성과 지역적 아이덴티티(Identity)를 두고 생각해 볼 때 본래의 상권을 형성하던 광복동, 남포동이 갖는 지역적 의미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더욱 강화시키므로써 부산의 지역적 요소들을 다량화하여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느낄 수 있는 장소성을 고루 갖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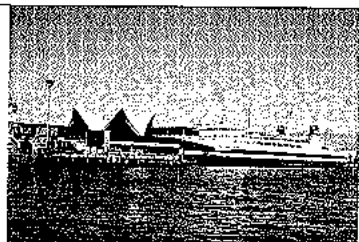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역성의 확보라는 것이 문화적인 연속성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두고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전통적, 문화적 맥을 찾아 나서는 작업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사안인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 부산을 읽을 수 있는 문화적 요소와의 단절을 어디서부터 그 맥을 찾아서 이어가야 할 것인가? 각 구청에서는 구의 영역내에 남아 있는 전통문화적 요소를 발굴하여 구의 지역성을 규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의 영역내 건축물에 대한 소위 건축심사라는 것도 이를 근거로 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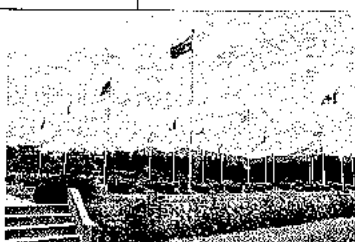
말하자면 구청별로는 용도지역내 각 특정지구들을 세분하여 각 지구별로 기능배치와 기능별 용적배분까지 고려한 종합적 도시설계기법이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도입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 건축이 중심이 되어 도시계획과 함께 현상설계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세계적으로 채용되고 있는 일반적 방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고 살아 숨쉬고 있는 부산 사회를 냉철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건축은 현실과의 부딪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건축이 들어설 장소, 역사나 문화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장소와의 관계를 맺어주는 작업이 곧 건축이므로 이를 위한 풍부한 단서들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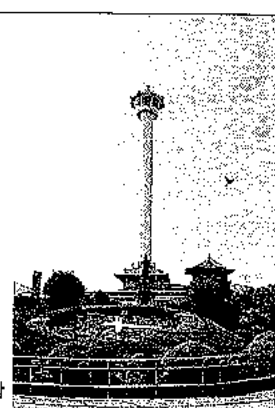
실제 가능한 설계접근론을 생각해 보면 도시경관이라는 단서, 길에서 찾는 단서, 길들이 만나는 비교적 오래된 장소라는 단서, 경사지에서 바라다 보는 단서, 바라다보이는 경사지라는 단서, 바다를 바라보는 단서, 바다에서 바라다 보이는 단서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건축대전과 같은 막대한 에너지를 이러한 단서를 찾아내어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도시란 결국 시민들이 편하게 건강하게 즐겁게 애착을 갖고 지부심을 갖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크게 미흡한 부산을 살기에 흥미로운 곳으로 만드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부산을 도시문화로 조



국제 여객터미널



U.N. 묘지



용두산공원과 탑

성할 수 있는 노력, 도시문화에 걸맞는 부산을 만드는 노력이 요구된다. 도시는 즐거운 체험의 대상으로서 매력과 흥미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중요롭게 할 단서들을 스스로 찾고 가꾸어야 한다. 따라서 건축가, 도시계획가, 관·민간업자들이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담론의 장이 적극 마련되어야 한다.

부산은 단순한 건설의 시대를 벗어나 고도화된 도시개발의 시대로 전환될 것이다. 토지집약적, 기술집약적, 복합기능적, 민간주도적인 데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90년대 프로젝트들은 도시의 건축은 총체적으로 다루는 데에서 착안되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건축에서도 도시맥락적 성격이 강조되는 프로젝트의 출현이 많아 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이 부산을 사로잡았던 열기였던 데 비해 건축이란 상대적으로 진지한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이 지난 시대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90년대 시대적 변화와 함께 건축환경에 대한 사회의식이 고조되고 활발한 건축적 탐구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아리아부대의 이전 등 도시재구조화를 위한 도전적인 프로젝트의 출현이라는 상황이 그것이다. 건축계내에서는 실험적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기는 하나 아직 그 활약방향이 뚜렷하지 않고 젊은 건축가들의 방향이 존재한다. 여기에 IMF가 겹치므로서 자체적 자정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건축계에 자기점검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소위 '위기가 호기'일 수도 있는 것이다. 다양한 방향의 탐색과 실행, 활기있는 논쟁이 펼쳐지면서 건축적 탐구의 줄기가 보다 선명하게 부각되고, 새로운 경향의 작품이 다양하게 전개될 것을 기대해 본다.

이러한 개별적 어휘의 다양화와 더불어 미래에는 생태적 개발(Eco Development)과 지속성(Sustainable)을 지닌 개발의 연관개념이 효과적인 자기발전적 도구로서 개발에 관한 새로운 발상으로 떠오를 것이며 지역성이 바탕이된 세계적 수준의 개발(Global Development)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합리적 방향은 지역성의 정립을 보다 필요로 할 것이다.

부산
Pusan

지역건축탐방 regional architecture

부산건축을 위한 네가지 제언

Four Propositions on Pusan

이종건 /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by Lee Jong-Keon

타를 바깥으로 돌리지 말자

이야기 주제로 '부산의 건축' 혹은 '부산의 건축가'를 잡으면 화살은 십중팔구 구조의 문제로 날아간다. 경제비탕이 부실하다든지, 고급 인력이 태부족이라든지, 대중의식이 말할 수 없이 낮다든지, 전문 관료가 허무할 정도로 비전문적이라든지, 전반적인 문화수준이 발바닥이라든지 하는 따위가 번번이 거론된다. 이런 현상들은 딱히 부산에만 한정된 것이라기보다 우리 땅 모든 곳에 만연해 있다고 지레 단정해도 별 무리가 없겠지만, 특히 부산에는 그 정도가 심하니 어쩔 수 없이 않은가 싶다. 거기에 설계사무소들마저 꼬사래기 제살 뜯기 수주 싸움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그나마 신진 건축가들이 고개 들어 숨 한 번 쉴 천혜의 기회인 현상설계마저 더러운 돈 먹이기, 공무원들의 말도 되지 않는 경기규칙 만들기, 함량미달 교수들의 고정 심사위원 때리기, 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전문가들(도면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의 심사위원 행세하기 등으로 아예 쳐다볼 수조차 없는 지경이고 보면 문제가 마땅히 '구조적으로' 심각할 수밖에 없음에 게거품을 물지 않는 이가 오히려 이상할 터이다.

그러나 다 소용없고 부질없는 짓이다. 아무리 모든 타를 바깥으로 돌려도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혁명으로 사태를 왕창 바꿀 수 없는 한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다. 적박한 상황에 저주를 떠부어도 다시 그 상황은 삶이 되어



일시수도 기념관



용호동 테라스 하우스



부산 시청사

성할 수 있는 노력, 도시문화에 걸맞는 부산을 만드는 노력이 요구된다. 도시는 즐거운 체험의 대상으로서 매력과 흥미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중요롭게 할 단서들을 스스로 찾고 가꾸어야 한다. 따라서 건축가, 도시계획가, 관·민간업자들이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담론의 장이 적극 마련되어야 한다.

부산은 단순한 건설의 시대를 벗어나 고도화된 도시개발의 시대로 전환될 것이다. 토지집약적, 기술집약적, 복합기능적, 민간주도적인 데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90년대 프로젝트들은 도시의 건축은 총체적으로 다루는 데에서 착안되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건축에서도 도시맥락적 성격이 강조되는 프로젝트의 출현이 많아 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이 부산을 사로잡았던 열기였던 데 비해 건축이란 상대적으로 진지한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이 지난 시대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90년대 시대적 변화와 함께 건축환경에 대한 사회의식이 고조되고 활발한 건축적 탐구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아리아부대의 이전 등 도시재구조화를 위한 도전적인 프로젝트의 출현이라는 상황이 그것이다. 건축계내에서는 실험적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기는 하나 아직 그 활약방향이 뚜렷하지 않고 젊은 건축가들의 방향이 존재한다. 여기에 IMF가 겹치므로서 자체적 자정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건축계에 자기점검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소위 '위기가 호기'일 수도 있는 것이다. 다양한 방향의 탐색과 실행, 활기있는 논쟁이 펼쳐지면서 건축적 탐구의 줄기가 보다 선명하게 부각되고, 새로운 경향의 작품이 다양하게 전개될 것을 기대해 본다.

이러한 개별적 어휘의 다양화와 더불어 미래에는 생태적 개발(Eco Development)과 지속성(Sustainable)을 지닌 개발의 연관개념이 효과적인 자기발전적 도구로서 개발에 관한 새로운 발상으로 떠오를 것이며 지역성이 바탕이된 세계적 수준의 개발(Global Development)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합리적 방향은 지역성의 정립을 보다 필요로 할 것이다.

부산
Pusan

지역건축탐방 regional architecture

부산건축을 위한 네가지 제언

Four Propositions on Pusan

이종건 /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by Lee Jong-Keon

타를 바깥으로 돌리지 말자

이야기 주제로 '부산의 건축' 혹은 '부산의 건축가'를 잡으면 화살은 십중팔구 구조의 문제로 날아간다. 경제비탕이 부실하다든지, 고급 인력이 태부족이라든지, 대중의식이 말할 수 없이 낮다든지, 전문 관료가 허무할 정도로 비전문적이라든지, 전반적인 문화수준이 발바닥이라든지 하는 따위가 번번이 거론된다. 이런 현상들은 딱히 부산에만 한정된 것이라기보다 우리 땅 모든 곳에 만연해 있다고 지레 단정해도 별 무리가 없겠지만, 특히 부산에는 그 정도가 심하니 어쩔 수 없이 않은가 싶다. 거기에 설계사무소들마저 꼬사래기 제살 뜯기 수주 싸움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그나마 신진 건축가들이 고개 들어 숨 한 번 쉴 천혜의 기회인 현상설계마저 더러운 돈 먹이기, 공무원들의 말도 되지 않는 경기규칙 만들기, 함량미달 교수들의 고정 심사위원 때말기, 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전문가들(도면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의 심사위원 행세하기 등으로 아예 쳐다볼 수조차 없는 지경이고 보면 문제가 마땅히 '구조적으로' 심각할 수밖에 없음에 게거품을 물지 않는 이가 오히려 이상할 터이다.

그러나 다 소용없고 부질없는 짓이다. 아무리 모든 타를 바깥으로 돌려도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혁명으로 사태를 왕창 바꿀 수 없는 한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다. 적박한 상황에 저주를 떠부어도 다시 그 상황은 삶이 되어



일시수도 기념관



용호동 테라스 하우스



부산 시청사

차갑게 되돌아오고 우리는 그것을 밀칠 도리가 없다.

문제는 사태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또한 온갖 사람들이 참담굴마냥 얹혀 있다는 데 있다. 누구는 점진적 개혁을 주문한다. 보수와 손을 잡고 한 발자국만이라도 앞을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있는 것을 인정한 위에 무엇을 세워야 한다고 개진한다. 그러나 글썽을시다. 그것은 진정 백년, 아니 천년을 뚫고 가야 할 막막한 길이요, 말도 안되는 짓들을 합법화시켜 자칫 한 번의 견제상실로 모든 것을 도루묵으로 만들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개혁 또는 혁신의 시점에는 이미 자신이 거대한 보수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이다. 흰 물에 검은 물 한 방울 타는 것과 검은 물에 흰 물 한 방울 타는 것이 전혀 같지 않음을 어찌 모른단 말인가? 차갑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현실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긍정해야 한다.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정작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사회개혁도 제도개선도 인식운동도 할 수 있고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 스스로 바로 서지 않고서야,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하지 않고서도 대체 다른 무엇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중잡은 일이며 우스꽝스럽고 그야말로 웃기는 일인가.

부산의 건축을 걱정하는가? 부산 땅에 건축문화를 세우고 싶은가? 부산광역시에 건축가의 자리매김을 하고 싶은가? 더 현실적으로, 건축가로 살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에 관심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선 당산부터 변해야 한다. 문제를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찾아야 한다. 가장 개인적인 공간에서부터 작은 혁명의 꽃을 피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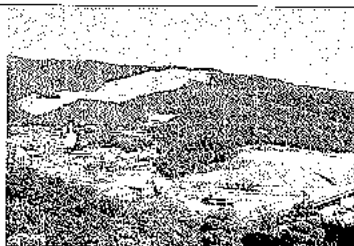
건축가의 삶을 살자

오늘날은 '스승이 없는 시대(Age without Mentor)'라고 한다. 딱히 학생들이 선생의 그림자를 밟아 스승이 없다는 것만은 아니다. 스승의 삶을 살기를 자처하는 사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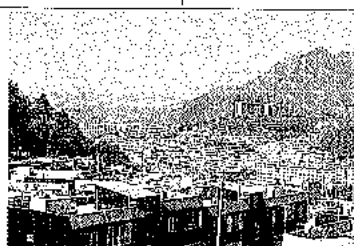
없음을 질타하는 말이다. 스승의 삶, 그것은 불의와 손잡지 아니하고, 돈과 명예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금기야 밥그릇이나 목숨까지 담보로 바른 소리를 내어야 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끊임없이 정진해야 하며, 자신을 비워 세상을 담는 큰 삶을 뜻한다. 그러기에 외롭고 힘들며 항상 손해를 감수하는 일종의 고행의 길이다. 깨우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의 실천이 더 소중하다. 자본이 이데올로기요, 돈이 주인인 이 돈 세상에 누가 감히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살기를 나서겠는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권력의 시녀, 자본가의 접대부로 스스로 자처하는 지식인을 앞에 오! 스승이란 얼마나 불편한 낱말이며 시대적으로 어떤 관념인가?

부산건축이 없다는 말은 부산 건축가가 없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과연 부산땅에 건축가는 있는가? 무겁고 힘든 상황을 묵묵히 뚫고 건축에 정진하는 이가 진정 있는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산건축이 없다는 사람들이여, 부산은 건축문화가 척박하다는 사람들이여, 청컨대 그대 스스로 먼저 건축가의 삶을 살기를 간청한다. 맑은 정신, 불타는 창조 의지, 지침 없는 정진, 가치없는 연설로 몸 불린 땅에 싹을 틔우는 작가이기를 부탁한다. 돈 벌고, 명예 얻고, 모든 이로부터 감언을 듣고 싶은 욕망을 누르고 오직 철저하고 엄정한 정신으로 주어진 삶을 건축가로 살기를 희망한다. 세속적 손해에도 불구하고 불의와 비겁을 준열히 꾸짖을 스승이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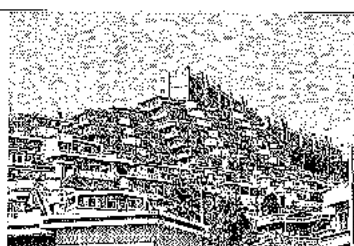
이제 한마디 하고 넘어가자. '부산의 건축, 부산의 건축가' 심포지엄을 3단체 합동으로 치른 후 지금까지 같은 말이 반복해서 들린다. 모처럼 화해 무드의 3단체 결속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유치한 사고와 주장이 아직도 유포된다. 물론 학회와 사협회측의 일부 사람들의 말이다. 당초에는 문제의 당사자 중의 한 사람에게 내용증명으로 송사까지 할 의향을 비친 예만한 사안이었고, 또 일부 책임(?)자들은 40대의 약관(?)의 나이로 유교적 사회질서를 쉽사리 무시하기 어려워 어찌했던 무마 쪽으로 생각한 것이 사실이었다. 딱히 반대편의 입장에서 이해 혹은 위로, 나아가 격려의 뜻을 밝힌 분은 극소수였다. 그



충하게 파헤쳐진 황령산



산위까지 오른 주택군



산꼭대기의 집합주택

러나 돌이켜 보아, 도대체 무엇이 그리 잘못 되었던 말인가? 소위 원로라 칭할 수 있는 문이라면, 싸움보다는 평화를, 분리보다는 통합을, 분석보다는 종합을, 폄하보다는 가르침을, 그래서 덕을 쌓는 데 나서야 하지 않은가? 막상 축사는 커녕 현장의 출석까지 거부하고, 어떤 이는 나아가 조직적인 불참운동까지 나선 것으로 들리는 그 행태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물론 일부 책임(?)자들도 분명 우리 인습에 어색하고 또 아마 거스르는 행위를 한 것도 상당 부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주례 비평, 덕담 나누기로 만연한 이 사회는 인젠가는 바뀌어야 할 것이다. 서로 봐주기, 다 잘살기는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누군가 화살을 맞아도 그 일은 치러야 한다. 40대를 청년(?)으로 언급하며 마치 애송이로 취급하여 3~40대의 사회참여에 불쾌함을 드러내는 우리 원로님들, 차라리 물러나 쉬시는 편이 오히려 도와주시는 길이오니 그리하시면 안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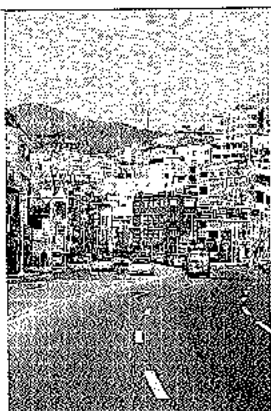
상황으로부터 출발하자

지금 온 나라는 구제금융 문제로 몸살을 앓아 고 앓고 있다. 결국 세계화는 이제 생존을 위한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필수로 다가왔다. 적어도 앞으로 수십 년간은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로 편성될 형국이다. 합리화는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는 삶의 기제다. 열린 시장에서 달린 세계관은 폐물일 뿐이다. 그러나 무엇으로 세계화를 한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우리 것을 보존하고 생산하고, 또 재생산할 능력을 갖추어 왔는가? 우리 것 없는 세계화는 얼마나 섬뜩한 구호인가? 우리의 찬란한 삶을 또 다시 식민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 진정 밥그릇을 위해 교권, 아니 인권마저 버리는 적지 않은 우리 내 교수님들처럼 오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혹은 자본가의 기름기를 더 얻기 위해 주체성과 정체성을 외면할 것인가? 우리 주변을 돌아 보라. 먹고 입고 자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주체의식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담고 우리의 의식을 치르는 우리의 공간들이 얼마나 이상하고 소원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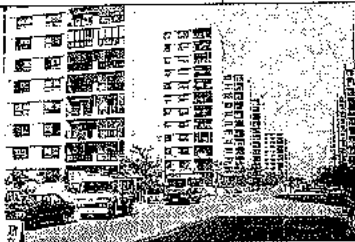
수십 년간 이어 온 경제중심의 우리 정치가 IMF 체제에 얼마나 당연, 당당해졌고 또 그것으로 인해 지금 우리는 얼마나 심각한 인권 사각지대로 본격적인 진입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아야 한다. 그 동안 물질로 인해 굴절되고 황폐해 버린 우리의 정신이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 이제는 명료하게 보아야 한다. 나눔과 절제와 검박과 단순함과 더불어 사는 삶과 생태환경과 공동체의식과 희생과 대의명분과 깨끗함과 청빈함을 얼마나 외면하고 살았는지 주목해야 한다. 아! 우리의 그 아름다운 영혼이 그동안 얼마나 뒤흔어졌는지 분명 확인해야 할 것이다. 참건축은 오직 삶에 뿌리 내린다는 것을, 그리하여 분명 전인적인 삶의 방식에 마땅히 교섭해야 한다는 것을 정녕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삶은 당연히 삶의 터, 곧 지역에 근거하여 따라서 삶의 건축은 불가피하게 지역주의일 수밖에 없는 사실을 문득문득 환기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삶의 조건과 상황을 주시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다 거기에 있다. 참건축은 삶의 건축이며 그것은 생명의 터와 흐름을 외면하고 설 수 없다.

지역성을 (무)의식의 지향체로 삼자

삶은 터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그 터는 또한 삶을 구성한다. 터, 곧 지역은 삶에 색을 부여하고 삶은 지역을 창조한다. 그러므로 삶 혹은 생의 건축은 마땅히 지역의 편린들의 끌어모임이며 다시 지역을 조형하는 에너지다. 세계화와 정보화는 일종의 도구로서 무방향성과 가치 중립성을 띤다. 반면 개별성을 품는 개체로서의 인간, 그리고 보편적인 사회성을 담지하는 공동체로서의 인간은 독특성을 담보한다. 새로운 혹은 독자적 세계의 열림과 터짐은 한 개인의 지극한 개별성으로부터도 가능하고 공동체 삶을 담는 지역성으로부터도 가능하다. 선택은 자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산하는 건축이 분명 세계의 열림이어야 하며, 그것이 오늘날의 삶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점에서 세계화 혹은 보편화는 건축의 필수적 측면이다. 그것과 동시에 개별성 혹은 지역성 또한 필연적 요청이다.



부산도심의 스카이라인



남산동 아파트촌



바다를 가려버린 아파트

지역성은 삶의 터로부터 끌어 올 수도 있고 그 터에서 삶을 꾸리는 공동체의 기질에서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건축가가 그것들을 의식의 표면으로 떠올려 창작의 대상으로 삼을 때까지는 흐릿하고 불분명한 객관으로 침잠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 때까지 지역성은 오로지 막연한 현실로 존재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건축가는 특히 개체로서 세상을 여는 비상한 개체가 아닌 한, 지역성을 (무)의식의 지향체로 삼아야 한다. 정신을 모아 삶을 온통 그곳에 두고 정진해야 할 것이다.

어느 지역이 그렇지 않겠나마는 부산 또한 특유의 지형으로 짜져 있다. 산과 골의 깊이가 다르고 바다의 넓이가 다르다. 하늘의 높이 또한 다르다. 도로 구성이 특이하며 일체가 꿈꾸었던 대동아 반영 기지로서의 땅의 역사, 즉 매립의 흔적이 유별나다. 적산 가옥이 요상하고 길과 집의 구성이 이상하다. 전쟁통이 남긴 피난파의 판자촌들이 회한하며 도시성장 형태가 예사롭지 않다. 그 뿐인가? 마을마다 성격을 표출하는 이름을 띠고 포구마다 이야기를 품고 있다. 그리고 밤어사가 있고 용두산이 있으며 동백섬이 있고 오륙도가 있으며 동래산성이 있다. 어디 그 뿐이겠는가? 무수히 깔려 있는 땅의 시성(詩性), 역사의 흔적, 삶의 체취들을 어찌 다 열거할 수 있을까?

부산의 공동체 성격 또한 확연하다. 어느 이가 평화조로 표현한 단순 무식, 과격은 어느 측면 적실하기도 하다. 어느 지역민들에 비해 앳새라(솔직하고 투명함)하고 화끈하며, 절의 타종 소리만큼 깊디깊은 정의 소유자다. 또한 대범하여 쪼뼛하지 않고 뒤끝이 없다. 칼같이 예리하거나 엄정한 수리 계산을 싫어하며 못뚫하고 결쪽하며 항상 틈에 편안을 느낀다. 정확한 거래는 질색이며 쉽게 손해를 감수하고 앞뒤 재지 않는 나눔의 사람들이며 한 그릇 여럿 손갈을 좋아하는 이웃사랑 사람들이다. 시끄러움과 왁자지껄함에 생명력을 확인하며 삶의 힘을 느끼는 사람들이며 텅텅함과 소박함을 애써 찾아가는 이들이다. 두 세 말들을 하나로 즐기기를 좋아하고 강한 표현에 깊은 맛을 느끼며 말보다 행동에 무게를 둔다. 좋아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쥐어박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일무로(의도적으로) 함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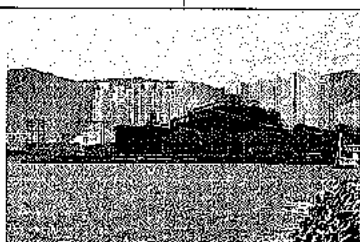
(?) 대하며 거친 말을 쓰며 무한한 사랑을 집어넣는다. 부산사람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점에서 안도의 맨 콘크리트에서 이질감을 느끼며 게리(F. Gehry)의 형태에서 실없음을 보고 현란한 장식물에서 구역질을 토한다. 우리 나라 어느 지역민 못지 않게 흙을 사랑하는 부산사람, 장맛을 즐기는 부산사람, 뜨거운 매운탕에서 시원함을 느끼는 사람, 툭툭 던지는 몇 마디에 온 삶의 깊이를 더하는 사람, 뽀얀뽀얀 다마배기(양파) 서울 사람들(문명인들)을 싫어하며 스스로 된장이라 칭하는 사람, 그들 앞에 서구의 현대건축은 다 부짓쟁이 짓이다. 소박한 아름다움, 나누는 즐거움, 투박한 깊이, 솔직한 만남, 역센 기질, 그 앞에 지나치게 맛있고 세련된(?) 알루미늄 슈트는 너무나 소원한 이방인이다. 아파트에 걸칠 색들은 여자 속옷이며 꾸불꾸불한 벽들은 장난이다. 전통창조라 주장하는 문화회관의 무대 박스는 거대한 괴물이며 형태는 우스꽝스러운 광대다. 대청공원의 총흔탑은 유에프이며, 해운대 달맞이의 카페들은 나이트클럽이요 라스베가스다. 그것들은 다 집들이 아니다. 다만 장난이요 미친 짓이요 모자란 이들의 소행이다. 모두 이식된 것들이요 수입된 것들이다. 남은 것은 편린을 주물러 새로움으로 창출할 건축가의 상상력이요 핵심을 뚫는 건축가의 안목이며 시대를 끌고 갈 직관적 가치관이다. 그러나 다만 이것들은 탐문의 대상으로 지역성을 잡을 때 하는 말이며 지역공동체를 의식의 지향체로 삼을 때 가능한 것이다.

다시 한 번 요청하오니, 부산의 건축가들이여 문제는 그대들 안에 있다. 부디 건축가의 삶을 살 것이겠거니와 우리의 상황을 직시하되 그대의 의식을 지역성과 치열하게 부딪혀 주기를 바랄 뿐이다.



시내에 아적시킨 컨테이너들



이전후 아파트가 돌아설 동국제강



광안리 풍경

좌담: 부산성, 어디서 찾을 것인가?

Where Can We Find the Character of Pusan?

일 시 / 1998. 3. 18(수) 16:00~

장 소 / 부산광역시건축사회 회의실

참석자 / 초의수(사회학 박사, 부산시 사정연구원)

최영철(시인, 월간<시민시대> '부산별곡' 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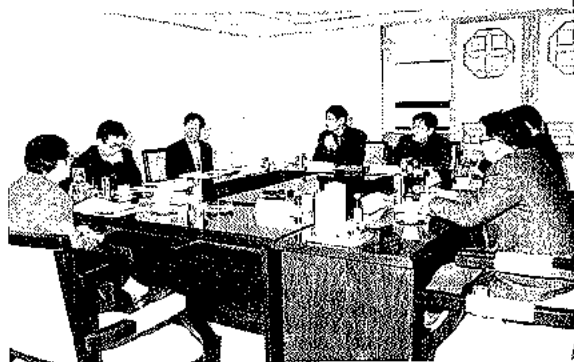
박충명(부산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안성호(건축사사무소 시반 소장)

정연근(건축사사무소 토원 소장)

조용수(동아대 건축공학과 교수)

강 혁(경성대 건축공학과 교수)



좌담회 광경(좌담진행 / 강혁)

강 혁 _____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건축 문화의 지역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좌담을 갖고자 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발전 연구소장인 동아대 김승환 교수와 동명정보대 이동언 교수가 유감스럽게도 오늘 아침에 개인 사정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고해 왔습니다. 보다 좋은 토론을 위해 아쉽게 되었습니다. 우선 역설적인 의문으로 출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도시인 부산의 지역성을 찾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적어도 부산 같은 도시의 경우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런 이유에서 시작했 으면 좋겠는데 우선 사회학을 전공하신 초박사님의 의견부터 들 겠습니다.

초의수 _____ 부산 같은 경우에는 문화양식 의 특징으로 개방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대화의 과정에서 다른 내륙의 전통도시보다 산업화라든지 자본주의를 빨리 수용했던 것 같습니다. 부산의 개방성을 달리 얘기하면 국 제화의 흐름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역적인 기반이 있는 것과 더불어, 부산의 지역적인 특수성이랄까 지역 적인 도시양식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지역성에 대해 창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됩니다. 부산 나름대로의 로컬리티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폐쇄주의적이 되기 쉬운데 그런 부정적 인 측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산의 지역성을 세계 적 흐름에서 창조적으로 점목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강 혁 _____ 지역성이 무엇이나고 규정한 기 이전에 지역성을 찾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역성이라는 것은 역사적 형성물이기도 하고 문화적 정체성이기도 한데 과연 부산에서 이런 것들이 뚜렷하다고 볼니 까? 최선생님.

최영철 _____ 부산은 자연발생적인 성장형 도시가 아니고 사변과 근대화를 통해서 급조되었습니다. 한 도 시가 형성되려면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축적된 문화가 필요한데 그런 면으로 습득된 게 아니고 다른 외부적인 것들이 와서 유입 된 것이니까 사실 부산의 뿌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뿌리를 만들어 가는 중이겠쎄. 그래서 급조된 부분하고 갑자기 팽창된 부분, 밖에서 유입된 부분이 아직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그냥 어지럽게 섞여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 이 필요하고 토박이 정신이 좀 더 살아나야할 것 같습니다.

강 혁 _____ 박충명 회장님의 의견을 말씀

해 주십시오.

박충명 _____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96년도에 건축상단체가 심포지엄을 가졌습니다. 부산에는 부산성, 지역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건축전문인의 입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오늘날 부산이 한국의 제2의 도시라고 이야기 하지만 사실 부산의 역사가 미천합니다. 서울, 부여, 경주같이 천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 왔다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지역성을 발견할 수 있지만 부산은 조그만 포구에서 갑작스레 발전했기 때문에 그것의 발견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역사는 이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 혁 _____ 세 분 모두 과거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거나 혹은 찾기가 어렵다는 측면으로 말씀하시고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안성호 _____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역사를 일제시대 이후의 항만 개발 이후에 생긴 지역으로 볼 필요는 없고 동래를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동래군의 역사, 혹은 동래부의 역사는 조선조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전부터 사람은 살고 있었습니다. 조선조 동래부때부터 내려오는 부산의 고유한 어떤 특색, 다른 지방과는 다른 특색이 분명히 있었던거죠. 그중에 임진왜란때 일본군들이 제일 처음 들어오는 길목이었고 일본을 방어해야 되는 국방도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게 조선조때 동래, 즉 부산이 있던 큰 도시의 성격이었고, 세종조 이후로는 삼포에 왜관이 계속 개설되어 일본사람들이 와서 공적인 무역을 했다는 것, 일본 상인들이 들어와 있음으로써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상업, 살리를 중시하는 기풍이라든지 하는 역사적인 배경이 4~5백년 정도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부산사람들의 정서라든가 기질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현재 부산의 지역성을 만드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강 혁 _____ 정선생님은 부산의 도시환경 혹은 공간구조에 대해 건축가로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세요?

정연근 _____ 제 개인적으로는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생활하다가 한번씩 내려와 보면 공간이 분명 틀립니다. 지역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선 그런 다르다는 느낌이 틀림없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강 혁 _____ 조교수님도 개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수 _____ 저는 있다. 없다는 이야기보다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부산을 부산 시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산지역을 가까운 경남까지 생각하고, 가야문화권이라는 역사성도 염두에 둔다면 한반도 동남부에서의 지역성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도시나 건축적인 측면에서 정체성을 찾기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기 이전에 도시나, 조경, 건축의 질서를 만들어나가는 작업을 먼저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산에서 과연 내적 질서, 특히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질서는 어떻게 정립이 되어 있는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 혁 _____ 굳이 정체성이나 지역성을 얘기하자면 어려워지지만 분명 부산이란 도시는 독특합니다. 정말 다른 데는 없는 분위기를 느낍니다. 자주 왕래하는 분들도 그 점을 지적합니다. 결국 그분들은 타도시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는데, 우리는 항상 이 안에 몸담고 사니까 의식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공간구조가 타도시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체성이나 지역성으로 얘기 할 수 있는 가는 어려움이 있지만 굉장한 다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름, 그 차이를 뭔가 자원으로서 활용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부산 사람이 시공간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고 있는 부산의 정서, 이것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산사람의 생활양식도 있다고 보는데 최선생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지요.

최영철 _____ 1년 넘게 「시민시대」라는 잡지에 글을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는 두 가지 상반된 가치가 공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부산은 문화적으로 보면 개방적인 것 같으면서도 폐쇄적입니다. 사람들 내면을 보면 스스로는 부산적인 것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밖으로는 부산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저는 두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주 심한 것 같습니다.

강 혁 _____ 초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초의수 _____ 저는 이중성이라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데에는 100%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방성이 폐쇄성과 공존한다는 것이 부산의 문화적 양상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으나, 우리 한국인 모두가 어느 정도는 이중적이고 양면적인 측면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산문화의 장점중의 하나는 상대적으로 매우 개방적이고 포용력이 크다는 점입니다. 부산이 어떤 근대적 정체성을 담는 본격적 계기는 아마 부산항이 형성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에 부산이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타지 사람들이 부산에 정착을 하면서 부산성을 형성해 가다보니 이런 과정에서 외부의 어떤 문화에 대한 흡수력과 수용력이 대단히 빠른 것 같습니다. 부산의 광안리에 가보면 일본 분위기가 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흡수력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난다는 것도 개방성 일종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을 부산문화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산항 형성이후 일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본의 자본이라든지 정치적인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피지배 또는 민중적인 저항 의식들이 상당히 확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4.19라든지 그 다음에 79년도의 무마항쟁이 있었고, 전국에서 6월 항쟁이 부산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부산에서 저항성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생존의 어떤 과정에서 스스로 터득하고 형성된 인식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성이란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산의 거칠고 투박한 문화가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솔직하고 직선적인 부분도 있겠고 때로는 세련되지 못한 문화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강 혁 _____ 주인의식이 적다든가, 상업도시가 되다보니 천민자본주의나 상업주의의 양상이 노골화되어 나타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충명 _____ 사실 그런 면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 사람을 집사람으로 맞이했는데 그 당시 부산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더군요. 왜냐하면 바다에 접해서 격하고 예의가 없고 상인문화가 지배적이지 않느냐 하는 시선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부산사람은 상당히 순진해요. 사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때 많은 난민들이 유입됐을 때 받아줄 줄 알고 안방까지 내어줬습니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고, 부산다운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부산다운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 속에 부산성은 살아있습니다.

강 혁 _____ 아까 양면성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비교와 차이 속에서 그런 판단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고 활발하고 역동적이라는 것이 거꾸로 얘기하면 거칠고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하다든가, 또 이성적이기보다 감성적인 측면이 더 강해 신중하지 못하고 즉흥적이라고 말할 합니다.

안성호 _____ 전반적인 기질, 정서에서 보면 그런 게 있죠. 부산사람들의 고유한 기질인데 굳이 연결을 시키자면 문관문화보다 무관문화가 부산, 동래의 주류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관들의 문화, 거칠고, 저항적이고 실질을 숭상하고 즉각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저항성이라든가 민중성이란 것도 조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동래의 특성이 아니냐, 고유한 성격이 아니냐라고 보고, 그게 일본강점기를 거치면서 더 심화되고, 해방 이후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역사의 고비 때마다 분출되어 나왔던 것이라고 봅니다. 왜관의 말씀을 드렸습지만, 일찍이 장사의 맛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근대적인 항구가 생김으로서 새로운 물자들이 들어오고 교역이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하면서 이런 실리를 중시하는 성격, 반면에 허세를 부리는 기질도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연근 _____ 부산성이란 것이 피상적, 혹은 개념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부산은 누가 뭐래도 자연적인 힘이 굉장히 큰 도시라 생각합니다.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 이런 곳에 가보면 굉장히 좋은데, 뭐가 좋은가 보면 있는 그대로의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부산을 보면, 정말 가만히 그대로만 유지해도 좋을텐데, 저희들이 지금 지역성을 굳이 인위적으로 찾게 된 이유는 이미 그런 소중한 것들을 다 없애버린 결과에서 빚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용수 _____ 저도 정소장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부산을 부산답게 살리려면 제가 보기에 지금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자연성의 보존이 관건입니다. 우리 부산의 천하절경의 경관을 살리는 건축을 많이 하고, 녹색공간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도시가 상업주의적으로 흘러왔었지요. 이왕 그러한 것들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런 곳은 적극적으로 더 살려서 건강한 상업 건축문화를 키워서, 개성적인 건축공간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강 혁 _____ 최영철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부산의 문화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영철 _____ 대구 광주와 비교해보면 거기 는 주류가 있는데 비해 부산에는 주류가 없습니다. 개개인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면에서 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 하나로 묶어 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점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처지는 면이 있습니다.

강 혁 _____ 아직도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틀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도시도 그렇고 문화도 그러하며, 생활도 그런 셈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 주시죠.

최외수 _____ 사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 뿐만이 아니고 한국 전체가 갖는 도시개발계획이나 개발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 이 분야의 전공자라기보다 바깥에서 보는 입장인데, 최근에 시에 들어가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동안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산업화를 뒷받침할 만한 사회간접자본이나 하부구조를 형성을 하는데 전력을 해 왔습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도로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근대화에 꼭 필요한 것들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많은 재정도 집중투입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부터 문화가 있는 건축, 문화가 있는 도시개발이라든지, 도시의 어떤 생활양식을 만들어 나가는 데도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역의 과제라고 하면 적어도 도시개발계획에 있어서 문화라는 요소, 또 시민의 참여를 통한 도시개발을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관심도 확산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부산의 정체성 또는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보다 많은 문화와 환경보존, 시민의 참여로의 전환, 그런 것을 뒷받침할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 혁 _____ 이제까지 개발논리가 보존논리를 압도했지요, 지방자치하고 나서 정치적인 의도속에서 단발적인 효과를 노리는 개발들만 해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관점에서 자연환경을 착취해왔던 것이 부산의 도시현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안성호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부산이 자연환경이 좋은만큼 또 가장피해를 많이 봤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안성호 _____ 그렇

죠. 자연보존적인 개발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구조성으로 한두번씩 나온 적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진지하게 얘기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달라진게 별로 없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실무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

에서 본다면 개별 필지에서 어떤 공공성이나 문화를 찾는다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 공공부분에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극히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몇 년 사이에 부산에서 엄청나게 규모가 큰 개발 프로젝트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바람직하게 진행되는 것은 드물고 대부분 도구적인 관점에서 진행된 것들입니다. 요는 건축하고 연관이 되어 도시와 건축을 연결시켜 주는 중간 부분을 공공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외람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에서 그런 역할을 할 집단과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로 다 유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고 또 부산에서 그렇게 잘 먹혀들어가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지 않느냐 합니다. 기득권 계층의 사람들이 그런 공공이나 정책을 입안, 혹은 자문하는 자리에 강력하게 포진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 혁 _____ 더불어 부산건축의 문제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중심, 즉 서울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상업 문화를 얘기했지만 외래문화, 특히 일본의 영향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산건축을 지켜가는 주류집단 내지는 의식들을 가진 분들이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박충명 _____ 지금까지를 반성해 보면 지적은 하면서도 어떻게 개조해나가야 하는가 하는 의식은 없었다. 다시 말하면 권력과 자본에 아부했다는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산의 도시개발이 자연을 크게 훼손하면서 걸간 화려하게 진행해왔다고 보아야 할지, 여하튼 제대로 된 여건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볼 때 뭔가 부산적인 것들을 강조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모방하기 때문에 표절이 된다는지, 뭔가 자기 것을 발견하는 일을 우리 건축전문인들이 잘 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산이 만들어졌다는 자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검토하고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야 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 혁 _____ 직접 실무를 하면서 경험한 어려움 같은 것을 부산건축과 관련해서 좀 얘기해 보시죠.

정연근_____ 답답한 것은 한 필지를 가지고 건축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도시 전체에서 볼 때 너무 미약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보기에 도시적인 어떤 이슈에서 접근한다는 체질 자체가 없지 않느냐,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는 게 지금까지는 거의 개발이라는 패러다임을 따라서 소위 아파트업자들, 건설회사들이 막 떼가지고 개발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대포도 없어지고, 수영만도 없어지고, 택시기사분들이 옛날에는 차를 몰고 다니면 산이 보였는데 이제는 안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민들이 그만큼 의식할 정도로 도시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체가 어우러질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저 산이 왜 깎일 수 있을까, 주변건물들은 4,5층에 불과한데 20층 넘는 건물이 우뚝 솟아있고, 도대체 부산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건축, 도시환경을 가려나가는 생산체계가 가이드 라인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스카이라인도 형성되고 전체가 조화되고 하여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므로 힘이 한 곳으로 쏠려서 현재 같은 상황이 아기된다고 봅니다.

조용수_____ 그래서 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수영구청에서 광안대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다 광안리 바닷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관지역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 앞으로 그 지역의 개발이 지금보다 더 나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의 중요한 장소들을 살리려고 하면 강력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도시설계구역에 넣어준다는지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호_____ 부산시에서 도시설계를 한 도서를 본적이 있는데 도시설계가 아니라 땅 나누기, 필지를 나누어 놓은 정도, 블록을 나누어 놓은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건축행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지침인 가이드 라인이 전체적인 계획하에서 주어져야 되는데, 실제 나오는 결과는 도시설계가 아닌 것이 나와서 건축행위를 규정해 버립니다.

박종명_____ 도시설계는 도시계획적인 면에서 취급하되 그 상세설계는 건축사들이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개발이 되어있는 장소는 뜯어서 친수공간을 만들려

고 하고 자연적으로 친수공간이 이루어져 있는 부분은 인공부분을 넣어가지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도시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이 아니고 파괴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전문인들은 알면서 침묵을 해야하는 것이지요.

강 혁_____ 시민의 입장이자 사용자의 입장에서 산이나 바닷가에 지어진 아파트가 병풍같이 자연을 다 막고 있는 것을 보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최영철_____ 산이나 바다같은 것이 사람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잠재우기도 합니다. 저는 서면쪽에 오면 황령산이 펼쳐질거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그러나 막상 앞에 드러나 있는 것은 파먹은 산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몸에서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런 환경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큼니다.

강 혁_____ 초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초약수_____ 관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 저도 그런 내용에 100% 공감합니다.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 가이드 라인이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합당한 가치를 담고 있어야 되겠지요. 규제 역할은 축소되어야 하고 모니터링 하는 역할로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공공부분에서 모든 부분들을 취하고 조정하고 적절한 방향을 맞추기에는 상당히 과부하가 걸린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관은 상당히 발전적인 방향으로 뭔가 해보기에 위험도가 굉장히 크고 따라서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집단들이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자성이랄까 그런 책임성있는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전문집단에서 지식, 기술, 새로운 사회발전적 가치를 시민사회나 공공적 영역에 내어놓고 같이 공유하고 대화를 마련하고 그래서 어떤 도시개발에 있어서 가이드 라인을 고치는 그런 과정들이 총괄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감독이나 규제에 의한 것보다는 시민사회의 감시라든가 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 혁_____ 원론적으로는 다 수긍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정교한 체계나 장치가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바다애기, 해양건축, 친수공간(Waterfront) 혹은 산을 어떻게, 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부산의 좋은 곳들을 살리는

데 부산의 미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수 _____ 아무래도 부산의 자연지형을 살리는 일을 한다면은 부산에서 볼 때 주거건축, 즉 아파트에 대해 생각해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다대포같은 곳이 아주 수려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완전히 아파트로 뒤덮혀버렸습니다. 반여동 쪽의 산 위에도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집합주택군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자연 지형에는 그런 일을 되풀이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박충명 _____ 부산지역에서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낙동강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역의 개발에 들어갈 때는 과거에 일으킨 누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금정산도 일부는 남아있습니다. 도심지에서의 재개발도 재개발이 아니고 도리어 기형화된 도시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초의수 _____ 부산사람들은 상당히 성격이 급합니다. 그런 조금성을 탈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빨리빨리라는 문화 때문에 환경이 더 급속히 파괴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도시개발과정의 원색적인 상업성에 노출되어 있고 공공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규제하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실행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행정이 순환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책의 개발과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미약합니다. 앞으로의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정성에 강도를 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 중심적인 개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도시설계라는 부분에서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개발과 이윤중심으로부터 공적가치와 참여와 문화와 생활양식이나 환경쪽으로 과감하게 돌려야겠습니다.

강 혁 _____ 옛날에는 모든 해안선을 따라 모든 해변이 시민소유였는데 개발하다보니 시민에게 남은 곳이 몇 곳 없습니다. 거기다가 민자유치라는 명목으로 위락단지, 놀이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워터프론트란 개념이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구형마다 자기 구에 수족관 하나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수족관이란 것이 얼마나 복잡한 건축이고 몇백억이 드는 건물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다 전체를 놓고 보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합니다. 바다를 잘못 개발하면 부산의 미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용수 _____ 부산에서 과연 어떤 부분이 워

터프론트 계획이 되어야 되는가를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 장소에 따라서 워터프론트가 가지고 있는 장소성이 틀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환경이 좋은 곳은 오히려 개발을 안하고 그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낙동강 강변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내륙쪽으로 강이 들어가서 거기서 나룻배가 모여있고 그 옆에 집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나름대로 장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특이성을 잘 살려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초의수 _____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해양문화에서 문화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해양문화를 상징할 만한 랜드마크라든지 상징물 자체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보존해야 될 지역은 과감하게 개발을 차단하면서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은 심의를 거쳐서 부산의 해양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국제화시대이기 때문에 서울과 비교하는 부산이 아니라 국제적인 도시로서 힘을 키워야 될 때입니다.



정연근 _____ 해운대, 광안리에 하루가 멀다 하고 잔디를 심고 구조물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곳을 가는 이유는 그나마 맑은 물이 있고 터져진 공간이 있었으니까 가는 것입니다. 개발이란 것이 강박관념처럼 박혀있고 또 지방자치제가 되다보니까 더욱 개발에 치우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쿄에 가보니 복개를 해야 할 것 같은 하천도 물이 흐르고 물고기도 있고 오리도 헤엄쳐다니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악취가 나는 하천도 가능하면 손대지 않고 정화해서 시민의 장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손을 데기는 쉽지만 원상복구는 굉장히 어려운데, 부산같은 경우는 자연 여건이 정말 더할나위없이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꾸 뭘 한다는 발상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나온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초의수 _____ 부산의 해양관광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제기되었는데 워터프론트와 관련되어서는 종합적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구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면에서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시청에서 모순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환경을 얘기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영천 살리거나 온천천 살리기 운동같은 것은 평

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부산은 삼포지향적이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산, 강, 바다 이 세가지가 부산이 갖게 된 큰 자연적인 자원입니다.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과정, 계획성 있게 일을 추진하는 과정들이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종합적 계획으로 갈만한 주제나 그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정연근 워터프론트의 최근 프로젝트 중에는 연안여객터미널이라든지 자갈치 시장이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잘못된 계획인 것 같습니다. 얼마 안되는 개발 대상자들 중 아주 중요한 장소들을 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온갖 손발만한 곳은 다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 혁 자갈치 시장 같은 곳은 외국인이나 타지 사람이 오면 제일 먼저 데려가는 곳이고, 부산에서 유일하게 보여 줄만한 곳인데 너무들 좋아하고 갑탄합니다. 그곳은 건축가가 만든 것도 아니고 부산사람들이 자생적인 힘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을 관하고 건축하는 사람들이 개선이란 명목으로 훼손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버린 것을 두 번 버려놓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연근 부도심쪽의 남포동, 광복동, 국제시장에 가보면 골목의 고유한 스케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 무교동 을지로 개발 때 그 많은 골목들이 다 없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부산도 과거에 있던 건물들과 가로풍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PIFF한다고 법석을 떨던 골목에서부터 자갈치까지는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도 이젠 이것대로 일년에 한 번씩 포장하고 있고 이쪽은 이쪽으로 또 개발하고 있고, 옹두산은 옹두산대로 뭔가 변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여튼 큰줄기에 정리가 되지 않고는 그런식의 개발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구도심쪽에는 도심공동화현상이 생기고 초등학교도 문을 닫고 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바다, 수변공간에서는 잠재력을 찾듯이, 이미 지금 형성되어있는 구도심 안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강 혁 물 얘기만 하지말고 산 얘기도 좀 해야겠습니다. 산 때문에 부산사람들이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길도 좁고 집지을 곳도 없고, 그래도 부산은 개성이 있는 게 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이 바다까지 가서 만도 만들고 곳도 만들어 참 아름다운데, 제가 부산사는 기쁨 중의 하나가 바다 보는 거고, 또 산을 보는 겁니다. 서울도 산이 많고 좋은 도시지만, 이제는 어딜가든 산을 보기 어렵습니다. 아직도 부산은 차를

몰고 가거나 집안에 앉아서 아파트 창문을 열면 산이 보입니다. 그런데 산을 계속 값어먹으면서 파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산에 전부 병풍처럼 치고 있는 아파트를, 이미 상당히 회복할 수 없는 경지까지 갔습니다. 또 마땅히 지을 데가 없어서 그런지 산꼭대기예다가 아파트 뿐만 아니라 대학교, 병원, 공공기관 등, 큰 시설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안성호 땅이 없으니까 올라가는 것이고 특히 고지대에 지어지는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관에서 규제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충수를 가지고 규제를 하는 모양입니다. 몇층 이하로 해놓으면 무조건 그 층까지 짓는 겁니다. 그것도 작은 충수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차라리 밀도를 가지고 규정을 해주면 저층 고밀화해서라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공공에서 컨트롤을 해줘야 합니다.

박충명 예전에 구관을 외솔벽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 산세가 정말 좋았는데 지금은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성고등학교 뒷편에 있는 산도 옛날에는 공동묘지였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건물이 다 들어서 있고 도서관도 지어져 있어서 미관에 좋지 않습니다. 해운대의 장산은 마천루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개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린벨트를 찬성하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그나마 그것이 있었기에 도사에서 텃밭이라도 남아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산지와 경사지의 개발에서 이제 전문인들이 한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강 혁 그럼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올림픽을 전후해서 한차례 서울이 구조적 대변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느낌과 유사한 감을 최근 부산을 보면서 갖게 됩니다. 온천장, 시내, 서면, 해운대, 송도, 따로 존재해 있었지만 지하철 등 네트워크화되면서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서울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은 참담하다고 까지 느껴지는데 아직도 여기는 여지가 많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과연 미래의 부산건축, 부산의 도시환경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며,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걸로 이야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영철 부산은 지리적으로 길쭉하니

다. 그래서 각 곳마다 필요한 생활영역들이 더 필요합니다. 도시 밖으로 나가려면 2시간씩 걸리는데 좀 분산시켜줘야 합니다. 이왕 도심 안에서 잘못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새로 형성되는 신도시는 정교하고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성호 도시개발이란 관점보다는 도시시설이나 도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나름대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들이 분명히 있는데, 좀 더 사업과정이 투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최적의 해를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주제가 부산적인 건축인데 개인적으로 질적인 문제를 접어둔다면 부산의 지역성을 나타내고 있는 건축들, 혹은 부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건축적인 특성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산의 지역적인 특수성이 보편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부산 건축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연근 도시적인 문제로는 부산의 공간구조가 하나의 중심으로는 무리인 것 같고 여러 개의 부도심 같은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항구를 가지고 있는 부도심, 산을 끼고 있는 부도심, 이런 성격이 살아나는 핵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정보망같은 것들이 발전하면 할수록 지역적인 정서나 문화들은 깨뜨려질수도 있고,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물리적인 자연환경에 충실할 수 있으면 저절로 부산건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환경은 부산사람의 인성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이라도 더 부산사람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조용수 도시에 완충공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좁은 의미로는 지역, 지구가 달라지는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장치로서 완충공간을 뒤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땅하고 호흡하는 건축들이 앞으로 계속 나와서 부산의 지역적인 장점, 바다가 있고 평지가 있고 바로 산으로 이어지는 천혜의 조건을 살려야 합니다.

박충명 부산이 환태평양시대 축으로 역할할 수 있기에 장래성을 보고 미래적인 건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환경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부산의 고유한 색도 가미해서 지역의 건축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건축을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2002년이 되면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 있어서 도시 곳곳에 많은 새로운 건축물이 생깁니다. 그런 건축물들에 부산성을 부여할 필요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시가지 및 신개발단지, 자연환경 등 부산전체가 어우러지도록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 혁 장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어떤 면에서는 나름대로의 정체성이 포착되는 부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미흡하고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데에 수긍하자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하나로서가 아니라, 부분들의 합으로서 전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도 합의하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부산은 메트로폴리스이기 때문에 첨단적이고 현대적인 건축도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부산의 역사성, 지역성, 자연적 조건, 대지의 조건을 살리는 건축들을 해야 함도 인정하게 되었고, 그점에서 반성할 것이 많음을 느끼게 됩니다. 부산사람들의 생활양식이나 현실여건들이 반영된 공간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바깥이나 중앙만 쳐다보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산은 서울과 기후가 크게 다릅니다. 대도시 중 가장 밝고 온화합니다. 해양성 기후라는 것이겠죠. 이것이 건축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옛날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루버도 있고 채양도 있고. 요즘은 현대 기술이 들어오면서 그걸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좀 찾아야 하겠습니다.

안성호 오히려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건축가 없는 건축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것들이 부산건축의 독특한 면으로 강하게 남아있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다 없어져버렸습니다.

강 혁 그런 것들은 건축가들이 재섭취하면서 수준높은 작품으로 승화시켜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건축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시 자발적인 창조력이 중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제가 없다, 사람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도시공간도 체계화 하듯 사람들도 연계가 되어야겠습니다. 전문가들도 서로 같이 만나면서 의견도 내고 정책도 만들어 내야겠습니다. 앞으로 네트워킹(Networking)이 참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타 지역분들에게는 부산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는 골이 되고, 부산분들은 읽으면서 부산의 가능성을 읽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참여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일본의 건축계를 알자

To know the Architectural World of Japan

김기철 / 본협회 법제위원회 담당이사

이관영 / 본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by Kim Ki-Chul & Lee Kwan-Young

김기철, 본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이관영

우리나라의 건축사제도나 건축법 그리고 건축관련 교육제도 등이 일본의 그것과 유사하거나 깊은 관련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건국 초기 법제정과정에 일본 건축제도를 참고할 수밖에 없었던 데도 원인이 있겠으나 같은 동양문화권으로서 역사나 문화가 유사한 것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동양문화권이면서도 중국은 이미 건축가인증제도나 교육제도 등의 준비에 있어 구미식 모델, 특히 AIA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계화에 따른 시장개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에 크게 뒤지고 있는 듯한 감이 있다.

오는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에서 열리는 동북아3국 건축사협의회에서는 시장개방 대응과 건축사 자격상호인증 등을 주제로 다루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 우리와 제도적으로 매우 흡사한 일본의 건축관계 현황을 알고,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의 대안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일본의 건축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로 이 글에 소개되는 자료들은 주로 JIA(신일본건축가협회)의 자료와, 건축가이자 평론가인 橋本喬行선생의 평론을 옮긴 것이다.〈필자주〉

일본건축가의 사회적·법적환경

1. 「Architect(건축가)」와 「건축사」의 차이에 대하여

일본에는 「Architect(건축가)」와 관련된 법률로서 「건축사법」(1950년 제정)이 있다. 이 법에 의하여 건축사에게 건축물의 설계 감리에 관한 업무특점과 「건축사」라는 칭호의 독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사법」은 설계 감리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자격을 정한 법률이어서, 미국이나 다른 외국의 「Architect-Law」와는 기본적인 성격이나 내용이 크게 다르다.

「건축사」라는 칭호는 건축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칭호일 뿐 「건축사(Architect)」라는 직업에 대한 칭호가 아니다.

일본에는 「Architect」와 관련한 법제가 없지만 그 밖의 마땅한 법제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건축사법이 「Architect-Law」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건축사법」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이 Architect(건축가)의 건축과 도시에 대한 예술적

역할과 직능윤리에 관한 사상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건축사」중에 적지 않은 수가 Profession으로서의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갖고 있지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건축사법」이 제정된 이래 40여년이 경과하여 그간 건축가의 Profession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 다소나마 진전을 보이고는 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 일본에는 일반적으로 「Architect」의 개념이 명확하게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

「건축사법」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이 법은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등을 행하는 기술자의 자격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고, 아울러 건축물의 질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를 「1급건축사」와 「2급건축사」 「목조건축사」의 3등급으로 나누어 당해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 감리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용도·구조·규격 등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건축사」에 등급이 있는 것도 용도·구조·규모 등에 따라 필요한 기술력에 차이가 있다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1990년 3월 현재 건축사로서 등록된 자의 총수는 74만명, 내용별로 보면 1급 건축사 22만4천명, 2급건축사 50만4천명, 목조건축사 1만2천명으로 되어 있다. 다만 이 중에는 사망자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적은 것이라 추정된다.

「건축사」는 원래 건축의 설계 감리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으로서 정해진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즉 오히려 건축에 관련한 모든 기술자의 자격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건축회사에서 공사를 담당하는 기술자, 각종 생산회사의 기술자, 교사로서의 기술자 등 여러 자격을 가진 자가 많다. 건축의 설계 감리를 행하는 자는 건축사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정 이전에는 「Architect」의 번역어로 써어 왔으나, 1950년의 건축사법 제정 이후 「건축사」란 호칭은 건축기술자의 자격을 의미하는 것처럼 변화하였으므로, JIA는 의도적으로 「건축사」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회명(會名)에도 「Architect」를 의미하는 「건축가」의 칭호를 내걸어 건축가의 Profession의 확립을 목표로, Architect-Law의 제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Architect」의 칭호에 있어서는 법적 칭호인 「건축사」와 달리 어떠한 법적제약도 없기 때문에, 요사이 「Architect(건축가)」란 칭호를 멋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자주 눈에 띈다.

2. 「Architect - Firm」에 관하여

「건축사법」안에는 「건축사사무소」의 조항이 있어, 건축물의 설계 감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직업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사」의 「사무소」를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Architect-Firm」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건축사법」 중 「건축사사무소」 관련 규정에는 의뢰자에 대한 의무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직업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 등에 관한 기술은 없고 또 건설업 등과의 겸업의 금지나, 법인 등과 같은 조직형태의 제한 등 사무소의 업무 형태에 대한 규정도 없다.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사」 스스로 주재하는 경우 뿐 아니라, 누구라도 「건축사」를 고용하므로써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제 건설업, 개발업자, 상사 등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다.

일본에는 건축가의 업태로 적합한 「Professional Cooperation(전문법인)」 등의 법인은 인정받지 못하며, 한편 「건축사사무소」가 일반 주식회사로 되는 것을 막는 법규도 없으므로 소규모 사무소는 개인으로, 대다수의 사무소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본에는 건설회사가 설계부문을 병설하여, 「건축사」를 고용, 설계·시공을 동일한 회사조직내에서 하나의 계약아래 연속하여 행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 다만 건설 회사에 소속된 건축사는 JIA에 가입하지 않는다.

JIA회원의 「Architect-Firm」과, 건설회사의 설계부문과 같은 2개의 업태는 누구의 눈으로도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JIA의 주장이지만, 현재의 형편으로 구별없이 취급되고 있어, 원래 다른 2개의 업태에 맞는 각자에게 적절한 직업규제를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건축사법」에는 「건축사」 자격구분에 맞도록 각각 「1급건축사사무소」 「2급건축사사무소」 「목조건축사사무소」로 나뉘어져 있다.

3. 「건축사」의 자격 취득에 관하여

「건축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안된다. 수험 자격은 「1급건축사」의 경우 대학에 있는 정규과정의 건축 혹은 토목에 관한 과정을 이수·졸업한 후, 2년 이상의 건축 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대학의 건축학과는 모두 공학부에 속해 있다. 「1급건축사」의 경우, 시험은 국가에 의하여 시행된다. 시험은 필기시험 뿐으로, 면접은 없다.

시험의 내용은 대부분 Engineering과 법규이고, 거기에 간단한 설계도의 작성이 추가된다. 현재 수험자

와 합격자의 비율은 12%정도로, 매년 6천5백명 정도가 합격되고, 그중 98%가 등록하고 있다.

이 시험에는 토목과정을 이수한 자도 시험자격이 있기 때문에, 실무경험의 내용도 설계 감리업무경험에 한정하지 않고 있는 등, 「Architect(건축가)」의 자격취득 조건으로는 지극히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규 대학의 공학부출신이 아닌 경우에도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에 해당 학교, 학과 등을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다.

일본의 건축관련단체

일본의 건축설계관련단체로는 신일본건축가협회(JIA; 1914년 일본건축사회로 출발, 1987년 JIA로 새로이 발족, 회원수 약 7천명), 일본건축사회연합회(1900년 건축사법에 의거해 건축사회로 출발, 연합회는 1952년 설립, 회원수 약 13만9천명), 일본건축사사무소협회연합회(건축설계사무소의 임의가입단체, 연합회는 1975년 설립, 회원사무소 수 약 1만6천3백개), 건축업협회(BCS)설계부회 등의 4극구조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신일본건축가협회는 일본에서의 건축 Profession의 제도확립을 주목표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일본건축사회연합회는 건축사법에 의거하여 건축사의 단체로서 설립된 47도도부현(都道府縣)건축사회의 연합체이고, 일본건축사사무소협회연합회는 건축사사무소단체로서 설립된 47도도부현의 건축사사무소협회의 연합회, 건설업협회설계부회는 건설업체안에 있는 설계부의 연합협의기관으로, 대외적으로는 건설업협회의 이름으로 대표된다.

여러 단체의 설립동기나 입장은 서로 달라서, 신일본건축가협회는 건축 Profession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 까닭에 구미의 건축 Profession이 건설업 등 이해가 대립되는 업태에의 참가를 금지하는 것과 같이, 설계를 전업으로 하는 자만을 회원으로 하며, 회원의 독립된 입장에 의의가 갈만한 이해관계가 있는 업태를 갖지 않음은 물론 그러한 업태에 속하여서도 안되도록 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건축설계의 전업자(設計專業)단체로서, 전전(戰前)의 건축설계선배들의 Profession 확립의 원망(願望)을 이어받은 유일한 단체이다.

여기에 반해 건축사회는 소화25년(1900년)에 제정된 건축사법에 의거 설립되었다. 건축사법이 전후의 부흥을 위한 건축설계기술자를 위한 법제였으므로 구미와 같은 건축 Profession의 윤리사상이 고려될 여지도 없었을 뿐 아니라, 전쟁전부터도 대규모 건설업체는 설계조직을 자체내에 보유하고 있었고, 게다가 당시 공무점(工務店)으로부터의 설계

시공 일관요구도 있어, 그 자격을 전업의 설계자뿐이 아닌, 건설업에 속한 건축기술자에게도 주게 되었다. 그외에 건축행정에서 종사하는자, 교육·연구에 종사하는 자 등 건축사자격은 전업의 건축사만이 아니라, 그외의 건축기술자에게도 주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건축사회는 이러한 모든 건축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40년을 경과한 오늘날 회원의 업무는 34%가 설계관계, 32%가 시공관리에 종사하는 등 거의 같은 비율의 건축사가 시공관리에 종사하고 있다. 건축사가 건축법에 의하여 사무소나 현장의 기술관리책임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아, 건설업법에 의한 시공관리기사의 자격제도가 운용될 때까지는 건축사가 이일을 대신하였으므로 시공관리에 종사하는 기술자도 건축사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정해진 기능 이외의 기능도 수행하게 되었다.

건축사법에는 설계 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야만 한다고 되어 있어, 이법에 의거하여 개설된 건축사사무소를 회원으로 하는 것이 건축사사무소협회이다. 설계를 수행하는 자격이 전업의 건축사뿐 아니라, 건설업에 속한 건축사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사사무소는 전업건축사사무소만이 아니라 건설업자가 개설한, 말하자면 겸업건축사사무소도 설계감리업무를 행하고 있다. 즉 건축사사무소협회는 전업, 겸업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사사무소의 단체이다.

건축업협회설계부회는 대형건설업단체인 건축업협회의 일부분인 설계부의 연합협의기관이다. 건설업안의 설계부문의 역사는 길어서, 전전부터 저명한 건축의 설계를 손대왔다. 오늘날처럼 수백~1천여에 가까운 대조직으로, 기획에서부터 애프터 서비스까지의 폭넓은 업무영역을 갖춘 대조직으로서, 일본의 건축설계계에 중요한 기반을 구축하게 된 원동력이라면 전후 고도성장기의 사회적 요구(Needs)에 대응하기 위한 대형건설업체의 필사적인 기업노력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설계와 시공을 동일조직내에서 행하는 것은 설계와 시공의 입장을 『이해의 충돌』로 보는 전업건축가측에서 보기에 건설업의 설계시공일관체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전업·겸업문제는 우열론을 위시하여 장기간의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따로 상세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이외에 건축사의 단체는 아니지만 건축관련 단체로서 건축학회(AJ)가 있다. 회원의 구성은 대개 대학 등의 교육 연구자가 22.5%, 건축사사무소에 속한 자가 23.2%, 건설업에 속한 자가 25.6%로 이밖에도 공무원, 건축 관련 기술자, 제조회사의 기술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4단체중 가장 오랜 역사와 가장 많은 수의 회원을 두고 있다. 설립1868년, 회원수 3만명(4단체중 가장 많은 회원이라 한 점으로 보아 30만명의 오기(誤記)가 아닌가 생각된다 - 번역자註)

이와같이 일본의 건축관련단체들은 각자의 설립배경과 업무범위가 다르고, 주의 주장 또한 다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설계와 관련되어 있는 점에서는 단체의 업무내용이 일치하고 있다. 기술혁신이 격심한 오늘의 건축계에는 설계자로서 떠안아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생산성의 문제는 시공자만의 문제라고 잘라 말할 수만은 없다. Cost Control, Quality Control의 책임은 더더구나 설계자에게 있다. 건축설계자의 교육, 훈련도 지금 이대로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어렵다. 이런 일들은 개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개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제도나 관습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설계자단체들이 협동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단체들의 울타리가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 각 단체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각단체 고유의 성격이 협동을 위한 발걸음을 오히려 묶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단체의 고유의 문제와 공통의 문제를 냉정하게 구별하여 대립점을 분명히 한다면, 협동 또한 실현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독일에는 건축가의 면허와 등록을 취급하는 건축가회의소가 각 주에 있고, 그 아래 건축가협회, 마이스터협회, 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 Landscape Architect 협회 등이 있어, 각자의 입장에 따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전체의 공통적인 문제들은 건축가회의소에 상정하여 다루므로써, 개별단체들의 이해와 단체를 초월한 공통의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건축설계문제는 개별적이기보다 전체와 관련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전체의 문제를 하나로 묶어 대처할 수 있는 독일의 제도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한다.

JIA와 AIA의 공동성명-세계화에 대한 대응전략

1990년 8월 27일, 신일본건축가협회(JIA)와 미국건축가협회(AIA)가 직능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건축가업무의 직능원칙을 승인하고, 직능적행동을 높은 기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목적으로, 일본에 있어서의 직

1. 건축사수

(1991년 3월 현재)

연 도	1 급	2 급	목 조	합 계
1980	152,017	407,203	-	559,220
1981	163,617	421,558	-	563,175
1982	174,425	435,308	-	609,805
1983	182,515	447,268	-	629,783
1984	190,091	458,951	6,355	655,397
1985	197,507	469,136	10,019	676,663
1986	204,462	478,644	11,137	694,245
1987	210,937	486,730	11,367	709,034
1988	217,609	496,244	11,499	725,352
1989	223,983	504,666	11,609	740,258
1990	230,672	512,931	11,688	755,291

주: 등록수는 2종등록과 사망자가 포함되어 실수와는 다를 수 있음.
1986년 3월 31일 현재의 추정실건축사수=466,000명 (등록수: 694,045)

2. 건축사사무소수

(1991년 3월 31일 현재)

연도	1급			2급			목조	합계
	개인	법인	계	개인	법인	계		
1980	20,680	22,611	43,291	39,292	13,899	53,191	-	96,483
1981	22,420	24,135	46,555	38,814	13,767	52,581	-	99,136
1982	24,160	25,868	50,028	39,047	13,669	52,716	-	102,744
1983	25,769	27,428	53,251	38,219	13,805	52,024	-	105,275
1984	27,576	29,453	57,029	39,883	14,676	54,559	610	112,198
1985	29,542	31,381	60,923	41,508	15,191	56,699	1,157	118,779
1986	30,469	32,667	63,136	39,245	14,681	53,926	1,467	118,529
1987	31,387	34,564	65,951	36,957	14,586	51,543	1,624	119,136
1988	31,757	36,309	68,066	34,440	14,710	49,150	1,779	118,995
1989	32,501	38,958	71,459	34,461	15,316	49,777	1,676	122,912
1990	32,540	42,170	74,710	34,358	15,945	50,303	1,503	126,543

능적환경의 특이성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특이점으로서의 다음의 4가지를 들고 있다.

- ① 어떤 개인이라도 건축가라고 주장할 수 있다.
- ② 직능법인의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③ 등록건축가(건축사)의 정의는 미국의 등록건축가의 정의와 다르다.

④ 어떤 사람이라도, 최소한 1인의 등록건축가(건축사)를 고용하면 직능적 건축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공동성명이 목표로 하는 것은 「건축사」와 「건축가」의 차이가, 미·일의 건축가의 업무교류의 장애가 되므로, 최소한 미국건축가의 자격기준과 대등한 자격기준을 일본에도 확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건축사회연합회의 澤田회장은 「이 논의는 건축가의 직능론(職能論)까지 다루고 있는 바, 이것은 국익문제로서 지나친 것이다. 일본측만이 의무를 떠맡고, JIA가 국내입지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AIA를 이용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또 건축업협회의 山本설계부회회장은 「직능법만으로 제약하려는 것은 속이 들여다보이는 것으로, 국제화에도 각국마다의 문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측의 의향만으로 국내체제를 바꾸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하였다. 두 사람 모두 공동성명이 외압을 이용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설계관련단체간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건축가의 제도를 개관해 보자.

미국에서의 건축가의 Profession 직능확립은 직능단체인 AIA가 맡고 있으며 그 역할이 매우 크다. 에코 르뵈자르를 본받아 건축학교를 창설하고, 건축가를 식별하기 위하여 자격등록제도를 확립하고, 건축가의 수준향상을 위한 운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그 특징으로는 전문가로서의 학문적 지식과 현장경험으로 취득한 기능, 판단력에 덧붙여 실무관리능력을 중시하고 있다. 대학건축교육의 주된 장은 스튜디오이다. 학생들은 스튜디오에서 실무가인 교수로부터 실천적인 훈련을 받아, 발상능력의 개발, 건축의 기본적 본질의 기능, 지식, 판단력을 기른다. 그위에 건축설계사무소의 경영관리기법까지 훈련과정에 포함되고 있다. 대학의 교육·훈련의 커리큘럼은 AIA 등이 참여하는 건축과정인정위원회(NCAR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학을 졸업한 것만으로는 건축가로서의 훈련으로 부족하다. 졸업후 3년간의 인턴기간을 설계사무소에서 이수하고, 전국 동시에 행해지는 각 주의 건축가등록시험에 합격하여, 주등록위원회에 등록을 팔하여야 비로서 건축가의 이

름을 얻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인턴제도라는 것도, 일본에서의 실무경력은 그 내용에 구애받지 않는 것에 반하여, AIA와 건축가등록위원회협회가 제정한 인턴훈련프로그램에 정해진 3년간의 커리큘럼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학습과 훈련의 뒷받침아래, 4일이상, 33시간반동안의 자격시험에 합격함으로써, 건축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이름으로 설계활동을 할 수 있다.

공동성명을 살펴보면, 앞으로 JIA와 AIA 간에 건축가의 자격, 건축학과의 커리큘럼, 인턴제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비교검토가 있을 모양이다. 실무를 중시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사실로서 비교하여, 그 실천적 레벨에서 서로의 벽을 허물어 간다면 지금까지 누가 보더라도 관념적 직능론으로 시종하여 일상실무와 관계없는 의론에만 급급하던 JIA로서는 180도의 방향전환이 아닐 수 없다.

앞에서와 같이, 외부단체들로부터의 일본의 특이성, 고유문화론에 따른 이견이 있다 하여도, 국제사회로부터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면, 堺屋太一씨가 말한 소화(昭和) 60년체제, 즉 관료지도형협조체제에서 벗어나고 문화특수국이란 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JIA가 JIA의 틀에 연연하지 않고, 건축설계계 전반의 합의아래 건축가의 자주독립에 따른 건축직능을 정의하여 그 실천과 실적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기대되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건축가의 개발과, 그의 유지향상에 공헌함을 운동방침으로 한다면 이러한 방향전환이아말로 사회로부터 환영받을 것이다.

설계관련단체의 반성과 각오

최근 해외에서 설계경험을 쌓고 귀국한 뒤 Free-Architect로 활약하고 있는 젊은 건축가의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스로의 작업을 통하여 건축가로서 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조직에 의존하지 않고 독불장군(一匹狼·Lone Wolf)으로 이를 악물고 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설계관련 단체에는 정보원(情報源)으로서 희비는 내고 있지만, 조직원으로서의 활동은 시간낭비 같아서 참여하지 않고 있다. 오늘날의 설계관련단체들의 활동은 저회들끼리 서로 상처를 찌는 식의, 실제로는 성과없는 운동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국내최대의 설계사무소의 사장이 최근 잡지 「신건축」에서 「건축가라는 것은 정치·경제를 기반으로 형성된 사회에 대하여, 올바른 의견을 제안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것에 의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설계·시공분리문제는 작업을 통하여 스스로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 직접적이고 손쉬운 방법이다. 설계시공일괄방식이 옳지 않다는 지, 분리되어야 한다는 등등, 건축가의 직능을 바로 알리려는 목소리도 설계관련단체들끼리 내부에서 쫓는 소리라면 의미가 없다. 게다가 한편으로 많은 설계사무소가 제네콘의 하청회사로 착각할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건축가 개인의 자세를 확고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고 말하고 있다.

젊은 건축가와 거대조직사무소의 사장이 같은 시기에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런지 모르나, 모두가 오늘날 설계관련단체들의 활동에 대하여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이다. 이말은 결코 단체활동의 중요성을 부정하기보다 오히려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여,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보자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스스로의 성과없는 행동의 책임에는 입을 다물고, 겉으로만 건축가상과 직능의 확립을 논해오던 건축가들은 이제 스스로를 체찍질하여 사회의 요구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주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만 한다.

또한 몇몇 단체들처럼 과거의 굴레나 독자성에 얽매어 본질을 잊은 채 서로의 발목을 잡아 다니는 데 급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회로부터 경시를 받을 지언정,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올바른 인식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우선 스스로를 바르게 다스려 일자체를 통하여 사회로부터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건축가의 원점인 것과 동시에, 결만 번드르한 윤리규정이 아니라, 철저한 실천을 제일주의로 하는 것이 관련단체의 활동의 원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설계관련단체란 이름아래 하나가 되어 사태에 임하는 것이 그 발언력, 행동력에서 좋은 효과를 볼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건축설계자도 의식개혁이 필요

앞서 영국왕실건축가협회(RIBA)의 「Pro-

fession의 전략연구」-Phase2-에서 고객과 건축가 사이의 인식에 커다란 갭이 있고 이 틈을 메우지 않는 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건축가의 자위회복은 기대할 수 없으리라는 요지의 연구결과를 소개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건축설계자에게는 자신이 사회와 고객을 위하여 충분한 공헌을 다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RIBA 보고서에도 있는 것처럼 사회나 고객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건축전문지 등에서도 이미 지적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건축가도 고객과의 틈새를 메울 수 있는 의식개혁을 하는 일이 21세기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한다.

특히 공사비, 공정에 관한 매니지먼트(Management)를 통하여 고객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이 분야는 전후 설계자가 방기(放棄)해 왔던 분야라고까지 극언하여도 할 말이 없을 뿐 아니라, 특히나 공사비에 대하여는 진정한 의미의 매니지먼트(Management)를 해온 설계자는 단 한사람도 없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건축공사비는 복잡한 유통과정이나 관습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정으로 투명한 공사금액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네콘 위주의 상거래관행에 따라, 하청업자는 소위 울며 겨자먹기로, 주체적으로 코스트(Cost)를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위에 최근에는 재료·시공일식의 계약방식이 늘어나 발주자나 설계자에게는 정확한 코스트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구미에서는 하청업자의 실제 코스트나 부담해야할 리스크(Risk) 등이 발주자에게 명확하게 밝히는 관습(Open-Book)이 있을 뿐 아니라, 가격결정권도 하청업자가 쥐고 있다. 이와같이 공사비의 투명성이 확립되어야만 건설관행속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공동체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

Urbanism vs. New Urbanism

미국건축의 새로운 방향에 대하여

천상현 / M. A., Housing & Urbanism, AA School
by Chun Sang-Hyun

I. 서언

1996년 10월, 디즈니월드 25주년을 기념하면서, 디즈니사는 처음으로 실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타운을 분양했다. 「Celebration」이라고 이름 부쳐진 이 마을은 올랜도의 디즈니 제국 바로 옆, 마술의 왕국으로부터 5마일 남쪽에 위치한다. 물론 이곳에도 다른 일반적인 타운에서 볼 수 있는 업무시설, 극장, 상점, 아파트, 우체국, 호텔, 식당 등 일련의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다른 디즈니적 분위기와 일반적으로 Theme Park와는 달리 이 마을의 분위기는 미래지향적이지도, 동화적이지도 않다. 대신에 전반적인 마을분위기는 그리스양식의 재현, 빅토리안, 전원적 프랑스풍 등 말하자면 '시간을 초월한(Timeless)' 건축(?)에다 내적으로 현재의 편리성을 기미한, 외관상으로는 19세기말 미국의 작은 마을의 그것이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고풍스런 파사드에 숨겨진 최첨단 정보화 시스템에 의한 현대적 편의시설의 보급이다. AT&T사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의해 지원되는 이 첨단 시설에 의해서 정보화 시스템에 의한 일부 가택근무(tele-commuting)가 가능해졌고 아이들은 매일 학교에 가지 않고도 화상을 통한 가내학습을 할 수 있으며 쇼핑과 심지어는 간단한 의료행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관상으로는 그저 19세기 말에나 있음직한 전통적인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불과할 뿐이다. 넓은 보행로, 가호간의 인접성 그리고 전면 porch 등 전통적인 마을에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의도적으로 도입되었다. 디즈니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실제 관계하며 사는 곳, 자동차에도 덜 의존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공간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득에 의한 계층간의 차별을 없애며 공동체감을 고양시키기 위한 건조환경의 변조"가 이 작은 마을의 기본적인 전략인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처음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전통 재현의 원칙이 적용된 타운들이 캘리포니아에만도 여러 곳이 있으며 플로리다에 위치한 'Seaside'라고 하는 작은 휴양촌이 원조(?)로 알려져 있다. 물론 Celebration에서 도입된 IT(Information Technology)적 전략은 없을 지라도 이곳에도 Celebration에서 보여진 전통적 양식과 도시계획 원칙들이 적용되었으며 1980년대말 Seaside 이후에 이러한 도심설계(Town Planning)의 추세는 교외개발의 한 대안으로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New Urbanism 또는 Neo-traditional Developments라 불리는 이 동향은 근본적으로 무질서하고 산발적인 도시성장에 따른 문제,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일어난 무분별한 교외개발의 양상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의 옹호자들은 근린주구 디자인의 전통적 개념을 재도입함으로써 미국 도시의 성격자체를 재정립하려 한다. 공동체 디자인은 공공영역을 확보하고 보강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그것들은 물론 휴먼 스케일에 근거해야 하고 공동체는 그 용도나 인구구성 면에서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 등이다. 따라서 그것은 또한 외형적 디자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 즉 적극적인 공공 참여,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등, 한마디로 사회·경제적 다양성의 실현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데 'Urban Village'라는 다른 이름으로, 포스트모던 건축가로 잘 알려진 리온 크리어(Leon Krier)를 자문위원으로 둔 찰스 황태자에 의해서도 옹호되고 있긴 하지만 미국과는 달리 보다 전통이 깊은(?) 영국도시의 패턴을 쉽게 관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실험과 시행의 단계는 아니지만 이 방면에서의 폭넓은 연구가 일부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디얼한 원칙은 단지 하나의 일시적 유행이거나 진부한 포스트모던적 리바이벌이라는 강한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의도가 진정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다원적으로 수용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닐 스미스(Neil Smith)나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 같은 비평가들은 단지 그것은 '대중적 선호도'를 공략한 포스트모던적 상업주의에 지나지 않으며 New Urbanism이라고 하는 움직임은 미국 교외개발의 한 편향이거나 일시적 유행이라고 단정 짓는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발의 형태는 놀라운 정도의 관성으로 미국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 글은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New Urbanism이라고 하는 교외개발의 새로운 변화와 그에 따른 논쟁을 다루고 있다. 이 글의 첫 부분에서는 어떠한 배경이 이러한 움직임을 유도하였는가를 다룰 것이며(물론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중에는 과도하게 부정적이거나 극단적인 면들이 있을 수도 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Celebration과 Seaside의 사례를 들어 이 동향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II.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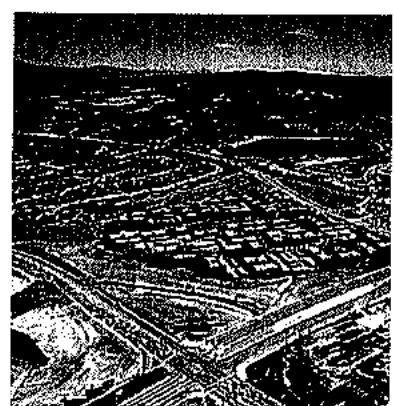
20세기말 도시성장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짓는다면 '산발적 확산(Sprawl)'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나 다른 유럽의 도시와 마찬가지로 지난 수십년동안 미국에서 보여진 도시성장의 형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어려운 심각한 교외로의 산발적인 분산화(Suburban Sprawl)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의 양상은 많은 부분에서 삶의 패턴을 바꾸어 놓았는데 일상생활의 질적인 향상보다는 심각한 교통체증과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상실감과 고립을 낳았으며, 급기야 장소성마저 탈색(Placelessness)되어 가고 있다. 공공공간들은 점점 더 사영화되어가고 가장 기본적인 공공영역인 거리도 자동차에 의해 잠식되어가고 있으며 보행자보다 자동차위주의 도시구조는 더욱 심각한 고립을 낳고 있다(그림 1).



〈그림 1〉 Kieran에 의한 콜라주 '메트로 가는 길'



〈그림 2〉 교외주택 홍보 포스터



〈그림 3〉 고립

미국에서 일어났던 교외개발의 붐은 근본적으로 Suburban Dream에 기인하는데 도시 한복판의 아파트블럭에 사는 도심 노동자들에 있어서 한적한 교외에 한 필지의 땅과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정원, 낮은 담장과 전면 포치가 있는 목조주택, 그리고 자동차를 갖는 것은 정말로 꿈과도 같은 것이었다(그림 2). 단 한가지 이유, 그들을 복적거리는 도심에 묶어 놓았던 것은 직장과 그에 따른 통근 문제였다. 하지만 대중교통의 발달과 전차의 보급은 이러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며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하게 보급된 자동차는 이러한 전형적인 American Dream을 실현시키기 시작했다. 따라서 자동차 중심의 택지개발(Automobile-based Tract Developments)이 더욱 가속화되기 시작했다(그림 3). 이것은 한편으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의 민주적 건축이상(Architecture of American Democracy)이기도 하였는데, 그는 Broadacre City의 이상에서 모든 국민은 적어도 1에이커의 땅을 소유해야 하며 따라서 도시와 그에 따른 기능은 분산되어야 하고 이것은 통신과 교통기술의 발달로 충분히 가능해 질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그림 4). 사람들은 도시 근교, 또는 교외로 이주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가속화됨에 따라 학교, 공공시설 등 기본시설들이 새 거주지에 확충되기 시작했으며 도로보급의 증가는 이러한 분산화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더욱이 도심에서 값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던 회사들도 교외로 이주하기 시작했으며 이 당시 교외에는 교육수준이 높은 의욕있는 젊은 여성인력들도 충분하였으므로 더없이 좋은 대안이였다. 따라서 교외는 더 이상 도시 직장인들을 위한 단순한 주거지(Bedroom Community)의 기능을 넘어서 더 이상 중앙도시에 종속되지 않는 자중적인 장소가 되어 갔다. 이러한 현상들이 극대화된 것으로 동부지역에 Bellevue와 Overlake지역 등이 있는데 가리우(Joel Garreau)는 이렇게 약 30여년에 걸쳐 급속히 형성된 도시들을 이르러 외곽도시(Edge Cities)라 하였고 미국 전역에 걸쳐 약 181개의 지역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이

외곽도시는 더 이상 교외이거나 어디에도 종속(Sub-anything)되지 않는 형태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쨌든간에, 한 조사에 의하면 1950년대와 1970년대 사이에 미국의 중앙도시의 인구증가는 1천만에 그치는 반면, 교외인구의 증가는 8천5백만에 이른다. 70년대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31.4%가 도심에 거주하고 31%가 농촌지역 그리고 37.6%가 크고 작은 규모의 교외지역 거주자였다.

사실 사람들이 교외생활에서 기대했던 것은 쾌적한 인근 주거환경과 안전함, 전통적 이웃관계, 근본적으로 장소성과 정체성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무분별하고 통제되지 않은 개발에 의한 단지 산발적인 도시공간의 재배치에 의한 실망스러운 환경으로 무산되었다. 환경오염, 교통체증(특히 Low-density Congestion), 도시생활에 못지 않은 생활비, 각종 불충분한 하부시설을 위한 지방정부에 의한 과다한 세금 등 물질적인 부담이 가중되었고, 공공공간과 공공시설의 부족 등은 Suburban Dream이 약속했던 공동체감이나 정체성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도심과는 달리 인근 소규모 상점이나 시장대신 도보로는 불가능한 거리에서 대형화된 상점(Big-box Retailers)나 대형화된 몰(Mall)이 시장기능을 대체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철저하게 자동차 중심의 도시구조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고립화와 사영화를 야기하였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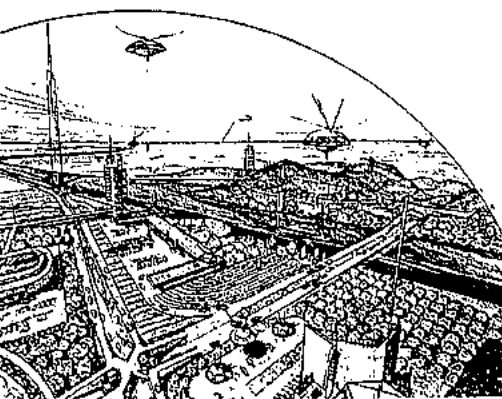
이러한 추세와 같이하여 좀 더 계획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Master-Planned Communities(MPCs)나 Planned-Unit Developments(PUDs), 그리고 최근에 가장 널리 보급된 것으로 특히 조합적 구속력이 강한 Common Interest Developments(CIDs)등이 있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 전체인구의 약 10%가 이러한,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 이러한 형태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는 공동체감과 동질성, 그리고 장소성의 회복이라는 대전제 하에 시작되었지만 그 시행과정에서 이것들은 인근 그린벨트 지역으로 둘러싸인 입지조건을 택하거나 안전을 이유로 첨단 보안시설을 갖춘 견고한 벽을 두르고 심지어 ID를 만들어

외부의 출입을 철저히 제한하는 등 다른 인근 공동체와 실제적으로 등을 돌리게 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공동체들은 점점 더 차별화(Differentiation) 내지는 고급화(Gentrification)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고 공동체를 구입(?)할 여유가 있는 계층의 전유물이 되었다(그림 6). 확실히 1990년대 미국의 도시 또는 교외 건조환경의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는 외형적 안전성에 대한 강박관념인 듯 하다. 이러한 안전성 논리에 기인한 고립화(Security-Driven Logic of Urban Enclavization)는 L.A. 흑인 폭동이후 더욱 가속화되는데 도심에서나 교외에서 모두 프라이버시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해지고 심지어 도로 등 기본적인 공공공간까지 사영화되어갔으며 공동체에 대한 접근이 더욱 까다로워져 급기야 도시의 요새화(Fortress Cities)나 울벽 공동체(Walled Communities), 또는 Gatehood라는 새로운 단어를 탄생시켰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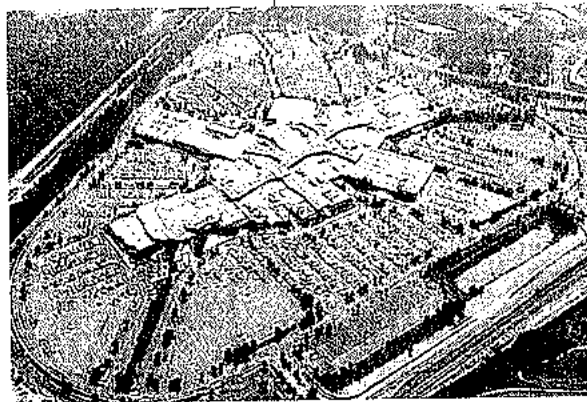
이렇듯 도시성장기능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20세기 후반 교외거주자들의 이상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Broadacre City 같은 이상이나 에베네저 하워드(Ebenezer Howard)의 Garden City같은 것보다 거리가 먼 것이었으며 단지 현실 도피적이고 배타적인 NIMBYism(Not In My Back Yard)화 되어가고 있는게 사실이다.

III.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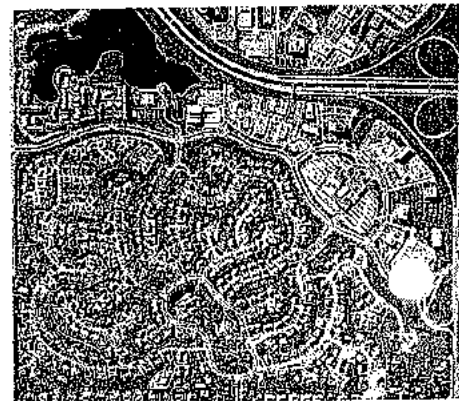
이러한 개발의 양상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면서 전통적 주거환경에 대한 가치가 다시 관심거리로 대두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19세기말 영국에서 일어났던 Garden City Movements의 유토피아적 이상과 미국의 City Beautiful Movements나 Town Planning Movements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함이었다. 물론 이것의 핵심적 동기는 근본적으로 획일적이고 과도하게 기능적으로 분절된 모더니즘적 실패를 복원하려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Transit Oriented Developments(TODs)와 Pedestrian



〈그림 4〉 The Broadacre City Project



〈그림 5〉 Cumberland Mall, Georgia



〈그림 6〉 Regency MPC, Omaha

Pocket(PP)를 제안한 피터 칼썸(Peter Calthorpe)과 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s(TNDs)를 제안한 마이애미 출신 부부건축가 드와니와 플라터 자이박(Andres Duany & Elizabeth Plater-Zyberk)등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로버트 스텐(Robert A. Stern)의 영국과 미국의 교외상황에 관한 연구와 리온 크리어(Leon Krier)의 유럽도시형태 연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제인 제콰(Jane Jacobs)의 보행자 중심의 도시형태에 관한 원칙 등도 이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TODs와 TNDs는 적용방식에 있어서 다른 점을 보이지만 그 근본 원칙은 비슷한데, 이들 모두가 주장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전통적가치중 현실상황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어 지역과 공동체 디자인에 새로운 컨텍스트와 스케일로 적용하는 것이다.

1. Transit Oriented Developments (TODs)

TNDs가 주로 근린주구(Neighborhood)에 관한 적용인데 비해서 TODs는 좀 더 지역적인 스케일로 다루어진다. 칼썸은 근린의 규모를 재정의하는데 이 새로운 규모의 각 주구와 공동체는 가장 효과적인 대중 교통수단에 의한 네트워크, 특히 경전차(Light Rail System)등에 의해 긴밀한 연계성(Sense of Connectedness)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간단히 말하면 그의 중심 개념이다. 그가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규모의 공동체란 적정규모의 밀도로 적정수준주택과 업무공간, 또는 판매시설 등이 복합적(Mixed-use)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이 모든 시설들은 공동체간 연계통로, 즉 중앙역을 중심으로 걸어서 5분 거리 이내에 계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직설적이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주장은 그러나 기존 자동차 중심의 도시계획을 완전히 해체하고 철저하게 보행자 중심의 계획을 하자는 주장인데, 이것은 현재 세계적인 관심거리인 생태학적 디자인개념을 근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개념은 60년

대 루이스 뮌포드(Louis Mumford)가 내세운 다중심적 집결(Multi-centered Concentration)이나 분산화 집결(Decentralized Concentration)의 개념과 유사한 것이다. 칼썸은 TNDs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건축적 가이드 라인을 규정하지는 않았는데, 대신 그의 제안은 주로 적정수준의 주택보급률, 사회경제적 문제와 사행절차, 공공 참여 등의 정치적 문제, 그리고 생태학적 환경 디자인을 다루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그림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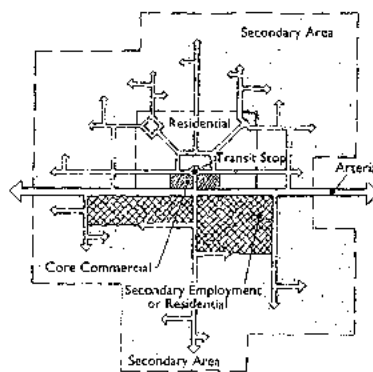
2. 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s (TNDs)

TNDs는 지역간 연계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건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드와니와 플라터 자이박(Andres Duany & Elizabeth Plater-Zyberk, 이하 DPZ)은 복합 주거단지내(Pods of Housing Clusters)에서 업무시설, 판매시설, 공원 등의 공공시설과 가장 기본적인 공공공간인 집결적 도로(Collector Roads)와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이것들은 부호화(Architectural Codes)되어 모형이나 도표, 도식으로 표현되었으며 거리의 단면, 건물 타입, 도로에 대한 후퇴선, 마스터 플랜의 기본형태등 계획의 거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그림 10). 이들의 커뮤니티 디자인 원칙을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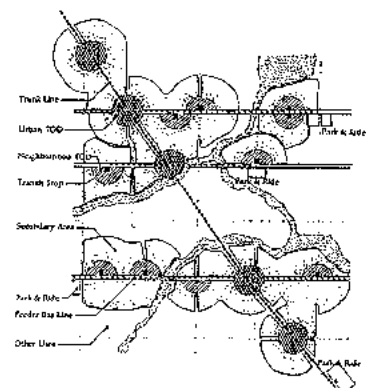
- 1) 모든 새로 계획될 단지는 주거, 판매시설, 업무시설, 학교, 공원, 공공시설 등이 애초에 완성, 통합된 형태의 것이어야 하며,
- 2) 그 규모는 도보 가능한 거리 이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 3) 그 공동체내에는 다양한 소득계층을 위한 여러 형태의 주거와 직업이 공존하여야 하고,
- 4) 대중 교통 네트워크에 의해서 연결된 각각의 공동체는 주변 녹지나 농지, 또는 야생동물의 영역 등과 분명하게 구분된 경계를 가져야 하며,
- 5)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공공간의 효율



(그림 7) Park Labrea에 설치된 철문, L.A.



(그림 8) 전형적인 TOD와 주변



(그림 9) 지역적 스케일로서의 TOD

성인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기능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특히 거리는 철저하게 보행자를 위한 곳이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위에서 보어진 원칙들 중에서 별로 특이하거나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는 어려운데, 하지만 DPZ은 이러한 원칙들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디자인 코드를 제안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 시행과정에서 공공참여를 통한 건조 공동체(Building Community)와 다원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디자인 워크샵으로 이해될 수 있는 샤렛(Charrette)을 통한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는데 이것들은 나중에 Seaside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IV. 사례

1. Seaside

가장 영향력 있었던 최초의 TND로 알려져 있으며, 플로리다의 한 해안에 위치한 작은 휴양촌이다. 이 계획은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고 350여 주택과 아파트, 호텔 등 다른 300여 주거 숙박시설, 사무실, 학교, 시장, 우체국, 극장 등 적정규모의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으며 초기 계획대로라면 그 수용인구는 2천여명 정도이다(그림 11). Seaside에는 앞에서 언급된 Town Planning원칙들이 철저하게 적용되었고 이 계획의 모토는 장소성과 공동체감의 회복을 위한 건축적 실마리를 제안하는 것이다. 따라서 DPZ은 가장 기본적인 공공공간인 거리를 디자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는데 우선 이들은 직선으로 무한정 뻗은 도로의 삭막함을 없애기 위해 모든 도로나 거리는 시각적 종료점(Visual Termination)을 두었고 중앙에 전망대를 두어 구심점으로 이용하여 혼동없는 동선을 유도하였다(그림 12). 이렇게 계획된 거리와 다른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개인 영역으로서의 주거공간이 채워지는데 낮은 말뚝 울타리와 전면 포치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는 이웃과의 적극적인 관계맺음을 위한 것이며 공공공간과 만나는 최소의 경계이다(그림 13, 14). 그들은 또한 효율적이고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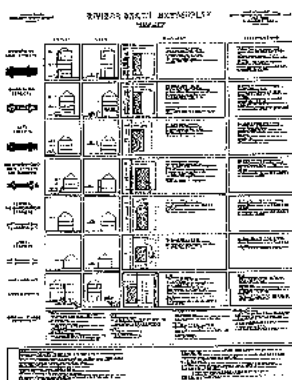
상적이라는 주상복합 형태를 제안하였는데, 우선 이것들은 1/4마일 반경, 즉 걸어서 5분 거리이내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규모라는 얘기이다.

(1) 샤렛(The Charrette)

샤렛은 Seaside디자인 과정에서 가장 중추적인 이벤트이다. [샤렛은 원래 불어에서 온 말로서 작은 달구지(Little Cart)란 뜻이며, 이것은 19세기 파리의 에콜 드 보자르(Ecole de Beaux Arts)에서 유래하는데, 시험감독관들이 작은 달구지위에서 학생들의 최종 작품을 거둘 때, 학생들이 이 달구지에 달려들어 최후의 순간까지 작품을 완성하려고 하였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건축가들이 마감을 앞두고 하는 최후의, 그리고 집중적인 작업과정과 노력을 말한다.] 이 일련의 워크샵에는 건축가, 개발업자, 관계 공무원, 교통전문가, 환경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했다. 일주일동안 주야로 열린 이 집중적인 행사는 이 건축계획에 있어서 가능하면 많은 이슈들을 수렴하고자 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민주적 결정과정을 위한 다원적인 행사였다. 이 행사는 시민 등 참가자들을 위한 일련의 교육과정을 포함하는데, 이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일관된 토론을 유도할 수 있었고 결정과정에서 더욱 능동적인 공공참여를 가능하게 하였다. 매일 교육, 토론, 작품진행, 프리젠테이션 등이 이루어 졌으며 이 과정에서 계획의 초기안이 점검되었고 대안과 함께 건축적 코드가 제시되었으며 많은 기술적인 자료와 가이드 라인 등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그 이후로 New Urbanist들의 도시계획 방법에 있어서의 전형이 된다.

(2) 건축 부호(The Codes)

Seaside의 코드는 Urban Codes(UC)와 Architectural Codes(AC)로 나누어지며, UC는 거리, 기타 공공공간등 사회적 공간에 대한 거시적 규정이고 AC는 UC의 보조개념으로 구체적인 건물에 대한 규정, 즉 재료, 마감, 시설



〈그림 10〉 Riviera Beach에 적용된 Urban Code



〈그림 11〉 Seaside 조감, 1989년



〈그림 12〉 Tupelo Circle에서 바라본 전망대

계획, 사공기술, 계약자의 책임한도 등을 명시한 지방서의 일종이다. 이 코드를 통하여 DPZ는 거리의 단면, 노상주차관계, 주택의 주차문제, 주택 스타일, 치수, 전면 포치의 형태, 창호의 모양(예를 들면 알루미늄 미닫이 창문, 미닫이 유리문, 베이창, 기타 불필요한 셔터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담장형태, 색채계획 등 거의 모든 부분을 매우 구체적으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애초에 하나의 일관된, 완성된 커뮤니티를 계획하겠다는 의도이다. 따라서 Seaside에서 이러한 코드가 엄격하게 지켜졌으며, DPZ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것은 조화로운 환경 속에서 다양성, 또는 통제된 혼성(Controlled Heterogeneity)을 이루고자 함이다(그림 15).

2. Celebration

Celebration은 플로리다 디즈니랜드에서 5마일 떨어진 4천9백에이커의 작은 타운이다. 디즈니사에 의해서 발주되고 쿠퍼 로버슨(Cooper Robertson), 로버트 스텐(Robert A.M. Stern)등에 의해 고안된 이 타운은 1996년 여름부터 문을 열기 시작하였고, 처음 1천명의 주민이 입주했으며(완성되었을 때는 8천가구와 2만명의 인구를 수용하도록 계획되었다), Seaside에서 보여진 원칙들이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었다(그림 16). Celebration은 원래 월트 디즈니(Walt Disney) 자신에 의해서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왔었는데 1955년 그가 처음으로 디즈니랜드를 계획한 이후로 1966년에 사망하기 전까지 그는 자신의 고향인 마젤린(Macellin)의 전통적인 마을을 표본으로 하여 비공식적으로 Celebration(물론 이 타운의 이름은 나중에 붙여진 것)을 계획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가 사망하고 난 이후 이 계획은 한동안 잊혀지고 있었는데, 1987년부터 디즈니사는 다시 이 계획을 공식화하였다.

서언에서 언급되었듯이 이 새로운 타운의 외형은 19세기말의 작은 미국 마을의 그것이다(그림 17). 스텐은 "Celebration은 근본적으로 많은 미국인들의 노스탤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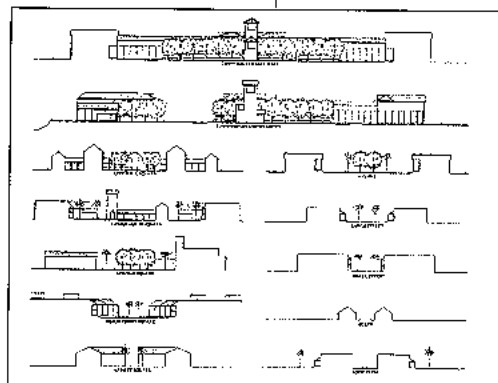
즉 모두가 자기의 이웃을 알아볼 수 있는, 길거리는 안전하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걸어서 학교에 갈 수도 있고, 호숫가에 위치한 타운 홀이 만남의 장소가 되는, 작지만 그러나 이상적인 마을을 만들기 위한 꿈의 실현을 위해 고안된 것(Imagineered)"이라고 말한다(그림 18). 따라서 이 타운의 건조환경은 New Urbanism의 원칙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하지만 디즈니사는 그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이 계획을 끝내지 않는다. 이 고풍스런 파사드의 이면에는 "Wired"라는 디즈니사의 미래 도시적 전략이 숨어 있는데 이 정보화 시스템은 학교, 병원, 상점 등을 일반 가정과 직접 연결하는 AT&T사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미래주거 개념에 대한 실험장이다.

Celebration의 주택 디자인 원칙은 Seaside의 것과 대부분 비슷한데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Pattern Book이란 것이 있어 입주자는 자신이 원하는 건축 스타일뿐만 아니라 색채까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엄격하게 패턴 북 안에서만 가능하다. Seaside에는 전통적 양식의 건물뿐만 아니라 건축 코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포스트모던, 심지어 해체양식까지 가능하였는데 Celebration의 주택은 반드시 여섯 가지 양식, 즉 Classical, Victorian, Colonial Revival, Coastal, Mediterranean, French양식 중의 하나로 제한된다. 그러나 다른 부대시설에는 포스트모던 등 다양한 건축양식들이 보여지고 있다.

디즈니사는 타운홀, 우체국, 커뮤니티 홀 등 이 타운의 부대시설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일련의 지명도 있는 건축가들을 고용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유명한 포스트모던 건축가들로서 로버트 스텐을 마스터 플래너로 하여 필립 존슨, 마이클 그레이브스, 로버트 벤츨리, 찰스 무어, 알도 로시, 데니스 브라운등과 그리고 DPZ 등이다(그림 19, 20, 21). 그리고 사회경제적 다양성의 확보란 차원에서 Celebration은 네 개의 다른 구획이 공존한다. Estate(가장 지배적인 90x130피트의 택지개발 필지), Village(일반규모 주택단지), Cottage(약간 작은 규모의 주택단지나 임시주택부지), 그리고 Townhouse단지가



〈그림 13〉조개껍질로 포장된 도로



〈그림 14〉건물들은 옹도나 스타일면에서 다양함을 보여준다



〈그림 15〉거리의 전형적인 단면

그것이다(그림 22). Celebration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는 독창적인 공동체의 통제 관리(Governance and Control)측면이다. 기본적인 상하수도, 오물처리, 보안 등은 플로리다 관할구에 의해서 유지되고, 공공시설과 상업시설 등은 디즈니사에 의해 관리되지만 근본적인 타운의 사회적 관리는 공동체 연합(Community Association)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모든 주민들은 이 단체에 의무적으로 속하게 되는데 처음 입주 시 까다로운 조건문에 서명하여야 하며 만일 이 규정을 위반 시 추방당하게 된다. 이 단체에서 규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공동체의 이상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위성접시 안테나 등 외관을 해치거나 허가되지 않은 종류의 쓰레기통을 이용하는 것부터 해서, 거리에서 위협을 주는 모터 사이클의 이용 등 매우 기본적인 것들이다. '공동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과 조금이라도 위대한 것들을 추방하는 것', 그래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이 단체의 목적인 셈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단체의 유지를 위하여 매달 2백달러에서 4백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것은 디즈니가 사망하기 전 그의 초기 복안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그는 땅은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없고 단지 빌리는 것이고(지금은 집을 사거나 빌리는 것이 모두 가능한데 디즈니사는 집소유자의 경우 적어도 1년에 9개월은 생활할 것을 요구한다. 집을 임대했을 경우도 그 기간의 한도를 명시하고 임대하던 집을 원하면 사고 다시 파는 것도 가능하다.), 이 공동체에는 실업자와 퇴직자란 있을 수 없으며, 술주정뱅이는 쫓겨나야 하고, 미혼 남녀의 동거도 용납되지 않으며, 그는 심지어 사람들의 복장까지 일관되게 통일하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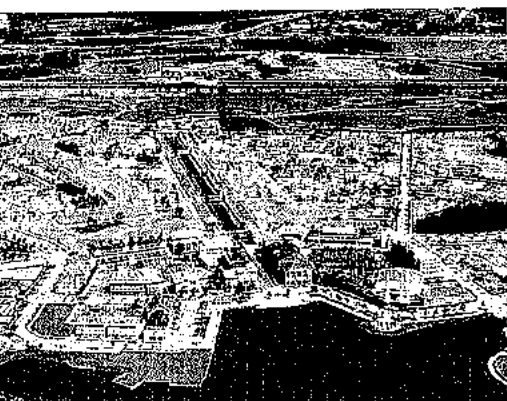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전체주의적 감시체제(Surveillance)인데, 타운 어느 곳에도 감시의 사각지대는 없으며 이상하게도 어느 누구도 이에 불만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들이 Celebration을 선택한 이유중의 하나는 안전에 대한 강박관념이기도 한데 이들이 선택한 것은 프라이버시보다도 감시 카메라에 자신을 노출시켜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이

것은 오웰(George Orwell)의 Big Brother에 의한 전체주의적 감시체제와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또 다른 계획적 공동체와는 달리 Celebration에는 통제되는 진입문이 없어서 외부 방문자들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공동체가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스스로 구속되지 않기 위한 의도로서 New Urbanism의 사회적 이슈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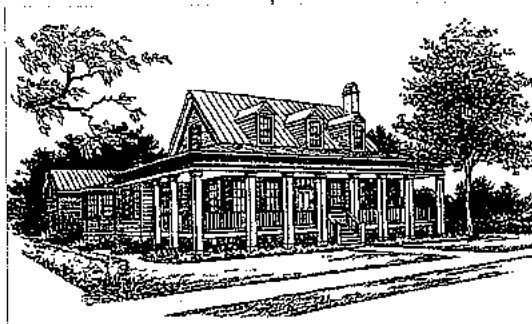
스틴은 Celebration을 두고 스스로 미국 건축에 있어서 잡종(Crossbreed)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자기들의 건축적 편집방식과 선택이 옳았고 가장 성공적인 사례중의 하나이며 미래 공동체의 표상임을 Celebration이 검증해 줄 것이라 하였다. Celebration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이러한 아이디어는 전혀 극단적이거나 장난스럽지 않으며, 이러한 아름답고 안전하며 편리성까지 갖춘 공동체가말로 건축가들의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일반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공동체라고 하며 Celebration의 멤버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은 대중적 선호도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뒤에 다시 언급되겠지만, New Urbanism의 가장 두드러진 논쟁점의 하나이다.

V. 후기

언론의 관심도, 분양가, 부동산 가치 상승률, 방문자수 등으로 비추어 볼 때 Celebration과 Seaside공동체 모두 분명히 성공적이다. 이들 디자이너들은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이들 공동체 계획의 근본적인 이념이라고 하였고,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던 공동체를 선택하였으며 그래서 이것은 성공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스미스(Neil Smith)나 아이젠만(Peter Eisenman) 등은 이러한 공동체는 분명히 대중적 선호도를 이용한 포스트모던적 상업화된 이상향이며, 이것은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환각, 또는 과도하게 위장된 현실(Hyper-Reality)이고, 이러한 공동체는 조작되고 통제된 공공영역, 즉 모조품이라고 비판한다. 이렇게 주제화된 환경은 라스베이거스에서 보여진, 조작된 장소성과도 같은, 즉 일종의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



(그림 16) 1단계 공사중의 조감, 1996년



(그림 17) Victorian Style의 한 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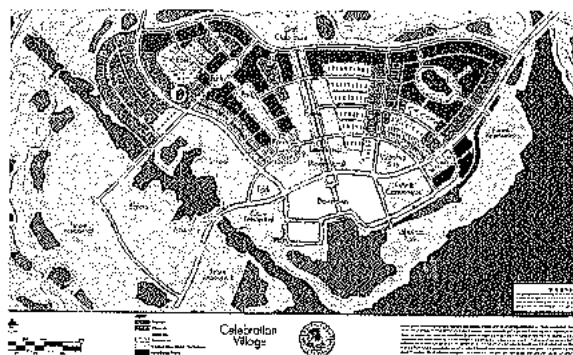


(그림 18) Classical Style

이다. 소킨(Michael Sorkin)이 말했듯이, 현대사회의 회색화된 장소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의 건축가들은 위장된 도시공간을 (재)생산하는데 관심이 쏠려 있으며, 그들이 새로운 영역에 저지르고 있는 것은 시뮬레이션에 불과하고, 만일 현대건축이 위기를 맞고 있다면 그것은 시뮬레이션 시대에 있어서 신빙성(Authenticity)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주제화된 환경이나 주제공원(Theme Park)에 대하여 소자(Edward Soja)는 또한, '현대의 주제공원이란 부식된 도시환경으로부터 격리되어 이상적인, 오염되지 않은 Urbanism에 대한 갈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자생적이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신화적 소우주(Mythological Microcosm)'라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Celebration이나 Seaside는 지금보다 단순한 시대, 즉 폭력이나 범죄, 또는 경제적 불안정성 등이 거의 없던 시대의 건축적 상상을 원하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를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도시환경과 실제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분명히 하나의 Theme Park이란 얘기다. 이러한 원리로 만들어진 주제공원이 정말 New Urbanism이 전제로 하는 사회 경제적 정의를 수용하고 있으며, 신빙성 있는 Urbanism이냐는 게 이 논쟁의 중심이다. 분양가와 임대료, 그리고 공동체 관리비가 말해 주듯이 이러한 공동체는 철저하게 계층적(Class-based) 논리에 의한 더욱 심각한 고립이란 것이다. 이에 해 DPZ은, '원래 Seaside의 분양가나 임대료는 분명히 중산층이나 그 이하에서도 감당할 만한 것이었으나, 후에 대중적 선호도에 의한 자본시장의 논리를 건축가가 통제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좋은 주거환경에 대한 부동산 가치 상승은 이것이 보편적인 Urbanism이 될 때까지 계속 될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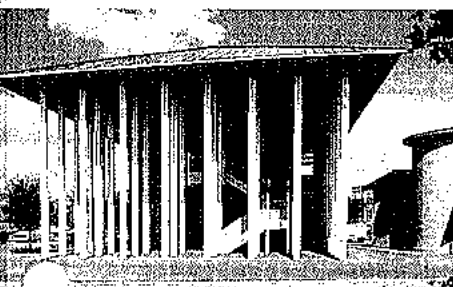
이러한 비판들로 비추어 볼 때, 대중적인 선호도는 반드시 건축 실무적 이상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듯하다. 진정 대중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 건축가들의 이상을 지배하는가? 이러한 공동체를 통하여 볼 때, 대중



〈그림 22〉 Celebration 개발계획, 주거형태의 다양한 유형을 보여 준다

적 요구와 건축가들의 이상중에서 어느 것이 왜곡되었는가? 그러나 이러한 비판속에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몇가지 있다. New Urbanism이 배척하려고 한 것이 진정 무엇이고 그것이 과거의 무엇을 불러 일으키려 하였으며, 그것이 맞고 틀린지를 문제삼기 전에,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무엇이 가능하고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사실 몇가지 예를 가지고 New Urbanism이라고 하는 아직 인큐베이터안의 어린 움직임을 검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동향이 단지 미숙아로 생을 마감할지, 아니면 다음 천년기에 있어서 우리시대 공동체 디자인의 블루프린트가 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디즈니랜드가 그랬고 맥도널드가 그랬듯이, 곧 이러한 주제화된 공동체가 지구촌 어디에서든, 바로 우리 주위에서도 팔려 나갈 수도 있는 일이다 (Ubiquitous Urbanism...).



〈그림 20〉 Philip Johnson, the Town Hall



〈그림 21〉 Aldo Rossi, Office Building on Celebration place



〈그림 19〉 Michale Graves, Post Office

협회소식 / 115

건축계소식 / 122

현상설계경기 / 127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34

신입회원 / 136

협회소식 KIRA news

98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

97년도 수지결산(안) 및
98년도 추가경정수지에산(안) 승인,
정관개정(안) 유보



임시총회 광경

우리 협회 98년도 제1회 임시총회가 지난 3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돼 97년도 회계별 수지결산(안)과 98년도 회계별 제1차 추가경정수지에산(안) 등 9개 상정 부의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졌다. 재적대의원 691명중 537명이 참석한 이날 임시총회는 성원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추대회원 추대보고, 주요 업무보고, 감사보고, 부의안건 처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김영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힘들고 어려운 IMF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생존과 경쟁의 자구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업종별 전문화와 함께 운영의 공동화와 경비의 최소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수주의 다변화, 최대의 서비스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히면서 「협회 역시 부단한 구조조정을 통해 회원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거듭 태어날 것」

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건축관련법 개정과 소규모건축물의 감리문제, 건축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무화 등 현안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실성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건축사 권익보호차원에서 협회가 빈틈없는 완충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회원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날 감사보고에 이어 오후부터 시작된 부의안건 심의에서는 정관개정(안) 등 일부 안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안건들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날 부의안건중 ▶제1호의안 - 정관개정(안)은 다음 총회시까지 유보되었으며 ▶제2호의안 - 협회발전기금 운용규정 제정 승인의 건과 ▶제3호의안 - 건축정보센터 운영규정 제정 승인의 건 ▶제4호의안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승인의 건 ▶제5호의안 - 채규정 일부폐지 승인의 건 ▶제6호의안 - 97년도 회계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제7호의안 - 98년도 회계별 제1차 추가경정 수지에산(안) 승인의 건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또 ▶제8호의안 - 공제조합설립 업무 추진계획(안) 승인의 건은 계속 연구키로(97년도 정기총회 승인사항)하였으며, ▶제9호의안으로 긴급상정된 「소규모 건축을 감리 대책의 건」에 대해서는 시·도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정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올해 추경예산안의 경우 IMF구제금융 도입 등 국가전반의 경제침체로 인한 회원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회원의 월정회비를 3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하하는 등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를 당초예산액 보다 22.2%를 감액해 편성하고 특별회계 역시 건축교육원회계와 건설기술자경력관리회계를 제외한 건축연구소회계와 일회비관리회계, 건축사시험회계 등을 당초예산액보다 각각 24.9%, 26.6%, 6.9%씩 감액하여 편성한 원안이 그대로 승인 통과되었다.

98년도 시·도건축사회 임시총회 개최

97 수지결산(안) 등 부의안건 심의 의결

우리협회 시·도건축사회의 98년도 제1회 임시총회가 지난 2월 20일 전북건축사회를 시작으로 2월 27일까지 각 건축사회별로 개최됐다. 「98년도 추가경정수지예산(안)」 등이 주요안건으로 상정된 올해 각 시·도건축사회별 임시총회의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라북도건축사회

○일시: 1998년 2월 20일(금) 10:30~

○장소: 전북건축사회관 3층 대회의실

○참석인원: 184명중 106명

○의결내용

- 97년도 수지결산(안) 심의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세입부분에서는 '97 예산액보다 212,994,886원이 초과된 675,894,886원이 세입되었고 세출에서는 예산의 80.5%인 372,781,854원을 지출하므로 90,118,146원의 예산잔액이 발생되므로 초과세입금과 '97 세출예산불용액을 합산한 총 303,113,032원중 임의적립금으로 100,000,000원을 이관 적립하고 203,113,032원은 98회계년도 이월금수입으로 처리하여 결산



전라북도건축사회 정기총회 광경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일시: 1998년 2월 26일(목) 10:30~

○장소: 협회 대강당

○참석인원: 재직인원 2,772명중 499명

○의결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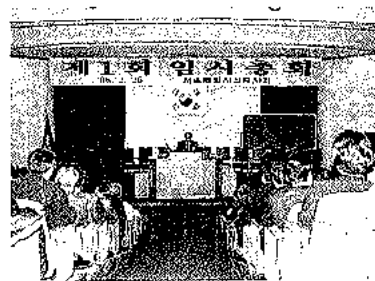
- 임원선거관리규정 폐지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본협회에서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각 시·도건축사회에서도 회장단 선출시 적용토록 함에 따라 서울건축사회에서 제정한 임원선거관리규정을 폐지키로 함

• 97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1997년도 세입예산액보다 178,521,897원이 초과된 2,222,243,752원의 세입원이 결정되었으나 월정회비와 광고료, 신문구독료 등에서 미수금이 발생되므로 예산대비 45,420,103원이 감액된 1,998,301,752원이 세입되었으며 세출에서는 예산액의 70.63%인 1,443,391,333원을 집행하므로 600,330,522원의 예산잔액이 발생되어 세입·세출 차감잔액 554,910,419원과 미수금 이월금 223,942,000원(월정회비, 광고료, 신문발간회비)등 총 778,852,419원을 98년도 일반회계 이월금수입으로 이월하여 결산

• 98회계년도 제1차 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당초예산액보다 192,100,000원을 감액한 1960,000,000원으로 편성한 98년도 제1차 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되 본협회 임시총회 결과에 따라 직위퇴직금을 중간정산하게 될 경우 임의적립금을 사용하여 충당하고, 그외의 항목지출에 대해서도 간사회에 위임해서 항목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정기총회 광경

■ 충청북도건축사회

○일시: 1998년 2월 26일(목) 10:30~

○장소: 청주 명암파크호텔 2층

○참석인원: 재직회원 168명중 106명

○의결내용

• 97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97 세입예산액보다 80,046,575원이 증가된 453,046,575원이 세입되었으며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예산액 373,000,000원중 66,574,740원의 예산을 절약하여 306,425,260원을 집행)

• 98년도 사업계획 변경 및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간사회의, 지역회장회의 등 본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회의 수시 개최, 회원간담회 및 대관청 간담회 등 회원 친목도모 및 사무소 운영에 관한 지도 계몽사업의 년중 실시, '충북의 건축' 책자발간 등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사업추진 활성화 등을 주요골자로 한 98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98년도 예산액보다 24,000,000원이 감소된 352,000,000원으로 편성된 제1차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



충청북도건축사회 정기총회 광경

■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일시: 1998년 2월 26일(목) 14:00~

○장소: 울산건축사회 5층 강당

○참석인원: 재직회원 128명중 110명

○의결내용

- 97년도 예산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124,000,000원보다 13,282,319원이 증액된 137,372,319원이 세입되었고 세출예산은 97회계년도중 총 세입 결정액 137,372,319원에서 세출 결정액 88,539,180원을 감한 결산잔액 48,833,139원을 98회계년도로 이월하여 결산

• 대의원 선출의 건

- 집행부 추천에 의거 노진달, 김무천, 박문용, 김대진 회원 선출

■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일시: 1998년 2월 26일(목) 14:00~
○장소: 현대빌딩 15층 강당
○참석인원: 재적회원 216명중 110명 참석

○의결내용

- 97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세입예산은 총예산규모인 390,000,000원보다 35,179,381원이 초과수입된 425,179,381원이 세입되었고 세출은 총세출예산 규모인 390,000,000원중 89.2%인 248,195,047원을 집행하여 41,804,953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초과세입분과 예산집행잔액(절감 및 불용액 포함) 41,804,953원을 합한 76,984,334원을 차기이월금으로하여 결산
- 98년도 제1차 추가경정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97년도 결산이월금 확정과 IMF체제로 인한 당초 회원실적 예상치의 급격한 감소 추세로 운영회비 세입재원의 부족이한 감액편성 사유가 발생돼 예산액 총 규모(370,000,000원) 변동없이 56,984,334원을 경정편성
-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에 관한 규정(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설계·감리분리 등에 관한 규정(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전라남도건축사회

○일시: 1998년 2월 26일(목) 11:00~
○장소: 순천 시드니예식장
○참석인원: 재적회원 97명중 72명
○의결내용

- 97년도 수지예산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당초예산액 292,969,448원보다 30,208,123원이 증액된 323,177,571원이 세입되었고 세출총액은 259,346,461원
- 98년도 제1회 경정 세입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97년도 수지예산 집행결과 31,831,11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

되었으나 최근의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한 업무량 감소를 예상하여 이자수입 및 이월금 수입잔액을 회비수입에서 감액한 당초 총예산액 304,703,000원으로 과목 경정

- 대의원 선출의 건
- 강인수(유임), 윤순하 최운호(신임) 회원 선출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일시: 1998년 2월 26일(목) 13:30~
○장소: 광주건축사회관 5층 회의실
○참석인원: 재적회원 203명중 156명
○의결내용

- 97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97회계년도 세입예산액보다 54,498,220원이 감소된 218,330,780원이 세입되었고 세출에서는 97년도 예산액의 78.5%인 214,225,705원을 집행하르로서 58,603,295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됨에 따라 세입·세출 차감잔액 4,105,075원을 98회계년도 이월금 수입으로 현금 이월
- 9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97회계년도 결산결과 현금이월금의 증액요인과 건축경기 침체에 따라 세출항목중 인건비, 복리후생비의 감액요인이 발생되어 당초 예산액 313,597,000원에서 2,880,000원을 감액한 추가경정예산총액 310,709,000원 편성
- 대의원 선출의 건
- 회원수 증가에 따라 1인(김동연 회원) 추가 선출

■ 제주도건축사회

○일시: 1998년 2월 26일(목) 14:05~
○장소: 제주 하리관광호텔 2층
○참석인원: 재적회원 59명중 39명
○의결내용

- 97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97회계년도 결산 결과 세입예산은 2,661,987원이 감액된 157,338,013원이 세입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9,975,810원이 감액된

140,024,190원을 집행하르로서 세입, 세출 차감잔액 17,313,823원을 98년도회계로 이월하여 결산



제주도건축사회 정기총회 광경

■ 경상북도건축사회

○일시: 1998년 2월 26일(목) 14:40~
○장소: 경주 콩코드 호텔 에메랄드홀
○참석인원: 재적회원 200명중 190명
○의결내용

- 97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97회계년도 총 세입예산액보다 21,809,422원이 적은 459,730,578원이 세입되었으며 총 세출예산액중 404,468,200원을 집행해 잔액 55,262,378원을 98회계년도로 이월 결산
- 대의원 개선의 건
- 대의원(10인): 이영기(당연직), 고학림 서상문 임병욱(유임), 권오웅 금상순 백경흠 이진희 최홍달(신임)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일시: 1998년 2월 27일(금) 10:30~
○장소: 신신예식장
○참석인원: 재적회원 244명중 147명
○의결내용

- 97년도 일반회계 수지예산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97년 세입예산액 331,041,374원보다 32,598,491원이 초과된 363,639,865원이 세입되었고 세출예산은 총 331,041,374원으로 편성하여 53,248,884원의 예산을 절감, 277,792,490원을 집행
- 대의원 선출의 건
- 권아원, 정종태, 이병인 회원 선출

■ 부산광역시건축사회

○일시: 1998년 2월 27일(금) 13:30~

○장소: 국제신문사 4층 대강당

○참석인원: 재적회원 638명중 429명

○의결내용

-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97년도 세입예산액 658,619,000원에서 119,136,889원이 감액된 539,482,111원이 세입되었고 세출에서 총예산액의 76.4%인 503,289,376원을 집행하므로서 세입·세출예산 운용 결과 36,192,735원의 예산잔액이 발생되어 이를 98회계년도 이월금 세입으로 전액 이월 결산
- 98회계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 5월까지의 세입추이를 관망하여 2차 추경여부를 결정, 5월중 제2회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조건으로 승인 → IMF체제하에서 예상되는 총체적 불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초 건축 예산으로 운용코자한 추경예산 편성기조에 따라 당초예산액 731,516,000원에서 155,879,265원이 감액된 575,636,735원으로 1차 추경예산 편성
- 임원개선(간사1인)의 건
- 집행부에 위임
- 대의원(4인) 개선의 건
- 집행부에 위임
- 기타사항
- 본협회에서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전국 시·도건축사회에 동일적용토록함에 따라 부산건축사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을 폐지키로 함



부산광역시건축사회 정기총회 광경

■ 경기도건축사회

○일시: 1998년 2월 27일(금) 10:00~

○장소: 경기도건축사회관 6층 대회의실

○참석인원: 재적회원 725명중 299명

○의결내용

- 97회계년도 일반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통과 → 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311,667,100원이 초과된 1,436,667,100원이 세입되었고 세출은 당초예산 1,125,000,000원중 965,025,800원을 집행하므로서 159,974,200원의 예산잔액이 발생돼 세입·세출 차감잔액 471,641,300원을 98년도 일반회계 이월금수입으로 이월하여 결산



경기도건축사회 정기총회 광경

■ 강원도건축사회

○일시: 1998년 2월 27일(금) 10:00~

○장소: 삼전동 두산리조트 2층 회의실

○참석인원: 재적회원 153명중 113명

○의결내용

- 97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세입은 예산액 421,141,484원보다 10,287,857원이 초과된 431,429,341원이 세입되고 세출은 예산액 421,141,484원중 364,092,120원을 집행하고 57,049,364원의 예산잔액이 발생되어 세입·세출 차감잔액 (67,337,221원)과 운영회비 미수금 (6,320,300)을 합한 73,657,521원을 98회계년도 이월금세입으로 결산
- 98회계년도 제1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98회계년도 제1차 추가경정수지예산



강원도건축사회 정기총회 광경

(안) 416,897,521원을 97회계년도 세출집행액인 364,092,120원으로 총액만 감액 결정하고 세입, 세출 항목별 계수조정은 간사회의로 위임 승인함

■ 경상남도건축사회

○일시: 1998년 2월 26일(목) 10:30~

○장소: 창원호텔 3층 목련홀

○참석인원: 재적회원 330명중 217명

○의결내용

- 97년도 수지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97회계년도 결산결과 세입 예산은 98,471원이 감액된 672,621,529원이 세입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6,571,650원이 감액된 606,148,350원을 집행하므로서 세입·세출 차인잔액 66,473,179원을 98년도회계로 이월하여 결산
- 임원개선의 건
- 간사(1인): 정응규(개선)
- 대의원(10인): 손수일 권경실 정인수 하성규 하성국 정부영(유임), 박갑주 허호웅 심봉철 강영복(개선)

■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일시: 1998년 2월 27일(금) 10:00~

○장소: 대구파크호텔 1층 회의장

○참석인원: 516명중 379명

○의결내용

- 97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결산결과 당초 예산액보다 132,682,084원이 감액된 총 549,255,916원이 세입되었고 세출은 총 예산 681,938,000원중 428,544,655원을 지출하므로서 253,393,345원의 예산잔액이 발생, 세입, 세출 차감잔액 120,711,261원을 97회계년도 결산후 98회계년도 이월금으로 결산
- 98회계년도 1차 경정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향후 건축경기가 불투명하고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총 세입액은 당초예산액 673,386,310원보다 감액된 619,831,261원으로 편성하고, 총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53,555,049원이 감액된 619,831,261원으로 편성

■ 충청남도건축사회

○일시: 1998년 2월 27일(금)

○장소: 공주관광호텔

○참석인원: 재적회원 명중 명

○의결내용

- 97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세입에서 97년 예산액 417,636,000원의 147%인 615,412,068원이 세입되어 197,776,068원이 증가 세입되었고, 세출에서 총 예산의 약 85.9% 358,801,559원을 지출함으로써 58,834,441원의 예산잔액이 발생돼 세입·세출 차감잔액 256,610,509원을 98년도 이월금으로 세입 이월하여 결산.

이사회 개최

98년도 제1회 임시총회 의제 결정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정기이사회가 지난 3월 4일(제3회)과 3월 10일(제4회)에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회차별 주요 의결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이사회 광경

○ 제3회

〈부의사항〉

- 제1호의안: 휴업및폐업에관한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휴업및폐업에관한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회원 신고관리업무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
- 므로서 회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
- '입회', '휴업', '폐업' 등 각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제2조) ▶신고사항 적용
- 기준 조정(제3조), 전출 및 전입신고 절차
- 구체화(제5조), 휴·폐업시 신고의무
-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제8·11조)하는 등 신고절차를 합리화하였고
- ▶휴업회원의 권리(선거권/피선거권) 및
- 의무(정회원 회비납부)를 일부 제한(제7·9조) ▶등록취소 또는 면허취소처분
- 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해당 폐업기간을
- 경력으로 인정(제10조) ▶협회 신고사
- 항의 지연 또는 미이행에 대한 조치강화
- (제11조) ▶폐업위로금 반납시 입회비
- 면제조항 신설(제12조)함.

- 제2호의안: 경조비지급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경조비지급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임직원 및 회원, 관계인사의 경조사에 관
- 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므로
- 서 협회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경조
- 비 지급범위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제3조/제4조/별표1) ▶근속년수에 따
- 른 폐업위로금 지급기준 세분화(별표1)
- ▶회원이 협회업무 수행중 상해 또는 순
- 직시 보상금 지급조항 명시(제6조) ▶장
- 례보조금 지급기준 구체화(제7조) ▶본
- 협회 및 건축사회 전·현직 회장 사망시
- 협회장 또는 건축사회장 거행조항 명시
- (제8조)함.

- 제3호의안: 문서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문서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직제 및 협회사무기구 조직개편과 정부 표준양식변경(97. 4. 1)에 따른 문서분류기준표 및 작성양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문서사무처리 능력을 증진코자 문서규정 전반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 ▶간급을 요하는 전화, 구술 등의 접수시의 문서처리 절차 명시(제4조) ▶기안(제26조) 및 시행문(제29조)양식 개선 ▶문서규격의 통일화(제10조) ▶정부기관 등에 대한 건의 창구의 일원화(제8조), 부서기호 및 문서분류번호 개정(제16조) ▶문서처리란 기재(제23조)함.

○ 제4회

〈부의사항〉

- 제1호의안: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 정관개정(안) 중 제51조(건축사회의 재정)1항은 현행대로, 제52조(회비송금)중 특별회비는 본 협회에서 직접관리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 상근부회장과 같은 맥락에서 상근이사를 정관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기로 함
- 〈정관개정(안) 주요 내용〉
-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일반인도 회지를 구독할 수 있도록 특별회원제 도입(제7조) ▶대의원수는 각 건축사회 단위로 정회원수를 기준하여 20인마다 1인의 비율로 선출하되 그 단수가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1인을 더 선출, 본협회 임원은 선출인원에 관계없이 당연직 대의원에 추가(제20조) ▶총회의 소집, 성립, 의결, 의결사항으로 총회 체계 정리(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0조) ▶사업, 재정에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업무 추가(제5조, 제29조, 제32조, 제51조) ▶현행 15인 이내로 된 이사정원을 17인 이내로 확대, 서울건축사회 회장은 당연직부회장에, 본부장은 당연직 이사에 포함(제13조, 제15조) ▶건축사회 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임장제 및 대의원 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대의원의 선임은 정기총회에 한함(제41조 제2항, 제42조 제2항)

구 분	상정(안)	수정(안)
명칭변경	협회발전기금	건축문화발전기금
제4조 (기금의 용도)	1. 건축정보센터운영자금 2. 건축교육원 운영자금 3. 건축연구소운영자금 4. 수익사업 기반투자자금 5. 협회중장기발전사업추진자금 6. 기타총회에서 정하는 사업자금	1. 건축문화발전사업자금 2. 협회중장기발전사업자금 3. 기타 총회에서 정하는 사업자금

• 제2호의안: 규정 제정 및 폐지(안) 승인의 건

- 협회발전기금운용규정을 위 표와 같이 수정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규정 제정 및 폐지(안) 주요 내용〉

▶협회의 중장기 발전기금 운영 합리화를 위한 「협회발전기금 운용규정」과 건축정보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한 「건축정보센터운영규정」을 새로 제정하고 ▶「건축사연금규정」, 「공사감리업무 운영지침」, 「협회상 심사기준」, 「신인 및 학생작품전 운영에 관한 지침」 등 일부 사문화된 규정과 위원회운영총칙에 통폐합 조정해 위원회별 담당업무를 총체적으로 명시한 편찬·홍보·건축·법규·감정위원회 등의 각 개별 위원회규정은 폐지함.

• 제3호의안: 공제조합설립 업무추진계획(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공제조합설립업무 추진계획(안) 주요 내용〉

· 추진일정: 실무대책팀 구성(98년 3월)→공제조합설립근거법 초안 마련(98. 4)→건축사법 및 동시행령 국회상정(98. 9)→설립위원회 발족(98. 10)→발기인대회(99. 2)→출자금 모집(99. 3)→대의원 선출 및 창립총회(99. 4)→설립인가·등기 및 업무개시(99. 4)

· 자본금 출자계획

납입자본금: 250억원

총보증한도: 출자금의 35배(8,750억원)

· 보증한도: 업체당 기본출자금의 60배

• 제4호의안: 97년도 회계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97년도 회계별 수지결산(안) 주요 내용〉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선 당초 예산액보다 263,543,226원이 초과된 5,251,199,420원의 세입원이 결정되었으나 회비수입 및 광고수입에서 미수금이 발생, 예산대비 52,636,774원이 감소 세입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선 예산액의 70.1%인 3,495,078,783원을 집행하여 세입·세출차감잔액 1,439,940,637원과 미수금 316,180,000원 등 총 1,756,120,637원을 97년도 일반회계 이월금 수입으로 이월 결산

특별회계(입회비관리회계+건설기술자경력관리회계+건축사시험회계) 세입부문에선 예산대비 151,159,464원이 증액된 8,150,049,862원이 세입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선 7,751,995,701원을 집행하여 세입·세출차감잔액 398,054,161원과 미수금 344,775,000원 등 총 742,829,161원을 97년도 이월금 수입으로 이월 결산

• 제5호의안: 98년도 회계별 제1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98년도 회계별 제1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주요 내용〉

IMF구제금융 도입 등 국가전반의 경제침체로 인한 회원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회원의 월정회비를 3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하하는 등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를 당초예산액 보다 22.2%를 감액한 4,027,026,637원으로 편성하고 특별회계 역시 건축교육원회계와 건설기술자경력관리회계를 제외한 건축연구소회계와 입회비관리회계, 건축사시험회계 등을 당초예산액 보다 각각 24.9%,

26.6%, 6.9%씩 감액하여 편성.

• 제6호의안: 98년도 제1회 임시총회 의제 결정 승인의 건

- 부의안건 제4호의안으로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승인의 건」을 추가키로 하고, 나머지는 순연하여 원안대로 승인함

〈98년도 제1회 임시총회 의제〉

제1호의안: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제2호의안: 협회발전기금 운용규정 제정 승인의 건

제3호의안: 건축정보센터 운영규정 제정 승인의 건

제4호의안: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승인의 건

제5호의안: 제규정 일부 폐지 승인의 건

제6호의안: 97년도 회계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제7호의안: 98년도 회계별 제1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8호의안: 공제조합설립업무 추진계획(안) 승인의 건

• 제7호의안: 추대회원 추대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본협회 정회원으로서 만 65세이상, 정회원자격을 15년이상 보유한 회원을 추대회원으로 추대함).

• 제8호의안: 공로패 수여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이건호 대구건축사회 전임회장, 송기준 인천건축사회 전임회장, 이종완 서울건축사회 회장, 박경환 본협회 상근부회장(3월 21일에 열린 제5회 이사회에서 추가) 등 4인에게 98년도 제1회 임시총회에서 공로패를 수여키로 결의).

• 제9호의안: '98전국건축사대회 폐지 승인의 건

- IMF경제위기상황에 따른 협회 예산절감차원에서 '98전국건축사대회를 폐지키로 함

• 제10호의안: 전문교육훈련계획(안) 승인의 건

- 교육실시에 필요한 예산은 9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키로 함. 단 시행여부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재협의키로 함.

• 제11호의안: 연구심의위원회운영규칙 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98년도 위원회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축연구소 연구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4조(구성) 제3항중 WTO대책위원회 문구 삭제).

• 제12호의안: 특별회원(가칭)제도 신설계획(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회지 구독대상층 확대를 통한 대국민 홍보강화를 위해 건축관련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특별회원을 모집, "건축사" 지 정기구독권 부여).

• 제13호의안: 보수체계 개편(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보수기준 단순화를 통한 총액개념의 연봉제 도입으로 사무기구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제고키 위해 98년 4월부터 개인별 연간 총 보수액을 연봉으로 전환하고 매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차년도의 연봉계약을 개인별로 체결).

• 제14호의안: 인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직원의 정년단축 및 정년연장제도 폐지→ 1급이상 59세, 2~3급 57세, 4급이하 54세, 기능직 57세, 전문연구원 59세, 연구원 57세).

• 제15호의안: 광고료 미수금 결손처리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결손처분액: 3,642,000원).

제7기 서울시민건축대학 개강

4월 20일부터 8주동안
건축행정·풍수지리 등 강의

서울시건축사회(회장 이세훈)에서는 오는 4월 20일부터 시민건축대학 제7기 강좌를 개설한다. 이번 시민건축대학은 6월 8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 45분까지 2개 강좌씩 실시되며 일반시민과 학생(선착순 400명)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시민건축대학은 건축행정, 건축법규, 자재정보, 풍수지리, 통나무건축 등 다양한 건축관련 강좌가 열려 건축에 대한 이해는 물론 저변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서울시건축사회(02-581-5715~8)



〈서울시민건축대학 강좌내용〉

일자	강좌	시 간	강 좌 내 용
4월20일	개 강		입교식
	1강좌	13:30-15:00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
	2강좌	15:15-16:45	풍수지리(양택론)
4월27일	3강좌	13:30-15:00	건축예술론
	4강좌	15:15-16:45	건축행정
5월 4일	5강좌	13:30-15:00	건축설계의 이해
	6강좌	15:15-16:45	통나무건축
5월11일	7강좌	13:30-16:45	한국의 전통건축(고궁답사)
5월18일	8강좌	13:30-15:00	건축물의 안전관리
	9강좌	15:15-16:45	주택의 시공 및 재료
5월25일	10강좌	13:30-15:00	주거론
	11강좌	15:15-16:45	스틸하우스
6월 1일	12강좌	13:00-15:00	재개발 및 재건축
	13강좌	15:15-16:45	건축구조의 이해
6월 8일	14강좌	13:30-15:00	건축허가에서 사용검사까지 총마감
		15:15	수료식

※ 강좌일시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충북 가람산우회 32차 정기산행

한라산 등반하며 친목다져



충북건축사회 회원 동호모임인 가람산우회(산우회장 장현석, 현석종합건축 대표)가 서른 두번째 정기산행을 갖고 회원 간 친목과 유대를 다졌다. 성판악과 정상, 관음사로 이어지는 코스를 따라 지난 2월 2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된 이번 한라산 등반에는 회원과 그 가족 등 37명이 참가해 모처럼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연과 호흡하며 화합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가람산우회는 지난 95년에 첫산행을 시작한후 매월 셋째주마다 정기산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불우시 설방문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를 위한 활발한 활동도 벌이고 있다.

충북건축사회, 「지역성 탐색 대토론회」 개최

청주·충주지역 도시건축의
지역성 조명

21세기 청주·충주지역 도시건축문화의 지역성 탐색을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 3월 11일 청주예술의전당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충북건축사회(회장 오선교)를 비롯한 충북지역 건축3단체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원문화권인 이들 두 도시 건축문화의 정체성과 지역성을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기존 토론회들이 건축 관련 분야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데 비해 지역경제와 환경, 역사, 문화 등에까지 토론범위를 확대시켜 물질적 외형적 성장에 묻혀버리기 쉬운 지역 도시건축의 정체성을 돌이켜 보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양철호(한양건축 대표), 류익선(광장건축 대표), 이재현(청주대학교 교수), 한규영(충북대 교수), 이동주(청주시 도시계획 계장), 이주형(청주 경실련 사무국장), 김이구(예성건축 대표) 등 각계 전문가 20여명이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청주, 충주의 역사와 문화', '청주·충주의 도시공간, 현대건축의 오늘과 내일' 등 각 주제별 주제발표 및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오세재 청주시 부시장장을 비롯해 임해순 예총 충북지부장, 최병준 청주시민회 공동대표 등 지역사회 각계 인사와 시민 200여명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토론회 광경

광주건축사회 미술동호회 회원전

유화, 수채화 등 미술작품 32점 전시



산동의 봄 / 김유지작

광주건축사회(회장 윤익상) 소속 회원들로 구성된 광주건축사미술동호회(동호회장 김유지 / 유지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첫번째 회원작품전을 가졌다.

지난 2월 26일부터 3월4일까지 광주시 소재 공동갤러리 전시장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유화와 수채화 등 회원 각자가 바쁜 업무속에서 틈틈히 그려온 32점의 미술작품이 전시돼 지역 미술인들과 일반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전시 첫날인 2월 26일에는 광주건축사회 회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시민들이 전시장을 찾아 큰 성황을 이뤘다. 광주건축사미술동호회는 앞으로도 차기 양동현회장을 중심으로 건축사로서 뿐만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기 위해 더욱 활발한 작품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회를 희망하는 건축사 회원은 전화 062-381-0300~2 또는 062-523-5422로 문의하면 된다.

건축계소식 archi-net

'98 대한민국건축대전 작품공모

3월 25일부터 한달간 일반공모전
원서교부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김한근)가 주최하고 우리협회와 대한건축학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공동 후원하는 제17회 대한민국건축대전의 작품공모 요강이 확정 발표됐다. 올해 건축대전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일반공모전과 초대전으로 구분해 시행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신의 건축설계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 일반공모전은 오는 3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원서를 교부해 8월 31일과 10월 8일 두차례에 걸쳐 작품을 접수하며 초대전은 별도의 원서교부 없이 10월 8일에 작품을 접수한다. 일반공모전 원서교부 및 1차 작품접수는 한국건축가협회 사무국에서 하며 2차 작품접수에 한해 전시장인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현장 접수한다. 심사위원으로는 강석원, 김병현, 서보광, 유원재, 이정근, 정시춘, 최영집 등 7인 건축가들이 참여해 일반공모전 대상 1점(상장 및 상금 5백만원), 우수상 3점(각 상장 및 상금 2백만원), 특선 약간점(각 상장 및 상금 오십만원), 입선작다수를 선정한다. 한편 올해 수상작 전시회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8일까지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열린다.

문의 : 한국건축가협회 사무국

(02-744-8050)

충북건축사회, 「지역성 탐색 대토론회」 개최

청주·충주지역 도시건축의
지역성 조명

21세기 청주·충주지역 도시건축문화의 지역성 탐색을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 3월 11일 청주예술의전당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충북건축사회(회장 오선교)를 비롯한 충북지역 건축3단체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원문화권인 이들 두 도시 건축문화의 정체성과 지역성을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기존 토론회들이 건축 관련 분야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데 비해 지역경제와 환경, 역사, 문화 등에까지 토론범위를 확대시켜 물질적 외형적 성장에 묻혀버리기 쉬운 지역 도시건축의 정체성을 돌아켜 보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양철호(한양건축 대표), 류익선(광장건축 대표), 이재현(청주대학교 교수), 한규영(충북대 교수), 이동주(청주시 도시계획 계장), 이주형(청주 경실련 사무국장), 김이구(예성건축 대표) 등 각계 전문가 20여명이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청주, 충주의 역사와 문화', '청주·충주의 도시공간, 현대건축의 오늘과 내일' 등 각 주제별 주제발표 및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오세재 청주시 부시장장을 비롯해 임해순 예총 충북지부장, 최병준 청주시민회 공동대표 등 지역사회 각계 인사와 시민 200여명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토론회 광경

광주건축사회 미술동호회 회원전

유화, 수채화 등 미술작품 32점 전시



산동의 봄 / 김유지작

광주건축사회(회장 윤익상) 소속 회원들로 구성된 광주건축사미술동호회(동호회장 김유지 / 유지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첫번째 회원작품전을 가졌다.

지난 2월 26일부터 3월4일까지 광주시 소재 공동갤러리 전시장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유화와 수채화 등 회원 각자가 바쁜 업무속에서 틈틈히 그려온 32점의 미술작품이 전시돼 지역 미술인들과 일반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전시 첫날인 2월 26일에는 광주건축사회 회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시민들이 전시장을 찾아 큰 성황을 이뤘다. 광주건축사미술동호회는 앞으로도 차기 양동현회장을 중심으로 건축사로서 뿐만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기 위해 더욱 활발한 작품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회를 희망하는 건축사 회원은 전화 062-381-0300~2 또는 062-523-5422로 문의하면 된다.

건축계소식 archi-net

'98 대한민국건축대전

작품공모

3월 25일부터 한달간 일반공모전
원서교부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김한근)가 주최하고 우리협회와 대한건축학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공동 후원하는 제17회 대한민국건축대전의 작품공모 요강이 확정 발표됐다. 올해 건축대전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일반공모전과 초대전으로 구분해 시행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신의 건축설계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 일반공모전은 오는 3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원서를 교부해 8월 31일과 10월 8일 두차례에 걸쳐 작품을 접수하며 초대전은 별도의 원서교부 없이 10월 8일에 작품을 접수한다. 일반공모전 원서교부 및 1차 작품접수는 한국건축가협회 사무국에서 하며 2차 작품접수에 한해 전시장인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현장 접수한다. 심사위원으로는 강석원, 김병현, 서보광, 유원재, 이정근, 정시춘, 최영집 등 7인 건축가들이 참여해 일반공모전 대상 1점(상장 및 상금 5백만원), 우수상 3점(각 상장 및 상금 2백만원), 특선 약간점(각 상장 및 상금 오십만원), 입선작다수를 선정한다. 한편 올해 수상작 전시회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8일까지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열린다.

문의 : 한국건축가협회 사무국

(02-744-8050)

서울시건축상 금상에 「한국경제신문사」 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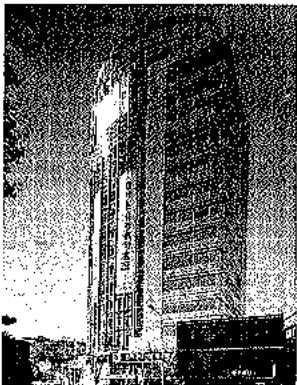
창조건축 조재원 회원 설계작품

서울시가 주최한 제16회 서울시건축상 심사결과 「한국경제신문사 사옥」(창조건축 조재원 설계)이 비주거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주거부문과 비주거부문으로 나뉘어 실시된 이번 서울시건축상에는 총 56점이 응모해 경합 끝에 모두 11개 작품이 상을 받았는데 금상을 받은 한국경제신문사옥의 경우 심사위원들로부터 대지의 고지차를 원형과 박스형 매스를 적절히 배치해 효율적으로 극복해 냈다는 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서울시건축상의 주거부문 은상은 영락교회50주년기념관(정주건축 정시춘 설계)이, 동상은 씨앤씨빌딩(일건씨앤씨건축 최관영 설계)과 공간신사옥(공간건축故장세양 설계)이, 장려상은 중앙구청사(원도시건축 변용 설계)와 청학빌딩(인우건축 함인선 설계)이 각각 차지했다.

또한 주거부문에선 금상 해당작 없이 은상에 겨여지구1,4단지 아파트(토문엔지니어링 최두호 설계)와 메조트론(아르키움 김인철 설계)이, 장려상엔 웨스턴조선호텔 H빌라(다건축 유원재 설계)와 서초동 다세대주택(경영위치건축 김승희 설계)이 각각 선정됐다.



한국경제신문사 사옥

서울건축학교 97/98년도 제3쿼터 수강생 모집

5월 8일 개강

서울건축학교(SA/ Seoul School of Architecture)에서는 97/98년도 제3쿼터 수강생을 모집한다. 국내외 건축관련 학과 학생 및 설계사무소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제3쿼터 과정은 오는 5월 8일에 개강해 7월 18일까지 진행되며 모집정원은 20명이다. 원서마감일은 4월 24일이며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제3쿼터는 설계스튜디오 수업을 중심으로 건축가세미나, 초청강연, 건축기행, 전시회 등으로 진행된다. 서울건축학교는 지난 95년초 '이 땅 이 시대'의 공동체 라는 주제를 가지고 뜻을 같이 하는 20여명의 건축가들이 실험학교를 처음 개설한 이후 그동안 각종 워크샵과 세미나, 초청강연 등을 통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건축가의 위상 정립과 열린 교육을 위해 활발한 교육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각 스튜디오 튜터에 의해 작성된 자율 교육프로그램과 다양한 실험적 교육방식은 열린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다. 서울건축학교의 제3쿼터 수강생 모집요강은 다음과 같다.

• 응시자격

- 설계사무소경력 3년이상인자
- 4년제 정규대학 졸업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자
- 국내외 대학원에서 건축관련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예정인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자 모집인원: 20명

• 제출서류

- 입학지원서(소정양식)
- 자기소개서(A4 규격 2매 이내)
- 졸업(수료)증명서 학위등록증 사본
- 작품집(건축도면, 드로잉, 사진, 컴퓨터드로잉 등 자신의 작업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작품이면 가능 / A4사이즈 20매 이내)

• 97/98년도 제3쿼터 주요 프로그램

- 설계스튜디오(스튜디오 튜터: 김영섭, 김홍일, 서혜림, 조병수, 최욱)
- 설계지원스튜디오(스튜디오 튜터: 강성원, 강혁, 김기호, 김봉렬, 박선우) - 건축가세미나(김병현, 민현식, 김석윤, 최두남),
- 초청강연(이레네 스칼라브/영국 AA 평론가)
- 건축기행(5~6월 2회)
- 정기강좌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주제: 한국학 I)

중국建築史學 국제회의 참가자 모집

8월 18일부터 4일간 북경에서 열려, 논문접수중

한국건축역사학회에서는 오는 8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1회 중국건축사학 국제회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국제회의는 중국사회과학원의 양홍훈(楊鴻勳)을 비롯해 윤홍택(건국대/한국), Else Glahn(코펜하겐대학/덴마크), N.S. Steinhardt(펜실바니아대학/미국), 이화선(평양건설경제대학/북한), 田中淡(경도대학/일본) 등 아시아 각국과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의 대학교수들이 발기인으로 나서 오는 8월 21일부터 4일간 북경 향산호텔에서 개최된다. 참가비는 일반인일 경우 미화 500달러, 학생은 250달러이다. 발표 논문주제는 ▶도시, 궁궐, 종교건축, 향토건축, 원림 ▶실내디자인 및 가구 ▶고대 근대, 현대건축의 역사 ▶건축이론 및 연구방법론 ▶건축사학사 ▶CAD ▶역사건축과 장소의 보존 등으로 논문 및 구두발표 공식언어는 영어와 중국어이다. 논문제출기한은 98년 6월 15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에 관한 문의는 건축역사학회(전화 0331-290-7558 성균관대 윤인석 교수)나 중국(전화 8610-6601-7351, 팩스 8610-6841-1233 / Zhang Xiao-lin)으로 하면 된다.

'건축인 POAR 여름 워크숍' 참가자 모집

2박 3일간의 공동체 학습시간 마련

월간 건축인 POAR에서는 오는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동안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민박집에서 공동학습체제를 위한 여름학교를 개설하고 회망참가자를 모집중이다. 이번 워크숍은 대학생이상 설계실무 5년차 이하의 건축인을 대상으로 20명을 모집해 워크숍기간중 강의 및 토론, 특강, 고건축답사 등을 통해 공동체학습의 시간을 갖고 인접 해변과 어시에서의 공동체험 프로그램에도 참가한다. 신청접수기간은 4월 6일부터 5월 30일까지이며 참가비는 교통비 및 숙박비, 교재비 등을 포함해 15만원이다. 참가희망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접수시킨후 아래 지정계좌에 참가비를 납부하면 된다.

- 신청서 접수처: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21번지 창호빌딩 201호(전화 02-637-3890)
- 참가비 납부 은행 계좌번호: 국민은행 752-01-0013-489(예금주: 김수영)

제3회 살기좋은 아파트 공모

97년 1월~98년 2월 준공·입주한
아파트 대상

매일경제신문사와 매일경제TV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주택공제조합과 공동으로 제3회 살기좋은 아파트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모집부문은 주택사업 지정업체와 등록업체 2개부문으로 20가구 이상 사업계획승인분으로 97년 1월 1일부터 98년 2월 28일 기간중 준공돼 입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응모자격은 3년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보유한 주택사업 등록업체로 단지배치도 및 조감도, 현장사진을 포함한 특징점 설명서를 16장~2절 규격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마감일은 4월 18일까지로 수상작은 6월초 매일경제신문과 매일경제TV를 통해 발표된다.

작품접수 및 문의: 매일경제 사회2부 (02-2626-179-183)

제16회 공간학생건축상 공모요강 발표

주제는 사이버 가수를 소재로 한
'아담의 산책'

(주)공간사(대표 이상림)에서는 空間지 3월호를 통해 제16회 공간학생상 작품 공모일정을 발표하였다. 올해 공모전은 최근 대중문화의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 가수 아담을 소재로 한 '아담의 산책'이 주제로 제시되었는데 주최측은 이 주제를 통해 우리가 지닌 고정관념의 탈피를 내세우고 있어 주제에 대한 응모자의 건축개념 전개가 심사의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패널에 건축적 사유로 옮겨 놓던 기존의 출품 방식과 달리 자신의 작품을 CD에 담아 제출토록해 다른 장르와의 디자인 협력을 권장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공간사는 이번 주제가 다소 난해한 만큼 매월 공간지를 통해 보다 발전된 내용의 주제해석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 공모전의 심사위원인 건축가 김원씨가 밝힌 주제에 대한 해설과 주요 공모요강이다.

문의: (주)공간사 (02-747-2892)

1. 주제: Adam의 산책

- 주제해설: '아담, 그를 최초로 만든 이들이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는 정도에서 머물렀다면 그가 숭실 건축적 환경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

는 일은 사이버 공간의 구체적인 기획을 위한 실험이란 측면에서 건축분야가 나서서 일이다. 또한 공간에 대한 전혀 새로운 개념의 반응체내지는 인식의 주체가 설정되었을 경우 이의 해석과 접근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의 다양한 사고와 논의가 앞서야 할 것이다."

2. 응모자격: 국내외 전문대학·대학·대학원생
3. 공모일정
 - 신청서배부 및 접수: 98년 6월 15 ~ 9월 19일
 - 질의 및 회신: 7월 4일까지 팩스로 접수후 공간지 8월호에 게재
 - 작품접수 마감: 98년 9월 19일
 - 발표: 98년 10월중 개별통보
4. 출품규정
 - 작품은 미발표작에 한하며 CD에 담아 제출(팀작업일 경우 디자인의 영역 명기)

포스에이씨

ISO9002 인증 획득

설계부문 인증도 추진중

포스에이씨(대표 심인보)가 영국 품질인증기관인 로이드 품질보증협회(LRQA)로부터 국제품질보증규격인 ISO9002 인증을 획득하고 지난 2월 9일 정식 인증서를 받았다. 포스에이씨는 이번 인증 획득을 위해 지난해 3월 ISO인증추진반을 구성해 같은 해 9월 품질보증 표준문서를 확정해 포항과 광양의 제철 프로젝트에 품질 시스템을 적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포스에이씨는 이번 품질 인증의 범위가 토목·건축 및 제철플랜트를 포함한 산업플랜트에 대한 안전진단분야로서 설계를 제외한 건설 전문분야의 건설사업관리(CM)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품질경영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내년쯤엔 설계부문에 대해서도 인증을 받고자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대 건축특강 및 세미나

박영훈 민선주 등 국내외 인사
초청강의

경기대 건축공학과와 건축대학원에서는 건축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특강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모더니즘 이후의 실증적 건축미학', '유럽의 성당건축', '돌러붙는 건축' 등 건축관련 다양한 주제들로 펼쳐지는 이번 1학기 특강 및 세미나는 오는 5월말까지 총 13회에 걸쳐 서울캠퍼스 건축대학원 세미나실과 수원캠퍼스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문의: 경기대학교 건설공학부 건축공학과(서울캠퍼스: 02-390-5159, 수원캠퍼스: 0331-44-6300), 건축대학원(02-390-5245~6)

• 특강일정

- 모더니즘 이후의 실증적 건축미학 / 김원식(투병대학 연구원) / 3월 12일 17:00 수원캠퍼스 - 유럽의 성당건축 / 박효준(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 3월 27일 16:30 서울캠퍼스, 4월 2일 17:00 수원캠퍼스
- 초현실적 응시 / 헬렌박(건축가) / 4월 10일 16:30 서울캠퍼스, 3월 26일 17:00 수원캠퍼스
- 존재방식으로서의 건축(건축가, 토문건축) / 4월 16일 17:00 수원캠퍼스
- 도시와 예술 / 정보원(조각가) / 4월 24일 16:30 서울캠퍼스
- 지구촌 문명시대를 대비한 21세기 한국건축의 기본방향 / 5월 22일 16:30 서울캠퍼스
- 세미나일정
- 신 바우하우스교육 / Jarg H. Gleiter (독일 바이마르 바우하우스대학) / 3월 4일 17:00 서울캠퍼스
- 건축설계과정 안에서의 사고 유출 / 김준성(경기대) / 3월 18일 11:00 서울캠퍼스
- 소리 그리기 / 김창수(작곡가, 인도음악가) / 3월 26일 11:00 서울캠퍼스
- 둘러붙는 건축 / 민선주(경기대) / 4월

1일 11:00 서울캠퍼스

- 탈춤미학 / 송인현(봉산탈춤인수자, 극단 민들레 대표) / 4월 2일 11:00 서울캠퍼스
- 기억자집 일지집 / 조병수(경기대) / 4월 8일 11:00 서울캠퍼스
- 발상전환의 계기 / 정은선(한국미술협회 회장) / 4월 9일 11:00 서울캠퍼스

여성건축가협회, 주택건축 상담사례집 발간

주택유형별 신·증개축 상담사례 수록

한국여성건축가협회(회장 김복수)가 (주)대우건설과 공동으로 「주택건축무로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은 문숙경, 박연심, 조순영 등 여성건축가협회 회원 8인이 지난해부터 순번에 따라 일반 건축주들을 상대로 벌여왔던 주택 유형별 주요 상담사례들이 수록돼 있다. 여성건축가들은 그동안 주택신축이나 증개축을 계획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건축사와의 상담을 통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고객서비스의 범위를 확대코자 지난해 5월부터 대우건설 주택문화관내에서 총 95건의 상담을 실시해 왔는데 이번 상담사례집에는 주택 유형별 상담사례와 함께 자세한 상담절차나 건축주가 알아야할 사전 검토사항이 수록돼 있어 주택 신·증개축을 계획 중인 일반건축주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담자들은 주로 일반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신축 및 증개축과 관련해 기본적인 공간계획, 건축법, 예상공사비, 건축재료 및 설비, 건축시 제세공과금에 관한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건축가협회의 주택건축 상담은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고 있으며 사전에 상담고객이 상담희망물건의 정확한 주소

지와 상담희망사항을 상담자에게 알려주면 구체적인 상담일이나 준비사항을 알려준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게 된다. 상담예약은 전화 02-259-5454/5455로 하면 된다.

건축대 건축대학원장에 이호진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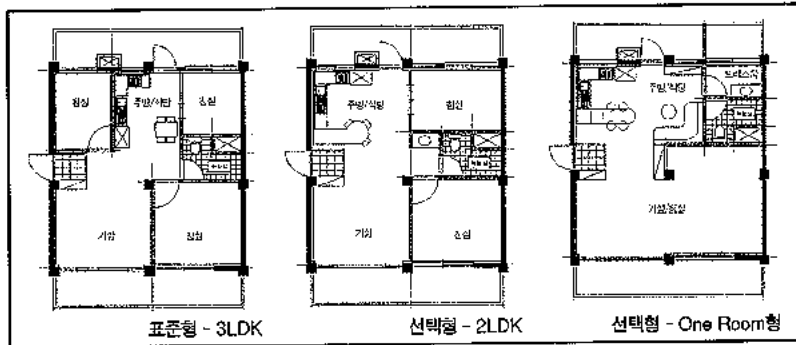
교학부장에는 이경환 교수 임명돼

건국대 이호진(건축공학과)교수가 건국대 건축대학원 원장에 임명됐다. 건국대학교는 또 지난 3월 1일 인사발표를 통해 건축대학원 교학부장에 이경환(건축공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건축설계와 실내건축설계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96년에 설립된 건국대 건축대학원은 겸임교수진과 건축공학과 및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그리고 외래 강사 등을 포함 약 90여명의 전문가들이 스튜디오 오중삼의 강의와 실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들 전문가중엔 윤승중(원도시 건축), 김석철(아키반), 원대연(PLUS건축), 이정근(우리계획), 김인철(아르키움 건축), 장해철(T.S.K), 이호중(옥타곤 디자인), 김개천(이도건축) 등 국내 유명 건축가들이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다.

주공, 국내최초 RC조 가변형주택 개발

개조 및 보수 용이, 급변중 수도권에
사업사업 추진

대한주택공사가 국내 처음으로 개조 및 보수가 용이한 RC조(Reinforced



가변형주택 평면 모델

Concrete) 가변형주택을 개발했다. 기존의 가변형주택들이 단순히 거실과 침실 또는 침실과 침실의 통합이나 분리만 가능했던 데 비해 주공의 가변형주택은 입주자가 집안을 바꾸고 싶을 때 거실이나 침실 뿐만 아니라 주방, 욕실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내부평면을 바꿀 수 있도록 개발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공은 개발평형을 ▶전용 18평형의 거실, 방이 3개로 되어 있는 3LDK형 표준형▶거실, 방이 2개인 2LDK형 ▶원룸형 등으로 입주자의 취향에 맞게 3가지 평면을 제시해 분양시 선택,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주공은 이 가변형주택을 더욱 발전시켜 현재 자사 주택연구소가 연구중인 부품형 주택시스템 개발과 연계해 내부벽체를 완전건식화 하므로써 주택구성재의 분리, 교체, 조립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벽체 상호간의 이동시에도 재활용이 가능토록해 자원낭비를 줄임과 동시에 경제적 가치도 높일 수 있는 주택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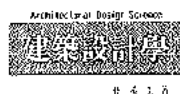
문의: 대한주택공사 설계개발처 주택계획부(0342-738-4140)

“이제 건축설계 작품을 감성이나 직감으로만, 그리고 그림에 의해서만 만들어내는 시대는 지났다.”

「건축설계학」이란 건축설계 방법에 관한 이론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수립되면서 탄생된 학문으로 1960년대 영국에서 발생했다.

저자는 건축설계학의 특성을 기능, 구조, 미 등 건축설계의 3대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건축설계 진행방법, 건축프로그램 방법, 건축설계의 사고방법 그리고 건축설계 평가방법 등 4가지의 건축설계방법과 여기에 건축설계원리를 포함하여 건축설계의 이론을 확립시키고 건축제도 기법, 투시도기법, 모형기법 그리고 CADD기법 등 다시 4가지의 건축설계기법을 개발해 내므로써 건축설계의 실체를 확립시켰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설계의 원리는 ‘건축의장학’으로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건축설계기법’ 또한 종류에 따라 각기 독립된 분야로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축설계학)의 본론은 결국 (건축설계 방법론)을 근본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 국 교 육

건축신간

건축설계학
주거인간공학

◇ 건축설계학(Architectural Design Science)

이 책은 지금까지 관습화되었던 건축설계에 대한 건축가의 태도와 방법론에 대해 체계적인 정리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토대로 「건축에 대한 평가」의 근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한규 著 / 기문당(02-295-6171) 펴냄 / 19×26cm / 361쪽 / 1만5천원



김문당

◇ 주거인간공학

“인간공학적인 측면에서의 주거는 어떻게 계획되어야 할까?”

저자는 건축분야에서는 다소 생소한 ‘인간공학’을 주거계획에 적용하여 주거공간을 편리하고 안전하며,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인간공학에 대한 기초지식은 물론 인간공학을 배려하여 공간계획을 할 수 있도록 인간과 공학과 주거계획적 요소에 대한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은 -1장 주거인간공학에 대한 개념 소개에서 주거와 인간공학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2장에서는 인체요소의 특성을 3장 주거인간공학의 방법론에서는 생리학적 연구방법과 심리학적 연구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4장 실내환경과 인간공학에서는 빛·음·공기·열환경에 대한 인간공학적 접근방법을, 5장 주거공간과 인간공학에서는 인체치수 및 공간치수를 고려한 주거환경계획을, 6장은 가구와 인간공학, 7장은 인간을 고려한 주거에 대한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뤄져 있다.

안옥희, 정준현, 김순경 共著 / 기문당(02-295-6171) 펴냄 / 19×26cm / 218쪽 / 1만원

김문당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안동실내체육관

성북1동 청사 및 주차장

산업디자인센터

안동실내체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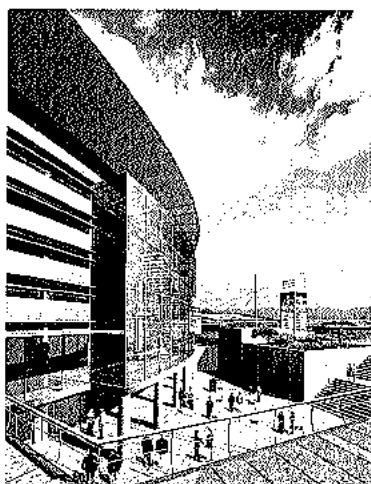
Ahndong Indoor Gymnasium

안동시는 안동시민의 새로운 쉼터와 사회체육센터 마련을 위해 낙동강 용지조성지구에 위치할 안동실내체육관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총 9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당선작에 희림건축(이영희)+두이건축, 우수작에 삼우종합건축(박승)안, 가작에 (주) 합동건축(권태식)안과 (주) 기공건축(김병기)안을 각각 선정, 그 결과를 지난 2월 4일에 발표했다.

▶ 당선작 / (주)희림건축(이영희)+두이건축



조감도



투시도

대지위치	경상북도 안동시 운흥동 300-1 낙동강 용지조성지구내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33,058㎡(10,000평)
도로	남쪽 35m, 북쪽 15m, 서쪽 25m
용도	관람집회시설
건축면적	7,420.12㎡(2,245평)
연면적	15,696㎡(4,748 평)
건폐율	22.45%
용적률	24.02%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수용인원	6,520석
경기종목	핸드볼, 농구, 배구, 탁구, 사회체육활동 등
최고높이	26m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구조 스탠드: 철골+PC구조 지붕: 트러스돔구조
외장재료	지붕: 알루미늄 패널 불소수지 코팅 하부시설물: 12THK 강화유리, 화강석 버너구이

주차대수 301대(장애인주차: 10대, 대형주차장: 8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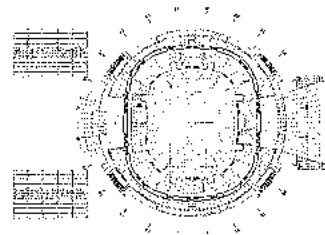
안동실내체육관은 안동의 경북부지역의 중심지 역할에 걸맞는 종합 체육·문화·업무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낙동강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안동 시가지의 남측 낙동강변 용지지구에 위치한다. 계획대지는 비교적 주변환경에 의한 제약이 없으며 향후 고수부지와 주변시설군들의 개발과 더불어 새로운 지역환경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동실내체육관의 건립은 안동시민들은 물론 인접도시민들의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지방 체육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향한 안동시의 새로운 도약을 상징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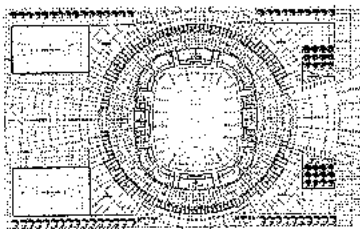
- 21세기 경북북부지역 거점도시로 안동시의 위상에 적합한 상징성과 인지성 고양: 안동의 이미지와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해 Landmark로서의 역할 수행
- 경기장 및 대규모 행사장 등 다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확보
- 주변환경-주변의 구릉과 낙동강-과 조화된 매스(Mass)형태: 대규모 공간에 요구되는 조형성 및 구조형태 창출
- 유교적 특성이 반영된 형태 - 대칭, 절제된 단순미, 균형, 축선의 사용
- 합리적이고 간결한 도선처리의 실현: 진출입이 Ground Level에서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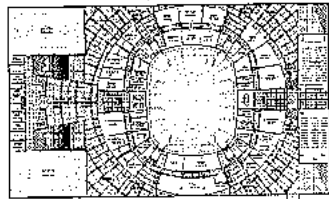
배지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동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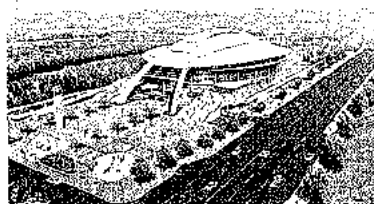


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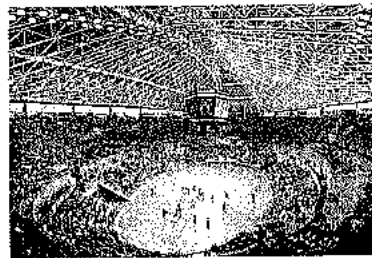


북측입면도

▶ 가작 / (주)함동건축(권태식)



조감도



내부 투시도

대지위치 경상북도 안동시 운흥동 300-1
낙동강 용지조성지구내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33,058㎡(10,000평)

도로현황 35m, 25m(고가도로), 10m도로

용도 관람집회시설

건축면적 5,309.5㎡

연면적 15,708.9㎡

건폐율 16%

용적률 45%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수용인원 7200석

경기종목 핸드볼, 배구, 농구, 씨름, 탁구
및 사회체육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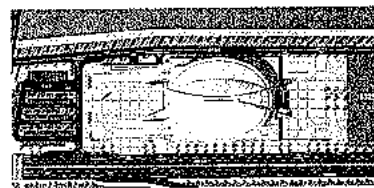
구조 지붕 - 사각형 주트러스+파이프
트러스

스탠드 - 철골·철골+PC구조
외장재료 지붕 - 알루미늄 보소수지 코팅
하부시설물 T12강화유리+화강
석보임+노출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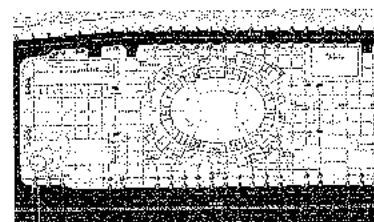
승강기 17인승 1대(장애자용)

주차대수 191대(장애자용: 8대) ※고수부
지: 63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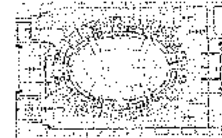
조경면적 5,100㎡(15%이상)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계획방향

21C 경북 북부 지역의 거점 도시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세를 감당한 최상의 시설과 설비를 갖춘 안동시의 위상에 걸맞는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안동시민의 새로운 쉼터와 사회체육센터로서, 안동시의 새로운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건축적 형태와 기능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경기장 및 대규모 행사장 등 다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확보로 지역의 체육발전과 시민의 체력증진을 통한 체육활동 인구의 저변 확대.

계획개념

실내체육관의 대지는 안동시의 낙동강 용지조성 지구에 위치하여 남측으로는 넓은 고수부지와 낙동강 건너 아늑한 산들이 조망되고, 동측과 서측은 장래 안동시의 각종 체육·문화시설이 건립될 부지들과 접해 있으며 북측은 기존 안동시가지가 조망되는 사방이 트인 곳에 자리한다.

대지의 남북 폭이 100m미만으로 좁고, 동서가 300m가 넘는 긴 형태로 특히 35m의 강변도로와 10m도로에 면하여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대지주변 여건상 건축물을 35m도로에 맞추어 계획한다. 축에 따라 동서로 자리한 아치형태의 구조물은 안동의 무형문화재인 차전놀이를 은유하였으며, 데크의 도입은 안정감을 부여하여 관람객이 주변의 시원한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다.

본체육관은 경북 북부의 거점도시이며, 지역성이 강한 안동시의 시민유틸로서, 사회체육센터로서, 시민화합의 장으로서 안동의 새로운 상징으로서 역할을 건축적 형태와 기능을 통해 표출하고자 한다.

성북1동 청사 및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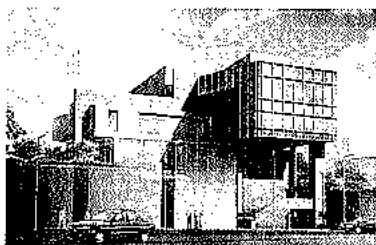
Administration Office and
Parking Building of
Sungbuk 1Dong

성북구청은 성북1동 주민들을
위한 대민 행정 공간 및 주민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성북1동 청사 및 주차장 현
상설계경기를 실시, 총 59개 작품이 접
수된 가운데 당선작에 위가건축사사무
소(김은경)안, 우수작에 종합건축사사
무소 단우, 모람(임홍래)안, 가작에
(주)그림한건축사사무소(김한일)안, 그
리고 장려에 광장살연(성경란), 한메건
축(이충기), 삼간건축(정진오), 예조건
축(김영덕)안을 각각 선정 지난 2월 19
일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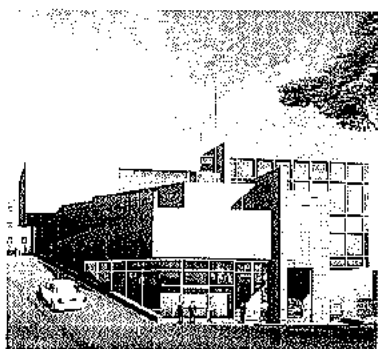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안영배(서울시립대), 이호진
(건국대), 박용환(한양대), 이리형(한양
대), 최재인(도시건설기술(주)) 강석원
(그림가건축), 공무원 2명, 구의원 1명.

▶ 당선작 / 위가건축사사무소(김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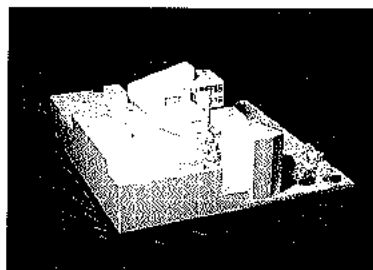


투시도 1



투시도 2

위치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1가 117-
1, 188-15, 188-18, 188-15
대지면적 820.2㎡(240.12평)



모형도

도로현황 북동측 35m도로, 남서측 8m도
로
건물규모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2,311㎡(699평)
건축면적 443㎡(134평)
용적률 128.14%
건폐율 54.01%
외부마감 화강석버너구이, 뽕칠마감
주차개요 46대(자차41대, 자상5대)
설비계획 태양열과 심야전기를 이용한 에
너지 절약계획
시설별면적 동청사: 1,051㎡,
주차장: 1,260㎡

배치계획

- 내부공간 및 외부공간 구성을 기존 지형과
조화시켜 조형미 극대화
- 각 공간의 접근성과 효율성 증대
- 거리마당~골목길~마을마당~놀이마당
의 연결구성으로 주민공동의 장소로서의
역할 수행
- 가로공원이 조성되는 전면도로와 경사진
이면도로를 연계시켜, 주민들의 자연스러
운 진출입유도 및 휴게기능의 확대
- 35m도로(전면도로)에 인접한 위치에 주
차장 출입구를 설치하여 동청사 기능과 주
차장기능의 분리유도

공간 및 형태구성

- 성북구의 상징인 삼각산과 성벽의 이미지
도입
- 연속적인 공간의 체함에 부응하는 형태계
획
- 면의 중첩으로 공간의 위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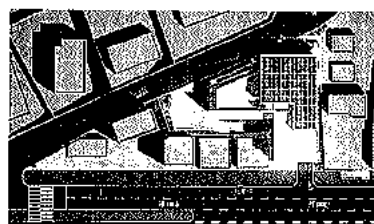
평면 및 동선계획

- 평면계획: 개방적 공간계획으로 딱딱한 관
공서 이미지 탈피
- 동선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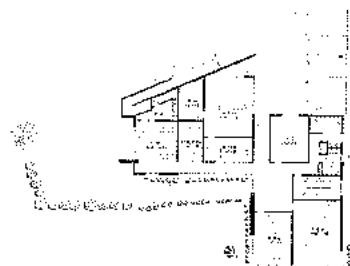
- 주민: 경사지를 이용하여 도로에서 지상1
층, 2층으로 직접 진입, 옥외계단과
램프를 이용하여 지상2층, 3층으로
직접 진입.
- 직원: 내부계단을 두어 효율적 수직동선
으로의 역할
- 동선 및 층별계획도
- 놀이마당: 주민마당의 확장된 개면 및 3
층 시설이용에 출가능 부가
- 3층부진입: 주민이용시설은 주말이나 휴
일에도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
하도록 계획
- 2층부진입: 동대본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계
획
- 2층주진입: 민원인 동선과 분리된 직원전
용 출입구
- 1층주진입: 주민마당과 인접하여 개방감
확보
- 1층부진입: 전면도로에서 용이한 진입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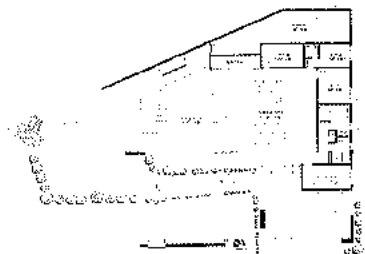
- 매스의 분절로 중압감 해소
- 경사지와 조화시킨 사선면의 계획으로 시
각적 상승감 형성
- 상층부: 유리등 투명한 느낌의 외장재료를
사용하여 도시적 이미지 부여
- 하층부: 단단적 면의 구성으로 시각적 개
방감 확보와 진입부의 깊이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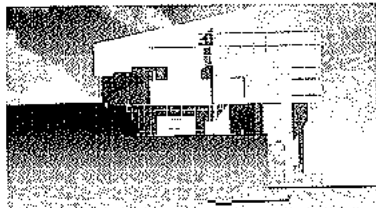
배치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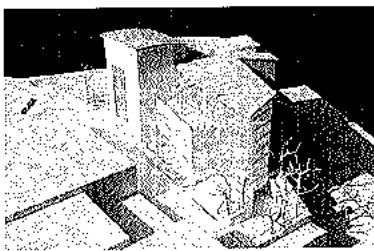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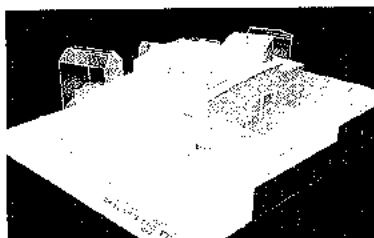


남동쪽 입면도

▶ 우수작 / 종합건축사사무소 단우, 모람(임용래)



모형도 1



모형도 2

위치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1가 117-1 외 3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미관4종 지구
 대지면적 820.2㎡(248평)
 도로현황 전면 30m도로, 후면 6m도로
 연면적 2,099.07㎡(634.9평)
 건축면적 484.83㎡(146.6평)
 건폐율 59.1%
 용적율 194.8%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층수 지하1층, 지상4층
 최고높이 20.7m
 외부마감 회강석 버너구이 + 드라이비트

+ T24 컬러복층유리
 설비개요 기계: 난방, 위생, 소화
 전기: 전동, 전열, 약전
 주차개요 총 29대(민원인용: 14대, 주민
 용: 15대)
 조경개요 135㎡

배치계획

- 부지 주변과의 Context 연계 고려
- 주변 주택가와 연계동선 도입(골목길 도입): 전면 30m 도로와 후면 6m 도로 연결
- 도시축을 형성하는 전면도로와 후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전후면에 대해 개방성을 갖도록 시설을 배치
- 저층부에 주차장, 상층부에 기능에 따른 공간으로 영역 구성
- 전후면 고저차인 10여 m를 주차장과 보행통로 계단(골목길)으로 극복
- 사람: 전면 30m도로에서 직접 진입하기 보다는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 후면과 측면으로 진입 유도
- 차량: 전면 30m 도로에서 진입(주민용), 후면 6m도로에서 진입(민원인용)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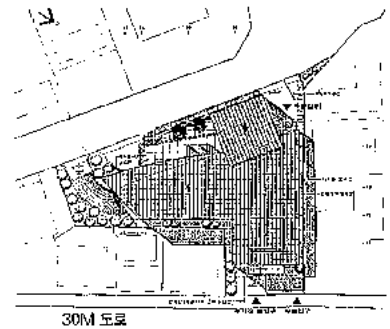
- 기능적 구분에 의한 영역성 확보와 공간제공
- 동청사의 중심공간인 민원실을 건물 중앙에 배치
- 지하 주차장을 민원인용과 주민용으로 구분 사용의 효율성 추구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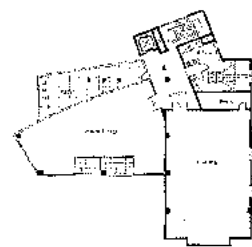
- 주변 주택들과 어울리는 친근감 있는 형태,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기존 입면구성 탈피, 지붕의 형태를 곡선으로 처리
- 적절한 형태의 변화로 동청사로서의 상징성 부여
- 재료(유리, 돌, 스틸, 드라이비트 등)의 대비에 의한 조형성 추구
- Mass의 상호 관입에 따른 입면의 다양성 유도
- 빛의 유입에 따른 명암 효과 표출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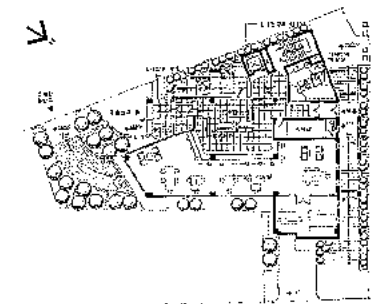
- 북측 보행통로(골목길)를 이용하여 10m 이상인 고저차를 극복
- 기능에 따른 공간의 위계적 분리
- 자연채광의 적극적 유입 (Energy Saving: 남쪽유리, 북쪽벽면)
- 적정 실내천정고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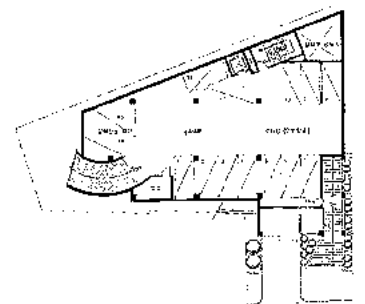
배치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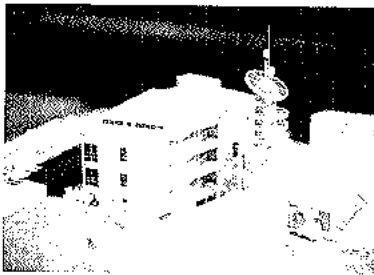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가작 / (주)그룹한건축사사무소(김한일)



모형도

대지위치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1가 117-1, 188-15, 188-18, 186-15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미관 4종 지구
 대지면적 820㎡(약 248평)
 도로현황 30.6m
 연면적 2,020.22㎡
 건축면적 454.57㎡
 건폐율 55.44%
 용적률 184.50%
 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층수 지하1층, 지상4층
 최고높이 17.7m
 외부마감 화강석 + 16mm 복층유리
 설비개요 팬코일난방, 팩케지냉방, 수변전 설비
 주차개요 지하1층: 11대, 지상1층: 15대
 조경개요 270㎡(32.9%)
 설계담당 김원영, 유태성, 양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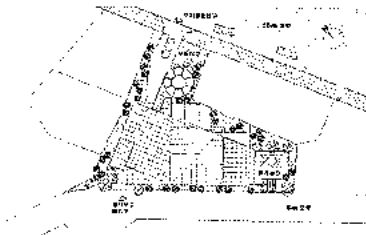
본 계획안은 성북1동 주민들을 위한 친절 봉사 행정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충분한 사무공간을 확보하는데 의의를 두도록 했다. 또한 주민 주차시설도 함께 계획하여 지역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한다.

계획 대지는 동쪽의 미관 도로와 접한 길이가 협소하고 축대 위에 건물이 세워진 인접 대지와의 충분한 이격 거리를 고려해서 주출입구는 서쪽 6m도로에서 진입하도록 했다. 대지 주변에는 낮은 주택들이 경관으로 보이고 있다. 대지의 조건들을 효율성있게 활용하여 건물 배치를 하고 서쪽에 주출입구와 미관 도로변의 원형 계단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편리하게 하면서 동시에 가로변 미관에 일조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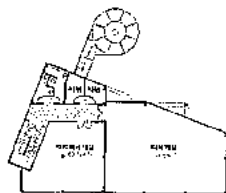
주차시설의 이용은 보행자 동선과 분리하여 미관 도로변에서 출입이 이루어지고 7.1m의 대지 고저차를 이용하여 지하1층과 지상

1층에 각각 11대, 15대의 주차장을 제안했다. 건물은 전체적으로 밝은 색을 사용하여 이용자와 주민들에게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하며 부분적인 커튼월의 도입으로 개방감과 변화를 주었다. 또한 구조적인 기둥의 노출은 건물을 한결 세련되게 하고 기능적으로 충실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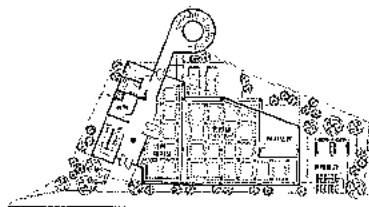
대지내의 옥외 휴게 공간을 두어 주민들과 친밀성을 높이고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되도록 배려했으며, 인접 대지와와 경계에 녹음을 배치하여 소음과 시선의 차단이 되게 했다. 마관 도로변에서 접근하는 보행자들을 위한 원형 계단은 미래 지향적인 청사의 역할을 상징하고 녹지 공원에서의 조형물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여유롭게 하고 활기를 불어 넣어줄것을 기대하면서 계획안을 마무리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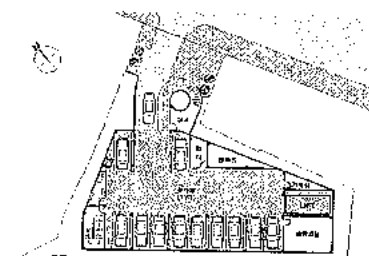
배치도



4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산업디자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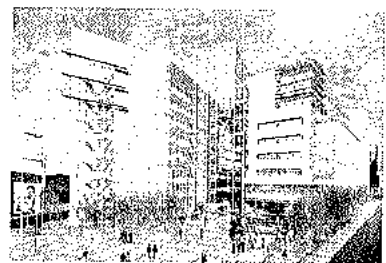
Industrial Design Center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은 산업디자인센터의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총 16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당선작에 회림건축(이영희)안, 우수작에 우일건축(이규창)+무명건축(안길원)안, 가작에 정림건축(김정철)안과 삼우설계(박승+한상목+김창수)안을 각각 선정 지난해12월 11일에 그결과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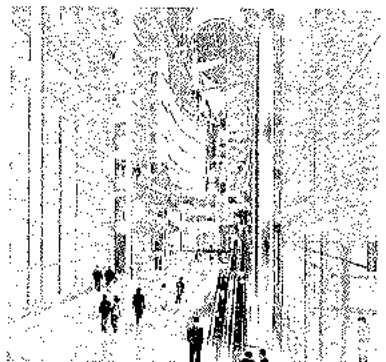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안영배(서울시립대), 조영제(서울대), 홍성목(서울대), 조창한(경희대), 임창복(성균관대), 심우갑(서울대), 백만기(통상산업부), 김명생(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장석웅(아도무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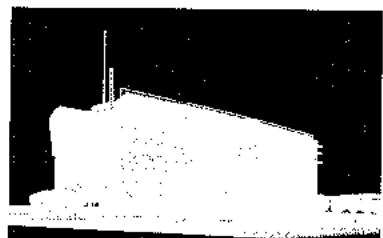
▶ 당선작 / 회림건축(이영희)



남동측 투시도



내부 투시도



모형도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344
 지역지구 중심상업지구, 도시설계지구, 주차장정비지구
 건축면적 6,971.70㎡(2,109평)
 연면적 78,334㎡(23,696평)
 건폐율 64.80%
 용적률 403.04%
 계획총괄 이영희, 이석문, 정영균
 계획담당 지광석, 장운규, 윤정현, 강미선
 계획 현상민, 박경운, 이영주, 배혜경
 프라젠테이션 김동춘, 이형숙, 김희호, 변미경, 이은희, 문희

산업디자인센터는 국내유일의 산업디자인 전문진흥기관으로서의 상징성과 인지도 확보를 위한 Landmark로서의 조형성 및 개방적인 이미지 구현 등을 주요 이슈로 계획되었다.

전체 배치개념으로는 탄천의 흐름을 수용한 분당전체의 자연축과 도시내의 격자축을 동시에 수용하였으며, 차량접근을 고려한 서측 입면의 강조와 보행접근을 고려한 남동측의 정면성 확보 및 디자인플라자 조성, 탄천과의 연계를 위한 Bridge설치 등으로 개방성과 연계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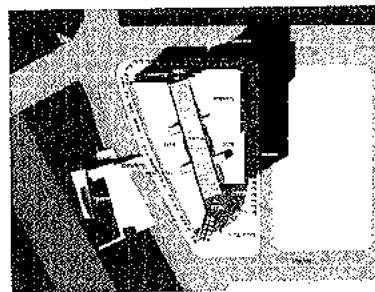
또한 본 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결정적 요소인 단계별 개발을 고려하여 Construction Joint로서 아트리움을 설정하였다. 이 시설이 수행하여야 하는 주요기능을 그 연관성에 따라 디자인 감상(Appreciation), 정보(Information), 교류(Exchange & Communication), 체험(Imagination), 교육(Education), 개발 및 제작(Development & Production), 판매(Marketing)로 재구성하여 전체시설을 계획하였다.

일반인의 빈번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설들은 저층부에 설치하여 아트리움의 에스컬레이터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층부에는 관련업무시설 및 교육관련시설을, 상층부에는 전문가교류공간을 배치하여 동선을 명확히 해결하였다.

특히 본 건물의 중심공간인 아트리움은 전면 광장에서 연장된 개방된 내부공간으로, 동선 공간으로 뿐 아니라 상설홍보관, 이벤트 및 전시공간으로의 기능을 수용하면서, 다양한 디자인 정보를 제공하는 Information Box

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체험장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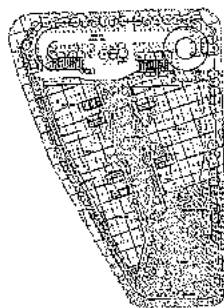
본 프로젝트의 주 개념중 하나인 서측입면의 Media Wall은 도시와 대응하는 Landmark로서의 가로벽 역할과 다양하고 불규칙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의 벽(Information Wall)으로 가능하며, 동시에 도시속의 하나의 정보당어리로서 다양한 이미지로 변화하며 도시환경을 이해하고 발견해나가는 하나의 예술행위로서의 Performance Wall로 작용한다. 또한 투명, 반투명을 전기적 장치에 의해 조절하여 서측의 강한 일사량을 조절하는 이중벽효과로 에너지 컨트롤의 역할을 하게 된다.



배치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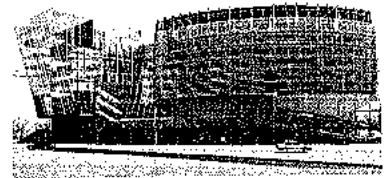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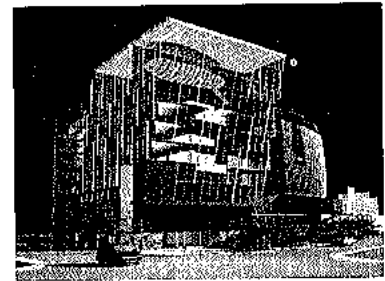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 우수작 / (주)우일건축+(주)무영건축(안길원)



투시도 1



투시도 2



내부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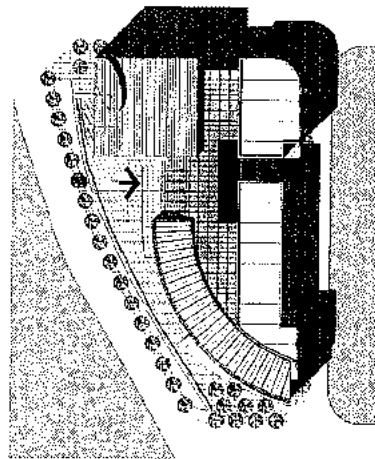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344
 지역지구 중심상업지역, 도시설계지구,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10,705.8㎡(3,238.5 평)
 도로현황 북측 5m도로, 남측 및 서측 20m도로, 동측 15m 도로
 연면적 80,352㎡(24,306평)
 건축면적 9,291㎡(2,811평)
 건폐율 86.8%

용적률 470.6%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4층, 지상8층
 외부마감 THK24컬러복층유리 THK12투
 명강화유리-Metal Panel
 주차개요 총 889대
 - 지상: 89대(장애자용 10대 포
 함)
 - 지하: 800대(기계식주차 300
 대 포함)

한국디자인센터의 기본설계방향은 먼저 산업디자인센터로서의 성격부여와 지역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데 있다. 그리고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산업디자인계의 전진기지를 상징하는 미래지향적인 조형성을 창출하고 회의, 전시, 이벤트 등 각종행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 및 동선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기본설계방향 아래 산업디자인센터 건립목적은 최첨단의 IB시스템을 갖춘 인텔리전트 빌딩을 만들자는데 있다.

본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시 된 것은 창조성과 기술혁신을 상징하는 장소로서 산업디자인센터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에 건물디자인은 1, 2단계의 두가지 단계 공사를 반영하는 두 개의 조형적인 매스로 시작했다. 서쪽지역의 탄천과 넓은 전원, 그리고 동쪽지역의 인지성을 감안하여 탄천 쪽을 향한 시각적인 개방감을 고려하였고 부드러운 곡선과 역동적인 형태를 매스로 구성하여 동쪽지역의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도시환경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배치계획에 있어 주진입로는 지상층 오픈스페이스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도로 레벨 위 5m에 설치하였다. 이 광장은 지상층에서 주차장의 드림오프, 편의시설과 각종 식당 등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돕고 인접한 서쪽도로와 분리하여 넓고 안정된 건물의 옥외 광장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서쪽으로는 개방된 공간을 제공한다. 건물로 들어오는 방문객들은 남쪽과 북쪽에 각각 계획된 램프와 계단을 따라 자연스럽게 광장에 도착하게 된다. 그리고 주진입로의 크고 붉은색의 캐노피가 8층 높이의 웅장한 아트리움으로서 방문객을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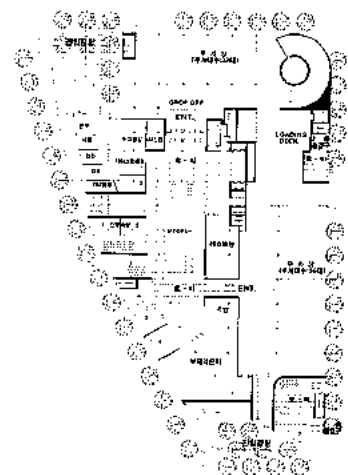
연스럽게 인도한다. 이 아트리움은 자연 친화적인 건축계획의 일환으로 충분한 자연채광효과를 제공하고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디자인센터의 전시실, 박물관, 연회장, 이벤트홀, 국제회의장 등은 많은 수의 관람객의 집중이 예상되는 시설에 진출입 편의를 제공한다. 램프,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엘리베이터들은 각 층간의 기능연계를 위하여 각 층의 시설을 자연채광과 중심 부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지상 3층 이상의 사무실 층은 6개층이 오픈된 아트리움을 계획하여 각층의 사무실에 자연채광을 제공하고 각 층간의 시각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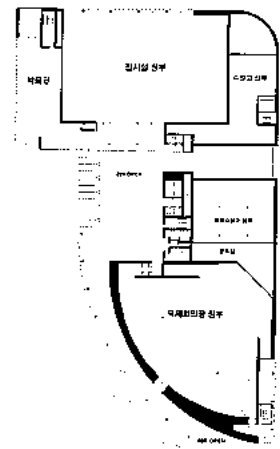
배치도



8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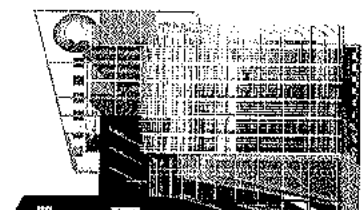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서측 입면도



남측 입면도

설계도서신고현황

98년도 2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2월분 7백6십만1천3백11㎡ 보다 24.0%(1백8십2만5천8백71㎡) 감소한 5백7십7만5천4백40㎡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2월분 1천5백2십만3백61㎡ 보다 16.4%(2백4십9만3천1백11㎡) 감소한 1천2백7십만7천2백50㎡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1월분 6백9십3만1천8백10㎡보다 16.7%(1백1십5만6천3백70㎡) 감소한 5백7십7만5천4백40㎡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97년도	1998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울 산	0	22,830	22,830	-
강 원	99,468	139,595	40,127	40.3%
충 북	196,243	256,850	60,407	30.8%
경 북	142,905	196,444	26,539	18.6%
감소지역				
서 울	3,648,565	3,609,232	(39,333)	-1.1%
부 산	307,687	168,698	(138,989)	-45.2%
대 구	793,407	62,546	(730,861)	-92.1%
연 천	435,686	44,872	(390,814)	-89.7%
광 주	414,566	158,264	(256,302)	-61.8%
대 전	87,005	37,296	(49,709)	-57.1%
경 기	637,014	466,558	(170,456)	-26.8%
충 남	118,604	100,720	(17,884)	-15.1%
전 북	50,605	36,777	(13,828)	-27.3%
전 남	99,174	54,504	(44,670)	-45.0%
경 남	535,079	431,933	(103,146)	-19.3%
제 주	35,303	15,521	(19,782)	-56.0%
합 계	7,601,311	5,775,440	(1,825,871)	-24.0%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연면적 기준)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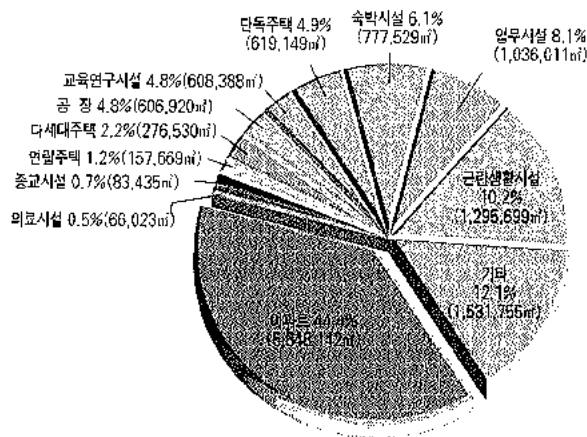
단 독 주 택	424,356 194,793 (-54.1%)	
다 세 대 주 택	213,009 (-70.2%) 63,521	
연 립 주 택	76,452 81,217 (6.2%)	
아 파 트		2,678,698
근린생활시설	827,364 (-43.4%) 468,335	2,959,444 (10.9%)
종 교 시 설	62,887 (-67.3%) 20,548	1월
의 료 시 설	17,564 (175.9%) 48,459	2월
교육연구시설	221,181 (75.1%) 387,207	연면적 합계/ 1월 : 6,931,810㎡ (-6.7%) 2월 : 5,775,440㎡
업 무 시 설	460,093 (25.2%) 575,918	
숙 박 시 설	674,104 (-84.7%) 103,425	
공 장	307,346 (-2.5%) 299,574	
기 타	968,756 (-41.9%) 562,999	

(연면적/단위 :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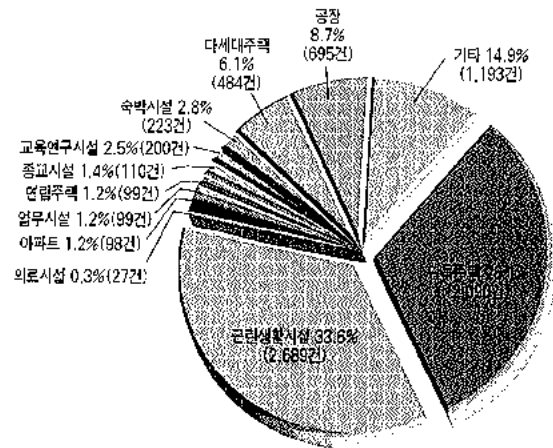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2월분)

구분	1997년			1998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용도											
단 독 주 택	1,864	1,927	549,645	670	701	194,793	(1,194)	(1,226)	(354,852)	-64.6	
다 세 대 주 택	324	339	177,784	116	125	63,521	(208)	(214)	(114,263)	-64.3	
연 립 주 택	67	71	91,982	42	42	81,217	(25)	(29)	(10,765)	-11.7	
아 파 트	75	143	3,153,613	45	150	2,969,444	(30)	7	(184,169)	-5.8	
근린생활시설	2,298	2,356	1,229,676	1,014	1,032	468,335	(1,284)	(1,324)	(761,341)	-61.9	
종 교 시 설	79	91	66,958	38	49	20,548	(41)	(42)	(46,410)	-69.3	
의 료 시 설	16	17	99,320	13	13	48,459	(3)	(4)	(50,861)	-51.2	
교육연구시설	80	96	201,769	104	112	387,207	24	16	185,438	91.9	
업 무 시 설	68	71	551,618	50	57	575,918	(18)	(14)	24,300	4.4	
숙 박 시 설	116	128	155,251	92	96	103,425	(24)	(32)	(51,826)	-33.4	
공 장	497	682	605,103	282	382	299,574	(215)	(300)	(305,529)	-50.5	
기 타	597	652	718,592	489	590	562,999	(108)	(62)	(155,593)	-21.7	
합 계	6,081	6,573	7,601,311	2,955	3,349	5,775,440	(3,126)	(3,224)	(1,825,871)	-24.0	()=미아나스

용도별 구성비(1998년 2월분)



연면적 (총 12,707,250㎡)



건수 (총 8,007건)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2월분)

구분	1997년			1998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1,095	1,114	3,648,565	597	601	3,609,232	(498)	(513)	(39,333)	-1.1	
부산	306	418	307,687	68	129	168,698	(238)	(289)	(138,989)	-45.2	
대구	392	393	793,407	65	65	62,546	(327)	(328)	(730,861)	-92.1	
인천	176	180	435,686	71	71	44,872	(105)	(109)	(390,814)	-89.7	
광주	663	713	414,566	166	207	158,264	(497)	(506)	(266,302)	-61.8	
대전	187	193	87,005	54	54	37,296	(133)	(139)	(49,709)	-57.1	
울산	0	0	0	41	44	22,830	41	44	22,830	-	
경기	1,007	1,103	637,014	535	643	466,558	(472)	(460)	(170,456)	-26.8	
강원	282	310	99,468	255	283	139,595	(27)	(27)	40,127	40.3	
충북	333	398	196,243	183	234	256,650	(150)	(164)	60,407	30.8	
충남	217	170	118,604	133	113	100,720	(84)	(57)	(17,884)	-15.1	
전북	101	101	50,605	60	60	36,777	(41)	(41)	(13,828)	-27.3	
전남	220	250	99,174	116	121	54,504	(104)	(129)	(44,670)	-45.0	
경북	266	312	142,905	218	235	169,444	(48)	(77)	26,539	18.6	
경남	738	817	535,079	348	433	431,933	(390)	(384)	(103,146)	-19.3	
제주	98	101	35,303	45	56	15,521	(53)	(45)	(19,872)	-56.0	
합계	6,081	6,573	7,601,311	2,955	3,349	5,775,440	(3,126)	(3,224)	(1,825,871)	-24.0	()=마이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2월 누계)

구분	1997년			1998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2,743	2,755	6,866,102	1,370	1,380	7,147,051	(1,373)	(1,395)	280,949	4.1	
부산	1,105	1,555	1,521,616	594	905	981,856	(511)	(650)	(539,760)	-35.5	
대구	677	678	965,598	109	109	144,344	(568)	(569)	(821,254)	-85.1	
인천	567	586	949,891	196	203	285,350	(371)	(383)	(664,541)	-70.0	
광주	749	817	482,161	225	280	214,284	(524)	(537)	(267,877)	-55.6	
대전	325	336	176,286	232	232	192,238	(93)	(104)	15,592	9.0	
울산	0	0	0	103	106	77,880	103	106	77,880	-	
경기	2,126	2,411	1,399,294	2,656	2,991	1,634,579	530	580	235,285	16.8	
강원	512	564	184,986	424	473	222,056	(88)	(91)	37,070	20.0	
충북	569	735	490,851	375	482	572,746	(194)	(253)	81,895	16.7	
충남	522	403	395,585	271	233	154,812	(251)	(170)	(240,773)	-60.9	
전북	209	209	234,330	116	116	71,334	(93)	(93)	(162,996)	-69.6	
전남	437	485	215,134	192	203	92,478	(245)	(282)	(122,656)	-57.0	
경북	575	665	286,708	443	495	300,116	(132)	(170)	13,408	4.7	
경남	1,265	1,456	936,667	601	735	582,557	(664)	(721)	(354,110)	-37.8	
제주	194	213	95,152	100	124	33,569	(94)	(89)	(61,583)	-64.7	
합계	12,575	13,888	15,200,361	8,007	9,067	12,707,250	(4,568)	(4,821)	(2,493,111)	-16.4	()=마이너스